

2021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획 포럼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일시 2021. 11. 18 (목) 오후 2시

장소 공간 새길(서울 중구 통일로 114 B101호, 바비엡-2)



기독교반성폭력센터

2021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획포럼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여론조사 결과발표

진행 순서 및 목차

■ 기자회견

-
- | | | | | |
|-------|--------|-----------|--|----------------|
| 14:00 | ■ 경과보고 | 정성규 집행위원장 |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 14:03 | ■ 취지발언 | 박유미 공동대표 |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 14:10 | ■ 총평 | 권미주 교수 |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

■ 포럼

-
- | | | | | |
|-------|-------------------------------|----------|------------------|------|
| 14:20 | ■ 인트로 영상 | | | |
| 14:23 | ■ 결과발표 1. 한국 개신교인의 성인지 감수성 | 정재영 교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 4P |
| 15:00 | ■ 결과발표 2.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성인지 감수성 | 권미주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 26P |
| 15:30 | ■ 발제 1. 구약을 통해 본 성폭력 범죄 처벌 | 박유미 공동대표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47P |
| 15:45 | ■ 발제 2.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 홍보연 원장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원장 | 56P |
| 16:00 | ■ 질의 응답 | | | |
| 첨부 1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 | | 59P |
| 첨부 2 | 여론조사 질문지 | | | 183P |

결과 발표 1.

한국 개신교인의 성인지 감수성

정재영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한국 교계에서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교회의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언제나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수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봉사 및 구제 활동’이 1위였지만 최근에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자리를 바꿔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나 윤리와 도덕 문제 중에 성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개신교 신자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성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사의 어두운 면이 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청소년 사역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범죄를 하여 교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범죄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 구조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이다.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왜곡된 의식에 따라서 쉽게 범죄를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가 성 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 문제는 언제나 숨겨진 주제였다. 입밖으로 꺼내기가 민망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자칫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될까봐 염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의 성 범죄는 은밀하게 다루어졌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교회 안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공론화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들만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이제는 성 인식 개선과 성범죄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목회자, 교인들의 성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예방을 위해 어떠한 구조적이고 예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 교회 안의 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 차별적인 언행이나 제도가 개선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구현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 신자들과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각각 조사했는데 이 글에서는 일반 신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자료의 성격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조사는 성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해보고 성 평등 의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2021년 8월 30일 ~ 9월 9일까지 11일에 걸쳐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표본은 전국의 개신교인을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에 무작위로 8백 명을 추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내 성 역할 인식과 교회 안의 성 차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성 관련 인식, 교회 내 양성평등, 설교와 양성평등,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 목사의 성 스캔들에 대한 의견이다. 자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에 첨부한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1>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만19세~65세 교회 출석 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 국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8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성/연령/지역 따른 비례할당*
자료 처리	수집 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1년 8월 30일 ~ 9월 9일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III.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먼저 이번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4.3%, 여성이 55.7%였고, 연령대는 20대 17.7%, 30대 18.7%, 40대 24.2%, 50대 25.0%, 60대 이상이 14.3%였다. 직업은 자영업이 12.5%, 블루컬러 16.2%, 화이트컬러 31.7%, 주부 25.7%, 학생 8.3%였다. 정치 성향은 보수가 29.8%, 중도가 43.4%, 진보가 26.8%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의 신앙 단계를 물어보았는데, “1단계: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고백이나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다. 2단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교회에도 규칙적으로 출석하려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3단계: 나는 예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 나는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편이다. 4단계: 신앙은 나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교회에서의 봉사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뜻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이다.¹⁾ 이것은 신앙 단계와 성 평등 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 결과 1단계 13.5%, 2단계 38.0%, 3단계 21.7%, 4단계 26.8%로 나왔다. 그 밖의 응답자 특성은 <표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2> 응답자 특성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성별	남성	(354)	44.3
	여성	(446)	55.7
연령	19~29세	(142)	17.7
	30~39세	(150)	18.7
	40~49세	(194)	24.2
	50~59세	(200)	25.0
	60~65세	(115)	14.3
지역	서울	(205)	25.8
	경기/인천	(279)	35.0
	대전/충청	(67)	8.4
	광주/전라	(86)	10.9
	대구/경북	(50)	6.2
	부산/울산/경남	(76)	9.6
	강원/제주	(32)	4.1
직업	자영업	(96)	12.5
	블루컬러	(125)	16.2
	화이트컬러	(244)	31.7
	전업주부	(198)	25.7
	학생	(64)	8.3
	기타/무직	(43)	5.6
결혼여부	결혼	(586)	73.2
	미혼	(214)	26.8
교인 수	49명 이하	(95)	11.9
	50~99명	(70)	8.7
	100~299명	(145)	18.1
	300~499명	(93)	11.6
	500명 이상	(397)	49.7
교단	장로교(합동)	(213)	26.6
	장로교(통합)	(213)	26.6
	기타 장로교	(85)	10.6
	기타 교단	(210)	26.3
	잘 모름	(80)	10.0
신앙단계*	1단계	(108)	13.5
	2단계	(304)	38.0
	3단계	(174)	21.7
	4단계	(214)	26.8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9.8
	중도	(347)	43.4
	진보	(214)	26.8

1) 이 문항은 미국 월로크릭 교회에서 교회 진단을 위해 사용한 문항을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에릭 안슨 외, 『월로크릭의 발견』(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을 볼 것.

2. 성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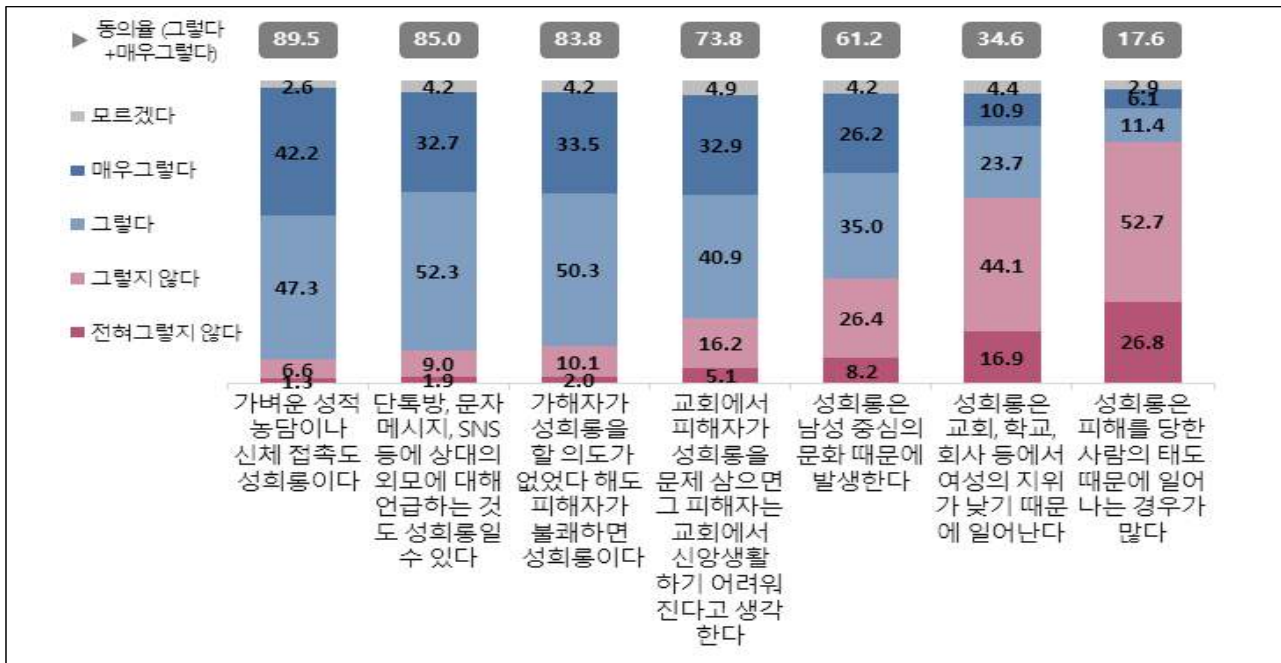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다’에 대한 동의율이 89.5%로 가장 높았고, ‘단톡방, 문자 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85.0%,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 83.8%, ‘교회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그 피해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73.8%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항목은 동의율 17.6%, 비동의율 79.5%로 비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꼽혔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다’, ‘단톡방, 문자 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와 같은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을 경우에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80% 이상의 동의율을 보인 것은 개신교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우려할 만큼 낮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에 동의율이 34.6%인 것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교회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그 피해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의 동의율이 73.8%로 비교적 높게 나와서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성 범죄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를 다수가 보여주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성희롱은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이다’,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 ‘단톡방, 문자 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이다’의 동의율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낮게 나와서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에 대해서는 담임목사가 여성인 경우에 더 높게 나와서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성 목사의 차별적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다’와 ‘단톡방, 문자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이다’에 대해서 중직자들의 동의율이 낮게 나와서 중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 때문’의 동의율은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높고, 비동의율은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1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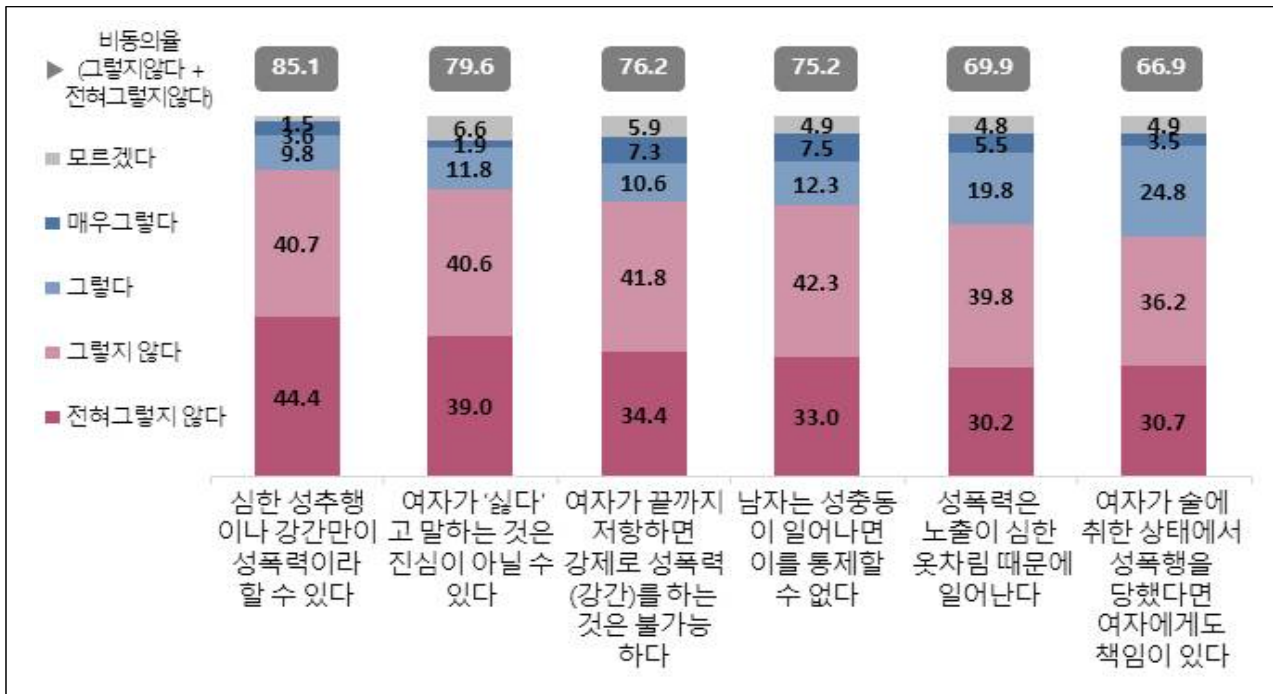
다음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가 가장 많은 8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비동의 79.6%),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비동의 76.2%),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통제할 수 없다’(비동의 75.2%),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비동의 69.9%),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비동의 6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폭력(강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동의율 자체는 낮았지만 남성의 동의율이 높아서 성폭력은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아서 일어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는 많았다.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남성의 비동의율이 낮았고,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남성들의 비동의율이 높아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동의율에서는 차이가 없어서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희롱에 대한 항목과 마찬가지로 직분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통제할 수 없다’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은 직분이 올라갈수록 동의율이 높았다. 또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의 비동의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동의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여자가 ’싫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에 대한 동의율은 모두 60~65세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2]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3. 교회 내 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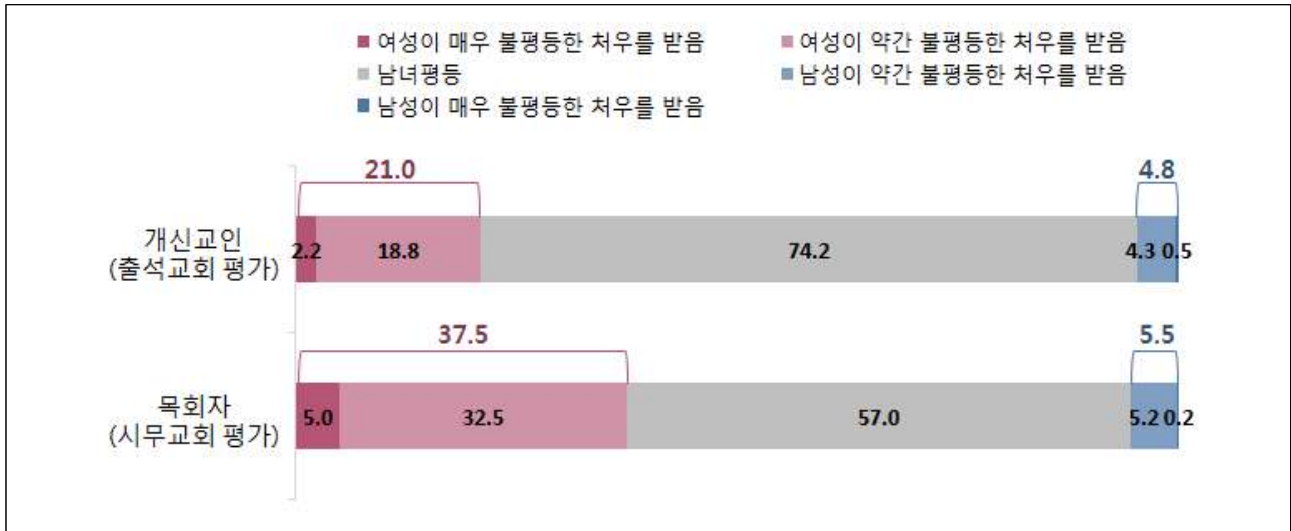
출석 교회의 남녀 평등 수준에 대하여, 일반 신자들의 3/4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여 대체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매우+약간)는 비율은 21.0%로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비율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더 높았고, 4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저연령층이나 고연령층에서는 이 응답률이 낮았다. 그리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평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목회자들은 시무 교회에 대하여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일반 신자들에 비해 더 많았다.

2018년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성 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와 비교하면, 남녀평등이라는 응답이 58.7%에서 15.5%p가 증가했고,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과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모두 줄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 전체의 성 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평등하다’가 57.2%였고, ‘여성이 불평등하다’가 33.3%로 ‘남성이 불평등하다’의 8.9%보다 3배 이상 높았다.²⁾

2) 이에 대하여는 정재영, “성 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송인규 외,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서울: IVP, 2018)을 볼 것.

[그림3] 출석/시무교회의 양성평등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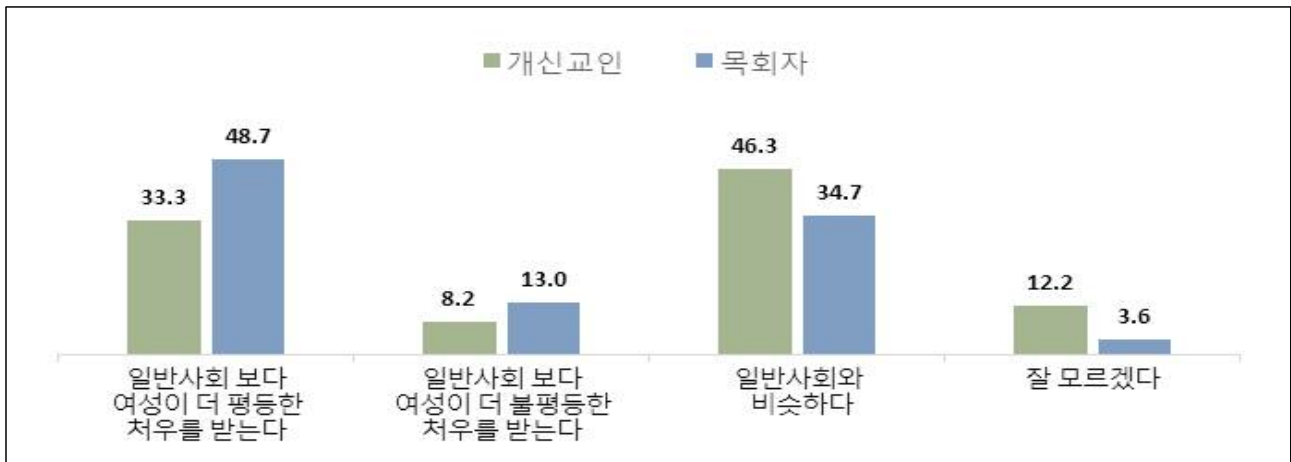


일반사회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는 ‘일반사회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개신교인 중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기타장로교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목회자들은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아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앞의 항목과 비교해보면, 일반 신자들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일반 사회보다 더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래 초기부터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국 교회가 다른 사회 영역에 비해 성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로 불리는 것도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교인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에서 성 차별에 대해서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4] 출석/시무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교회 내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해,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에 대한 동의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이 7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50% 안팎의 동의율을 보였다.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40% 후반대의 동의율을 나타냈으며,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는 40% 중반대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이 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양성 평등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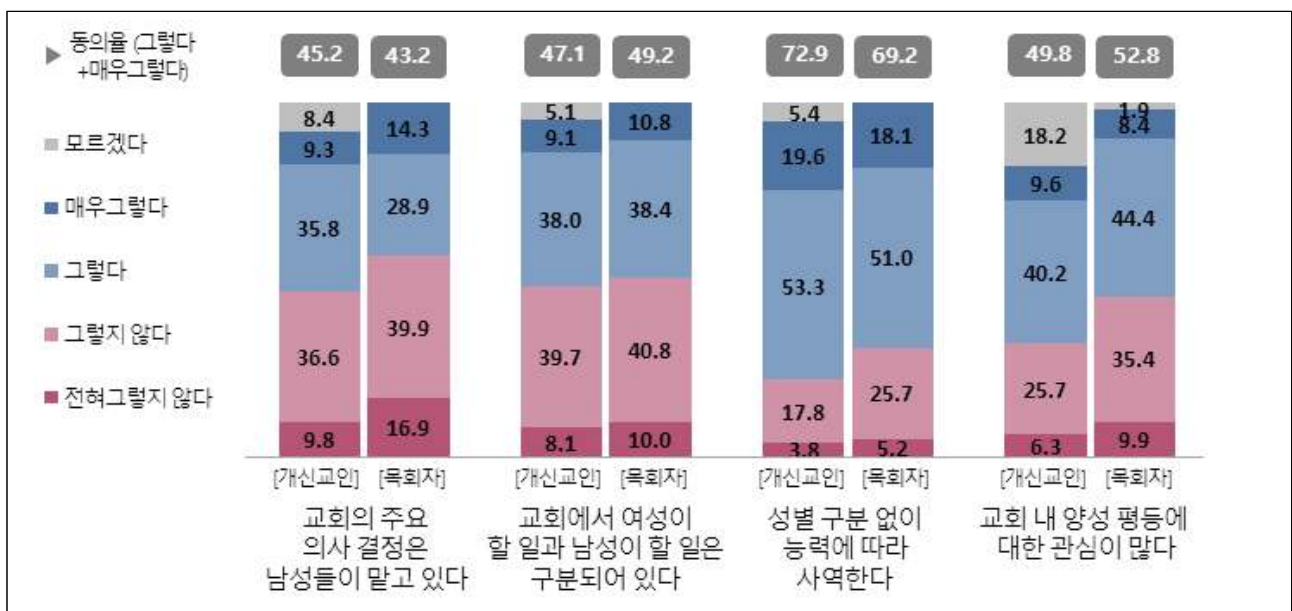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장로는 대부분 남성이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 규범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고른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실제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직분자들이 비직분자들보다 교회 활동에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음’과 ‘교회에서 남녀 할일 구분되어 있음’에 대한 비동의율과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함’에 대한 동의율은 교인 수 50명 미만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교인 수가 적을수록 더 적었다. 이 결과로 보면, 교인 수가 적은 경우에 남녀 구별 없이 일을 하지만 양성 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음’의 동의율은 51.9%에서 6.7%p 낮아졌고, ‘교회에서 남녀 할일 구분되어 있음’도 54.7%에서 7.6%p 낮아졌다. 그런데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응답도 67.8%에서 18.0%p 크게 낮아졌다. 이 조사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5] 출석/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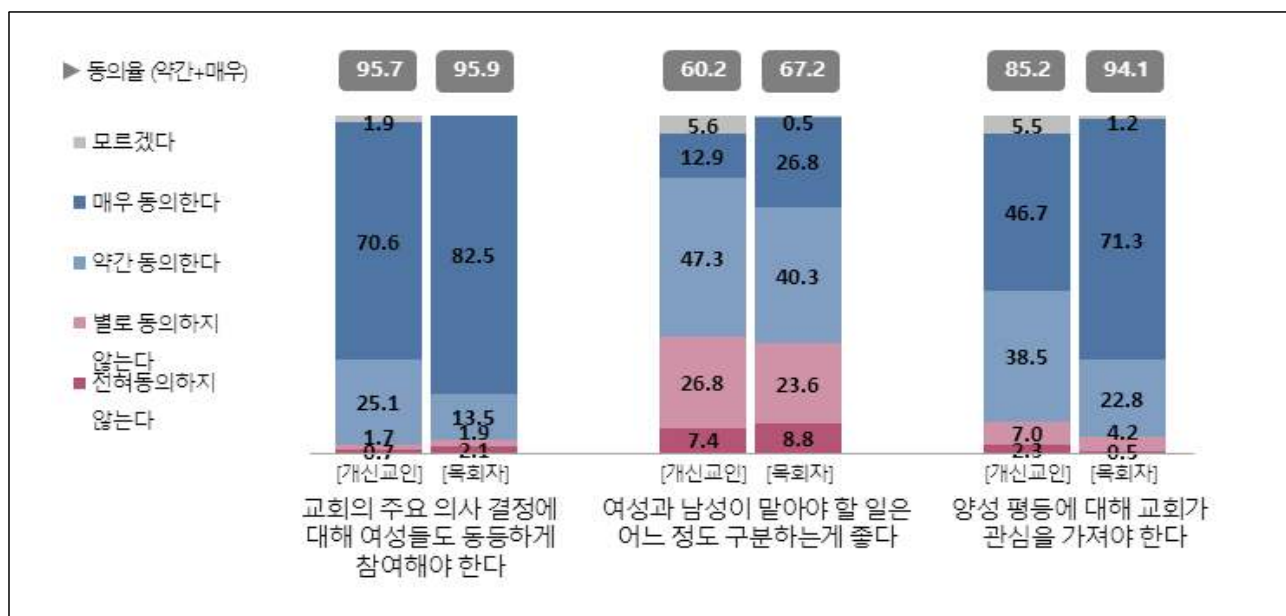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해,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동의 의견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에 대한 동의율(약간+매우)은 일반 신자 60.2%, 목회자 67.2%로 높지 않았지만 목회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도 일반 신자 85.2%, 목회자 94.1%로 목회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신자들 중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의 동의율은 서리집사/중직자에게 높고, 비동의율은 직분 없는 성도에서 높은 특징을 보여 직분자들이 더 전통적인 성 관념을 보였으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동의율이 높았다. ‘양성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와서 직분이 높을수록 더 전통적인 성 관념을 가지고 있고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리고 교인 수 100명 미만 교회에서도 동의율이 낮아서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문제의식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97.6%로 1.9%p 낮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가 90.7%가 나왔는데 문항이 바뀌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조사에서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에 비동의율이 34.2%로 낮게 나온 것은 3년 전에 비해서 더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93.8%에서 8.6%p가 낮아졌다. 따라서 3년 전에 비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6]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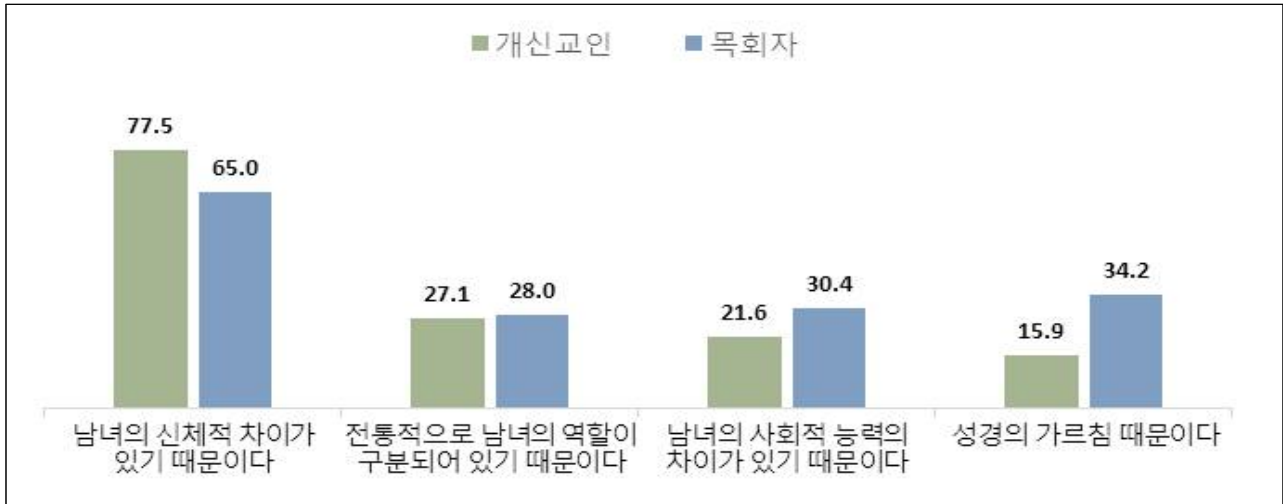
앞서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에 동의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일반 신자들은 목회자들에 비해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사회적 능력 차이보다 신체적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전통적으로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률은 남성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답률도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응답은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아서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해서 더 전통적인 견해를 보

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녀가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 72.0%에서 5.5%p 더 높아졌고, 다른 응답은 모두 줄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요인보다도 생득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다소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기]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Base=‘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함’ 응답자, n=개신교인481, 목회자1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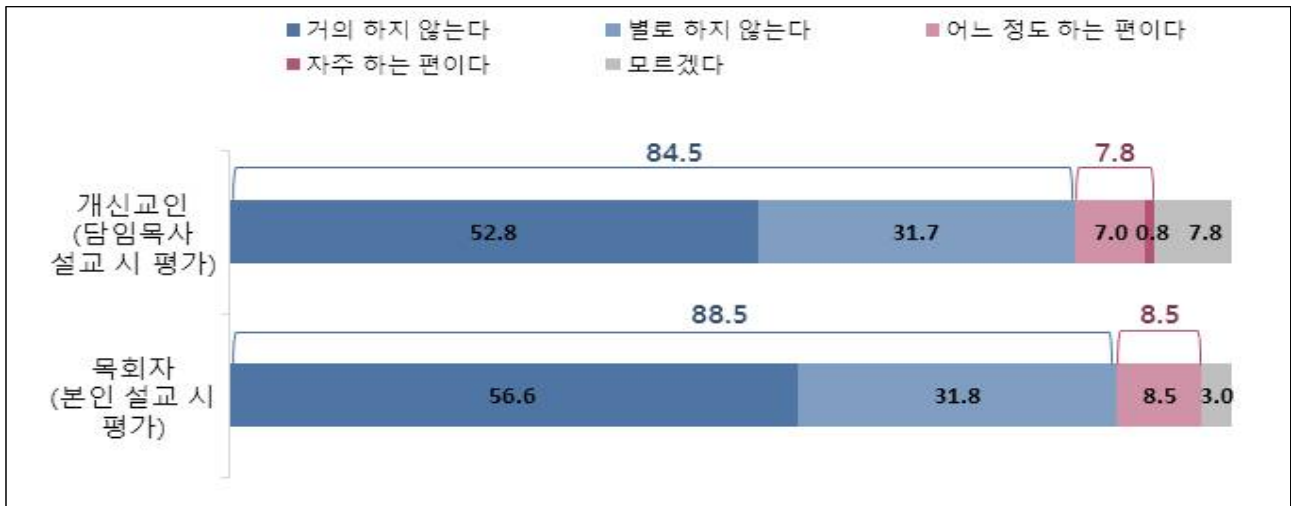


4. 설교와 양성평등

출석 교회의 담임목사가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은 결과, 84.5%가 ‘하지 않는다’(거의+별로), 7.8%가 ‘하는 편이다’(어느 정도+자주)라고 응답했다. 2018년에 86.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고, 직분이 낮고, 신앙 단계가 낮을수록 남녀 차별적 표현을 ‘하는 편’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신앙 단계가 높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교회 문화나 정서 안에서 두드러지게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에, 신앙 단계가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평가할 때 남녀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으로는 경남지역 교회들과 담임 목회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8]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 정도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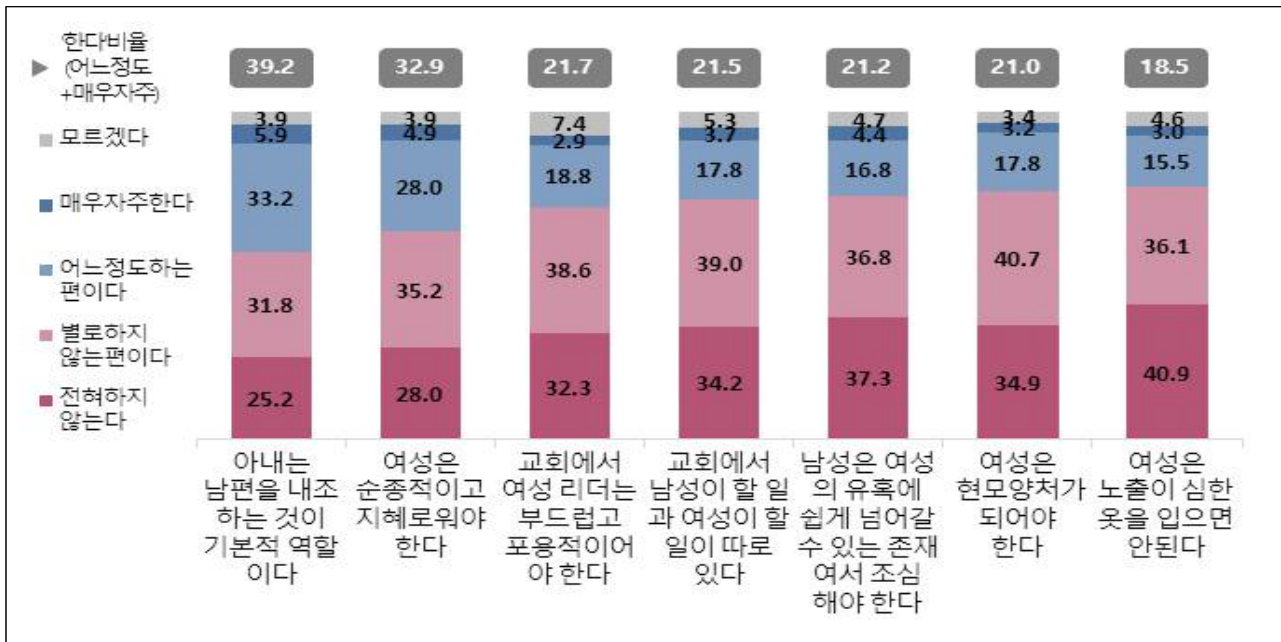


출석 교회의 담임목사가 설교 시 성 차별적인 발언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다’(어느 정도+매우 자주)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열 명 중 네 명 가까이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39.2%) 그 다음으로 ‘여성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가 32.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남성은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여서 조심해야 한다’,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된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비율은 1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설교 때 성차별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데 비해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18년도 조사결과보다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응답이 적게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담임 목회자가 여성이 경우에 응답률이 높게 나와서 여성 목회자 설교 시에 성 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9]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성 차별적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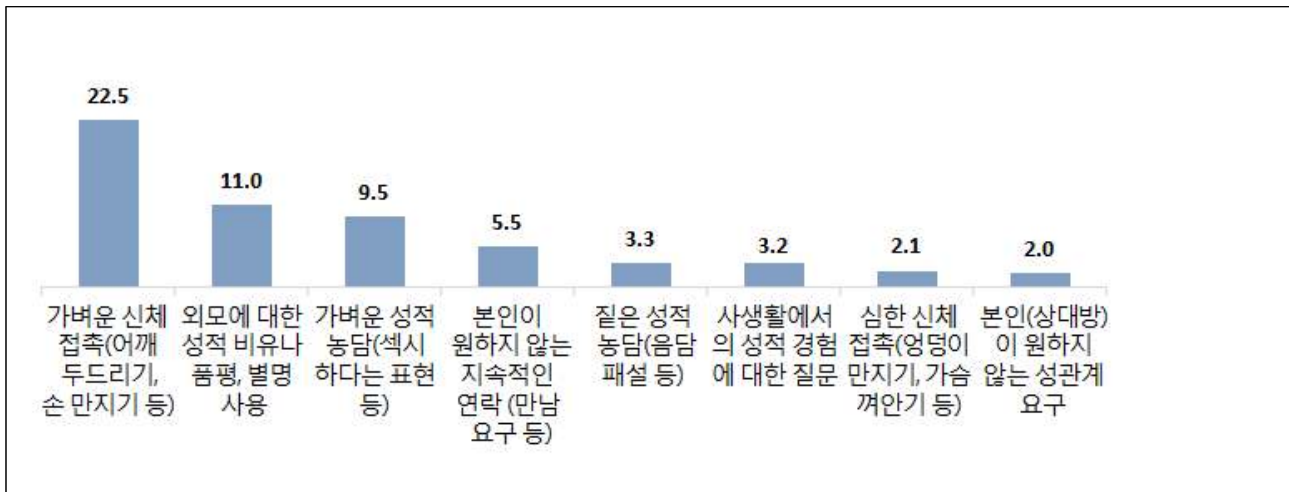
5.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최근 3년 동안 출석 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교인이 피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을 겪은 비율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11.0%, ‘가벼운 성적 농담’ 9.5%,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5.5%, ‘짙은 성적 농담’ 3.3%,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3.2%, ‘심한 신체 접촉’ 2.1%,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2.0%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60~65세 연령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짙은 성적 농담’은 30대에서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고, ‘심한 신체 접촉’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적 피해에 대한 직간접 경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서 여성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을 제외하면, 2018년 조사에서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7%, 성추행이나 성폭행 경험이 있다는 경험이 8.7%가 나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전에는 ‘현재 교회나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성폭행이 일어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3년 동안’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이전 조사에서는 자세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0]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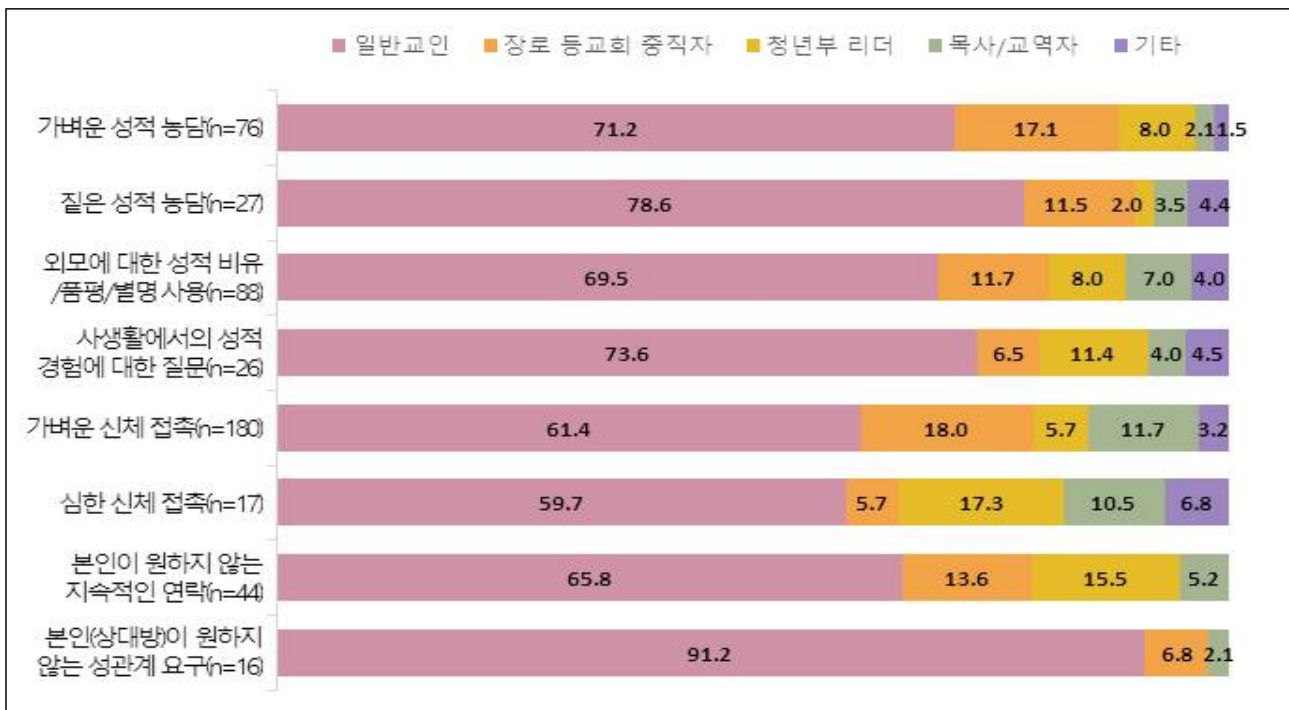
(Base=개신교인, n=800, %)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자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대부분은 ‘일반교인’을 가해자로 답했다. 사례 수가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목사/교역자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가벼운 신체 접촉’(11.7%)과 ‘심한 신체 접촉’(10.5%)에서 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장로 등 중직자’라는 응답은 ‘가벼운 성적 농담’(17.1%), ‘가벼운 신체 접촉’(18.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청년부 리더라는 응답은 ‘심한 신체 접촉’(17.3%),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15.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11]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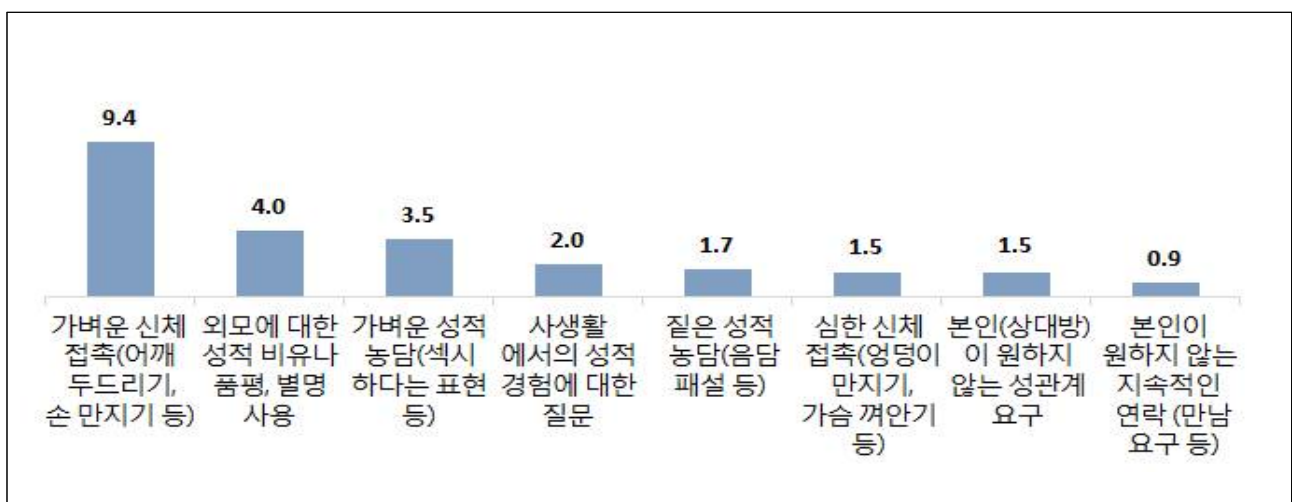
(Base=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 개신교인, %)



최근 3년 동안 본인도 모르게 성희롱/성폭력 가해를 한 경험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피해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9.4%) 그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4.0%, ‘가벼운 성적 농담’ 3.5%,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2.0%, ‘질은 성적 농담’ 1.7%, ‘심한 신체 접촉’,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각 1.5%,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0.9%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해한 경험이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신체 접촉’ 가해 경험률은 남성과 19~29세, 50~5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2]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 경험(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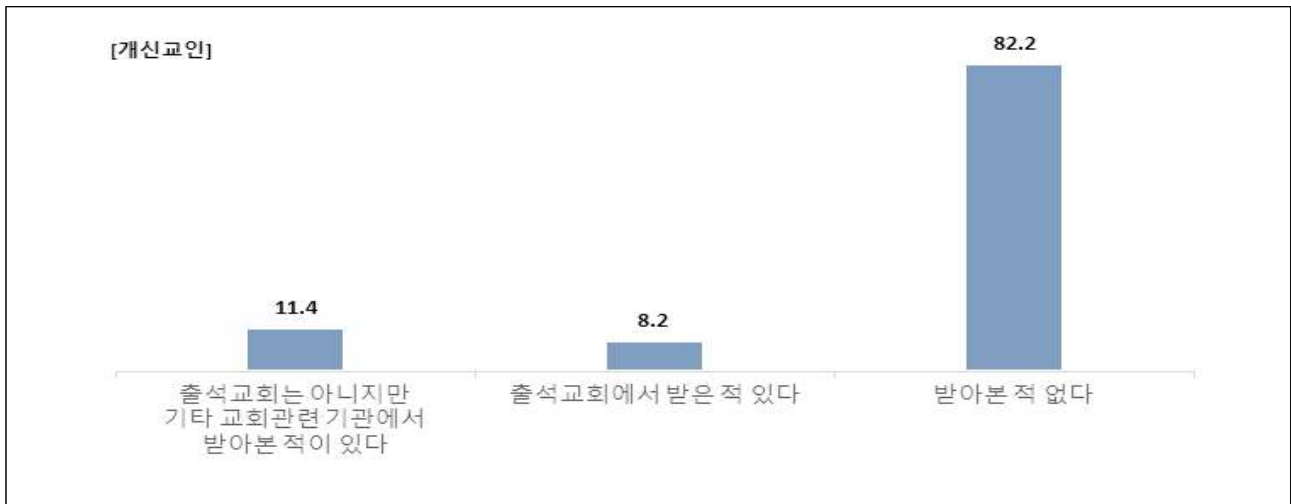
(Base=개신교인, n=800, %)



출석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82.2%가 ‘없다’고 응답했다. ‘출석 교회’에서 받은 비율은 8.2%, ‘출석 교회 외 관련 기관’에서 받은 비율은 11.4%였다. 남성은 ‘교회 관련 기관에서 받은 경험’과 ‘출석 교회에서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받은 적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인 수 300명 이상 교회와 합동 교단 및 통합교단에 속한 개신교인에서 ‘출석 교회에서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3]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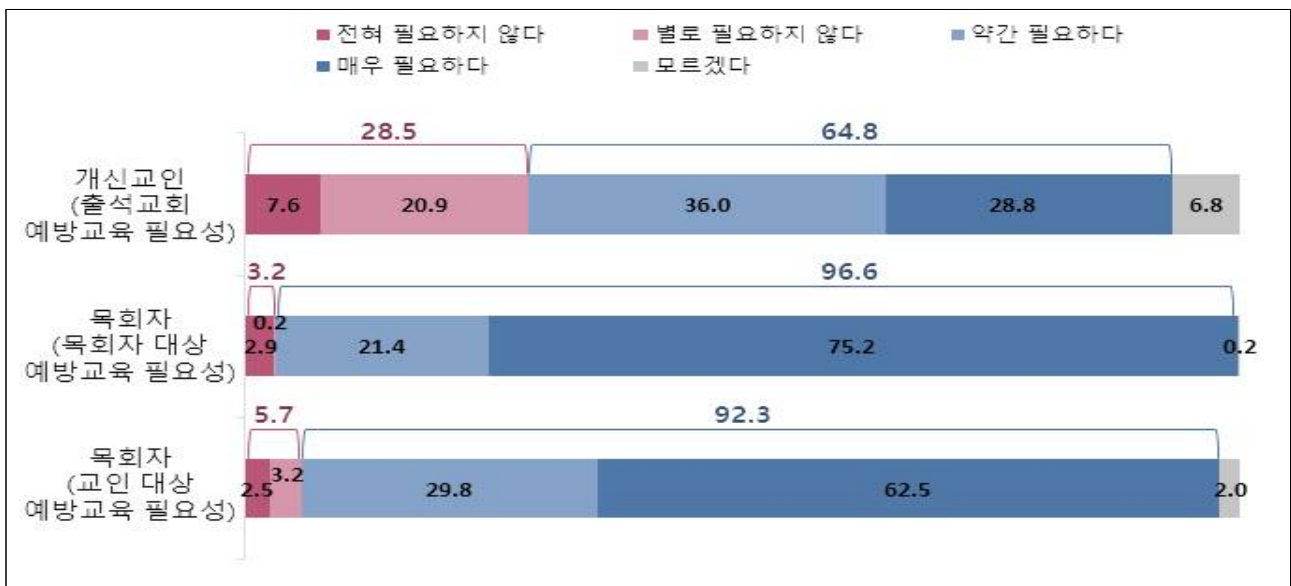
(Base=전체, n=800 %)



출석 교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64.8%가 ‘필요하다’(약간+매우), 28.5%가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고 응답했다. 목회자가 목회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과 교인 대상 예방 교육 필요성 모두 90% 이상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8년 조사에서 70.8%가 나온 것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교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교인 수 50인 이상 교회에서 49인 이하 교회보다 높은 필요성을 비쳤다.

[그림14]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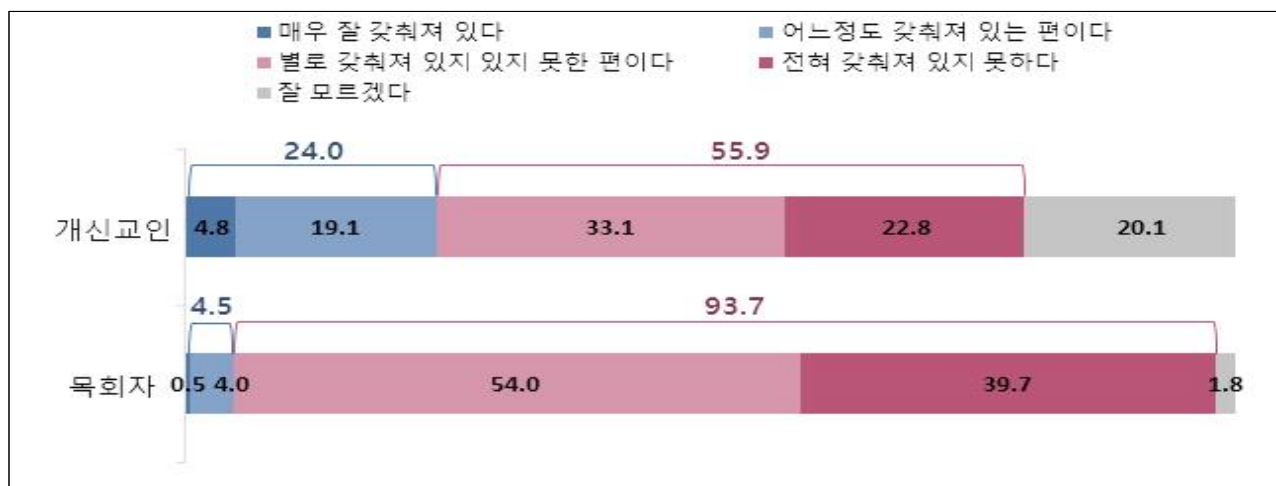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현재 한국교회가 성범죄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개신교인의 24.0%만 ‘잘 갖춰져 있다’(매우+어느 정도)고 평가했고, 55.9%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별로+전혀)고 평가해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한편, 목회자는 거의 모두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93.7%)고 응답해 일반 신자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일반 신자들 중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고, 직분이 높을수록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15]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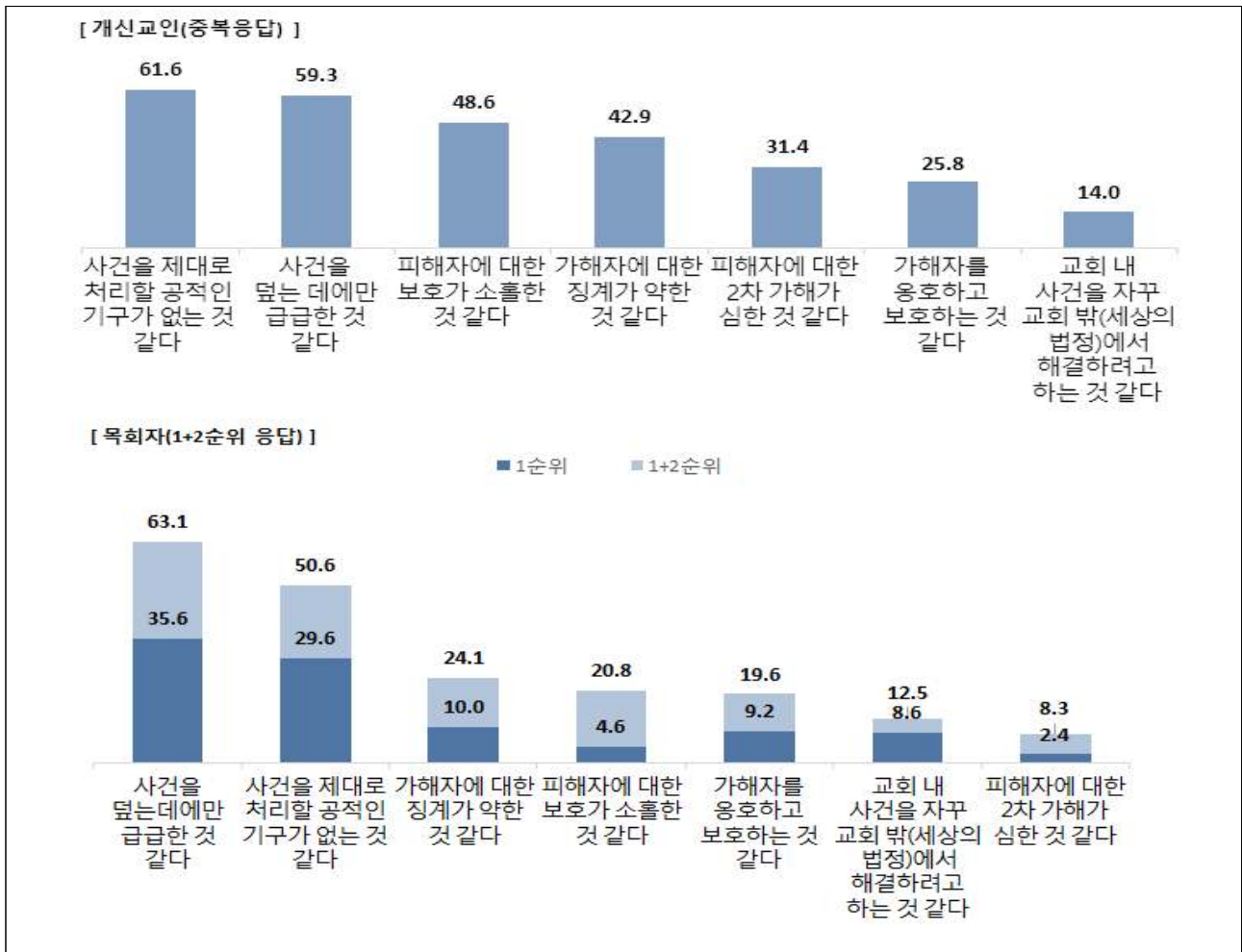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음’(61.6%)과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함’(5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목회자도 비슷했는데, 일반 신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 같다’가 48.6%로 3순위였는데, 목회자는 이 응답이 20.8%로 4순위로 나와서 인식의 차이가 컸다. 대개 성범죄에서 2차 가해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이다.

[그림16]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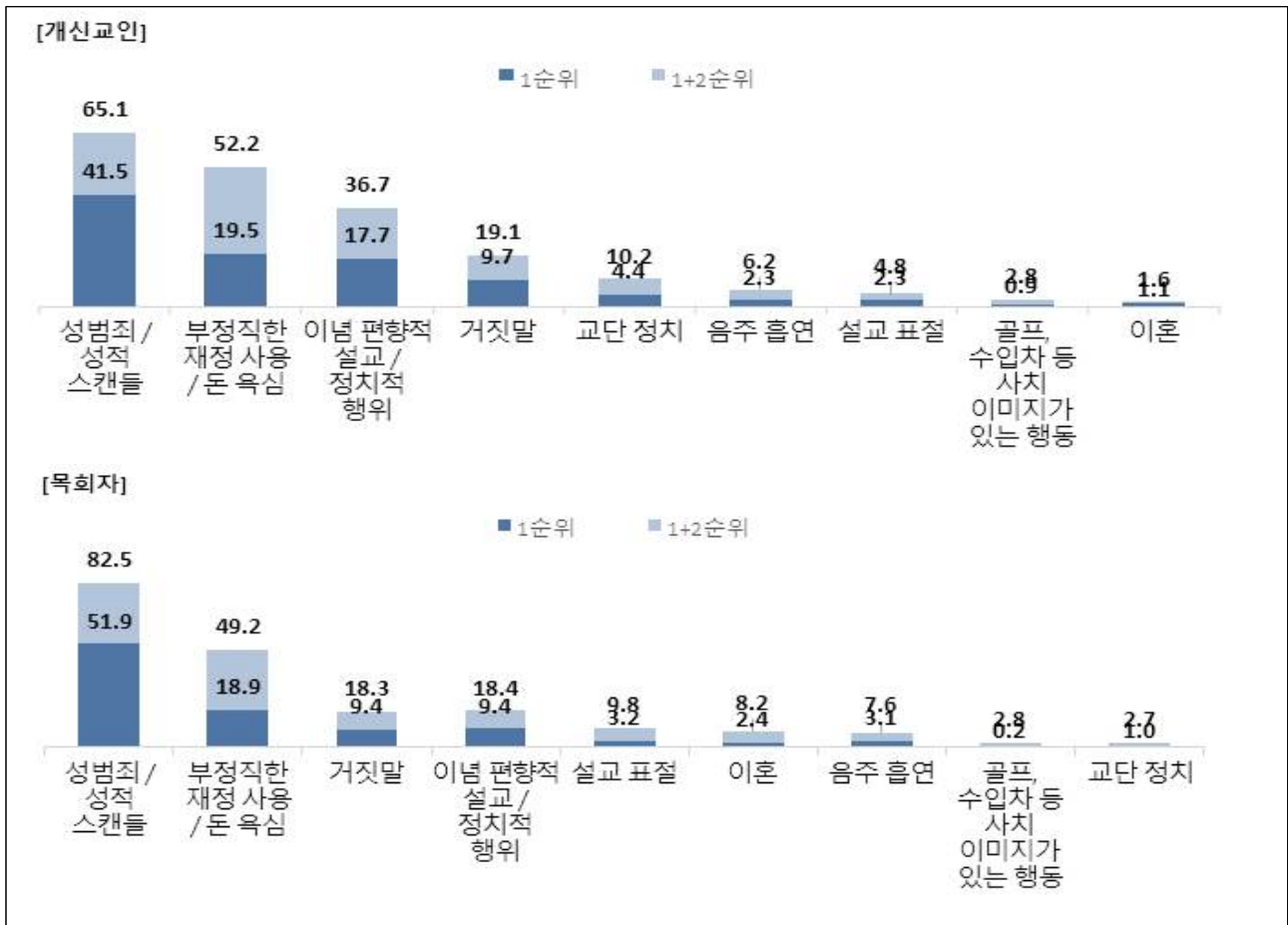
(Base=성범죄 대처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음' 응답자,
n=개신교인447, 목회자199, %)



일반 신자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은(1+2순위 기준) ‘성범죄/성적 스캔들’(65.1%),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52.2%), ‘이념 편향적 설교/정치적 행위’(36.7%) 순으로 나타나 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역시 ‘성범죄/성적 스캔들’(8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남성은 ‘이념 편향적 설교/정치적 행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과 19~29세 연령층은 ‘성범죄/성적 스캔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17]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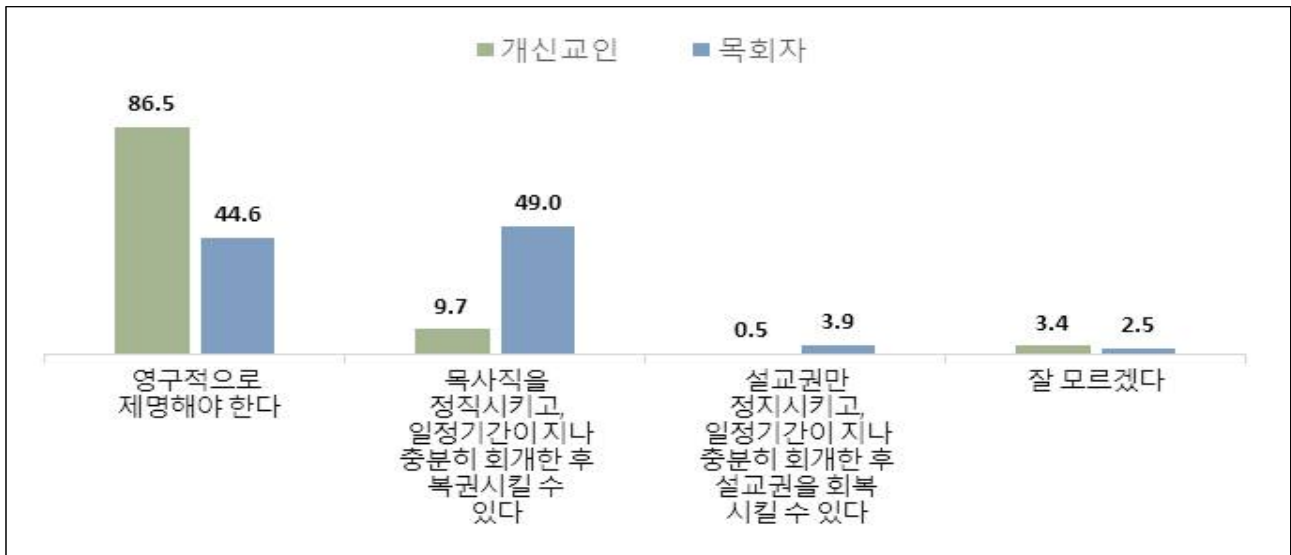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 800, 목회자 212, %)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 처리에 대해, 일반 신자들의 대부분(86.5%)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절반 수준인 44.6%만이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많은 49.0%가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 인식 차이가 컸다. 일반 신자들 중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신앙 단계 4단계와 정치적 보수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8]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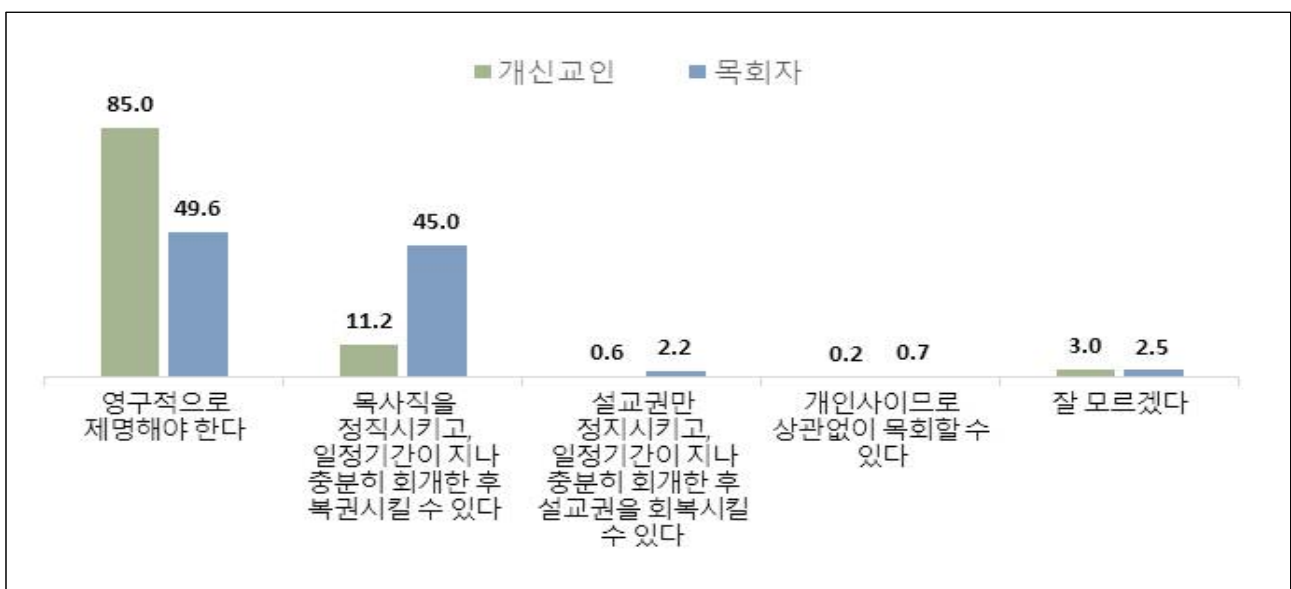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 교인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묻은 결과,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85.0%)이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역시 목회자들은 절반(49.6%) 정도는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45.0%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19]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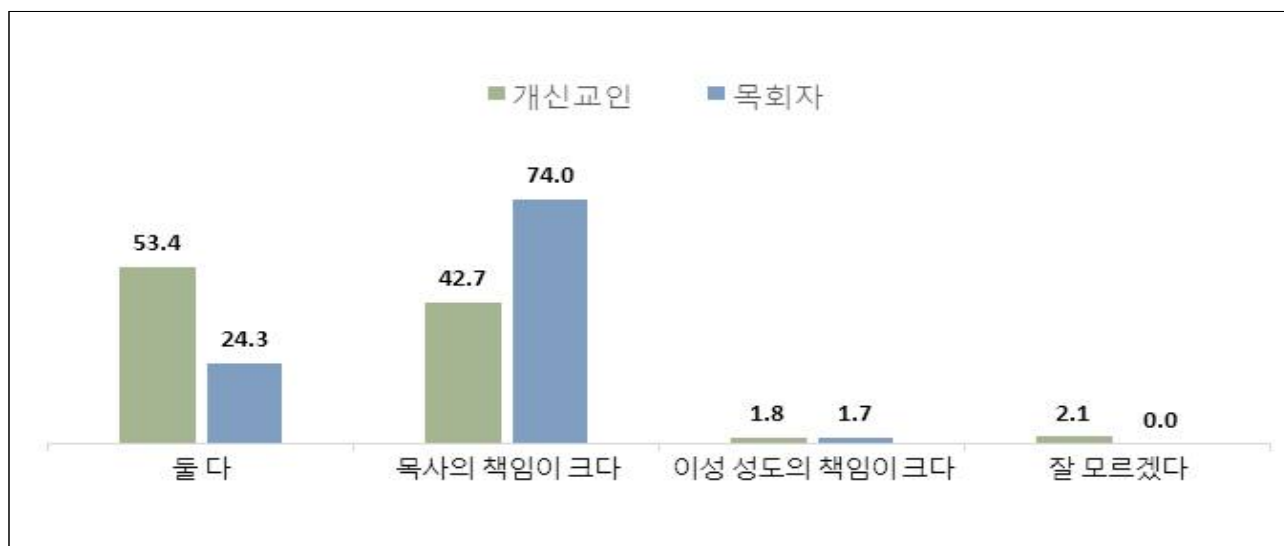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개신교인의 과반(53.4%)은 ‘둘 다’라고 응답했고, 42.7%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반면, 목회자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율이 3/4 가까이(74.0%) 돼서 일반 신자들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를 볼 때, 목회자들은 일반 신자들에 비해 불륜 문제에서 책임은 목회자에게 더 크지만, 영구 제명보다는 회개 후 복권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더 컸다. 개신교인 중 ‘둘 다’라는 의견은 여성에서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남성에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림20]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IV. 결론 및 제언

이번 조사 결과,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신교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우려할 만큼 낮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고, 교회에서 성 범죄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단순히 교회 이미지 실추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성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2차 가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비중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 안의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교회 내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응답도 크게 줄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줄었다. 따라서 3년 전에 비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미투 사건 등으로 여성 혐오가 크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교 때 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성 차별적인 표현을 제시하

고 물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18년도 조사 결과보다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응답이 적게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담임 목회자가 여성인 경우에 응답률이 높게 나와서 여성 목회자 설교 시에 성 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최대 22.5%까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 대부분은 일반 교인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본인도 모르게 성희롱/성폭력 가해를 한 경험도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에서는 목회자나 교계 지도자들의 성 범죄가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일반 교인에 의한 성 범죄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목회자나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성 범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항목에 따라 목회자나 중직자, 그리고 청년 리더의 성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출석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82.2%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64.8%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신자들은 목회자들에 비해서 필요성을 낮게 인식했고, 2018년 조사 때보다도 하락했다. 현재 한국교회가 성범죄에 대처하는 시스템에 대해, 개신교인의 24.0%만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고, 절반 이상(55.9%)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한국 교회 안에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시급하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성범죄는 한국 교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신앙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객관적으로 처리하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회나 지방회별로 이를 담당할 부서를 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앙관이나 교회 내의 권위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영성과 윤리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쉽게 발생한다. 성범죄는 단순히 성적 욕구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그 지위를 부차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여길 때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이러한 인식이 신앙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교 단체에서는 회심을 한 사람에게서는 종교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헌신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의 관계들을 단절 또는 포기하고 새 집단과의 강력한 결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규범과 가치를 포함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배타적인 신앙을 강조하거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이끌어질 때 더욱 강해진다. 이른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일상의 관행이나 틀을 뛰어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가 무시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대한 헌신 역시 합리적이기보다는 맹목적인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종교 조직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이라면 지도자와 구성원 또는 추종자 관계의 밀착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권위주의 구조이고 배타적인 신앙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도자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목회자의 권위가 막강하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 교회 운영이나 의사 결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

지만 교인들도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의사결정하기 보다는 목회자가 이끌어 나가면 단순히 순종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타협이나 협의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회자가 실수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특히 교회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장로회에서 이 문제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다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교회 성장에 걸림이 된다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는 2차, 3차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고를 가질수록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데 이번 조사에서도 중직자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포함한 중직자들부터 양성 평등과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로들은 대부분 남성들이고 연령대가 높아서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안의 다양한 의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와 부서 대표들을 일종의 비례 대표와 같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원에 대한 근본으로부터의 개선이 없다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언제이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민주화하고 당회나 기획위원회 같은 대표 기구들이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흔히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조직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동체는 관료제와는 다르며 획일화된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생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헌신과 순종에 대한 강조는 교회의 대표인 목회자에게 향하게 되고 결국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낳게 될 우려가 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느 한쪽의 권위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제 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 개혁의 전통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권위주의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역할의 차이로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숙고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며 협의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과 발표 2.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성인지 감수성

권미주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I. 들어가며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5,261명 가운데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³⁾ 이 중에는 개신교 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실제로 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경우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며, 형사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교회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목회자 성범죄 사건들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종교지도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생활태도를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실 개신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통계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그 실체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발표한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목회자 성폭력 문제로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총 상담 건수의 10% 안팎을 차지했다.⁴⁾ 또 2018년 개소한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18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지원하거나 다른 교회 성폭력 상담건수만 250건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에 더하여 한국은 목회자에 의한 교회내 성폭력 사건이 고소나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고려하면, 은폐된 목회자의 성폭력, 성희롱, 성적비행과 관련된 성범죄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회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성에 대한 신학적 입장,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에 대해 침묵하여 왔고 때로는 부정적 가르침으로 일관하였다. 그 가르침에는 여성과 남성의 위계적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관점으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규정해왔다. 한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틴누스와 루터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토대는 여성의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규정해오면서 남성에게는 ‘용기, 정의, 극기’와 같은 덕목을, 여성에게는 ‘순결, 침묵, 복종’의 덕목을 주었다.⁵⁾ 이처럼 한국교회는 남녀의 위계적 관계에 기초한 전통 신학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고, 그것이 마치 성서에서 말하는 전통인 것으로 오인해왔다. 그러한 결과 폭력의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성폭력 가해자의 절대 다수는 남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심각한 성폭력의 현장 중 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치욕스러운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제 교회 내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3) CTS뉴스, 2020년 2월20일.

4)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뉴스앤조이, 미투 처치투 위드유: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 (서울: 뉴스앤조이, 2018), 13.

5) 김은혜, 예장통합 제 103회기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강사 워크숍 자료집, p.74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연구해온 아써 그로스-샤퍼 등(Arthur Gross-Schaefer)은 목회자의 교회내 성폭력을 다루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폭력이나 성적비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반응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목회자들이 성폭력이나 성적비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리 돕는 예방적 접근이다.⁶⁾ 위에서 말한 한국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교회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응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 두 차원 모두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목회자의 성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전반적인 성에 대한 현장 목회자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야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향후 보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식에 관한 객관적 설문조사 연구자료는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성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⁷⁾ 이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목회자의 성인식에 관한 조사라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내 양성평등, 설교나 교육에서의 평등성, 교회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노력, 성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와 연구의 한계로는 이 조사가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 응답의 대부분이 기대되는 긍정적 가치에 가깝게 보여지는 점,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목회자에 대한 윤리성, 신뢰성 제고가 요청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성’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함으로써 향후 한국교회에서 만들어가야 할 예방적이고 교육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적 접근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자료의 성격

이 조사는 목회자의 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 조사는 2021년 8월30일-9월9일까지 11일에 걸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다. 목회자의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212명에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교회 내 양성평등, 설교와 양성평등,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 목사의 성 스캔들에 대한 의견이다. 자세한 설문 문항은 첨부한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 분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담임목사, 부목사, 설교/협력목사
조사 지역	전 국
조사 방법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총 212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목회자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자료 처리	수집 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1년 9월 3일 ~ 9월 5일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6) Arthur Gross-Schaefer, Lee Felman, and Nicole Perkowitz. "A Time to Learn: A Comparison of Policies Dealing with Clergy Sexual Misconduct," Pastoral Psychology 60 (2011), 225.

7) 연구 전체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성인식에 관한 조사이나, 이 글에서는 목회자에 관한 조사결과만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Ⅲ.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이번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남성이 97.8%, 여성이 2.2%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많은 교단 외, 여성안수가 허용되는 예장 통합, 감리교, 기장 등의 교단에서도 여성목회자수는 남성목회자의 1/10이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 남성 목회자가 대부분으로 표집되었음을 밝힌다. 직위 구분에 있어서는 담임목사가 61.5%, 부목사가 31.1%, 설교·협력목사가 7.5%로 남성 담임목사의 조사참여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21.5%, 40-49세 21.2%, 50-59세 33.8%, 60세 이상이 23.5%로 50대이상의 참여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담임목사의 응답비율이 높은것과 연관된다 볼 수 있다. 거주지 비율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48.9%, 중소도시가 36.2%, 읍/면 거주자 14.9%로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교인수는 49명 이하가 25.6%, 50-99명이 19.2%, 100-199명이 12.2%, 200-499명이 20.8%, 500명 이상이 22.2%로 응답하였으며 교단별로는 장로교 합동이 25.4%, 장로교 통합이 24.8%, 기타 장로교 13.7%, 기타교단이 36.1%였다. 정치적 성향을 물었을때는 보수가 37.8%, 중도가 31.1%, 진보가 31.1%로 답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주 응답자들은 200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대도시에서 시무하는 장로교 중심 교단의 50대 이상 남성 담임목사들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도 현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중심적 의사결정은 이렇게 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표1을 참고할 수 있다.

<표1> 응답자 특성

		사례수	%
■ 전체 ■		(212)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61.5
	부목사	(66)	31.1
	설교/협력목사	(16)	7.5
성별	남성	(207)	97.8
	여성	(5)	2.2
연령	39세 이하	(46)	21.5
	40~49세	(45)	21.2
	50~59세	(72)	33.8
	60세 이상	(50)	23.5
지역	서울	(57)	26.7
	경기/인천	(59)	27.9
	대전/충청	(25)	11.8
	광주/전라	(23)	11.0
	대구/경북	(12)	5.5
	부산/울산/경남	(15)	7.1
	강원/제주	(15)	6.9
	해외	(7)	3.2
지역크기	대도시	(104)	48.9
	중소도시	(77)	36.2
	읍/면	(32)	14.9
교인 수	49명 이하	(54)	25.6
	50-99명	(41)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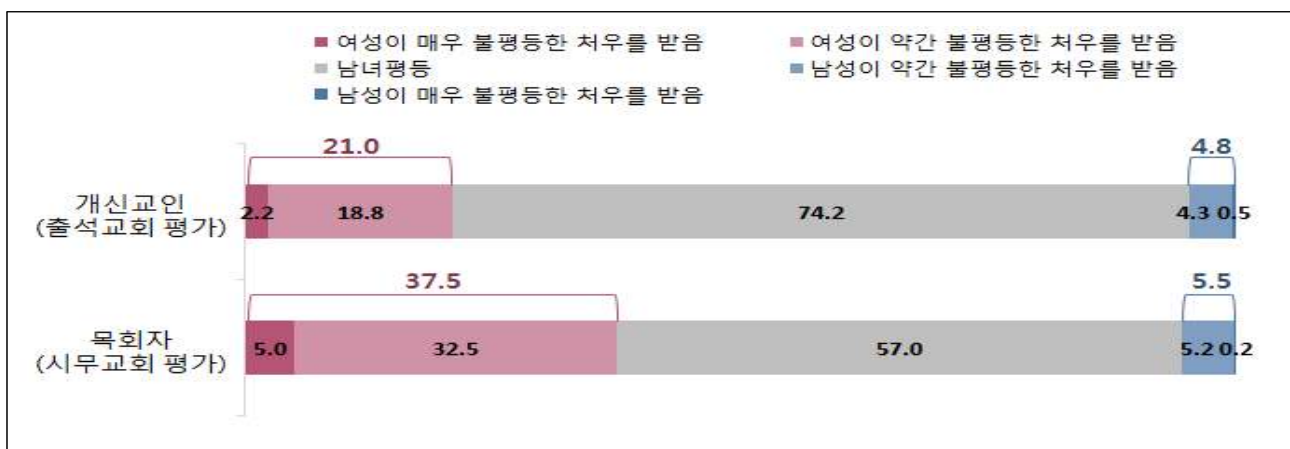
	100-199명	(26)	12.2
	200-499명	(44)	20.8
	500명 이상	(47)	22.2
교단	장로교(합동)	(54)	25.4
	장로교(통합)	(53)	24.8
	기타 장로교	(29)	13.7
	기타 교단	(76)	36.1
정치적 성향	보수	(80)	37.8
	중도	(66)	31.1
	진보	(66)	31.1

2. 교회 내 양성평등

먼저 교회 내 양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목회자의 57%는 교회 내에서 남녀가 평등한 수준이라고 답하였으며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라고 답하는 비율은 37.5%였다.

[그림] 출석/시무교회의 양성평등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여기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 비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6.5%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회자 중에서도 담임목사는 ‘여성에게 불평하다’(27.4%) ‘남녀 평등하다’(68%) 라고 각각 답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 부목사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51.7%), ‘남녀 평등하다’(42.8%) 순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타 장로교(48.3%),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층(55.6%)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평등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긴 하지만, 주로 성도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40대 이하 부목사층에서는 교회사역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양성평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진보층에서는 아직까지 교회 문화는 남녀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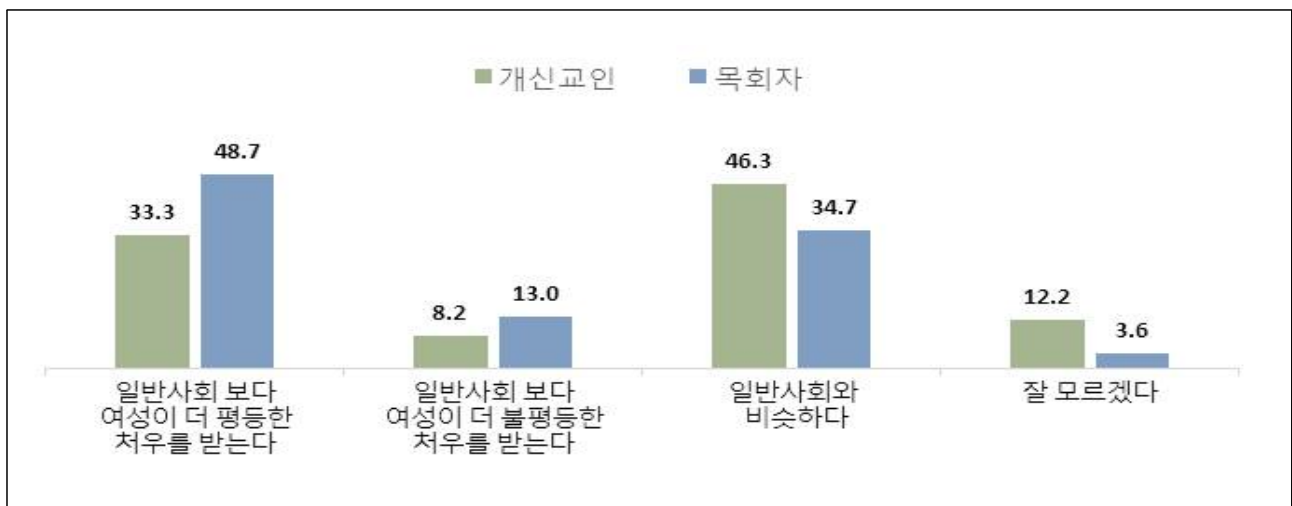
일반사회와 비교한 상대평가에서는 담임목사는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에 65.4%가, 부목사는 19.9%가 응답하였다. ‘일반사회와 비슷하다’는 담임목사가 28.6%, 부목사는 45.7%가 응답함으로써 담임목사는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부목사는 일반사회와 비슷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연령대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더 평등하다고 대

답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반사회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담임목사층으로 갈수록 가정에서만 머무는 여성들과 달리 교회라는 공적 조직에서 여성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라는 곳이 다른 한국사회의 영역보다는 여성이 활발히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젊어지고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을 함께 목도했던 부목사들은 한국교회 초기부터 존재해왔던 교회 내 여성의 불평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출석/사무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교회 내 남녀역할 구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성도와 목회자의 응답 경향은 유사하였다.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에 대한 동의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이 가장 높았고(성도 72.9%, 목회자 69.2%), 그 다음으로 ‘교회 내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50% 안팎의 동의율을 보였다.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40% 후반대의 동의율을 나타냈으며,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는 40% 중반대의 동의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응답율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에 담임목사는 21.4%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부목사는 75.7%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담임목사군이 79.5%로 높은 반면에 부목사군에서는 56.9%를 보였다. 담임목사군에서는 ‘교회 내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다’에 동의하는 비율도 61.4%로 높게 나왔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담임목사군과 부목사군에서 의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담임목사들은 교회에서 비교적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단위인 장로들은 아직도 대다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학교 부장, 교회 자치회의 대표 등은 남성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는 의식과 실제 현실의 괴리일 것이다. 지향해야 할 보다 평등한 목표에 대한 의식을 상실한 채 지금 현실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 있다. 이는 부목사군에서 평등성에 대한 응답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 바, 현재보다 더욱 양성평등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내 양성평등 정도에 담임목사군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출석/사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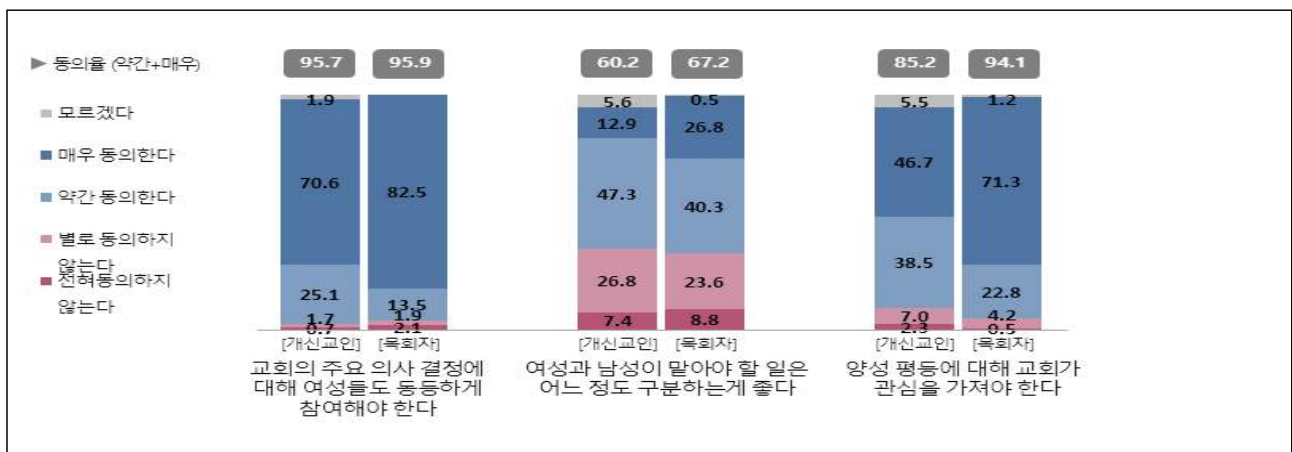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해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개신교인과 목회자가 동의의견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게 좋다’에 대한 동의율(약간+매우)은 성도 60.2%, 목회자 67.2%로 나타났고, ‘양성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성도 85.2%, 목회자 94.1%로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의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은 동의가 대부분이지만 60세 이상과 합동교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동의율을 나타냈다.(60세 이상 14.3%, 합동16%) ‘양성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비동의율도 합동교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합동 11.6%, 보수 9.3%)

이는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안수를 불허하는 등 비교적 보수적 신앙을 가진 합동측 목회자들에게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협소한 영역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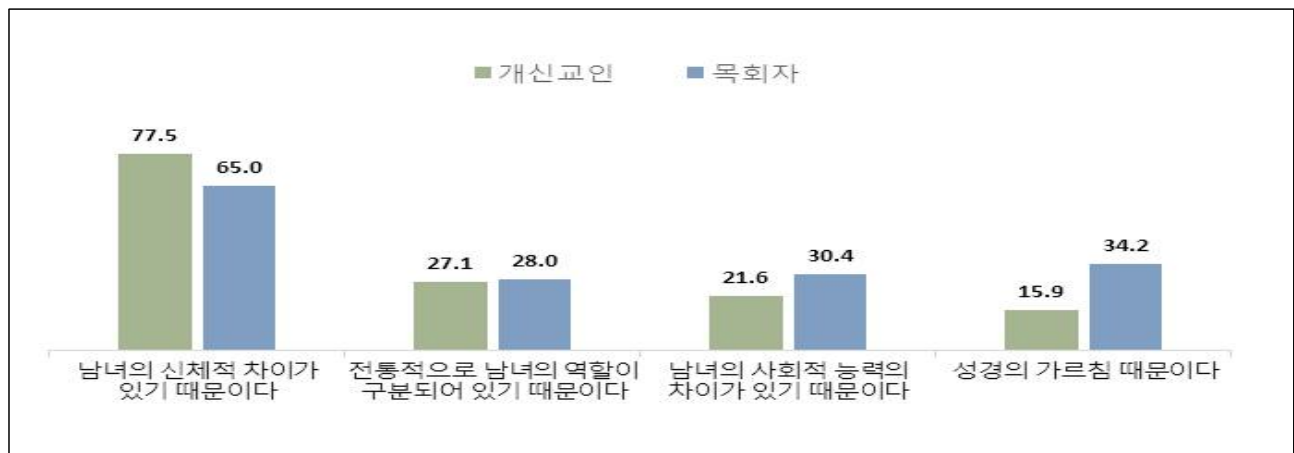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성도와 목회자 모두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목회자는 성도보다 ‘사회적 능력 차이’와 ‘성경의 가르침’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더 컸다. 특히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응답에 차이가 드러나는데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76.4%)와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42.1%) 응답률은 39세 이하와 부목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와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는 담임목사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9세이하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라는 응답에 19.4%,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에 9.7%가 동의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가 60%,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40%가 동의했다. 이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더 이상 성경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으나, 결국 성서의 해석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처해있는 시대를 배제한채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젊은 세대의 부목사들이 담임목사가 되고 향후 한국교회의 리더가 되어갈 때 지금과는 다른 한국교회의 문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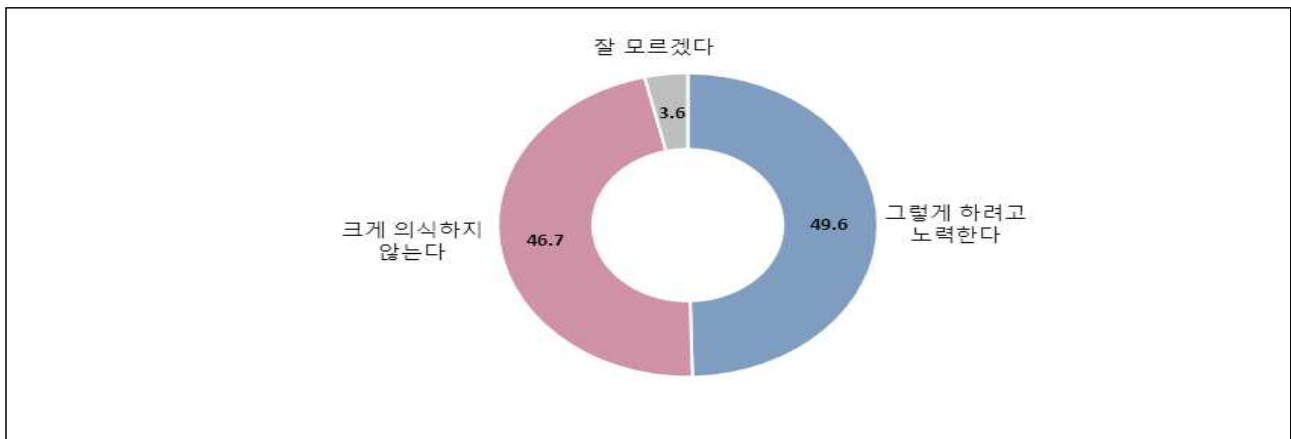
(Base='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함' 응답자, n=개신교인481, 목회자142, %)



3. 설교와 양성평등

설교시 얼마나 스스로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교권은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며, 많은 교인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아 왔다. 따라서 목회자의 설교에 등장하는 남녀에 관한 표현과 이해는 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에서 양성평등적인 요소가 잘 녹아 있는지, 또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살피는 문항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스스로 설교시 남녀평등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가 49.6%,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46.7%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에서 담임목사(46.5%)보다 부목사(56.%)가 더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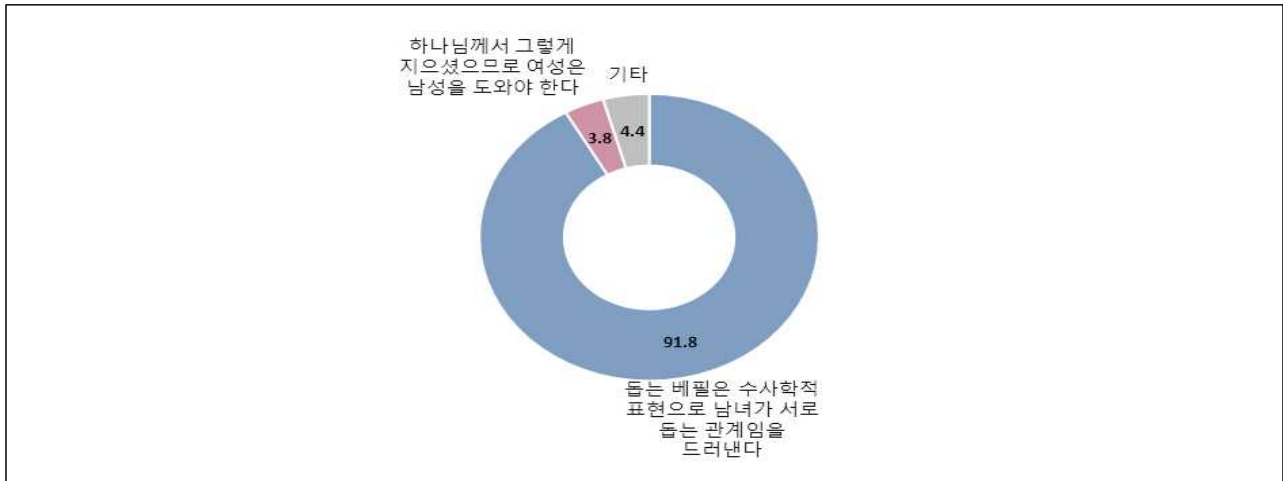
또 본인이 설교할때에 자신도 모르게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88.5%가 ‘하지 않는다 (거의 + 별로)’고 응답하였다. 담임목사는 92.6%가, 부목사는 84.3%가 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하여서 담임목사가 스스로 설교에서 남녀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들어 실제 생각하는 의식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의 설교본문과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본문에 대한 목회자들의 해석과 이해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창세기 2장의 돕는 베필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는가 질문하였을 때 거의 모든 목회자가 ‘돕는 베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남녀가 서로 돕는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91.8%로 대다수였다. 또한 다윗과 밋세바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목회자(91.3%)가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23.5%는 ‘다윗의 잘못은 이후 우리야를 죽인 것에 있다’에도 동의를 하였다. ‘다윗의 잘못은 이후 우리야를 죽인 것에 있다’는 의견은 정치적으로 보수인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으므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도 충분히 회개하면 이후에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교인수 500명 이상 교회와 합동교단, 그리고 정치적 보수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평등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다는데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보여진다. 실상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는 이 두 개의 본문 외에도 다수의 성경본문을 가지고 남녀의 원래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성평등적인 설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회자들이 실제 자신들은 양성평등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만큼 현장에서 그러한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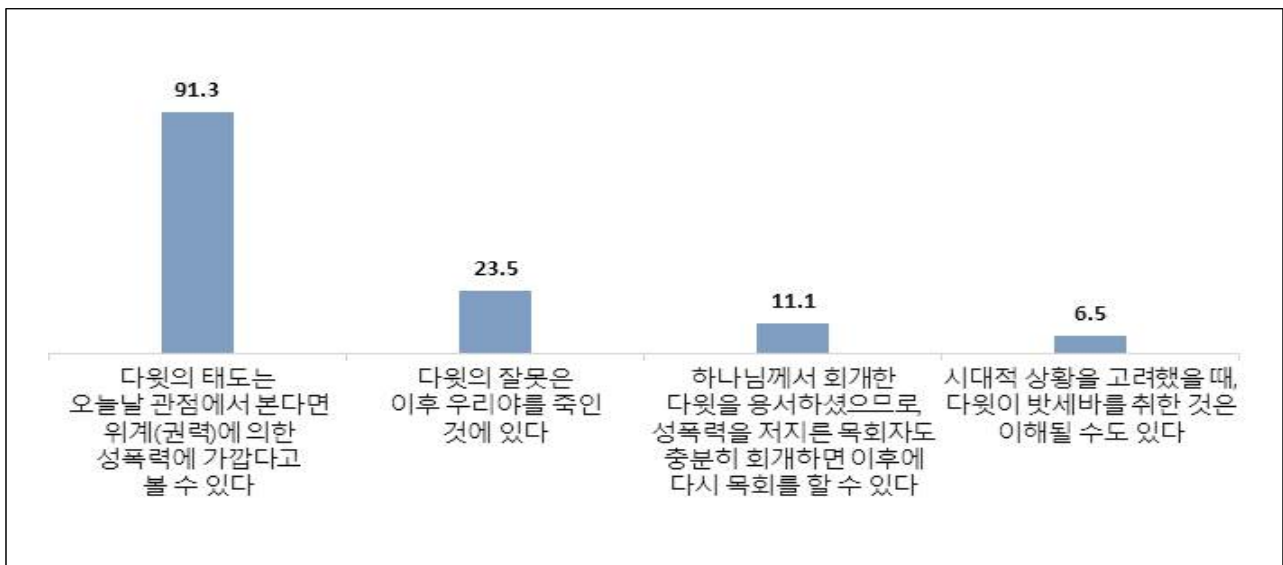
[그림] 창세기의 '돕는 배필'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그림]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중복응답)

(Base=목회자, n=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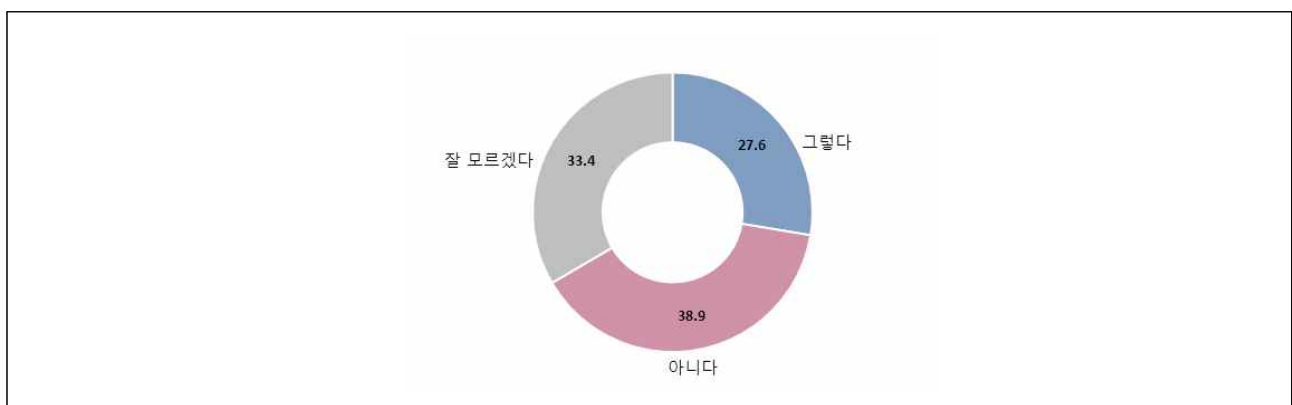
4.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번에는 목회자들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에 대해 확인하였다.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그렇다' 27.6%, '아니다' 38.9%, '모르겠다' 33.4%로 응답하였다. 교단별로 보면 합동이 18.6%, 통합이 57.8%, 기타 장로교와 기타 교단이 각각 17%씩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여 통합측 교단이 목회자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1/3가량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목회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교단에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지 및 참여 여부 확인 등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에서는 모든 직장에서도 년1회 1시간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에서

도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각 교단 또는 개교회 역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마련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단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가진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도 이것이 의무교육인만큼 각 교단에서도 적어도 목회자에게만이라도 이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단은 예정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이다. 다른 교단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목회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림]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54.5%는 없다고 응답하여 성도보다는 교육경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도- 받은적 없다 82.2%) 목회자의 경우 ‘교단의 상급기관’에서 받은 비율은 9.7%, ‘교단 외 기독교단체’에서 받은 비율은 12.6%인데 반해 ‘기독교 단체 외 일반 단체’에서 받은 비율은 그 두 배 이상인 29%로 응답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이하 목회자는 일반단체에서 받은 경험이 높았고(38.3%), 40대 이상부터는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40대 51%, 50대 65%, 60세이상 57%) ‘교단의 상급기관’에서 받은 경험률은 합동교단과 통합교단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합동교단 13%, 통합교단13%, 기타장로교8.6%, 기타교단5.3%). 이 중에서 ‘어디에서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에 대해 담임목사는 45%, 부목사는 48%인데 반해 특이하게 설교/협력목사는 73%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개교회 소속 목사보다 교회 관련 기관 등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의 경우에 이러한 예방교육에 대해 높은 접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39세 이하 목사들은 62%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 단체 외 일반단체로부터 받았다는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회자 중에서도 보다 젊은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개교회나 교단이 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연관지어 교단이나 총회 차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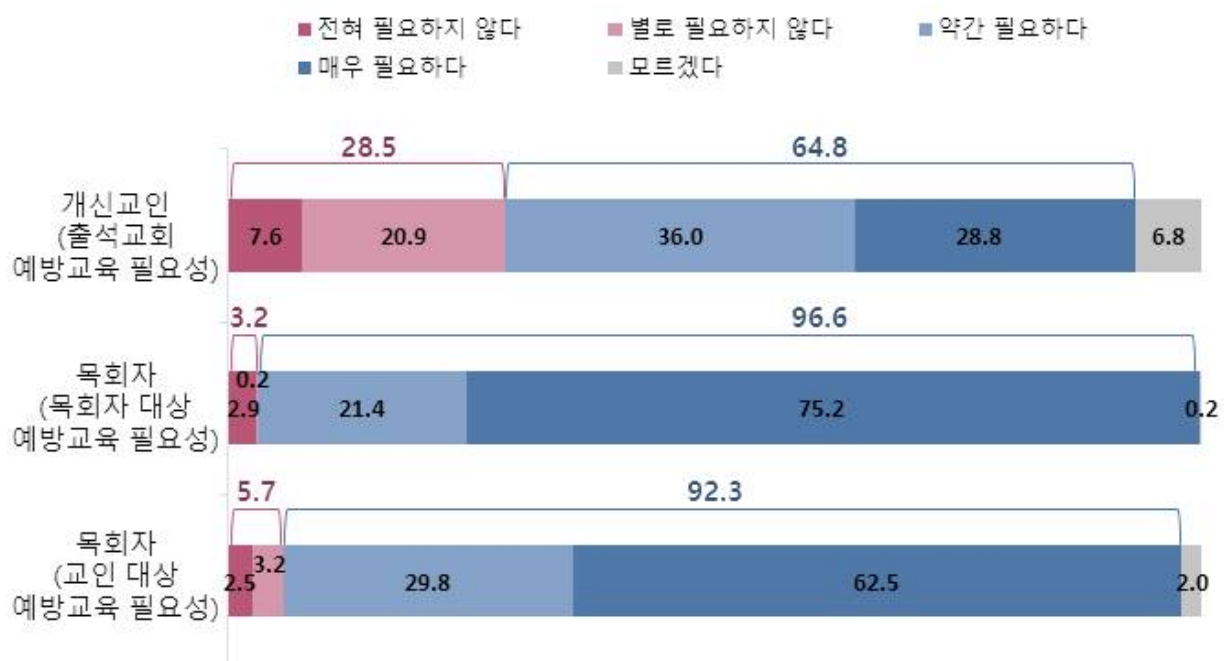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목회자212, %)



다음으로 목회자,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목회자에게 물었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9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인을 대상으로도 필요하다’에 92.3%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응답은 교회에서 더 이상 성을 감추거나 금기시하는 영역으로 두지 않아야 하며, 사회에서도 성과 관련된 교육은 강력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볼 때, 교회 역시 이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목회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다음으로 개교회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 경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5.3%) 10개 중 1개 교회 정도(10.8%)만이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60세 이상, 합동 교단에서는 21%가 진행의사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통합측이 78.2%로 교육진행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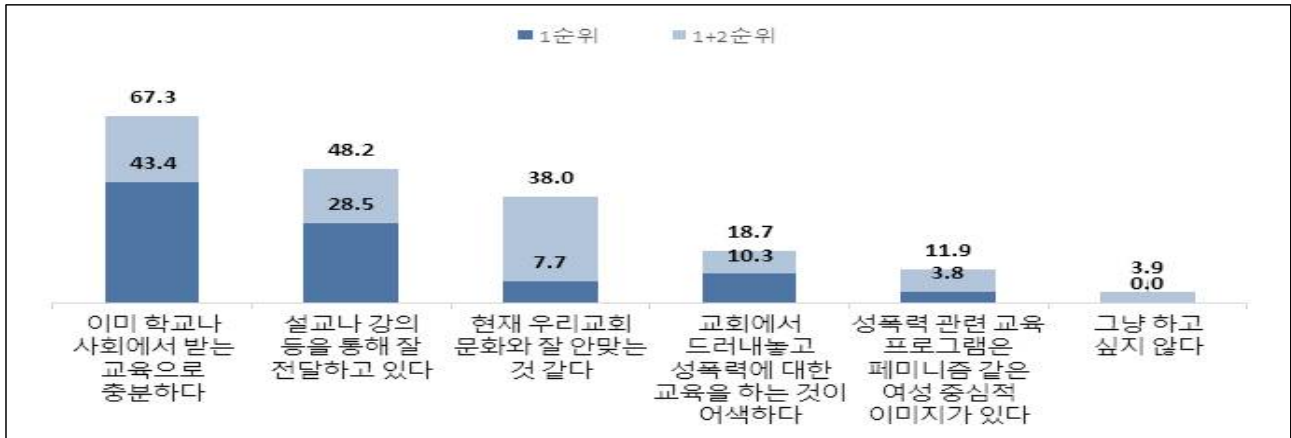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진행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미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교육으로 충분하다’(67.3%)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48.2%)가 응답돼, 굳이 별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다른 경로로 충분히 교육되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물론 교인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학교와 사회에서 받는 교육과 교회에서 받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라는 위계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하는 곳이며, 신앙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사회와는 다른 피해양상을 드러낸다. 또한 그 가해자나 피해자의 심리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들이 있으며, 수평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위계가 강력한 교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성에 대해 말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일방적인 목회자의 메시지 전달이며, 성이나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성폭력 교육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거나 성폭력 교육이 페미니즘 같은 여성중심적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데 대해서도 각각 18.7%, 11.7%가 응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목회자들의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그림]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는 이유(목회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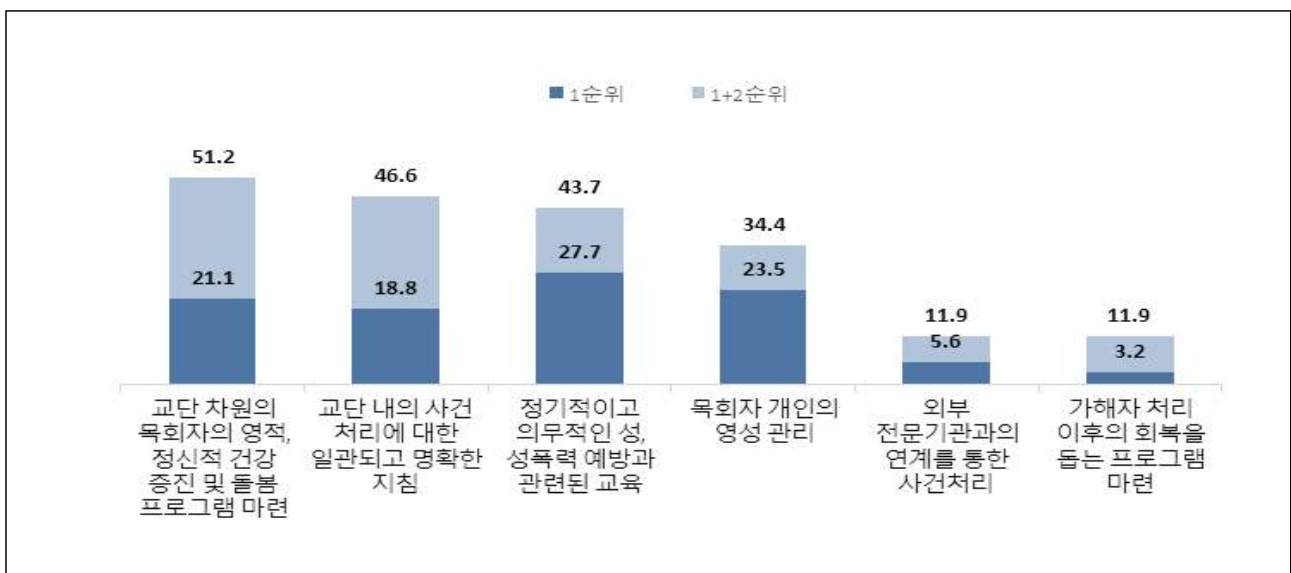
(Base=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음' 목회자, n=26, %)



교회 내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 처리하기 위해 목회자 개인, 개교회, 교단에서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1순위로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27.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목회자 개인의 영성관리',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으로 응답하였다. 1,2순위를 합하여 보았을 때는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프로그램 마련'(51.2%)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담임목사는 '목회자 개인의 영성관리'와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고, 부목사는 '교단 내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지침'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영성관리 등 개인적 노력도 필요한 일이지만, 교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자를 케어하고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등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의 도덕성과 영성을 유지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여진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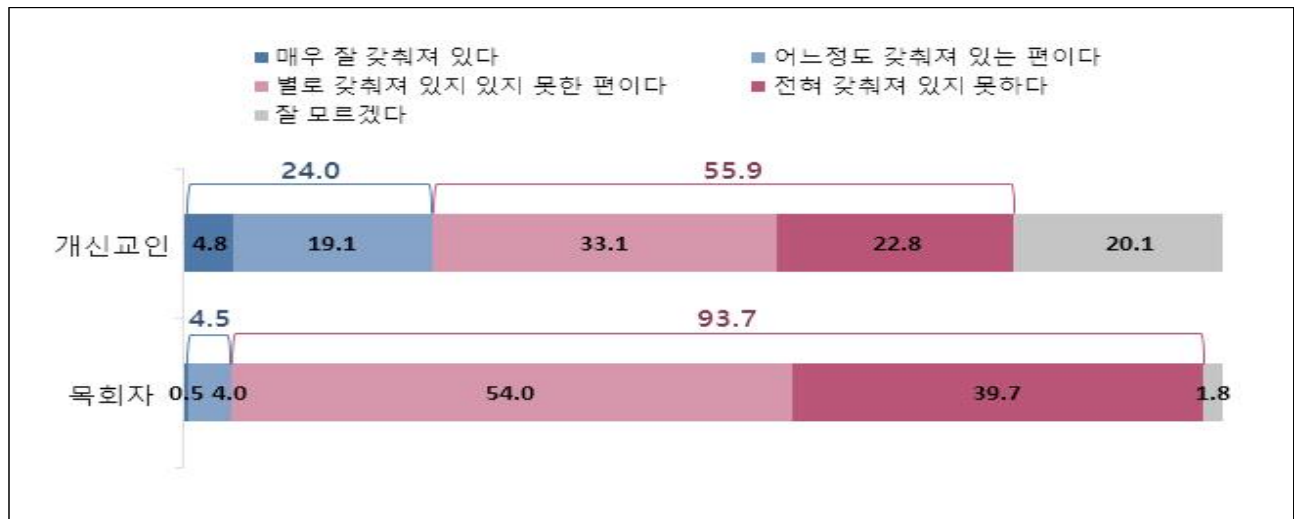


5.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도는 24.0%가 ‘잘 갖춰져 있다’, 55.9%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목회자는 거의 모두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93.7%)라고 응답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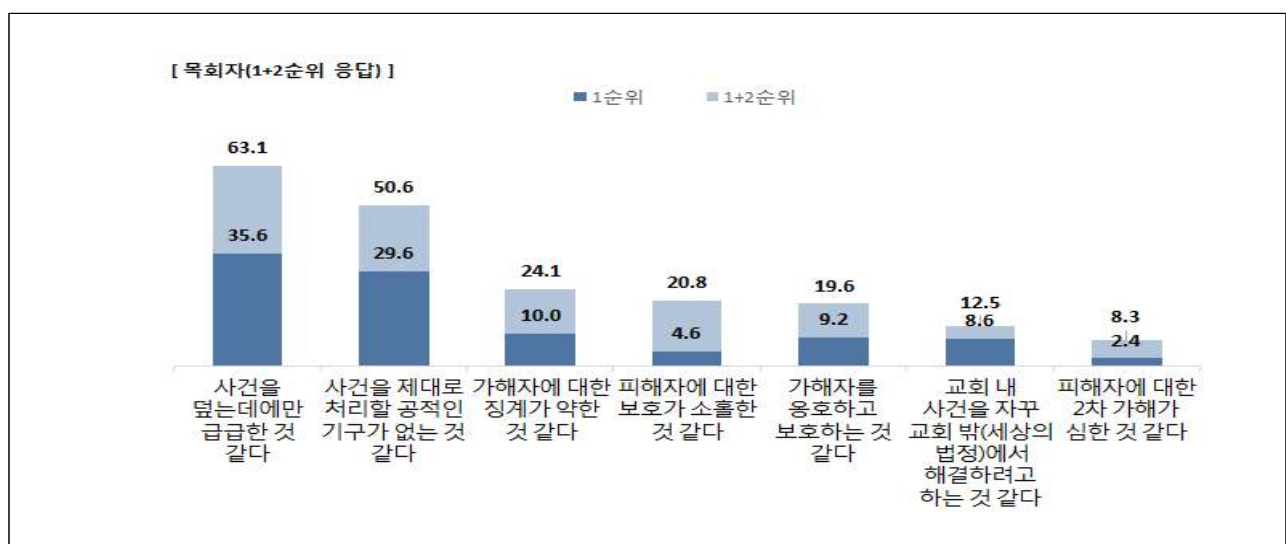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로 목회자는 ‘사건을 덮는데에만 급급함’(63.1%)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음’(50.6%)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부목사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고 담임목사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 기구가 없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한 특징을 보였다.

[표]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1순위

(Base=성범죄 대처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음’ 응답 목회자, n=1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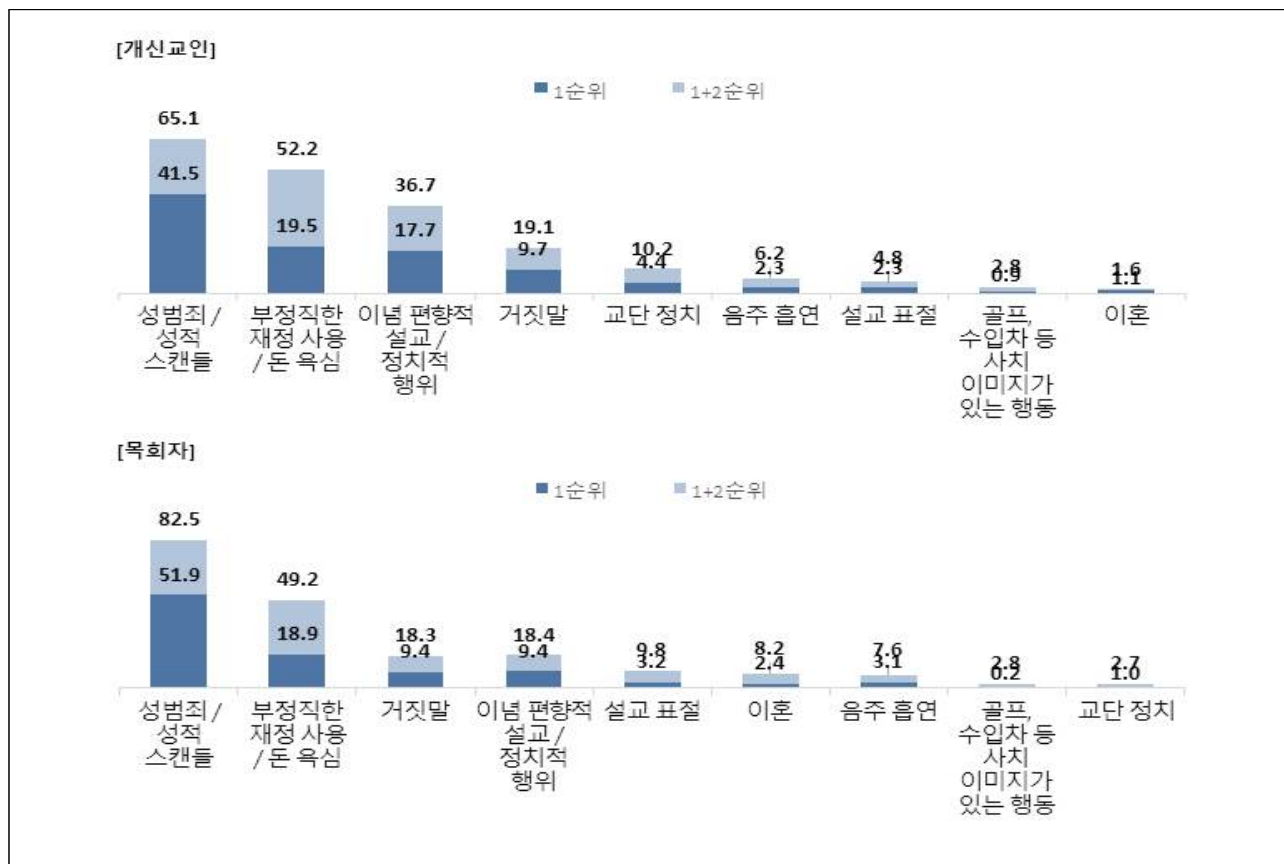
이는 교회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그것을 공적으로 논의하고 다룰 교회내 기구도 교단 내 기구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저 쉬쉬하고 덮고 묻어두고 지나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법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에는 사실 대부분의 교단법이 치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세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해서 말하듯이 사회법에서는 교회라는 특수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명확히 갖춰가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도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6. 목사의 성 스캔들에 대한 의견

목사가 하지 않아야 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 물었다. 목회자는 ‘성범죄 스캔들’(8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49.2%)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교인들 역시 목회자의 ‘성범죄/성적 스캔들’(65.1%),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52.2%) 차례로 꼽았다. 성범죄나 성적스캔들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목회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영혼을 상처내는 것임을 스스로 기억하고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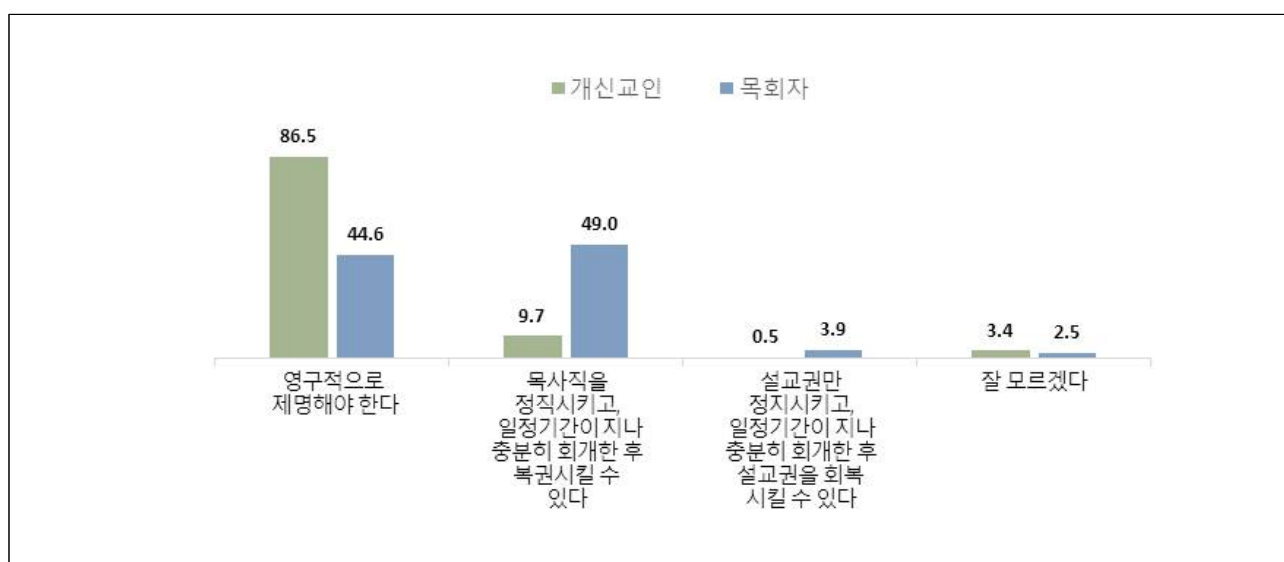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 800, 목회자 212, %)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응답 차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성도는 86.5%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44.6%만이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목회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에 49%가 응답하였다. 특히 일정기간이 지나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응답에는 담임목사(53.2%), 60세이상(71.4%)이 많이 응답하였다. 개신교인 중에서도 여기에 응답한 이들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고 신앙단계가 4단계인 이들이 많았다.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목회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복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숙기간이나 처벌기간을 거치고 나면 목회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목회자 수련요건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회를 할 수 있다. 물론 각 교단 헌법에는 목사직 면직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적용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설사 면직이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또 성범죄로 연루되어 해당교회에서는 목회를 사임한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거나 본인이 개척하는 등의 형태로 목회를 지속할 수도 있다. 여기 목회자 응답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도 목회를 가능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은 교회와 성도의 입장은 무시한채 오로지 목회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성범죄는 한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매우 큰 범죄이며, 더구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 명확한 경계심, 반성의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성범죄와 연관된 목회자는 다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것에 담긴 의미는 결국 그러한 목회자로부터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 아직도 한국 교회 대부분은 목회자와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제대로 치리를 미룬채 덮어버리거나, 잠깐 소나기 피하듯 숨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회자들 스스로가 좀더 엄중한 치리와 대처를 함으로써 한국교회에서 구조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목회자 스스로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받아들일때에 오히려 목회자 그룹 전체의 윤리성 제고와 합당한 권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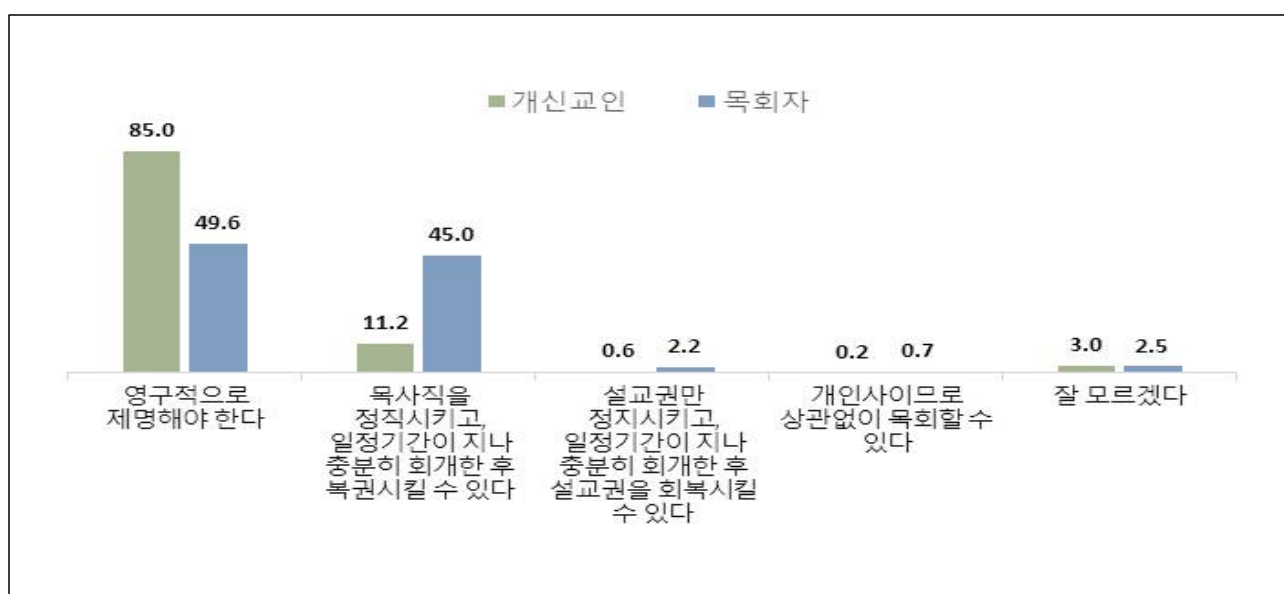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교인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교인들은 앞 질문에서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85%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목회자는 절반인 49.6%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역시 45%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역시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역시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높은 윤리적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 삶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함부로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한 변명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림]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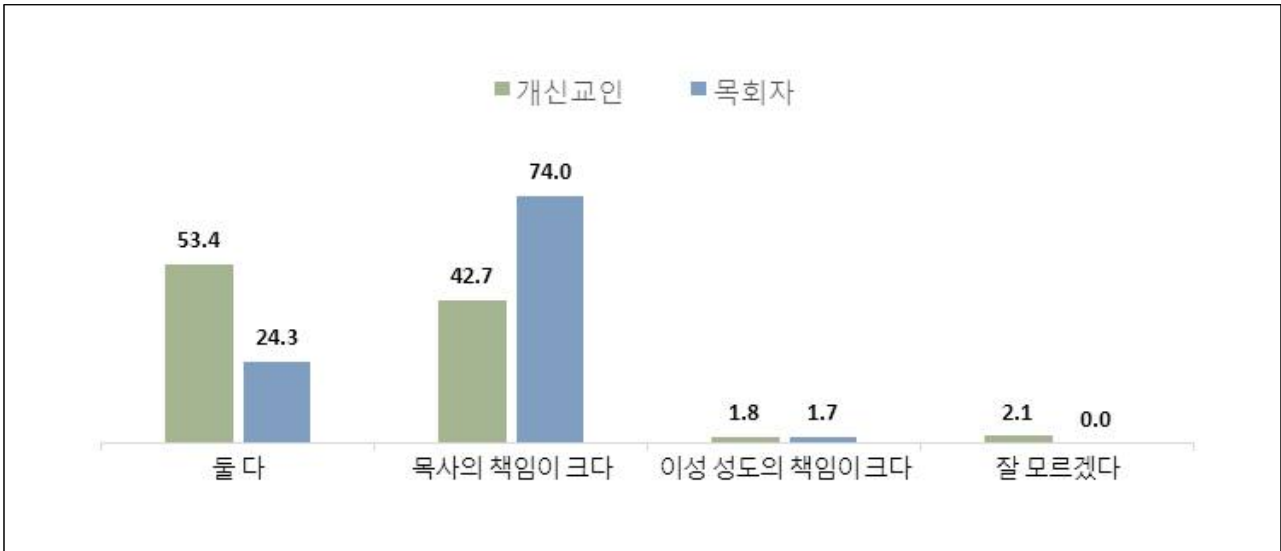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다음으로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교인의 과반(53.4%)은 ‘둘 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목회자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훨씬 높았다.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담임목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 92.9%) 부목사는 32.3%가 둘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세대간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불륜이라는 것은 양쪽의 문제라는 시선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교회 성폭력 유형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는 불륜처럼 보여지나 그것이 가스라이팅이거나, 위계에 의한 간음 등으로 목사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대상자를 길들이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목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영혼을 돌보고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자각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림]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다음으로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으로 목회시 이성 성도가 본인에게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있다는 비율은 32.9%, 없다는 없다는 비율은 53.4%, 잘 모르겠다는 13.7% 였으며, 담임목사와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목회연수와 경험에서 비롯되는 차이라고 추측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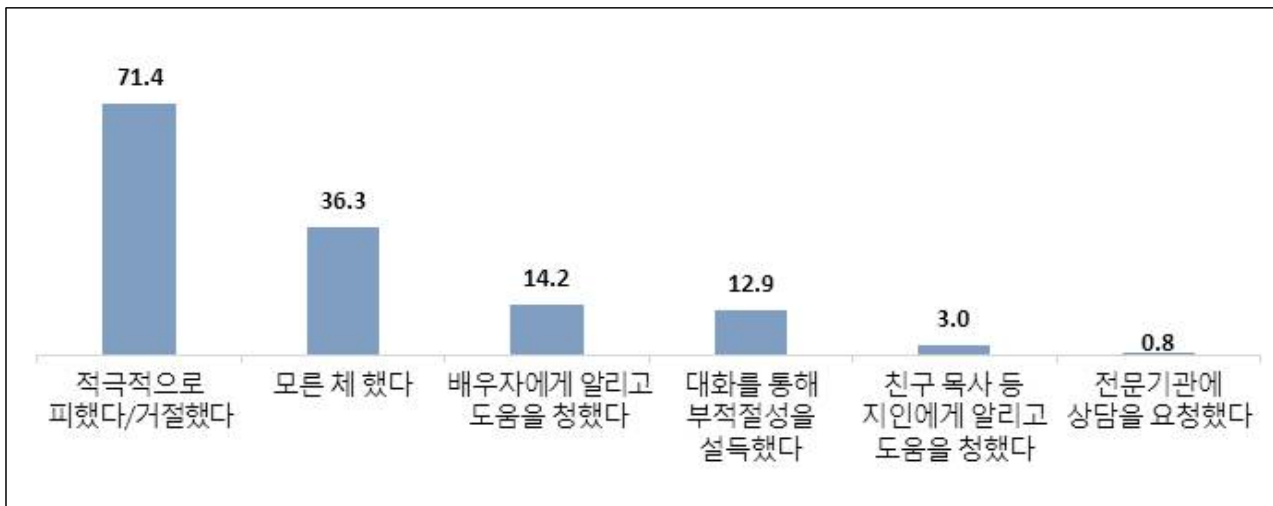
[그림]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목회자 대상)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그럴때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질문하였고 그에 대해 71.4%가 '적극적으로 피했다/거절했다' 고 했으며, '모른채 했다' 36.3%, '배우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14.2%, '대화를 통해 부적절성을 설득했다' 12.9%등으로 응답했다. 피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대처 방법 등을 생각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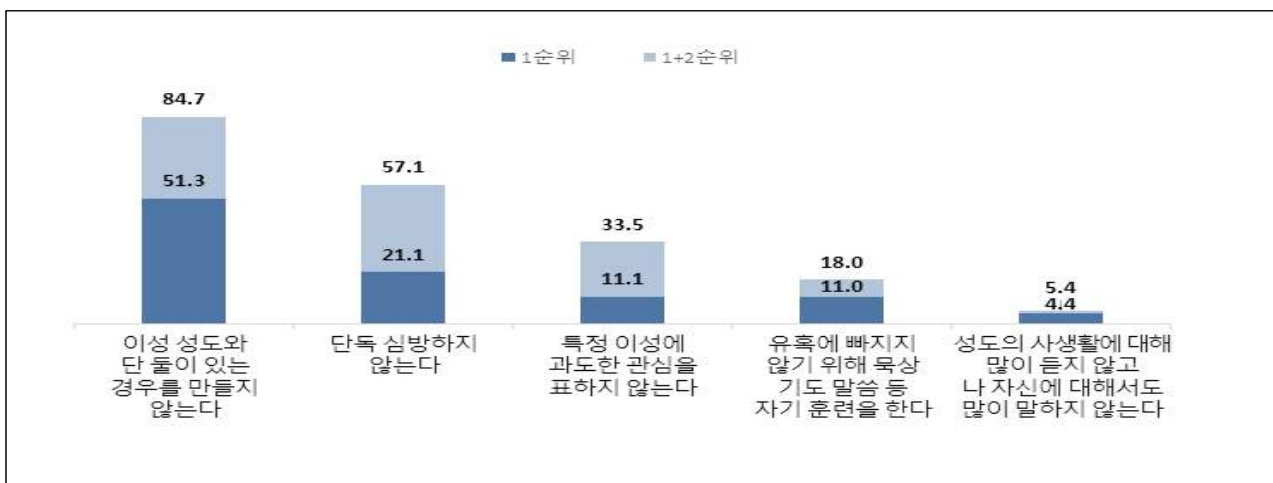
[그림]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목회자 대상, 중복응답) (Base=성도에게 이성 감정 경험 '있음' 목회자, n=66, %)



마지막으로 이성 성도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않기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가 84.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심방하지 않는다’(57.1%), ‘특정 이성에 과도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33.5%)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담임목사는 ‘단독심방하지 않는 것’을 유의점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 목회자에서는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목회자 대상)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IV. 결론 및 제언

이번 조사는 목회자들이 교회내에서 드러내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 치리 시스템, 예방을 위한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둔 성인식 조사였다. 서두에서도 말하였듯이 직접적인 목회자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 가해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일 수 있으나, 그것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 자체가 성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응답하고자 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 자체가 목회자들에게 성은 여전히 드러내 놓고 말하기 어렵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반증이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 조사는 목회자들이 가진 교회내에서의 양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 시스템에 대한 필요 및 의견을 개진한 것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회자들은 교회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남녀의 역할에도 구분없이 사역하고 있으며, 역할에 구분을 두는 것은 단지 개별능력이나 신체적 차이 때문이지 전통적인 사고구조나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나 동의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여성 성도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한국교회에서 담임목사의 비율은 90% 이상이 남성이며, 각종 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조직에서의 장로를 비롯한 리더십 역시 남성이 대부분이다. 여성 장로 비율은 각 교단 공히 10%보다 훨씬 하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 내부에서도 사실 실제로 부서의 장은 여신도로만 구성된 자치회, 구역조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리더십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양성평등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권위적 사고구조에 의한 결과물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제도적 논의에 대해서 좀더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목회자들은 여전히 교단이나 교회 내에서 교회 성폭력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 근래 몇 년간 예장 통합, 감리교, 기장 등에서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의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교육의 유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긴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며, 실제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성폭력 교육은 일반 사회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교육과는 그 전달내용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는 동시에 교인들을 위한 보다 적합한 예방프로그램들을 마련함으로써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개인의 영성관리보다는 교단 차원의 목회자를 위한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돌봄 프로그램 마련이라든가, 성폭력 관련 교육, 교단내의 명확한 처리지침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는 것은 이를 위한 예방의 문제가 단지 목회자 개인의 자신에 대한 관리 문제를 넘어선 어떤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영성관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긴 해야 하나, 그렇게 개인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은 교단의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라 여겨진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그것을 넘어선 영성증진과 건강 돌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또 목회자들이 충분히 이를 받아들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목회자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의 성범죄 처리 시스템에 대한 목회자들의 의견이다.

목회자 대부분은 한국교회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대부분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며 공적으로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해 목회자를 제대로 치리함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목회자와 교인이라는 두터운 신뢰가 형성된 위계 관계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 구조적 문제로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이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가혹한 범죄이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거나, 사랑이나 관심이었다는 말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서는 교단이 책임지고 그에 대한 치리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목회자의 성범죄를 개인의 성적, 윤리적 일탈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을 매개로 하는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다. 즉, 가해자는 사회구조, 교회 구조에서 자신이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교회 특유의 목회자에 대한 절대적 신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준 권위에 대한 절대순종 등의 문화와 가르침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윤리적 태도를 확고히 하고, 영성적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변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 태도와 남녀위계적인 교회문화에 도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여겨진다.

네 번째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치리여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교인과 목회자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지점이 보여지는데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 교인들은 그 목회자를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면 거의 90%가까운 응답을 보인 반면, 목회자들은 정직 후 회개를 보이면 복권시킬 수 있다에 5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교인들에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순종해야 하는 힘을 가진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죄해서도 안되고 실수해서도 안되는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것의 비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다른 말로 본다면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아직도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이라는 어쩌면 가장 인간의 본능적이고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범죄에 대해 목회자의 지위 박탈이라는 철저한 치리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설문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목회자를 다시 복권시켜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에게 다시 그 이유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정컨대,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므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치리는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사람들이 함부로 하게 되서는 안된다는 등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필자가 목회자의 성범죄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언설이기도 하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비겁한 변명일 수 밖에 없다.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회개일 수 없다. 적어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목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의 순명의 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이다.

이와 같이 목회자의 성인식 조사에 대해 몇가지를 요약하였다. 한국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젊은 층은 교회를 떠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지도자들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해 실망을 넘어선 분노와 싸늘한 무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는 너무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외형을 살찌우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가지는 건강한 성인식 제고를 위해, 또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관심과 고민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 여겨진다.

발제 1.

구약을 통해서 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제언들

박유미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

들어가는 말

2021년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 성인지 감수성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설문문항의 하나가 목사의 성문제에 대한 것이다.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인의 56.1%, 목사의 82.5%가 성범죄/ 성적 스캔들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목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에 교인은 86.5%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목사는 44.6%만 영구 제명에 찬성하였다. 대신 49%에 달하는 목사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 시킬 수 있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목사 성범죄 처리에 대한 교인들과 목사의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질문에서 교인들은 85%가 영구적 제명에 응답한 반면 목사는 49.6%만 찬성하고 45%는 일정 기간 정직 후 복권 시킬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시 교인들은 목사의 책임이 42%라고 답한 반면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답하였다. 이런 결과를 보면 목사들은 성범죄와 성적 스캔들에 대해서는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성적 문제에 목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후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범죄와 성적 스캔들에 있어서 교인들은 영구적 제명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 반면 목사들은 일시적 정직 수준의 약한 처벌을 원했다. 즉, 성윤리 인식은 일반 교인들과 동일하지만 실제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교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는 다윗의 성범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도 나타난다. 목사들은 다윗의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항목에 91.3%나 되는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시 목회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1.1%만 찬성하였다. 이런 응답은 일시적 정직에 45%이상 찬성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 목사들도 성경 본문을 직접 언급하며 성범죄를 지적한 경우에는 엄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인식과 달리 성범죄 목사에 대해 영구적 제명보다는 일시적 정직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성범죄 사건이다.

이 글에서는 목사와 교인 사이의 처리 문제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구약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목사직 유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삼하 11-12장의 다윗의 성범죄와 다윗 성범죄 처벌의 특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목사직을 어떤 직분으로 규정해야 할지 신구약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넷째, 위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와 현재 한국 사회의 성범죄에 처벌의 문제를 비교하며 개신교가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구약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처벌

1) 간통 사건(출 20:14; 레 20:10; 신 5:18; 신 22:22-24)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그 후 목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간통에 해당되고 있으며 성경은 이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구약을 넘어 현재까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되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다(출20:14; 신5:18). 여기서 간음은 나아프(**נָאֵף**)로 간통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즉, 십계명은 간통을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성범죄도 포괄하고 있다. 십계명에는 간통에 대한 처벌 조항이 언급되지 않지만 레위기 20:10⁸⁾과 신 22:22⁹⁾에서 간통한 남녀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한다. 두 부분 모두 ‘반드시’라는 말을 삽입하여 간통죄의 처벌에 대해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도 독특한데 고대 근동에서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은 아내나 상간남의 처벌에 대해 관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용서한 경우 아내나 상간남이 벌금을 내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¹⁰⁾ 하지만 구약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왕이나 어떤 권력자도 간통한 사람의 처벌에 관여할 수 없다. 간통한 경우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엄격한 처벌관습을 가지고 있다.¹¹⁾ 잠언도 아들에게 주는 경고에서 ‘다른 여자’ 즉, 결혼한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 즉, 간통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다.¹²⁾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간통을 언급한다(렘 5:7¹³⁾; 7:9¹⁴⁾).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악행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간통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23:10¹⁵⁾에서는 예루살렘 선지자의 간통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을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범죄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한다. 29:23¹⁶⁾에서는 특히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의 간통죄를 언급하며 이들이 바벨론 왕에게 화형당한 것은 이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신다. 이렇게 구약에서 간통에 대한 입장과 처벌은 명확하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곧 사회법이 되는 신정 사회로 간통죄는 사형이란 처벌을 받았다.

구약의 법은 신약 시대까지 내려왔다. 요 8:4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간통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며 시험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전히 간통한 사람에 대해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이 거의 일치하였기에 간통죄에 대해 다른 이견이 없었다.

8) 레 20: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9) 신 22:22 유부녀와 동침한 자는 반드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10) J. R. Ziskind, "TREATMENT OF WOMEN IN DEUTERONOMY", *JBQ* 27(3) (1999), 232.

11) 박유미, "신명기 22:13-29에 나타난 성윤리와 성범죄에 대한 현대적 적용", 「구약논단」 77(2020), 151.

12) 김순영 "잠언, 남성의 정절을 말하다", (2021. 10.2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63>

13) 렘 5:7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14) 렘 7: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5) 렘 23:10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6) 렘 29:23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 성폭행에 대한 처벌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신명기 22장은 두 종류로 다룬다. 약혼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신 22:25-27)과 약혼하지 않은 여성(신 22:28-29)에 대한 성폭행이다. 약혼한 여성의 성폭행인 경우 가해 남성에게 대한 처벌은 사형이고 여성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여기서 남성을 죽이는 이유는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웃은 성폭행당한 여성이 아니라 약혼자이다. 즉, 가해자는 약혼자의 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여성의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를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벌금 50세겔(신부값과 같은 금액)을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 주고 처녀와는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을 해야 한다. 즉, 피해자의 평생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신부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면 결혼은 면할 수도 있다(출 22:16-17). 이 법의 전제는 여성의 성을 여성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로 보는 것이다. 고대 근동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성은 아버지와 남편의 소유로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러므로 성폭행은 여성의 신체적 침해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남편과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¹⁷⁾ 하지만 이 법을 보면 성폭행에 대해 사형이나 배상과 함께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매우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폭행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행에 대한 구약의 처벌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구약 법의 의도를 살리는 적용은 가능하다. 현재는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권은 여성에게 있으며 성폭행은 타인인 여성의 성적 결정권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성적 권리의 침해를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구약의 정신에서 보면 현재도 교회는 성폭행에 대해 사형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평생을 책임질만한 물질적 배상을 해야만 할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약은 간통과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한 처벌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왜 목사의 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2. 다윗이 받은 용서는 어떤 것인가?

삼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통적으로 다윗의 간통 사건으로 다윗이 밋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왕이란 권력으로 성폭행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91%가 이 해석을 찬성하고 있다. 본문도 다윗이 밋세바가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하는 등 다윗의 적극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다윗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다. 그런데 “다윗이 밋세바를 성폭행 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대로 왕이 됐다. 회개하면 목사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이런 주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45%가 넘는 목사들이 면직 대신 정직을 주장하며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윗이 받은 처벌과 용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다.

1) 다윗이 받은 용서는 죽음과 징벌을 포함한다.

다윗이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후 내려진 징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셋째, 네 아내들이 백주에 빼앗길 것이다. 넷째,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기서 앞의 세 가지는 다윗이 죄를 인정하기 전에 내려진 징벌이다.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 그는 죄에 대해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17) 참조, 박유미, “신명기 22:13-29에 나타난 성윤리와 성범죄에 대한 현대적 적용”, 154-158.

18)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0284/20161223/“다윗이 밋세바 범했어도...” 성범죄 목사들의 오용](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0284/20161223/“다윗이 밋세바 범했어도...” 성범죄 목사들의 오용”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htm)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htm

한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위 세 가지의 징벌 속에 다윗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만일 다윗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죄에 대한 인정으로 인해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런데 14절에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선언된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가 ‘다윗의 죽지 않음’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의 죽음’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우리말에서 ‘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에비르(הָעִבִּיר)인데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의 동사 아바르(עָבַר)의 히필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그가 옮겨놓다(창47:21), 지나가게 하다(왕하16:3, 대하 33:6, 렘 46:17), 거두어들이다(스 8:2)’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번역은 ‘지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로 ‘여호와가 그의 죄를 지나가게 하였다’로 번역한다. 하지만 ‘옮겨놓다’로 번역할 경우 ‘여호와가 그의 죄를 옮겨놓았다 그리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된다. 이것은 다윗에게 내려진 죽음이 아이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즉 다윗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다.¹⁹⁾ 학자들이 다윗의 죄가 아기에게 전가되어 아기가 죽게 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²⁰⁾ 다윗은 아이가 태어난 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중병에 걸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였다. 7일동안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다윗이 알도록 하신 후 결국 아이를 죽이신다. 다윗은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왕위를 유지했지만 하나님의 처벌을 하나도 피하지 못했다. 다윗이 죽음을 면한 것은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지 죄가 사라져서가 아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려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벌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첫 번째 처벌은 다윗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칼²¹⁾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아를 죽인 대가²²⁾로 다윗과 그 집안에 전쟁과 죽음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그의 가족도 영속적으로 죽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³⁾ 그리고 이것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의 죽음 등 다윗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처벌은 하나님이 다윗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반역 사건을 의미하는데 압살롬의 반역과 이후 세바의 반란은 이런 예언의 성취이다. 세 번째 처벌도 압살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윗에게 내려진 처벌은 다윗이 살아남아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만을 빼면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죄의 책임과 처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생명과 왕위를 보존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무거운 처벌은 모두 받아야 했다. 이렇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왕이 아니었으면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죽었을 것이다. 죄의 시인과 회개가 처벌을 면하는 만능키가 아니라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을 하나도 감해주시진 않았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를 재판하고 처벌할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죄를 시인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목숨과 왕위는 보존하였

19) 윤동녕. (2015). “대리 왕 제의(代理王祭儀)의 관점으로 본 다윗 왕의 위기 극복 과정”. 『구약논단』, 21(3), 140.

20) A. A. 앤더슨, 『사무엘하』, 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284. 월터 블루거만, 『현대성서주석: 사무엘상, 하』,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22.

그리고 이런 해석은 가족의 단일체적인 성격 혹은 가족의 연대적인 책임이라는 당시의 개념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앤더슨, 『사무엘하』, 284.

21) 삼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요압에게 괜찮다는 말을 전할 때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삼하 11:25)”라고 말한다. 이 말은 병가지상사라는 의미를 지닌 은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이용하여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칼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한다.

22) 삼하 12:9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23) 블루거만, 『사무엘상, 하』, 422.

다. 하지만 왕이었어도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벌은 하나도 피하지 못했다.

2) 다윗의 범죄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렸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다.

① 가정에 끼친 영향

다윗의 성범죄 사건 이후 다윗의 가정에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암논이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으며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다윗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암논의 비정상적인 요청을 들어준다(삼하 13:6-7).²⁴⁾ 이것은 다윗이 암논에 대한 총애로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다말의 고발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는 화만 낼뿐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삼하 13:21). 그는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사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재판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암논의 죄를 그냥 덮어주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첫째, 암논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자신의 장자이자 왕위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던 암논에 대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다윗은 다말의 외침을 묵살하고 암논의 죄를 덮어주었다. 그는 피해자 다말의 아버지로, 혹은 사건을 재판하는 왕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만 행동하였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비록 왕좌를 지키고 있지만 왕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⁵⁾ 둘째,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간 갓난 아들의 모습을 목도하며 가슴을 찢었지만 그 아이의 죽음 후 그는 모든 징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며 나단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겼다. 다윗이 왕권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호의도 있지만 단지 그의 개인적인 영광이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평안을 위해서이다. 갑작스럽게 왕이 바뀌게 되면 이스라엘과 주변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와 이스라엘의 평안을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를 다윗은 가볍게 여겼다. 자신도 성폭행과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살았으니 암논의 성폭행 정도는 처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한 죄를 저지른 아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묻으려고 했던 것처럼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다. 후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왕이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가 갖는 한계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아들의 죽음으로 얻은 목숨과 왕권을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돕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데 사용하였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가족 안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암논은 징계받지 않고 다말은 피해자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야 했으며(삼하 13:22) 압살롬은 이 일로 암논과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게 된다. 아버지의 권위도 상실되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난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암논의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으로 다윗 집에 예고된 재앙이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다윗 집의 재앙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윗의 어리석음과 불공정한 판단이었다.

24) 박유미,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 권지성편집, (서울: CLC, 2019), 50.

25) 박유미, “성폭행,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 구약성서와 성폭력 그리고 권력』, (서울: 동연, 2020), 36.

②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도 깨뜨렸다.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덮은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암논을 자신이 직접 죽인다(삼하 13:29).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사적 보복을 가한 것이다.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한지 3년만에 요압의 도움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에게 가졌던 불만 즉,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 불의한 왕이라는 생각은 여전했다. 그렇기에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전략은 다윗 대신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며 정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왕은 네 송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삼하 15:3), 대신 자신이 정의로운 재판을 행하겠다고 말한다(삼하 15:4). 그리고 그의 전략은 백성들에게 잘 먹혀들었고 백성들은 압살롬을 신뢰하게 되었다(삼하 15:6). 압살롬이 다윗의 재판을 공략한 것은 그것이 다윗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문은 압살롬이나 백성들이 다윗의 범죄를 아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²⁶⁾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이 암논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퍼뜨렸고 백성들도 다윗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재판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결국 다윗보다 압살롬을 신뢰한 백성들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발발하고 백성들은 다윗 편과 압살롬 편으로 나뉘어 싸우며 이스라엘의 평안은 완전히 깨진다.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면서 내전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며(삼하 20:1-2)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난다. 다윗의 후반기 치세 동안은 혼란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도자의 범죄는 공동체의 평안을 깨며 불신과 분쟁과 혼란을 가져오게 됨을 다윗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목사직의 성격

“목사는 왕인가”라는 대해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총회 헌법에도 목사직을 교사, 목자, 그리스도의 종, 장로, 복음의 사신 등으로 부르지만²⁷⁾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진 않는다. 그런데 많은 목사는 여전히 스스로를 ‘기름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부른다. 예전에 목회학 시간에 목사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을 계승하는 것으로 배운 기억이 있다. 이렇게 목사 스스로 총회 헌법과는 다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왕권과 목사직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왕권과 목사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왕의 특수성

현대 사회는 왕정 시대가 아닌 민주 사회이다. 하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는 왕이 최고 권력자이자 심판관인 왕정 시대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은 한 번 세워지면 파면이 없다.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된 아합도 폐위되지 않았다. 이것이 왕정 국가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세상 권력이 없다. 만일 왕의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처음부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그의 입으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를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나단의 비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한 뜻이다. 그러나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는 한 그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왕이

26) 삼하 13장에서 아들의 죽음 후 애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신하들이 의아해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관계자 몇 명외에는 잘 모르는 비밀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7)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6), 154-155.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즉, 살아있는 한 왕권은 유지되는 시대였다. 왕정시대에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인 것이다. 그러나 왕정시대에도 일반 백성들은 토라의 적용을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일반 백성은 1장에서 언급한 성범죄 율법을 따라 처벌을 받았다. 단 한명 왕만 예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특수한 직급을 모든 목사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그리고 지금은 왕정 시대도 아니고 교회도 목사의 왕국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도 나라에 속한 한 단체이고 목사도 이 나라 시민으로 법으로 정한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처벌을 받고 면직당할 수 있도록 교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주 왕정시대 왕권과 민주적인 신약 교회의 목사직을 연결하는 해석은 성경을 따르는 것도 교회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 잘못된 해석이다.

2) 교회 목사의 개념

신약의 교회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공동체이다. 신약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투표로 선출된다. 12제자 중에 가롯유다 대신 사도로 임명된 맛디아도 공동체가 두 사람을 후보로 선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제비뽑아서 선출되었다(행1:23-26). 장로와 감독도 공동체가 선출한다.(딤후 3장, 딤후 1장) 그러므로 그의 직책을 면직시키는 것도 공동체의 권한이다. 장로도 교인들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면직당하거나 퇴출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교단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목사직은 교회의 청원으로 노회가 승인하며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동의로 임명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파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목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은사에 따라 직분을 받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엄격한 윤리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되라(벧전 5:2-3)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딤후 3:2)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딤후 1:6)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딤후 1:7)“

이렇게 신약의 장로나 감독직은 공동체에 의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자를 공동체가 선출하고 도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퇴출될 수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과 도덕성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도덕성이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와 다르게 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기준은 신앙이며 신약의 지도자에게 요구된 도덕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신앙의 문제로 퇴출된 왕은 있어도 도덕성의 문제로 퇴출된 왕은 없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 목사는 왕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지도자를 계승한 직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목사의 처벌에 대한 논의

위에서 목사직은 왕과 같을 수 없고 다윗의 용서가 모든 죄책이나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럼 목사의 처벌은 어떤 수위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목사나 성도들도 사회법을 어긴 경우에는 사회법을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따를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을 받고 죄질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성범죄와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은 목사에 대한 교회의 처벌이다.

첫째, 사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성범죄에 대한 교회의 처벌 문제는 대표적으로 간통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장에서 보듯이 간통죄는 기독교인의 기본법인 십계명에 언급될 정도로 성경에서는 심각한 성범죄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목사와 성도들 모두 간통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간통죄가 드러난 경우 교회 공동체에서는 퇴출되지만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를 면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현재 목사와 성도들의 인식은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성도들의 경우 면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85% 이상) 목사는 처벌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신약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신약시대는 지금처럼 사회법과 교회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시대였다. 이때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교회법을 따라 판단하고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구약의 토라를 기반으로 좀 더 엄격한 윤리적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공동체 일원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강하게 책망한다(고전 5:1-2). 이것은 신 27:20; 레 18:8 20:11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다. 이런 음행한 자를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이들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한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음행한 자가 있거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경고한다(고전 5:11). 바울은 성도가 아닌 자의 음행은 상관할 것이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음행은 교회 공동체가 판단하고 죄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내쫓아야 한다(13절)고 말한다. 이런 음행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구약의 신명기법에 의거한 것이다. 구약에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음행을 신약에서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적용한 것이다.²⁸⁾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윤리를 토라와 연결한 것은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상보다 높은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통과 같이 사회법과 성경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신약의 교회의 예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성범죄 전력이 있는 목사의 처벌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MeeTo 운동이후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교육기관의 경우 성범죄 전력을 조사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사회보다 덜 인식하고 있으며 성도를 교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목사 후보생 선발이나 목사 안수나 청빙에 성범죄 전력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성범죄를 일으킨 목사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하다. 면직이 되는 경우도 매우 적으며 목사의 45%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일반 교육 기관에서 성범죄자가 다시는 일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다른 말로하면 교회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다.²⁹⁾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제가 없다면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된다.

28) 리처드 헤이스, 『고린도전서』,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63.

29)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 불법촬영 75.0%, 성폭행 6.3%, 출처 성범죄와 재범률 (khan.kr),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63>

미국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 17%는 출감 후 5년 이내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21%이다. 또한 성범죄자 중 21.4%가 범죄 후 5년 이내에 위법 행위로 체포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2013년 미국 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소자 40만명을 분

교회 내적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범죄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교회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성범죄를 고발했을 때 가해 목사는 교회로 돌아오지만 피해를 고발한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볼 때 교회는 성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단체로 인식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성범죄 목사에 대한 처벌을 목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눈높이와 사회에서 목사에게 바라는 윤리적 눈높이를 고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회 공동체와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오는 말

이제 사회는 오랜 가부장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성이 감내하고 숨겨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성범죄에 대한 논의도 수면위로 떠오르며 교회와 목사의 책임있는 행동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요구를 목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남성주의적 담론에 기대 목사의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적거림은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목회 생명은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혼란과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성범죄를 근거로 성범죄에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바울의 준엄한 권면을 듣는 것이 현대 교회와 목사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석한 결과, 성범죄자의 21%는 출감 6개월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으며, 31%는 1년, 44%는 2년, 5%는 3년, 60%는 5년 이내에 재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죄도 저지르며 연쇄 범죄율이 매우 높다.

출처, 재범률 높은 '강간범'...검거율까지 낮은 이유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63>

발제 2.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홍보연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원장

이 조사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해보고 성평등 의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별화 되어있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파악하는 민감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감수성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고정된 관점을 유지한 태도가 아닌 인식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전제한다. 변화와 성숙은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떠한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에 대해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성찰은 현상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이번 조사에서 절반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교회가 성평등하다고 응답을 했다. 성폭력에 대한 과거의 통념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웠고 이른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었다. 정답을 알고 있으니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일까? 교회의 어떤 측면을 성평등하다고 여긴 것일까? 현재 우리의 교회를 제대로 보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역으로 우리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 주는 것은 아닐까? 여러 의문이 드는 응답 결과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 대상의 목회자 성비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성별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조사 대상의 교인 비율은 남자 44.3 여자 55.7로 여성이 절반이 넘는 인원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목회자 남녀 비율은 207명(97.8%) : 5명(2.2%)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주는 걸까? 장로교합동, 고신, 합신 등 교단은 여전히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안수가 허용되는 교단에서도 여성목회자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 법은 여성안수를 인정해도 교회의 전반적인 정서는 여성목사, 여성지도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초기부터 여성안수를 허용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도 여성목사의 비율이 2020년 기준 8.4%이며, 1995년부터 여성안수를 허용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도 2020년 기준 11.5%에 불과하다. 그나마 진보적인 교단 속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25%로 비교적 높은 수치이지만 여성목사의 많은 수가 청빙받지 못하여 무임 목사로 있거나 미자립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³⁰⁾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한국기독교교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불균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인지, 불균형한 것 알지만 이정도면 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30) 2020년 기준 감리교는 목사 전체 12502명 중 여성이 1051명, 예장통합은 목사 전체 20775명 여성이 2390명, 기장은 전체 3468명 중 여성이 867명이다. 기장은 역대 4명의 여성 노회장을 배출했고, 작년에 최초의 여성총회장을 선출하였다.

깨어나지 못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면서 점점 자라나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항목을 살펴보면 그 동의율이 34.6%(남26.5, 여41%)로 다른 항목보다 낮았다. 이는 성희롱이 지위나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회나 학교나 회사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이 둘 모두 합당하지 않다. 교회나 학교 회사 등 조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주로 힘의 불평등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상사, 목회자)이다.³¹⁾

현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이 임원이 되거나 수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위 ‘유리 천장’은 직장 내 성 차별로 인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여성의 날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를 발표한다.³²⁾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긴 평점으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은 100점 만점에 60점이었으며, 1위는 80점을 넘은 스웨덴이 차지했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점을 받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10개 성차별 항목 중 3개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우선 한국은 여성 임금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34.6%나 적었다. 또 여성 관리자 비율도 12.5%에 불과했고, 여성 기업이사의 비율도 2.3%로 꼴찌였다.³³⁾

이런 상황은 교회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는 교회의 남녀평등이 어떤 수준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불평등을 인식한 비율이 교인21%, 목회자37.5 뿐이었다. 교회에서 여성교인의 비율은 절반이 넘지만(감리교 58.5%, 예장통합 57.5%) 당회 등 교회의 주요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기구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어떠한가? 여성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은 100% 남성목사와 남성장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장로교 통합교단의 총회 대표의 여성 비율은 1.7%(1499명 중 26명)이며, 여성목사 비율이 25%나 되었던 기장도 ‘10명 이상에 1명’으로 10%를 넘지 않으며, 그나마 감리교회가 5년 전에 할당제가 통과되어 15%를 유지하고 있다. 수치로도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은 주방봉사, 꽃꽂이 봉사 등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둔감한 상태에서는 그간의 관행이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창세기의 돕는 베필이나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 등 성서에 대해 성평등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현장과 실제 관계에서 나의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 현실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역할고정관념을 고수하는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런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평소 내가 하는 언행이나 태도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예민하게 생각하고 늘 점검해야 한다.

31) 2017년 5월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남녀 근로자 모두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 중 29%(여성 34.4%, 남성 25.0%)가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었다. 남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성비는 남성 86.4%, 여성 13.6%였고 여성에 대한 가해자 성비는 남성 78%, 여성 22%로 나타났다. 주요 가해자는 간부·임원이 34.6%, 직속 상사가 28.4%로 가장 많았다. 선임 직원(14.8%), 원청 직원(9%), 고객(7%) 등이 뒤를 이었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05292233025#c2b>

32) 유리천장 지수에 사용되는 10개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 수준 2. 노동참여율 3. 임금 수준 4. 양육비용 5. 여성 출산/육아휴가 권리 6. 남성 출산/육아휴가 권리 7. 경영대학 지원현황 8. 기업 관리직 여성비율 9. 기업 이사회 여성비율 10. 의회 내 여성비율

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05647#home>

예를 들어 여신도들의 모임에서 초청된 남성목회자가 ‘설거지는 하고 집회에 왔냐’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 진급과정 심사에서 심사위원 목사가 진급 중인 결혼 안한 여전도사에게 ‘결혼 못해서 목사하려고 하나’고 묻거나 기혼인 여전도사에게 ‘당신 남편도 당신 설교를 듣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난 걸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평등적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 평등은 거저 주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특권이 많을 경우 타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교회가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감히 고백한다.

첨부1. 한국교회의 성 인식 조사결과 보고서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보고서 차례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 설계	2
3. 응답자 특성	3
1) 개신교인	3
2) 목회자	4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I. 성 관련 인식	6
1.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6
2.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14
3. 성경 속 남녀 이야기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21
1) 창세기의 '돕는 배필'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21
2)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23
II. 교회 내 양성평등	25
1. 출석/시무교회의 양성평등	25
2. 출석/시무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28
3. 출석/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31
4.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40
4-1.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	47
III. 설교와 양성평등	50
1. 남녀 평등적 설교 정도(목회자 대상)	50
2.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 정도	52
3.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55

IV.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63
1.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63
1-1.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65
2.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 경험(개신교인 대상)	74
V.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76
1.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76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	78
3.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81
4.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경험(목회자 대상)	85
5.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목회자 대상)	87
5-1.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는 이유(목회자 대상)	89
6.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92
VI.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	95
1.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95
1-1.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	98
VII. 목사의 성 스캔들에 대한 의견	102
1.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102
2.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107
3.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110
4.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113
5.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목회자 대상)	116
5-1.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목회자 대상)	118
6.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목회자 대상)	120

첨부 : 설문지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해보고 성 평등 의식수준을 알아본다.
- 이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교회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설계

구 분	개신교인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65세 교회 출석 개신교인	담임목사, 부목사, 설교/협력목사
조사 지역	전 국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총 800명 (유효 표본)	총 212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성/연령/지역 따른 비례할당*	목회자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자료 처리	수집 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1년 8월 30일 ~ 9월 9일	2021년 9월 3일 ~ 9월 5일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개신교인 조사는 성/연령/지역에 따른 비례할당 후 가중치를 부여함

: 2015 종교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비례할당 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현 시점에 맞게 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함.

- 1) 2015 인구센서스 기준 개신교/비개신교인 지역/성/연령 비율표 작성
- 2) 2015 인구센서스 기준 일반국민 지역/성/연령 비율표 작성
- 3) 2021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지역/성/연령 일반국민 비율표 작성
- 4) '2)'와 '3)'을 대조해 성/연령별 비율 증감 산출
- 5) '4)'에서 산출된 성/연령 증감율을 '1)'의 표에 적용해 가중치 산출
- 6) 가중치 부여

3. 응답자 특성

1) 개신교인

		사례수	%
■ 전체 ■		(800)	100.0
성별	남성	(354)	44.3
	여성	(446)	55.7
연령	19~29세	(142)	17.7
	30~39세	(150)	18.7
	40~49세	(194)	24.2
	50~59세	(200)	25.0
	60~65세	(115)	14.3
지역	서울	(205)	25.8
	경기/인천	(279)	35.0
	대전/충청	(67)	8.4
	광주/전라	(86)	10.9
	대구/경북	(50)	6.2
	부산/울산/경남	(76)	9.6
	강원/제주	(32)	4.1
직업	자영업	(96)	12.5
	블루칼러	(125)	16.2
	화이트칼러	(244)	31.7
	전업주부	(198)	25.7
	학생	(64)	8.3
	기타/무직	(43)	5.6
결혼여부	결혼	(586)	73.2
	미혼	(214)	26.8
교인 수	49명 이하	(95)	11.9
	50-99명	(70)	8.7
	100-299명	(145)	18.1
	300-499명	(93)	11.6
	500명 이상	(397)	49.7
교단	장로교(합동)	(213)	26.6
	장로교(통합)	(213)	26.6
	기타 장로교	(85)	10.6
	기타 교단	(210)	26.3
	잘 모름	(80)	10.0
신앙단계*	1단계	(108)	13.5
	2단계	(304)	38.0
	3단계	(174)	21.7
	4단계	(214)	26.8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9.8
	중도	(347)	43.4
	진보	(214)	26.8

* 1단계 :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고백이나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다.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교회에도 규칙적으로 출석하려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3단계 : 나는 예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 나는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편이다.

4단계 : 신앙은 나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교회에서의 봉사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

2) 목회자

		사례수	%
■ 전체 ■		(212)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61.5
	부목사	(66)	31.1
	설교/협력목사	(16)	7.5
성별	남성	(207)	97.8
	여성	(5)	2.2
연령	39세 이하	(46)	21.5
	40~49세	(45)	21.2
	50~59세	(72)	33.8
	60세 이상	(50)	23.5
지역	서울	(57)	26.7
	경기/인천	(59)	27.9
	대전/충청	(25)	11.8
	광주/전라	(23)	11.0
	대구/경북	(12)	5.5
	부산/울산/경남	(15)	7.1
	강원/제주	(15)	6.9
지역크기	해외	(7)	3.2
	대도시	(104)	48.9
	중소도시	(77)	36.2
교인 수	읍/면	(32)	14.9
	49명 이하	(54)	25.6
	50-99명	(41)	19.2
	100-199명	(26)	12.2
	200-499명	(44)	20.8
교단	500명 이상	(47)	22.2
	장로교(합동)	(54)	25.4
	장로교(통합)	(53)	24.8
	기타 장로교	(29)	13.7
정치적 성향	기타 교단	(76)	36.1
	보수	(80)	37.8
	중도	(66)	31.1
	진보	(66)	31.1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I. 성 관련 인식

1.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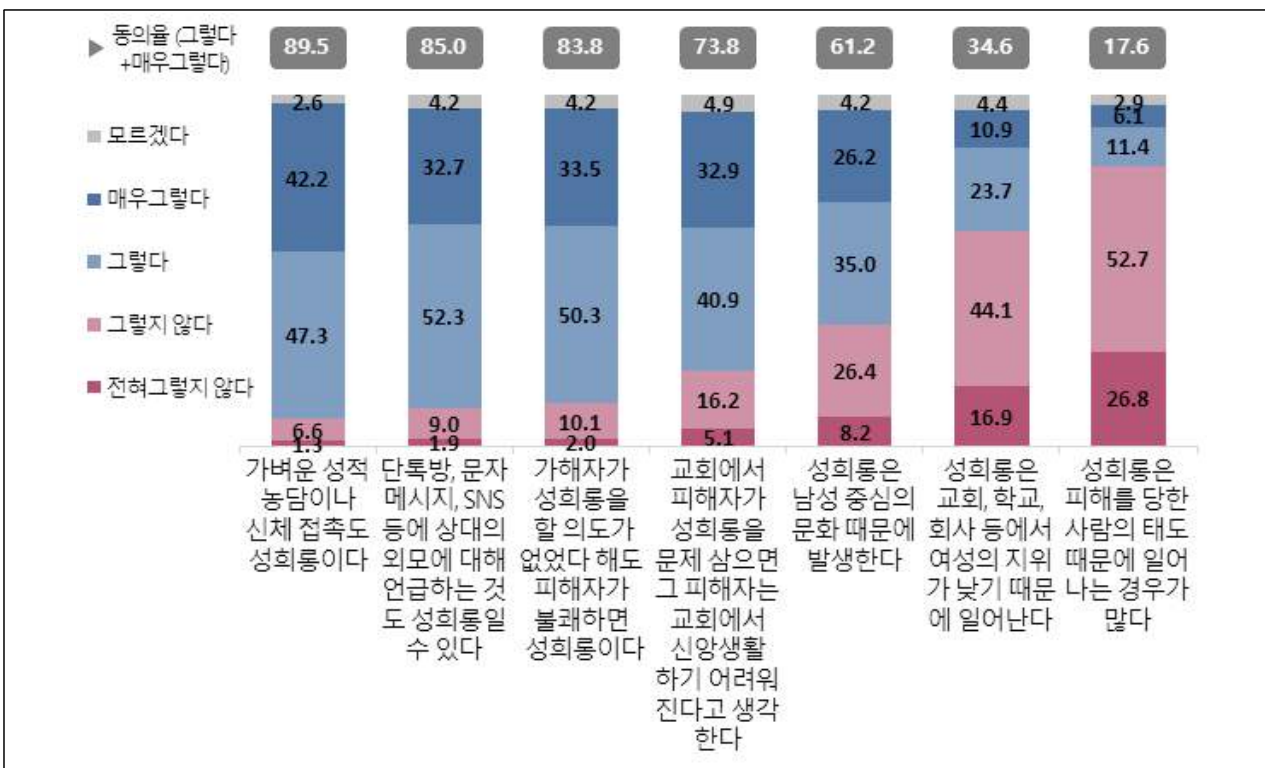
(개신교인) 다음은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각각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해봤다. 동의율(그렇다+매우그렇다)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다'에 대한 동의율이 89.5%로 가장 높았고, '단톡방, 문자 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85.0%,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 83.8%, '교회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그 피해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73.8%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항목은 동의율 17.6%, 비동의율 79.5%로 비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꼽혔다.
- '성희롱은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 '단톡방, 문자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의 동의율은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 때문'의 동의율은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높고, 비동의율은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1.3	6.6	47.3	42.2	2.6	100.0	8.0	89.5
성별	남성	(354)	2.1	9.0	52.6	33.3	3.1	100.0	11.1	85.9
	여성	(446)	.7	4.8	43.1	49.3	2.2	100.0	5.5	92.3
연령	19~29세	(142)	4.1	1.9	43.6	46.4	3.9	100.0	6.0	90.1
	30~39세	(150)	2.1	2.2	44.0	49.2	2.5	100.0	4.3	93.2
	40~49세	(194)	.5	6.5	49.8	41.3	1.8	100.0	7.0	91.1
	50~59세	(200)	.3	11.5	45.3	40.2	2.6	100.0	11.8	85.5
	60~65세	(115)	.0	10.0	55.4	32.6	2.1	100.0	10.0	87.9
지역	서울	(205)	1.9	8.0	45.9	42.0	2.2	100.0	9.9	87.9
	경기/인천	(279)	1.8	6.1	47.0	42.1	2.9	100.0	7.9	89.1
	대전/충청	(67)	.6	4.0	53.4	40.1	2.0	100.0	4.6	93.5
	광주/전라	(86)	1.5	3.8	52.5	39.0	3.2	100.0	5.3	91.5
	대구/경북	(50)	.0	8.1	52.7	38.2	1.0	100.0	8.1	90.9
	부산/울산/경남	(76)	.0	11.2	35.9	49.3	3.6	100.0	11.2	85.2
	강원/제주	(32)	.0	3.4	51.9	44.6	.0	100.0	3.4	96.6
지역크기	대도시	(441)	1.4	7.6	45.8	41.6	3.6	100.0	9.0	87.4
	중소도시	(300)	1.4	5.6	47.7	43.8	1.4	100.0	7.1	91.5
	읍/면	(59)	.0	5.0	56.1	38.3	.6	100.0	5.0	94.4
직업	자영업	(96)	6.0	11.7	47.8	34.5	.0	100.0	17.6	82.4
	블루칼러	(125)	.0	5.3	53.7	37.7	3.4	100.0	5.3	91.3
	화이트칼러	(244)	1.4	6.5	44.8	44.5	2.8	100.0	7.9	89.3
	전업주부	(198)	.0	6.0	43.9	47.1	3.0	100.0	6.0	91.0
	학생	(64)	2.2	3.6	42.8	45.7	5.7	100.0	5.8	88.5
	기타/무직	(43)	.0	6.3	56.2	37.5	.0	100.0	6.3	93.7
결혼여부	결혼	(586)	.3	8.0	47.4	41.7	2.6	100.0	8.3	89.1
	미혼	(214)	4.2	2.8	47.0	43.4	2.6	100.0	7.0	90.4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0	6.9	48.0	41.8	2.3	100.0	7.8	89.9
	비봉사	(368)	1.7	6.4	46.4	42.6	2.9	100.0	8.1	89.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0	15.0	48.7	33.8	2.5	100.0	15.0	82.5
	서리집사	(292)	.8	6.8	49.5	40.7	2.3	100.0	7.6	90.2
	일반성도	(399)	2.1	4.3	45.3	45.5	2.8	100.0	6.3	90.8
교인 수	49명 이하	(95)	.7	3.5	62.6	30.3	2.9	100.0	4.2	93.0
	50~99명	(70)	2.0	3.6	43.9	45.6	4.9	100.0	5.6	89.5
	100~299명	(145)	.4	8.7	44.0	45.2	1.7	100.0	9.1	89.2
	300~499명	(93)	1.0	9.5	35.8	51.7	2.0	100.0	10.6	87.4
	500명 이상	(397)	1.7	6.5	48.1	41.1	2.5	100.0	8.3	89.2
교단	장로교(합동)	(213)	1.3	8.6	43.9	41.6	4.6	100.0	9.9	85.5
	장로교(통합)	(213)	2.3	7.7	51.4	36.9	1.6	100.0	10.0	88.3
	기타 장로교	(85)	.6	7.6	43.9	46.6	1.3	100.0	8.2	90.5
	기타 교단	(210)	1.1	4.3	53.0	39.5	2.2	100.0	5.4	92.4
	잘 모름	(80)	.0	3.7	34.3	60.0	2.0	100.0	3.7	94.2
신앙단계	1단계	(108)	.6	10.9	57.3	30.2	1.0	100.0	11.5	87.5
	2단계	(304)	.2	4.6	45.5	48.4	1.3	100.0	4.8	93.9
	3단계	(174)	3.5	6.4	49.7	35.4	5.1	100.0	9.8	85.1
	4단계	(214)	1.6	7.7	42.8	44.9	3.1	100.0	9.2	87.7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1.0	6.5	47.6	42.1	2.8	100.0	7.4	89.8
	여성	(63)	5.4	8.6	43.3	42.8	.0	100.0	14.0	86.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3	8.0	51.8	36.7	2.2	100.0	9.3	88.5
	중도	(347)	2.0	4.5	48.1	41.8	3.6	100.0	6.5	89.9
	진보	(214)	.3	8.6	41.0	48.8	1.4	100.0	8.9	89.7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단톡방, 문자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1.9	9.0	52.3	32.7	4.2	100.0	10.8	85.0
성별	남성	(354)	3.0	12.2	49.9	29.7	5.2	100.0	15.2	79.6
	여성	(446)	1.0	6.4	54.2	35.1	3.4	100.0	7.3	89.3
연령	19~29세	(142)	4.4	6.4	44.1	36.6	8.6	100.0	10.8	80.6
	30~39세	(150)	3.7	5.0	47.6	37.6	6.2	100.0	8.7	85.2
	40~49세	(194)	.9	9.8	52.5	36.3	.6	100.0	10.7	88.8
	50~59세	(200)	.8	11.3	58.3	29.0	.6	100.0	12.0	87.3
	60~65세	(115)	.0	11.9	57.7	22.1	8.4	100.0	11.9	79.7
지역	서울	(205)	3.0	6.3	54.1	31.1	5.5	100.0	9.3	85.2
	경기/인천	(279)	2.4	11.2	47.9	33.9	4.6	100.0	13.6	81.8
	대전/충청	(67)	.7	4.8	60.7	31.9	2.0	100.0	5.4	92.6
	광주/전라	(86)	1.2	9.6	53.7	34.7	.8	100.0	10.8	88.4
	대구/경북	(50)	.0	12.7	55.8	28.4	3.1	100.0	12.7	84.2
	부산/울산/경남	(76)	.7	12.9	48.7	30.9	6.8	100.0	13.7	79.6
	강원/제주	(32)	.0	.0	66.3	33.7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41)	2.2	10.0	48.9	34.3	4.5	100.0	12.3	83.2
	중소도시	(300)	1.5	7.4	53.6	33.6	3.8	100.0	8.9	87.3
	읍/면	(59)	.8	9.0	70.5	16.4	3.4	100.0	9.7	86.9
직업	자영업	(96)	6.0	17.0	47.3	23.5	6.3	100.0	23.0	70.8
	블루컬러	(125)	.0	4.0	57.5	33.7	4.9	100.0	4.0	91.1
	화이트컬러	(244)	2.7	8.4	51.2	34.9	2.7	100.0	11.1	86.2
	전업주부	(198)	.0	6.3	55.1	34.2	4.3	100.0	6.3	89.3
	학생	(64)	2.2	7.2	43.7	39.4	7.5	100.0	9.4	83.0
	기타/무직	(43)	.0	25.3	44.7	30.0	.0	100.0	25.3	74.7
결혼여부	결혼	(586)	1.0	9.5	52.9	33.0	3.7	100.0	10.5	85.9
	미혼	(214)	4.3	7.5	50.7	31.9	5.6	100.0	11.8	82.6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5	11.7	49.1	32.6	5.1	100.0	13.2	81.7
	비봉사	(368)	2.3	5.7	56.1	32.8	3.1	100.0	8.1	88.9
교회 직분	종직자	(109)	.0	17.0	47.2	28.0	7.8	100.0	17.0	75.2
	서리집사	(292)	.7	9.5	55.3	31.8	2.7	100.0	10.2	87.1
	일반성도	(399)	3.2	6.4	51.4	34.7	4.3	100.0	9.6	86.1
교인 수	49명 이하	(95)	.6	7.0	57.0	32.4	3.0	100.0	7.6	89.4
	50-99명	(70)	2.7	9.1	37.3	44.1	6.8	100.0	11.7	81.5
	100-299명	(145)	2.0	14.3	49.7	29.1	4.9	100.0	16.3	78.8
	300-499명	(93)	1.6	8.6	57.9	30.4	1.4	100.0	10.2	88.4
	500명 이상	(397)	2.1	7.5	53.4	32.7	4.3	100.0	9.6	86.1
교단	장로교(합동)	(213)	2.7	5.2	54.4	32.0	5.7	100.0	7.8	86.4
	장로교(통합)	(213)	1.7	10.1	55.5	30.0	2.7	100.0	11.8	85.5
	기타 장로교	(85)	1.9	15.3	43.9	38.9	.0	100.0	17.2	82.8
	기타 교단	(210)	1.4	9.9	54.7	32.5	1.6	100.0	11.3	87.1
	잘 모름	(80)	1.3	6.9	40.6	36.1	15.1	100.0	8.2	76.7
신앙단계	1단계	(108)	1.6	7.8	51.2	37.5	1.9	100.0	9.4	88.7
	2단계	(304)	1.2	7.4	52.5	33.0	5.9	100.0	8.6	85.5
	3단계	(174)	3.1	9.6	55.9	26.1	5.2	100.0	12.8	82.0
	4단계	(214)	1.9	11.2	49.6	35.3	2.0	100.0	13.1	84.9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1.5	9.3	52.5	32.3	4.5	100.0	10.7	84.8
	여성	(63)	6.7	5.3	49.4	37.9	.7	100.0	12.0	87.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4	7.5	55.2	32.2	3.7	100.0	8.9	87.4
	중도	(347)	3.1	7.8	48.7	34.2	6.2	100.0	10.9	83.0
	진보	(214)	.5	12.4	54.8	30.9	1.4	100.0	12.9	85.7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2.0	10.1	50.3	33.5	4.2	100.0	12.1	83.8
성별	남성	(354)	3.6	13.1	51.4	26.1	5.7	100.0	16.7	77.6
	여성	(446)	.7	7.6	49.4	39.3	3.0	100.0	8.3	88.7
연령	19~29세	(142)	4.4	2.6	41.9	44.8	6.2	100.0	7.0	86.8
	30~39세	(150)	3.5	6.5	44.2	39.4	6.4	100.0	10.0	83.5
	40~49세	(194)	.8	13.6	48.4	34.2	2.9	100.0	14.5	82.6
	50~59세	(200)	.2	16.5	48.4	30.4	4.4	100.0	16.7	78.9
	60~65세	(115)	2.1	6.6	75.1	15.9	.3	100.0	8.7	91.0
지역	서울	(205)	2.6	17.1	41.0	36.5	2.8	100.0	19.7	77.5
	경기/인천	(279)	3.6	5.8	53.7	31.4	5.4	100.0	9.5	85.1
	대전/충청	(67)	.0	8.7	53.5	36.3	1.5	100.0	8.7	89.8
	광주/전라	(86)	.5	7.1	54.7	35.6	2.1	100.0	7.6	90.3
	대구/경북	(50)	.0	13.6	47.7	35.5	3.2	100.0	13.6	83.2
	부산/울산/경남	(76)	.0	13.2	48.1	28.2	10.5	100.0	13.2	76.3
	강원/제주	(32)	.0	.0	73.3	26.7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41)	2.7	12.1	44.7	36.0	4.5	100.0	14.8	80.6
	중소도시	(300)	1.0	6.1	57.0	32.0	3.8	100.0	7.1	89.0
	읍/면	(59)	1.7	14.7	58.1	22.4	3.1	100.0	16.4	80.5
직업	자영업	(96)	6.0	14.9	56.3	19.9	3.0	100.0	20.9	76.2
	블루컬러	(125)	1.9	8.2	55.7	34.1	.0	100.0	10.1	89.9
	화이트컬러	(244)	2.6	9.0	46.8	35.8	5.7	100.0	11.7	82.6
	전업주부	(198)	.0	10.8	50.1	34.6	4.6	100.0	10.8	84.6
	학생	(64)	2.2	.0	46.7	43.8	7.3	100.0	2.2	90.5
	기타/무직	(43)	.0	20.2	42.3	31.1	6.4	100.0	20.2	73.4
결혼여부	결혼	(586)	1.3	12.2	50.7	32.0	3.8	100.0	13.5	82.7
	미혼	(214)	3.8	4.3	49.0	37.7	5.2	100.0	8.1	86.7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2	12.1	51.8	31.3	3.6	100.0	13.3	83.1
	비봉사	(368)	2.9	7.7	48.5	36.0	4.8	100.0	10.6	84.5
교회 직분	종직자	(109)	.4	13.1	62.4	22.1	1.9	100.0	13.6	84.5
	서리집사	(292)	1.8	14.9	46.7	31.9	4.7	100.0	16.7	78.6
	일반성도	(399)	2.6	5.7	49.6	37.7	4.4	100.0	8.3	87.4
교인 수	49명 이하	(95)	3.6	10.8	52.5	31.4	1.7	100.0	14.3	83.9
	50-99명	(70)	2.0	12.4	47.5	31.5	6.6	100.0	14.4	78.9
	100-299명	(145)	.4	9.3	55.4	31.0	4.0	100.0	9.7	86.4
	300-499명	(93)	1.7	7.1	47.5	37.8	5.9	100.0	8.8	85.2
	500명 이상	(397)	2.3	10.5	49.1	34.2	4.0	100.0	12.7	83.3
교단	장로교(합동)	(213)	2.9	11.8	43.9	37.1	4.3	100.0	14.7	81.0
	장로교(통합)	(213)	2.0	13.1	53.1	28.8	3.1	100.0	15.0	81.9
	기타 장로교	(85)	1.9	12.0	52.9	30.2	3.1	100.0	13.9	83.1
	기타 교단	(210)	1.5	7.1	52.7	33.4	5.4	100.0	8.5	86.1
	잘 모름	(80)	1.4	3.1	50.7	40.0	4.8	100.0	4.5	90.7
신앙단계	1단계	(108)	.5	15.2	44.8	35.7	3.8	100.0	15.7	80.5
	2단계	(304)	.9	6.6	52.4	33.9	6.2	100.0	7.5	86.3
	3단계	(174)	3.5	11.1	49.4	31.9	4.0	100.0	14.6	81.4
	4단계	(214)	3.1	11.5	50.8	33.0	1.5	100.0	14.7	83.8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1.7	10.2	51.1	32.5	4.5	100.0	11.9	83.5
	여성	(63)	5.2	8.3	41.1	45.4	.0	100.0	13.5	86.5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0	9.6	54.9	28.3	5.1	100.0	11.6	83.3
	중도	(347)	2.6	7.5	50.2	35.1	4.6	100.0	10.1	85.3
	진보	(214)	1.0	14.8	45.3	36.6	2.3	100.0	15.7	81.9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교회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그 피해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 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5.1	16.2	40.9	32.9	4.9	100.0	21.3	73.8
성별	남성	(354)	7.7	15.4	39.3	33.3	4.4	100.0	23.1	72.6
	여성	(446)	3.0	16.8	42.2	32.6	5.4	100.0	19.8	74.8
연령	19~29세	(142)	8.7	17.4	39.1	27.5	7.3	100.0	26.1	66.6
	30~39세	(150)	4.0	11.7	39.2	40.2	4.9	100.0	15.7	79.4
	40~49세	(194)	3.0	18.3	42.4	32.4	3.9	100.0	21.3	74.8
	50~59세	(200)	7.9	18.2	42.0	28.2	3.7	100.0	26.1	70.2
	60~65세	(115)	.5	13.5	40.9	39.3	5.8	100.0	14.0	80.2
지역	서울	(205)	6.8	14.6	45.0	29.3	4.3	100.0	21.4	74.3
	경기/인천	(279)	3.6	21.2	37.5	33.8	3.8	100.0	24.8	71.3
	대전/충청	(67)	4.7	9.4	38.5	39.0	8.4	100.0	14.1	77.5
	광주/전라	(86)	4.6	7.1	39.7	46.8	1.9	100.0	11.6	86.5
	대구/경북	(50)	3.5	20.0	44.6	27.8	4.1	100.0	23.5	72.4
	부산/울산/경남	(76)	6.0	12.3	46.5	24.9	10.3	100.0	18.3	71.4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10.0	21.2	37.7	24.2	6.9	100.0	31.2	61.9
	대도시	(441)	5.9	14.8	43.2	31.6	4.5	100.0	20.7	74.8
	중소도시	(300)	3.8	18.5	34.8	36.4	6.5	100.0	22.3	71.1
	읍/면	(59)	5.1	14.5	54.8	25.6	.0	100.0	19.6	80.4
	자영업	(96)	14.3	15.2	43.7	26.8	.0	100.0	29.5	70.5
직업	블루컬러	(125)	4.9	11.2	42.6	39.8	1.5	100.0	16.2	82.4
	화이트컬러	(244)	4.8	19.9	38.8	33.3	3.2	100.0	24.7	72.1
	전업주부	(198)	.9	12.7	40.8	37.2	8.4	100.0	13.6	78.0
	학생	(64)	8.0	23.2	37.4	21.6	9.8	100.0	31.2	58.9
	기타/무직	(43)	1.9	14.5	46.9	33.9	2.8	100.0	16.4	80.8
결혼여부	결혼	(586)	3.8	16.0	41.2	34.9	4.1	100.0	19.9	76.0
	미혼	(214)	8.5	16.6	40.2	27.6	7.1	100.0	25.1	67.8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6	18.3	40.9	33.0	4.2	100.0	21.8	74.0
	비봉사	(368)	6.8	13.8	40.9	32.8	5.8	100.0	20.6	73.6
교회 직분	종직자	(109)	5.0	21.2	40.3	28.4	5.1	100.0	26.3	68.6
	서리집사	(292)	2.8	16.3	42.2	33.2	5.6	100.0	19.1	75.4
	일반성도	(399)	6.8	14.7	40.1	34.0	4.4	100.0	21.5	74.1
교인 수	49명 이하	(95)	3.4	15.8	35.3	42.3	3.1	100.0	19.2	77.7
	50-99명	(70)	3.1	6.0	51.8	32.2	6.9	100.0	9.0	84.1
	100-299명	(145)	7.0	13.8	33.7	40.6	4.9	100.0	20.7	74.3
	300-499명	(93)	2.6	21.0	33.2	37.2	6.0	100.0	23.6	70.4
	500명 이상	(397)	5.7	17.9	44.7	27.0	4.7	100.0	23.6	71.7
교단	장로교(합동)	(213)	6.2	17.2	37.5	34.0	5.2	100.0	23.4	71.5
	장로교(통합)	(213)	4.6	17.5	43.1	30.6	4.2	100.0	22.1	73.7
	기타 장로교	(85)	3.5	14.5	47.0	30.2	4.7	100.0	18.0	77.3
	기타 교단	(210)	3.1	15.6	43.5	33.5	4.3	100.0	18.7	77.0
	잘 모름	(80)	10.1	13.3	30.8	37.9	7.9	100.0	23.4	68.7
신앙단계	1단계	(108)	5.0	12.8	38.2	41.9	2.0	100.0	17.8	80.1
	2단계	(304)	4.7	14.4	42.2	32.5	6.2	100.0	19.1	74.8
	3단계	(174)	5.7	18.0	40.3	31.3	4.7	100.0	23.7	71.6
	4단계	(214)	5.1	19.0	40.9	30.2	4.7	100.0	24.1	71.2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5.0	16.7	40.9	32.4	5.0	100.0	21.7	73.3
	여성	(63)	6.2	10.2	41.4	38.7	3.5	100.0	16.4	80.1
정치적 성향	보수	(238)	3.0	21.8	39.7	30.6	4.8	100.0	24.9	70.3
	중도	(347)	6.4	14.5	38.4	33.8	6.9	100.0	20.9	72.2
	진보	(214)	5.2	12.7	46.3	34.1	1.7	100.0	17.8	80.4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성희롱은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8.2	26.4	35.0	26.2	4.2	100.0	34.6	61.2
성별	남성	(354)	13.6	31.8	28.8	20.6	5.1	100.0	45.4	49.5
	여성	(446)	4.0	22.1	39.9	30.6	3.5	100.0	26.0	70.5
연령	19~29세	(142)	19.3	31.4	25.1	14.2	10.0	100.0	50.7	39.3
	30~39세	(150)	12.8	25.6	33.6	20.5	7.5	100.0	38.4	54.1
	40~49세	(194)	3.3	22.5	43.3	28.8	2.1	100.0	25.8	72.1
	50~59세	(200)	4.4	25.2	35.4	33.6	1.4	100.0	29.6	69.0
	60~65세	(115)	3.6	29.9	34.3	31.1	1.2	100.0	33.4	65.4
지역	서울	(205)	9.8	27.1	34.4	24.2	4.5	100.0	36.9	58.6
	경기/인천	(279)	8.5	27.4	33.0	27.1	4.1	100.0	35.9	60.0
	대전/충청	(67)	8.4	29.8	36.6	21.1	4.2	100.0	38.2	57.6
	광주/전라	(86)	12.0	20.4	36.7	29.0	1.9	100.0	32.4	65.7
	대구/경북	(50)	4.0	20.0	58.2	10.7	7.2	100.0	23.9	68.9
	부산/울산/경남	(76)	5.5	21.2	29.1	37.6	6.7	100.0	26.7	66.7
	강원/제주	(32)	.0	42.5	26.7	30.8	.0	100.0	42.5	57.5
지역크기	대도시	(441)	8.1	26.5	33.9	26.8	4.7	100.0	34.6	60.6
	중소도시	(300)	7.9	26.0	38.7	24.7	2.6	100.0	34.0	63.4
	읍/면	(59)	10.5	27.6	24.8	28.8	8.3	100.0	38.1	53.6
직업	자영업	(96)	9.3	37.8	27.0	25.9	.0	100.0	47.1	52.9
	블루칼러	(125)	5.9	28.0	35.2	27.4	3.5	100.0	33.9	62.6
	화이트칼러	(244)	11.0	29.8	31.6	23.3	4.2	100.0	40.8	55.0
	전업주부	(198)	2.7	12.9	47.5	34.5	2.5	100.0	15.6	81.9
	학생	(64)	20.9	30.0	32.5	7.1	9.6	100.0	50.8	39.6
	기타/무직	(43)	2.8	27.5	38.7	21.9	9.1	100.0	30.3	60.6
결혼여부	결혼	(586)	5.4	25.6	37.7	28.6	2.7	100.0	31.0	66.3
	미혼	(214)	15.9	28.6	27.6	19.6	8.2	100.0	44.5	47.3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6.4	27.3	32.2	29.5	4.5	100.0	33.8	61.7
	비봉사	(368)	10.3	25.3	38.3	22.2	3.8	100.0	35.6	60.5
교회 직분	종직자	(109)	3.9	20.7	41.0	32.3	2.2	100.0	24.6	73.2
	서리집사	(292)	6.2	26.5	35.3	28.6	3.5	100.0	32.6	63.9
	일반성도	(399)	10.9	27.9	33.1	22.8	5.3	100.0	38.8	55.9
교인 수	49명 이하	(95)	10.5	29.6	31.5	21.5	6.9	100.0	40.1	53.0
	50-99명	(70)	8.7	23.1	32.4	32.2	3.6	100.0	31.8	64.6
	100-299명	(145)	6.1	28.1	42.3	20.3	3.1	100.0	34.2	62.6
	300-499명	(93)	10.7	18.9	23.8	40.7	5.9	100.0	29.7	64.5
	500명 이상	(397)	7.8	27.3	36.2	25.0	3.7	100.0	35.1	61.2
교단	장로교(합동)	(213)	7.1	24.7	36.7	28.3	3.3	100.0	31.8	65.0
	장로교(통합)	(213)	9.1	32.8	32.9	22.1	3.0	100.0	41.9	55.1
	기타 장로교	(85)	7.5	20.8	30.4	34.5	6.9	100.0	28.3	64.8
	기타 교단	(210)	6.7	26.0	34.5	28.7	4.1	100.0	32.7	63.2
	잘 모름	(80)	13.6	20.8	42.2	15.8	7.6	100.0	34.4	58.0
신앙단계	1단계	(108)	7.5	21.8	46.8	20.0	3.9	100.0	29.3	66.8
	2단계	(304)	6.4	30.5	29.0	28.8	5.3	100.0	36.9	57.8
	3단계	(174)	11.0	21.2	39.6	22.7	5.5	100.0	32.2	62.3
	4단계	(214)	8.9	27.1	33.8	28.4	1.8	100.0	36.0	62.2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8.3	25.5	35.8	25.9	4.5	100.0	33.8	61.7
	여성	(63)	7.7	36.3	25.6	29.6	.8	100.0	44.0	55.2
정치적 성향	보수	(238)	7.6	24.0	36.8	26.5	5.2	100.0	31.5	63.3
	중도	(347)	10.0	27.3	33.7	23.8	5.3	100.0	37.3	57.5
	진보	(214)	6.2	27.6	35.1	29.7	1.5	100.0	33.7	64.8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16.9	44.1	23.7	10.9	4.4	100.0	61.0	34.6
성별	남성	(354)	20.8	48.0	18.1	8.4	4.7	100.0	68.8	26.5
	여성	(446)	13.8	41.1	28.1	12.8	4.2	100.0	54.9	41.0
연령	19~29세	(142)	28.5	35.8	18.1	11.2	6.3	100.0	64.3	29.4
	30~39세	(150)	16.5	36.3	24.1	15.1	8.1	100.0	52.7	39.2
	40~49세	(194)	17.4	48.7	21.7	9.6	2.6	100.0	66.1	31.3
	50~59세	(200)	13.5	48.4	25.8	11.2	1.1	100.0	61.9	37.0
	60~65세	(115)	8.1	49.7	29.7	6.5	6.0	100.0	57.8	36.2
지역	서울	(205)	20.2	39.1	23.4	12.5	4.7	100.0	59.4	35.9
	경기/인천	(279)	14.7	45.0	24.0	11.1	5.3	100.0	59.6	35.0
	대전/충청	(67)	16.7	45.4	27.7	8.1	2.1	100.0	62.1	35.7
	광주/전라	(86)	20.6	42.3	22.3	14.2	.5	100.0	62.9	36.5
	대구/경북	(50)	9.1	58.3	20.0	5.4	7.2	100.0	67.4	25.4
	부산/울산/경남	(76)	19.7	45.1	18.1	10.2	6.9	100.0	64.8	28.3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11.4	49.0	33.9	5.7	.0	100.0	60.4	39.6
	대도시	(441)	17.8	41.3	22.7	13.3	5.0	100.0	59.1	36.0
	중소도시	(300)	16.7	48.1	23.9	8.1	3.3	100.0	64.8	32.0
	읍/면	(59)	11.5	45.3	30.5	6.7	6.0	100.0	56.8	37.2
직업	자영업	(96)	12.9	52.5	25.8	5.8	3.0	100.0	65.4	31.7
	블루칼러	(125)	18.3	43.6	26.1	8.6	3.3	100.0	61.9	34.7
	화이트칼러	(244)	20.0	42.4	24.8	9.8	2.9	100.0	62.5	34.6
	전업주부	(198)	12.9	41.1	24.7	16.0	5.3	100.0	54.0	40.7
	학생	(64)	27.6	41.1	16.2	8.9	6.2	100.0	68.7	25.1
	기타/무직	(43)	10.4	50.3	18.8	14.4	6.1	100.0	60.7	33.2
결혼여부	결혼	(586)	15.3	45.8	25.1	10.0	3.8	100.0	61.1	35.1
	미혼	(214)	21.1	39.7	19.9	13.2	6.1	100.0	60.8	33.1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5.5	44.2	25.7	9.1	5.4	100.0	59.8	34.9
	비봉사	(368)	18.5	44.1	21.3	12.9	3.3	100.0	62.5	34.2
교회 직분	종직자	(109)	12.2	54.7	21.8	7.9	3.5	100.0	66.9	29.6
	서리집사	(292)	16.2	44.6	26.5	7.1	5.6	100.0	60.8	33.6
	일반성도	(399)	18.6	41.0	22.1	14.4	3.8	100.0	59.6	36.6
교인 수	49명 이하	(95)	13.4	46.0	22.4	9.6	8.6	100.0	59.4	32.0
	50~99명	(70)	20.6	29.6	38.7	6.7	4.3	100.0	50.3	45.5
	100~299명	(145)	18.9	40.9	24.8	12.4	3.0	100.0	59.8	37.2
	300~499명	(93)	11.8	47.2	26.0	10.6	4.4	100.0	59.0	36.6
	500명 이상	(397)	17.5	46.8	20.4	11.4	3.9	100.0	64.3	31.8
교단	장로교(합동)	(213)	15.0	42.6	22.8	15.1	4.6	100.0	57.5	37.9
	장로교(통합)	(213)	17.2	45.3	24.4	10.4	2.7	100.0	62.5	34.7
	기타 장로교	(85)	22.6	41.0	22.4	8.5	5.4	100.0	63.6	30.9
	기타 교단	(210)	12.6	50.7	21.3	11.1	4.2	100.0	63.4	32.4
	잘 모름	(80)	26.3	31.4	31.7	2.8	7.8	100.0	57.7	34.5
신앙단계	1단계	(108)	13.4	40.8	25.8	17.4	2.6	100.0	54.1	43.2
	2단계	(304)	16.4	41.0	25.1	10.3	7.3	100.0	57.3	35.3
	3단계	(174)	16.0	46.7	28.0	6.2	3.1	100.0	62.8	34.1
	4단계	(214)	20.1	48.3	17.2	12.2	2.2	100.0	68.3	29.4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17.5	44.5	23.1	10.2	4.7	100.0	62.0	33.3
	여성	(63)	10.1	39.9	30.8	18.4	.8	100.0	50.0	49.2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4.1	44.5	23.9	10.5	7.0	100.0	58.6	34.4
	중도	(347)	20.6	41.5	22.0	12.3	3.7	100.0	62.1	34.3
	진보	(214)	14.0	48.1	26.2	9.0	2.7	100.0	62.1	35.3

[표]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26.8	52.7	11.4	6.1	2.9	100.0	79.5	17.6
성별	남성	(354)	23.4	49.3	15.5	8.1	3.7	100.0	72.7	23.6
	여성	(446)	29.6	55.4	8.2	4.6	2.2	100.0	84.9	12.8
연령	19~29세	(142)	42.3	37.8	7.9	4.7	7.3	100.0	80.1	12.6
	30~39세	(150)	28.8	49.0	8.7	11.1	2.5	100.0	77.7	19.8
	40~49세	(194)	22.4	58.7	11.8	6.0	1.1	100.0	81.1	17.8
	50~59세	(200)	26.6	58.1	8.1	5.6	1.6	100.0	84.7	13.7
	60~65세	(115)	13.1	56.4	24.7	2.6	3.2	100.0	69.5	27.3
지역	서울	(205)	33.7	49.7	10.0	5.1	1.5	100.0	83.5	15.1
	경기/인천	(279)	25.3	58.6	11.5	3.1	1.5	100.0	83.9	14.6
	대전/충청	(67)	21.4	41.9	13.8	18.4	4.5	100.0	63.3	32.2
	광주/전라	(86)	21.9	47.5	13.5	11.0	6.0	100.0	69.5	24.6
	대구/경북	(50)	15.6	65.5	7.6	2.5	8.7	100.0	81.2	10.1
	부산/울산/경남	(76)	26.6	44.5	18.0	7.0	3.9	100.0	71.1	25.1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31.9	63.5	1.5	3.1	.0	100.0	95.4	4.6
	대도시	(441)	27.5	51.9	12.7	4.9	3.0	100.0	79.5	17.6
	중소도시	(300)	25.8	55.8	7.7	7.8	2.9	100.0	81.6	15.5
직업	읍/면	(59)	27.1	42.4	20.6	7.6	2.2	100.0	69.6	28.2
	자영업	(96)	30.9	52.1	7.4	6.6	3.1	100.0	83.0	14.0
	블루칼러	(125)	17.1	56.9	19.4	6.7	.0	100.0	74.0	26.0
	화이트칼러	(244)	30.5	51.8	10.1	5.0	2.7	100.0	82.2	15.1
	전업주부	(198)	23.7	59.4	7.7	6.9	2.3	100.0	83.1	14.7
	학생	(64)	38.0	40.1	7.5	4.2	10.0	100.0	78.2	11.8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18.0	34.1	36.0	8.8	3.2	100.0	52.0	44.8
	결혼	(586)	23.0	56.2	11.8	7.0	2.0	100.0	79.2	18.8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37.3	43.1	10.4	3.9	5.3	100.0	80.4	14.3
	봉사	(432)	25.4	52.7	12.5	6.2	3.2	100.0	78.1	18.7
교회 직분	비봉사	(368)	28.6	52.7	10.2	6.1	2.5	100.0	81.2	16.3
	중직자	(109)	17.4	65.3	12.2	1.8	3.3	100.0	82.7	14.0
	서리집사	(292)	23.9	51.6	14.6	8.1	1.9	100.0	75.4	22.6
교인 수	일반성도	(399)	31.6	50.1	8.9	5.9	3.5	100.0	81.7	14.9
	49명 이하	(95)	23.8	52.0	16.8	2.6	4.7	100.0	75.8	19.5
	50-99명	(70)	23.9	41.4	18.1	8.8	7.8	100.0	65.3	26.9
	100-299명	(145)	26.9	51.7	8.4	9.5	3.5	100.0	78.6	17.9
	300-499명	(93)	28.3	51.4	12.7	5.8	1.9	100.0	79.7	18.5
교단	500명 이상	(397)	27.7	55.5	9.8	5.4	1.6	100.0	83.2	15.2
	장로교(합동)	(213)	26.7	55.2	9.6	5.4	3.2	100.0	81.9	14.9
	장로교(통합)	(213)	26.3	49.5	14.4	6.8	3.0	100.0	75.8	21.2
	기타 장로교	(85)	22.0	58.3	13.9	5.9	.0	100.0	80.3	19.7
	기타 교단	(210)	24.3	52.3	11.1	8.8	3.5	100.0	76.6	19.9
신앙단계	잘 모름	(80)	40.5	49.7	6.6	.0	3.2	100.0	90.2	6.6
	1단계	(108)	16.2	57.1	15.4	10.1	1.2	100.0	73.3	25.5
	2단계	(304)	29.0	54.5	8.9	5.1	2.5	100.0	83.5	14.0
	3단계	(174)	25.0	50.4	11.6	6.6	6.5	100.0	75.4	18.1
담임목사 성별	4단계	(214)	30.6	49.8	12.9	5.3	1.3	100.0	80.4	18.2
	남성	(737)	27.2	51.7	11.9	6.2	3.0	100.0	79.0	18.1
정치적 성향	여성	(63)	22.5	63.8	6.3	5.5	1.8	100.0	86.4	11.8
	보수	(238)	18.9	52.3	16.5	10.1	2.1	100.0	71.2	26.7
	중도	(347)	28.9	52.2	11.0	3.5	4.3	100.0	81.1	14.5
	진보	(214)	32.3	53.9	6.4	6.0	1.4	100.0	86.2	12.4

2.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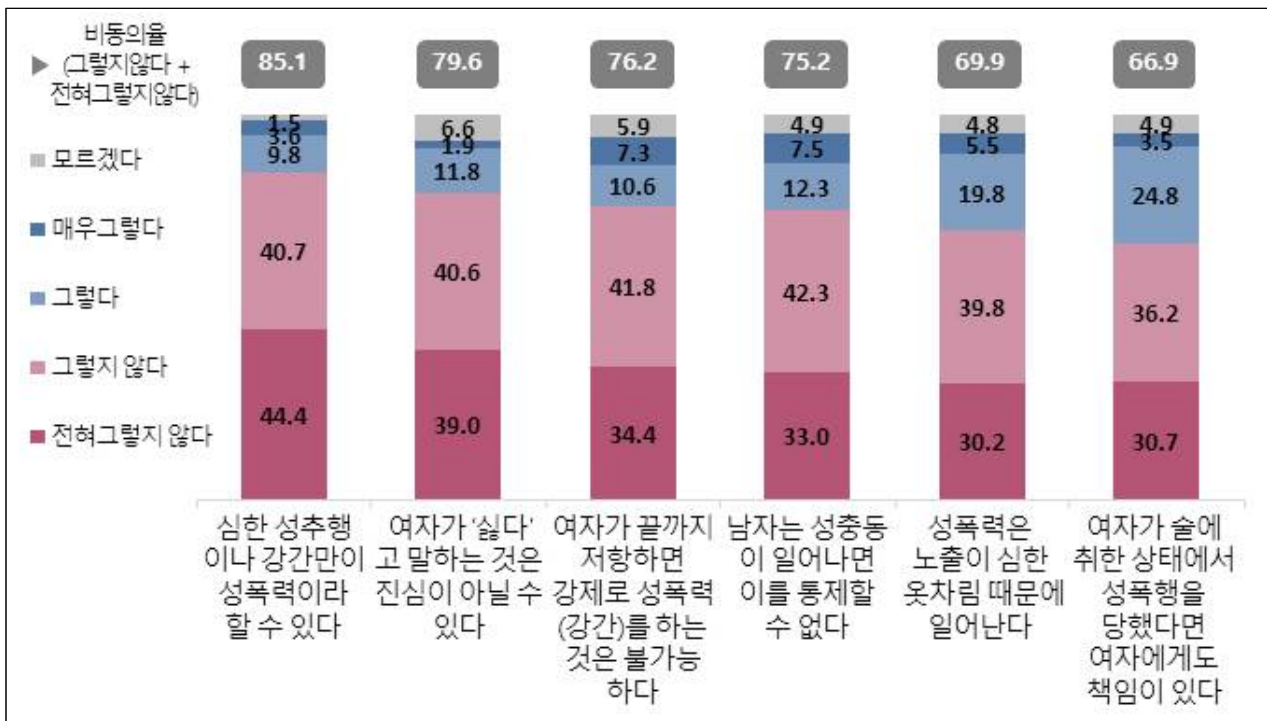
(개신교인) 다음은 성폭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이번에는 개신교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
- 비동의율(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로 8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비동의 79.6%),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비동의 76.2%),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통제할 수 없다'(비동의 75.2%),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비동의 69.9%),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비동의 6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의 비동의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동의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여자가 '싫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에 대한 동의율은 모두 60~65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44.4	40.7	9.8	3.6	1.5	100.0	85.1	13.3
성별	남성	(354)	35.9	48.2	11.3	3.1	1.5	100.0	84.1	14.4
	여성	(446)	51.2	34.8	8.5	3.9	1.5	100.0	86.0	12.5
연령	19~29세	(142)	52.6	34.0	8.4	2.5	2.4	100.0	86.6	11.0
	30~39세	(150)	48.9	29.9	14.4	4.6	2.2	100.0	78.8	19.0
	40~49세	(194)	38.9	49.6	5.6	4.1	1.8	100.0	88.5	9.7
	50~59세	(200)	43.6	41.3	11.8	3.2	.2	100.0	84.8	15.0
	60~65세	(115)	39.1	47.3	8.9	3.2	1.5	100.0	86.4	12.1
지역	서울	(205)	45.5	41.5	8.8	3.6	.7	100.0	86.9	12.3
	경기/인천	(279)	47.6	38.2	9.9	1.7	2.6	100.0	85.8	11.6
	대전/충청	(67)	37.4	48.2	7.2	5.3	2.0	100.0	85.6	12.4
	광주/전라	(86)	42.5	41.6	9.5	5.9	.4	100.0	84.1	15.5
	대구/경북	(50)	39.3	54.9	1.1	4.7	.0	100.0	94.3	5.7
	부산/울산/경남	(76)	39.8	29.5	24.9	3.5	2.3	100.0	69.3	28.4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2.0	49.3	.0	8.7	.0	100.0	91.3	8.7
	대도시	(441)	44.3	39.6	11.3	3.7	1.0	100.0	83.9	15.0
	중소도시	(300)	47.2	41.5	6.1	2.8	2.5	100.0	88.7	8.8
	읍/면	(59)	31.4	44.7	17.0	6.3	.6	100.0	76.1	23.3
	직업	(96)	39.5	45.3	13.5	1.7	.0	100.0	84.8	15.2
직업	블루칼러	(125)	33.0	47.4	15.0	3.3	1.3	100.0	80.5	18.3
	화이트칼러	(244)	45.8	42.7	6.4	4.2	.9	100.0	88.5	10.6
	전업주부	(198)	54.2	30.8	9.6	3.2	2.3	100.0	85.0	12.7
	학생	(64)	51.0	41.0	5.9	.0	2.1	100.0	92.0	5.9
	기타/무직	(43)	32.2	42.4	15.9	9.5	.0	100.0	74.6	25.4
결혼여부	결혼	(586)	44.4	41.2	9.8	3.4	1.3	100.0	85.6	13.2
	미혼	(214)	44.5	39.5	9.6	4.1	2.3	100.0	84.0	13.7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45.0	39.4	11.6	3.3	.8	100.0	84.3	14.9
	비봉사	(368)	43.8	42.3	7.6	3.9	2.4	100.0	86.1	11.5
교회 직분	종직자	(109)	43.5	39.0	16.7	.5	.3	100.0	82.5	17.2
	서리집사	(292)	40.5	42.7	10.3	4.3	2.2	100.0	83.2	14.6
	일반성도	(399)	47.5	39.8	7.5	3.9	1.4	100.0	87.3	11.3
교인 수	49명 이하	(95)	47.5	38.2	9.8	2.8	1.6	100.0	85.7	12.7
	50-99명	(70)	47.4	36.4	13.5	2.1	.6	100.0	83.7	15.7
	100-299명	(145)	39.8	48.7	9.2	2.3	.0	100.0	88.5	11.5
	300-499명	(93)	39.8	39.7	13.5	2.6	4.4	100.0	79.5	16.1
	500명 이상	(397)	45.9	39.4	8.4	4.7	1.6	100.0	85.4	13.1
교단	장로교(합동)	(213)	40.2	41.0	11.8	5.1	1.9	100.0	81.2	16.9
	장로교(통합)	(213)	45.7	42.7	9.0	1.8	.8	100.0	88.4	10.8
	기타 장로교	(85)	51.4	31.9	9.8	4.0	3.0	100.0	83.3	13.8
	기타 교단	(210)	39.3	44.8	10.5	4.2	1.3	100.0	84.1	14.6
	잘 모름	(80)	58.4	33.4	4.4	2.3	1.5	100.0	91.8	6.7
신앙단계	1단계	(108)	41.5	42.7	10.9	4.5	.5	100.0	84.1	15.4
	2단계	(304)	48.4	38.0	7.9	3.6	2.2	100.0	86.3	11.5
	3단계	(174)	37.2	44.2	13.0	4.0	1.7	100.0	81.4	16.9
	4단계	(214)	46.2	40.9	9.2	2.8	1.0	100.0	87.1	12.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43.6	42.4	9.8	2.5	1.7	100.0	86.0	12.3
	여성	(63)	54.5	20.7	9.1	15.7	.0	100.0	75.2	24.8
정치적 성향	보수	(238)	39.6	40.9	13.1	3.8	2.6	100.0	80.5	16.9
	중도	(347)	48.3	40.0	7.6	2.6	1.5	100.0	88.3	10.2
	진보	(214)	43.5	41.7	9.5	4.9	.4	100.0	85.2	14.4

[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39.0	40.6	11.8	1.9	6.6	100.0	79.6	13.7
성별	남성	(354)	30.6	43.3	16.4	2.1	7.6	100.0	73.9	18.5
	여성	(446)	45.7	38.5	8.2	1.7	5.9	100.0	84.2	9.9
연령	19~29세	(142)	56.3	28.4	8.8	1.6	5.0	100.0	84.6	10.4
	30~39세	(150)	42.5	31.3	11.6	4.4	10.1	100.0	73.9	16.0
	40~49세	(194)	39.5	48.3	5.1	1.9	5.2	100.0	87.8	7.0
	50~59세	(200)	36.1	45.1	12.6	1.3	4.9	100.0	81.2	13.9
	60~65세	(115)	17.4	47.0	25.9	.0	9.7	100.0	64.4	25.9
지역	서울	(205)	43.6	38.3	10.9	2.2	5.0	100.0	81.9	13.1
	경기/인천	(279)	37.3	41.3	12.3	1.3	7.7	100.0	78.6	13.6
	대전/충청	(67)	38.8	40.5	13.4	2.7	4.7	100.0	79.3	16.1
	광주/전라	(86)	35.8	43.4	13.5	2.8	4.5	100.0	79.2	16.3
	대구/경북	(50)	27.9	50.0	10.5	1.1	10.5	100.0	77.9	11.6
	부산/울산/경남	(76)	35.9	36.7	12.7	2.8	11.9	100.0	72.6	15.5
	강원/제주	(32)	50.9	41.3	7.8	.0	.0	100.0	92.2	7.8
지역크기	대도시	(441)	36.8	42.1	11.6	2.8	6.7	100.0	78.9	14.4
	중소도시	(300)	43.6	36.0	12.9	.9	6.5	100.0	79.7	13.9
	읍/면	(59)	32.6	52.6	7.7	.0	7.1	100.0	85.3	7.7
직업	자영업	(96)	34.6	41.6	16.5	3.3	4.1	100.0	76.2	19.8
	블루칼러	(125)	35.1	32.0	23.8	1.8	7.3	100.0	67.1	25.6
	화이트칼러	(244)	45.1	40.7	8.4	1.5	4.3	100.0	85.8	9.9
	전업주부	(198)	35.9	45.4	8.3	2.3	8.1	100.0	81.2	10.7
	학생	(64)	47.7	36.6	5.9	2.1	7.8	100.0	84.2	8.0
	기타/무직	(43)	26.2	45.0	15.0	.0	13.8	100.0	71.2	15.0
결혼여부	결혼	(586)	36.3	42.8	12.4	1.7	6.8	100.0	79.1	14.1
	미혼	(214)	46.6	34.5	10.3	2.5	6.1	100.0	81.1	12.8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7.4	39.5	14.9	1.9	6.3	100.0	76.9	16.8
	비봉사	(368)	40.9	41.9	8.3	1.8	7.0	100.0	82.8	10.1
교회 직분	종직자	(109)	27.3	43.2	18.6	.5	10.4	100.0	70.5	19.1
	서리집사	(292)	35.2	43.3	12.9	2.1	6.4	100.0	78.5	15.1
	일반성도	(399)	45.0	37.9	9.2	2.1	5.8	100.0	82.9	11.2
교인 수	49명 이하	(95)	41.6	29.8	19.2	1.7	7.7	100.0	71.4	20.9
	50-99명	(70)	32.1	50.1	6.1	5.3	6.4	100.0	82.2	11.4
	100-299명	(145)	40.6	41.5	11.7	3.5	2.6	100.0	82.1	15.3
	300-499명	(93)	42.1	38.7	12.7	.0	6.5	100.0	80.8	12.7
	500명 이상	(397)	38.3	41.6	10.9	1.2	7.9	100.0	80.0	12.1
교단	장로교(합동)	(213)	37.4	41.5	13.6	3.7	3.8	100.0	78.9	17.3
	장로교(통합)	(213)	39.7	39.9	15.0	.5	4.8	100.0	79.6	15.6
	기타 장로교	(85)	29.6	43.1	15.1	.6	11.6	100.0	72.6	15.7
	기타 교단	(210)	40.8	43.3	8.1	2.6	5.1	100.0	84.1	10.7
	잘 모름	(80)	46.6	30.7	4.9	.0	17.8	100.0	77.3	4.9
신앙단계	1단계	(108)	36.5	45.2	10.3	3.4	4.6	100.0	81.8	13.7
	2단계	(304)	38.0	41.7	10.0	1.8	8.5	100.0	79.7	11.8
	3단계	(174)	36.7	36.9	15.6	3.0	7.9	100.0	73.5	18.5
	4단계	(214)	43.6	39.8	12.1	.5	4.0	100.0	83.4	12.6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7.5	41.8	11.8	2.0	6.8	100.0	79.4	13.8
	여성	(63)	56.5	26.2	11.8	.5	5.0	100.0	82.7	12.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31.6	41.3	18.2	2.6	6.2	100.0	72.9	20.8
	중도	(347)	42.9	40.2	8.3	1.0	7.6	100.0	83.1	9.3
	진보	(214)	40.9	40.5	10.5	2.6	5.6	100.0	81.4	13.0

【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폭력(강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34.4	41.8	10.6	7.3	5.9	100.0	76.2	17.9
성별	남성	(354)	24.3	42.1	15.3	12.3	5.9	100.0	66.5	27.7
	여성	(446)	42.5	41.5	6.9	3.3	5.9	100.0	84.0	10.2
연령	19~29세	(142)	50.0	28.3	8.1	3.2	10.5	100.0	78.3	11.3
	30~39세	(150)	39.7	27.0	13.2	11.2	8.8	100.0	66.7	24.5
	40~49세	(194)	31.7	45.1	12.1	7.2	4.0	100.0	76.7	19.2
	50~59세	(200)	34.1	56.7	3.9	3.6	1.6	100.0	90.8	7.6
	60~65세	(115)	13.5	46.2	19.5	13.9	6.9	100.0	59.8	33.3
지역	서울	(205)	38.6	39.4	7.4	9.3	5.3	100.0	78.0	16.7
	경기/인천	(279)	38.1	40.1	10.1	4.3	7.4	100.0	78.2	14.4
	대전/충청	(67)	27.5	45.8	13.6	4.9	8.3	100.0	73.2	18.5
	광주/전라	(86)	31.0	33.8	20.0	11.4	3.9	100.0	64.8	31.3
	대구/경북	(50)	27.4	36.5	9.0	16.3	10.9	100.0	63.8	25.3
	부산/울산/경남	(76)	31.8	54.7	7.5	4.4	1.6	100.0	86.5	11.9
	강원/제주	(32)	9.3	68.5	14.1	8.1	.0	100.0	77.8	22.2
지역크기	대도시	(441)	36.3	42.2	7.6	8.1	5.9	100.0	78.5	15.7
	중소도시	(300)	32.7	41.0	13.5	6.6	6.3	100.0	73.6	20.1
	읍/면	(59)	29.5	43.1	18.6	5.1	3.8	100.0	72.6	23.7
직업	자영업	(96)	32.0	43.0	9.8	12.1	3.2	100.0	74.9	21.9
	블루칼러	(125)	25.2	34.0	19.7	15.0	6.0	100.0	59.2	34.7
	화이트칼러	(244)	38.3	44.8	9.6	4.7	2.5	100.0	83.2	14.3
	전업주부	(198)	35.1	43.9	5.4	5.5	10.1	100.0	79.0	10.9
	학생	(64)	46.9	35.5	9.6	.0	8.0	100.0	82.4	9.6
	기타/무직	(43)	24.5	50.7	8.8	13.2	2.8	100.0	75.2	22.0
결혼여부	결혼	(586)	31.0	44.3	11.4	8.3	5.0	100.0	75.3	19.7
	미혼	(214)	43.8	35.0	8.5	4.5	8.2	100.0	78.7	13.1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3.0	42.2	12.3	7.4	5.1	100.0	75.2	19.7
	비봉사	(368)	36.1	41.3	8.6	7.2	6.7	100.0	77.4	15.8
교회 직분	종직자	(109)	23.3	47.2	13.1	9.1	7.3	100.0	70.5	22.2
	서리집사	(292)	28.5	48.5	9.2	9.3	4.5	100.0	77.0	18.6
	일반성도	(399)	41.8	35.4	11.0	5.3	6.5	100.0	77.2	16.3
교인 수	49명 이하	(95)	35.2	32.3	14.5	9.2	8.8	100.0	67.5	23.7
	50~99명	(70)	25.8	47.0	7.1	10.3	9.7	100.0	72.9	17.4
	100~299명	(145)	32.6	46.9	11.7	6.9	1.9	100.0	79.5	18.7
	300~499명	(93)	40.8	37.5	10.2	4.0	7.5	100.0	78.3	14.2
	500명 이상	(397)	35.0	42.3	10.0	7.2	5.6	100.0	77.2	17.2
교단	장로교(합동)	(213)	37.3	39.9	13.9	6.3	2.7	100.0	77.2	20.1
	장로교(통합)	(213)	31.7	44.4	9.3	9.8	4.7	100.0	76.2	19.1
	기타 장로교	(85)	33.8	48.7	7.6	3.1	6.9	100.0	82.5	10.7
	기타 교단	(210)	31.3	44.8	11.5	7.5	4.9	100.0	76.1	19.0
	잘 모름	(80)	43.1	24.6	6.3	7.2	18.8	100.0	67.7	13.5
신앙단계	1단계	(108)	35.7	43.5	4.5	13.6	2.8	100.0	79.2	18.0
	2단계	(304)	36.9	36.5	12.1	6.4	8.1	100.0	73.4	18.5
	3단계	(174)	26.6	51.2	9.6	5.7	6.9	100.0	77.8	15.3
	4단계	(214)	36.6	40.8	12.4	6.8	3.4	100.0	77.4	19.2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3.3	42.4	10.6	7.9	5.7	100.0	75.8	18.5
	여성	(63)	47.5	34.2	11.0	.0	7.3	100.0	81.7	11.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9.3	40.4	11.5	13.3	5.6	100.0	69.6	24.8
	중도	(347)	35.8	40.1	10.9	4.9	8.3	100.0	76.0	15.7
	진보	(214)	37.9	46.0	9.2	4.6	2.3	100.0	83.9	13.8

[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33.0	42.3	12.3	7.5	4.9	100.0	75.2	19.8
성별	남성	(354)	39.4	42.0	12.0	5.0	1.6	100.0	81.4	17.0
	여성	(446)	27.9	42.5	12.6	9.5	7.5	100.0	70.4	22.1
연령	19~29세	(142)	46.0	30.6	8.4	5.6	9.5	100.0	76.5	13.9
	30~39세	(150)	32.8	35.4	15.9	11.6	4.3	100.0	68.3	27.4
	40~49세	(194)	28.9	49.4	11.7	7.3	2.7	100.0	78.3	18.9
	50~59세	(200)	32.1	46.4	12.6	5.9	3.0	100.0	78.5	18.5
	60~65세	(115)	25.5	46.4	13.2	7.9	7.0	100.0	71.9	21.1
지역	서울	(205)	33.0	43.1	11.5	7.7	4.8	100.0	76.0	19.2
	경기/인천	(279)	39.0	40.9	10.5	5.9	3.7	100.0	79.9	16.4
	대전/충청	(67)	17.7	54.5	17.4	2.5	7.9	100.0	72.2	20.0
	광주/전라	(86)	32.5	45.5	9.3	10.2	2.4	100.0	78.0	19.5
	대구/경북	(50)	22.9	47.3	10.1	11.0	8.6	100.0	70.2	21.2
	부산/울산/경남	(76)	30.8	28.6	20.1	15.6	5.0	100.0	59.4	35.6
	강원/제주	(32)	28.4	44.1	16.1	.0	11.3	100.0	72.6	16.1
지역크기	대도시	(441)	37.2	39.4	12.0	7.2	4.2	100.0	76.6	19.2
	중소도시	(300)	27.3	46.7	11.8	8.5	5.8	100.0	73.9	20.3
	읍/면	(59)	30.7	41.5	17.1	5.1	5.6	100.0	72.1	22.2
직업	자영업	(96)	38.4	42.1	14.1	3.7	1.7	100.0	80.5	17.8
	블루칼러	(125)	27.2	39.1	20.2	11.1	2.4	100.0	66.3	31.3
	화이트칼러	(244)	37.3	46.1	10.3	4.8	1.6	100.0	83.3	15.1
	전업주부	(198)	27.0	40.9	12.1	10.8	9.2	100.0	67.9	22.9
	학생	(64)	40.2	35.7	8.0	3.7	12.5	100.0	75.9	11.7
	기타/무직	(43)	25.5	55.0	10.2	5.9	3.3	100.0	80.5	16.2
결혼여부	결혼	(586)	30.7	44.3	12.7	7.9	4.4	100.0	75.0	20.6
	미혼	(214)	39.2	36.8	11.2	6.5	6.4	100.0	75.9	17.7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1.9	43.2	13.3	7.8	3.7	100.0	75.1	21.1
	비봉사	(368)	34.3	41.1	11.1	7.2	6.3	100.0	75.4	18.3
교회 직분	종직자	(109)	27.6	46.9	13.7	8.0	3.9	100.0	74.4	21.7
	서리집사	(292)	30.0	45.5	15.1	6.3	3.2	100.0	75.4	21.4
	일반성도	(399)	36.7	38.7	9.9	8.3	6.5	100.0	75.3	18.2
교인 수	49명 이하	(95)	34.8	37.3	10.4	8.6	8.9	100.0	72.1	19.0
	50~99명	(70)	36.6	41.9	11.5	4.9	5.2	100.0	78.4	16.3
	100~299명	(145)	32.3	46.4	10.3	8.9	2.1	100.0	78.7	19.2
	300~499명	(93)	33.7	39.7	11.7	5.2	9.6	100.0	73.4	17.0
	500명 이상	(397)	32.0	42.6	13.8	7.8	3.8	100.0	74.6	21.6
교단	장로교(합동)	(213)	31.6	43.2	12.7	8.7	3.8	100.0	74.8	21.4
	장로교(통합)	(213)	35.6	45.0	8.3	7.0	4.1	100.0	80.6	15.3
	기타 장로교	(85)	38.4	33.2	14.5	9.9	4.0	100.0	71.6	24.4
	기타 교단	(210)	28.7	44.3	17.1	5.1	4.8	100.0	73.0	22.2
	잘 모름	(80)	35.2	36.6	7.3	9.6	11.3	100.0	71.8	16.8
신앙단계	1단계	(108)	34.8	44.3	11.2	7.1	2.5	100.0	79.2	18.4
	2단계	(304)	33.7	40.5	12.1	7.2	6.3	100.0	74.3	19.4
	3단계	(174)	27.8	42.3	16.8	6.8	6.4	100.0	70.1	23.6
	4단계	(214)	35.2	43.7	9.5	8.7	2.9	100.0	78.8	18.3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2.4	43.6	11.7	7.3	5.0	100.0	76.0	19.0
	여성	(63)	40.5	26.1	19.7	10.5	3.2	100.0	66.6	30.2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9.2	37.1	20.7	6.3	6.8	100.0	66.2	27.0
	중도	(347)	35.1	43.7	8.8	6.7	5.8	100.0	78.8	15.4
	진보	(214)	33.9	45.6	8.7	10.4	1.4	100.0	79.5	19.1

[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30.2	39.8	19.8	5.5	4.8	100.0	69.9	25.3
성별	남성	(354)	25.6	40.5	22.1	6.5	5.3	100.0	66.1	28.6
	여성	(446)	33.7	39.2	18.0	4.7	4.4	100.0	72.9	22.7
연령	19~29세	(142)	50.3	30.0	7.9	4.8	6.9	100.0	80.4	12.7
	30~39세	(150)	37.8	33.0	17.4	4.4	7.4	100.0	70.8	21.8
	40~49세	(194)	21.7	51.3	18.0	7.0	1.9	100.0	73.0	25.1
	50~59세	(200)	27.4	43.1	24.2	2.9	2.4	100.0	70.6	27.1
	60~65세	(115)	14.3	35.3	33.1	9.6	7.7	100.0	49.6	42.7
지역	서울	(205)	31.8	37.0	19.3	6.2	5.8	100.0	68.7	25.4
	경기/인천	(279)	32.4	41.9	17.5	3.8	4.4	100.0	74.3	21.3
	대전/충청	(67)	19.7	41.9	25.2	7.2	6.0	100.0	61.5	32.4
	광주/전라	(86)	29.3	35.8	24.7	6.3	3.9	100.0	65.1	31.0
	대구/경북	(50)	25.1	40.2	21.9	7.7	5.1	100.0	65.3	29.6
	부산/울산/경남	(76)	30.7	33.7	23.0	7.2	5.4	100.0	64.4	30.2
	강원/제주	(32)	24.1	62.8	9.9	3.1	.0	100.0	86.9	13.1
지역크기	대도시	(441)	30.6	39.0	18.2	6.8	5.4	100.0	69.6	25.0
	중소도시	(300)	28.6	42.3	21.7	2.5	4.8	100.0	70.9	24.3
	읍/면	(59)	34.8	32.6	22.1	10.6	.0	100.0	67.3	32.7
직업	자영업	(96)	30.9	34.9	29.7	4.4	.0	100.0	65.8	34.2
	블루칼러	(125)	25.0	30.8	29.5	9.3	5.4	100.0	55.8	38.8
	화이트칼러	(244)	33.8	43.6	15.2	3.9	3.5	100.0	77.4	19.1
	전업주부	(198)	25.1	43.7	18.7	5.4	7.1	100.0	68.8	24.0
	학생	(64)	44.3	41.7	2.1	4.2	7.8	100.0	86.0	6.3
	기타/무직	(43)	23.2	35.7	28.6	9.2	3.3	100.0	58.9	37.8
결혼여부	결혼	(586)	24.7	42.2	22.1	6.0	5.0	100.0	66.9	28.1
	미혼	(214)	45.1	33.0	13.5	4.1	4.2	100.0	78.1	17.6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28.4	39.5	22.9	4.9	4.4	100.0	67.9	27.8
	비봉사	(368)	32.2	40.1	16.3	6.1	5.3	100.0	72.3	22.4
교회 직분	종직자	(109)	25.5	42.3	20.6	3.7	7.9	100.0	67.8	24.3
	서리집사	(292)	21.5	42.8	26.5	5.3	3.9	100.0	64.3	31.8
	일반성도	(399)	37.7	36.9	14.7	6.1	4.6	100.0	74.6	20.8
교인 수	49명 이하	(95)	31.3	41.1	12.4	7.3	8.0	100.0	72.4	19.7
	50~99명	(70)	25.3	33.1	22.8	7.8	10.9	100.0	58.4	30.7
	100~299명	(145)	29.3	37.1	28.8	3.9	1.0	100.0	66.4	32.6
	300~499명	(93)	34.5	34.9	13.9	6.7	10.1	100.0	69.4	20.6
	500명 이상	(397)	30.0	42.7	19.2	4.9	3.1	100.0	72.8	24.1
교단	장로교(합동)	(213)	31.0	41.8	21.4	3.0	2.8	100.0	72.8	24.4
	장로교(통합)	(213)	35.4	39.0	14.3	8.9	2.4	100.0	74.4	23.2
	기타 장로교	(85)	23.7	35.1	34.1	3.4	3.7	100.0	58.8	37.6
	기타 교단	(210)	24.1	43.3	22.0	5.1	5.5	100.0	67.4	27.1
	잘 모름	(80)	36.8	32.0	9.4	6.1	15.7	100.0	68.8	15.5
신앙단계	1단계	(108)	34.8	34.7	19.7	7.3	3.5	100.0	69.5	26.9
	2단계	(304)	28.9	43.8	16.0	4.3	7.1	100.0	72.7	20.2
	3단계	(174)	27.5	34.5	25.5	6.3	6.1	100.0	62.1	31.8
	4단계	(214)	31.8	40.8	20.8	5.6	1.1	100.0	72.5	26.4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29.2	40.6	19.7	5.5	5.0	100.0	69.8	25.2
	여성	(63)	41.4	30.1	21.4	5.3	1.7	100.0	71.6	26.7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1.1	41.8	23.6	8.2	5.3	100.0	62.9	31.8
	중도	(347)	35.2	37.0	18.2	4.2	5.4	100.0	72.1	22.4
	진보	(214)	32.2	42.0	18.3	4.4	3.1	100.0	74.1	22.7

[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30.7	36.2	24.8	3.5	4.9	100.0	66.9	28.2
성별	남성	(354)	24.2	39.6	25.9	5.3	5.0	100.0	63.8	31.2
	여성	(446)	35.9	33.5	23.8	2.0	4.8	100.0	69.4	25.9
연령	19~29세	(142)	46.8	22.4	17.0	3.4	10.4	100.0	69.2	20.4
	30~39세	(150)	32.2	31.4	23.4	5.4	7.5	100.0	63.6	28.8
	40~49세	(194)	26.0	42.7	27.5	2.4	1.4	100.0	68.7	29.9
	50~59세	(200)	30.0	44.7	19.6	4.0	1.7	100.0	74.7	23.6
	60~65세	(115)	18.0	33.5	40.4	2.1	6.1	100.0	51.5	42.5
지역	서울	(205)	36.8	29.6	25.4	4.8	3.3	100.0	66.5	30.2
	경기/인천	(279)	32.4	38.2	21.4	3.8	4.3	100.0	70.6	25.2
	대전/충청	(67)	27.2	29.7	30.7	.8	11.5	100.0	57.0	31.5
	광주/전라	(86)	22.7	34.6	37.6	1.9	3.3	100.0	57.3	39.5
	대구/경북	(50)	22.5	41.4	27.2	.7	8.2	100.0	63.9	27.9
	부산/울산/경남	(76)	26.8	42.1	17.6	5.7	7.7	100.0	69.0	23.3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23.1	58.4	18.5	.0	.0	100.0	81.5	18.5
	대도시	(441)	31.4	35.6	24.3	4.8	3.7	100.0	67.1	29.2
	중소도시	(300)	29.8	38.6	22.4	1.8	7.4	100.0	68.4	24.2
직업	읍/면	(59)	29.5	28.1	40.0	1.8	.6	100.0	57.6	41.8
	자영업	(96)	28.2	46.1	22.6	.0	3.2	100.0	74.3	22.6
	블루칼러	(125)	20.9	34.8	30.9	7.7	5.8	100.0	55.7	38.5
	화이트칼러	(244)	36.8	36.4	22.1	3.3	1.4	100.0	73.2	25.4
	전업주부	(198)	28.3	37.2	24.1	3.2	7.2	100.0	65.5	27.3
	학생	(64)	43.8	27.0	13.5	4.0	11.7	100.0	70.8	17.5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25.6	25.0	40.7	2.8	5.9	100.0	50.5	43.5
	결혼	(586)	27.1	39.2	26.9	2.7	4.1	100.0	66.3	29.6
	미혼	(214)	40.5	28.0	18.9	5.5	7.1	100.0	68.5	24.4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0.5	35.5	26.7	3.2	4.1	100.0	66.0	30.0
	비봉사	(368)	30.9	37.0	22.5	3.7	5.9	100.0	67.9	26.2
교회 직분	중직자	(109)	16.3	44.3	31.1	2.2	6.1	100.0	60.6	33.3
	서리집사	(292)	26.3	37.0	29.8	3.2	3.6	100.0	63.3	33.1
	일반성도	(399)	37.8	33.4	19.3	4.0	5.5	100.0	71.2	23.3
교인 수	49명 이하	(95)	31.3	34.5	18.7	7.5	7.9	100.0	65.8	26.2
	50-99명	(70)	24.7	43.7	17.8	6.6	7.2	100.0	68.4	24.4
	100-299명	(145)	30.5	36.1	25.3	4.9	3.1	100.0	66.7	30.2
	300-499명	(93)	27.1	36.0	28.2	2.4	6.3	100.0	63.1	30.6
	500명 이상	(397)	32.5	35.3	26.4	1.7	4.1	100.0	67.8	28.1
교단	장로교(합동)	(213)	30.5	44.3	20.0	4.6	.7	100.0	74.8	24.6
	장로교(통합)	(213)	31.9	35.3	24.6	2.8	5.5	100.0	67.1	27.3
	기타 장로교	(85)	21.8	28.0	40.2	2.4	7.7	100.0	49.8	42.5
	기타 교단	(210)	31.7	34.4	24.8	4.6	4.5	100.0	66.1	29.4
	잘 모름	(80)	35.0	30.3	21.4	.6	12.7	100.0	65.3	22.0
신앙단계	1단계	(108)	33.2	40.3	18.1	4.4	4.0	100.0	73.5	22.5
	2단계	(304)	31.9	34.6	23.5	1.8	8.1	100.0	66.5	25.4
	3단계	(174)	26.4	35.2	29.0	5.4	4.0	100.0	61.6	34.4
	4단계	(214)	31.3	37.1	26.4	3.8	1.5	100.0	68.4	30.2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29.9	36.9	25.2	3.4	4.7	100.0	66.8	28.5
	여성	(63)	40.5	27.7	19.7	4.9	7.1	100.0	68.2	24.7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3.9	34.7	28.1	6.5	6.7	100.0	58.6	34.6
	중도	(347)	32.9	38.4	20.2	2.3	6.1	100.0	71.3	22.5
	진보	(214)	34.6	34.2	28.4	2.0	.8	100.0	68.8	30.4

3. 성경 속 남녀 이야기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1) 창세기의 '돕는 배필'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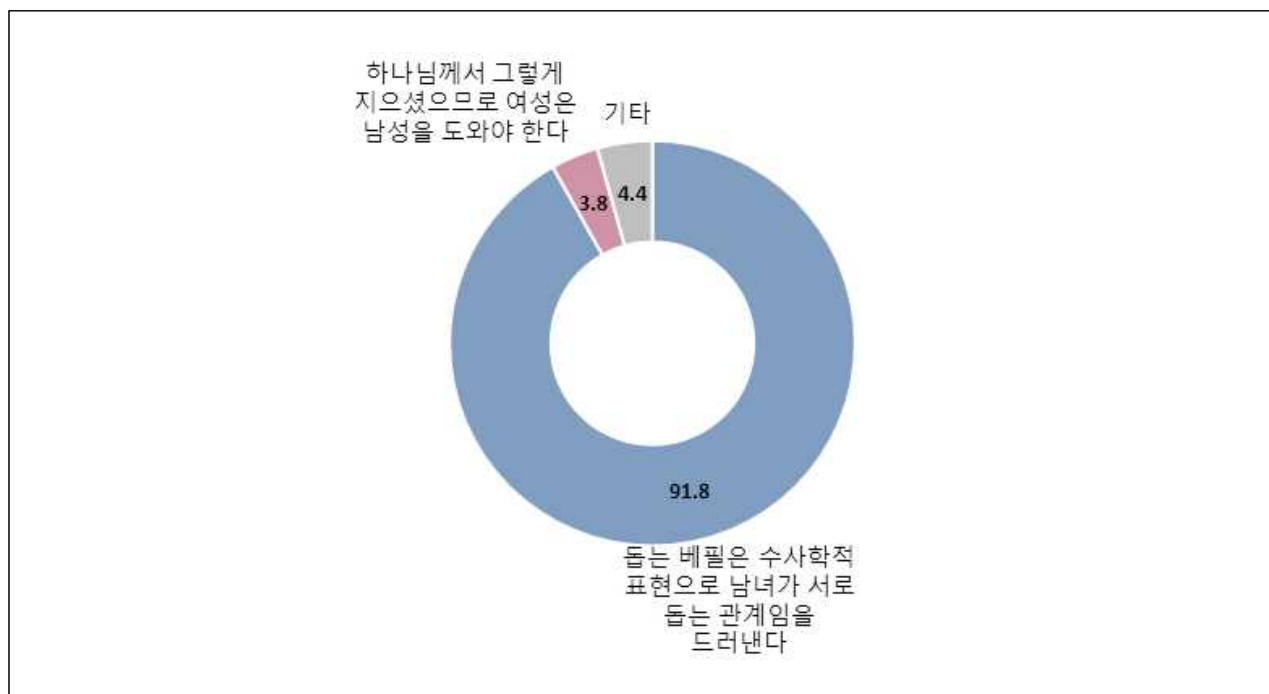
(목회자)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과 관련, 목사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다음은 목회자에게 성경 속 남녀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 먼저,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과 관련해 의견을 물은 결과, 거의 모든 목회자가 '돕는 배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남녀가 서로 돕는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응답했다.(91.8%)
-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므로 여성은 남성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그림] 창세기의 '돕는 배필'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표] 창세기의 '돕는 배필'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돕는 배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남녀가 서로 돕는 관계임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므로 여성은 남성을 도와야 한다	기타	계
■ 전체 ■		(212)	91.8	3.8	4.4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92.3	4.6	3.0	100.0
	부목사	(66)	88.8	3.0	8.1	100.0
	설교/협력목사	(16)	100.0	.0	.0	100.0
성별	남성	(207)	91.6	3.9	4.5	100.0
	여성	(5)	100.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85.1	4.3	10.6	100.0
	40~49세	(45)	92.0	5.7	2.3	100.0
	50~59세	(72)	95.2	.0	4.8	100.0
	60세 이상	(50)	92.9	7.1	.0	100.0
지역	서울	(57)	87.5	2.7	9.8	100.0
	경기/인천	(59)	92.3	7.7	.0	100.0
	대전/충청	(25)	89.5	5.9	4.6	100.0
	광주/전라	(23)	97.8	.0	2.2	100.0
	대구/경북	(12)	95.6	4.4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93.5	.0	6.5	100.0
	강원/제주	(15)	100.0	.0	.0	100.0
	해외	(7)	83.3	.0	16.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87.1	5.4	7.5	100.0
	중소도시	(77)	94.9	3.2	1.9	100.0
	읍/면	(32)	100.0	.0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88.2	4.6	7.2	100.0
	50-99명	(41)	100.0	.0	.0	100.0
	100-199명	(26)	94.3	.0	5.7	100.0
	200-499명	(44)	93.4	2.2	4.4	100.0
	500명 이상	(47)	86.1	9.8	4.1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80.6	11.3	8.2	100.0
	장로교(통합)	(53)	96.0	1.8	2.2	100.0
	기타 장로교	(29)	94.3	1.8	3.9	100.0
	기타 교단	(76)	95.9	.7	3.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90.4	6.9	2.6	100.0
	중도	(66)	91.5	3.0	5.4	100.0
	진보	(66)	93.8	.8	5.4	100.0

2)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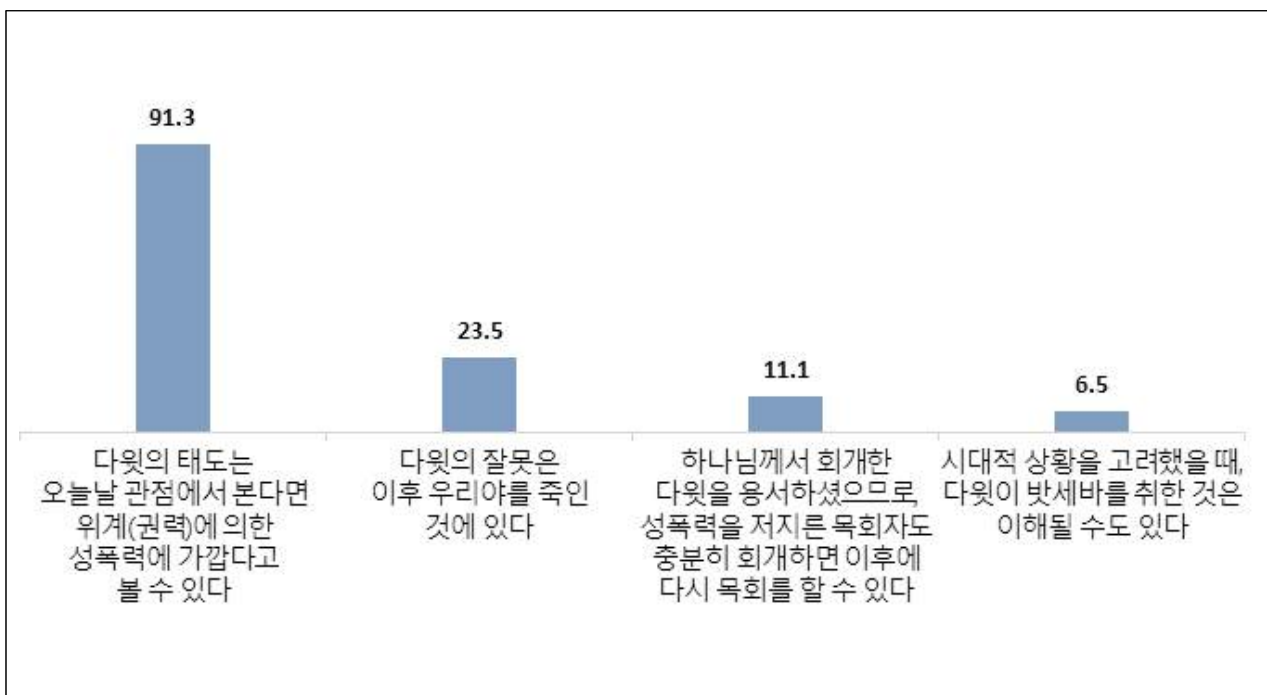
(목회자)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과 관련, 목사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다음 중 무엇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다윗과 밋세바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목회자(91.3%)가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1/4 가까이는 '다윗의 잘못은 이후 우리야를 죽인 것에 있다'(23.5%)에도 동의를 했다.
- '다윗의 잘못은 이후 우리야를 죽인 것에 있다'는 의견은 정치적으로 보수인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으므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도 충분히 회개하면 이후에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교인수 500명 이상 교회와 합동 교단, 그리고 정치적 보수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중복응답)

(Base=목회자, n=212, %)



[표]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한 의견(목회자 대상, 중복응답)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위계(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윗의 잘못은 이후 우리야를 죽인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으므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도 충분히 회개하면 이후에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이해될 수도 있다.	기타
■ 전체 ■		(212)	91.3	23.5	11.1	6.5	5.9
구분	담임목사	(130)	91.5	25.6	11.8	4.9	5.4
	부목사	(66)	90.3	18.0	12.3	9.7	8.3
	설교/협력목사	(16)	93.9	28.7	.0	6.1	.0
성별	남성	(207)	91.1	24.0	11.3	6.4	6.0
	여성	(5)	100.0	.0	.0	11.1	.0
연령	39세 이하	(46)	85.1	21.3	10.6	17.0	8.5
	40~49세	(45)	92.0	17.0	15.9	5.7	9.1
	50~59세	(72)	93.7	25.4	11.1	4.8	6.3
	60세 이상	(50)	92.9	28.6	7.1	.0	.0
지역	서울	(57)	94.5	32.9	9.9	8.2	8.1
	경기/인천	(59)	84.6	24.6	16.1	8.6	3.5
	대전/충청	(25)	90.2	15.1	3.9	7.8	2.0
	광주/전라	(23)	95.1	22.3	7.1	.0	7.1
	대구/경북	(12)	100.0	22.5	26.8	18.1	.0
	부산/울산/경남	(15)	90.1	18.6	11.0	.0	17.5
	강원/제주	(15)	100.0	15.6	7.0	.0	.0
	해외	(7)	83.3	.0	.0	.0	16.7
지역크기	대도시	(104)	89.9	27.4	14.6	6.3	8.1
	중소도시	(77)	91.5	16.0	8.8	6.6	4.1
	읍/면	(32)	95.3	28.8	5.2	6.7	3.2
교인 수	49명 이하	(54)	88.0	20.2	11.8	6.6	7.2
	50-99명	(41)	88.9	28.0	8.0	2.4	2.4
	100-199명	(26)	96.1	29.6	5.9	10.1	3.9
	200-499명	(44)	97.8	25.5	8.3	1.2	4.8
	500명 이상	(47)	88.5	18.2	18.5	12.9	9.6
교단	장로교(합동)	(54)	91.5	22.7	19.4	3.6	5.5
	장로교(통합)	(53)	95.0	22.1	7.8	7.8	8.4
	기타 장로교	(29)	92.6	25.3	8.6	5.1	10.7
	기타 교단	(76)	88.0	24.3	8.5	8.1	2.6
정치적 성향	보수	(80)	88.0	31.3	14.5	5.8	3.9
	중도	(66)	93.0	15.5	13.5	7.2	6.3
	진보	(66)	93.6	21.9	4.5	6.7	7.9

II. 교회 내 양성평등

1. 출석/시무교회의 양성평등

질문

(개신교인) 귀하께서는 출석하시는 교회의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목사님께서시는 시무하시는 교회의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신교인에게는 출석교회의 남녀 평등 수준을, 목회자에게는 시무 교회의 남녀 평등 수준을 물었다.
- 개신교인의 3/4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매우+약간)는 비율은 21.0%로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비율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
- 목회자가 생각하는 시무교회의 남녀 평등 수준은 조금 더 낮았다. 목회자의 57%가 남녀가 평등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비율은 개신교인과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비율은 37.5%로 개신교인보다 16.5%p 높게 나타났다.
- 개신교인은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없는 반면, 목회자는 담임목사는 '남녀 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고, 부목사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시무교회의 양성평등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출석교회의 양성평등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여성이 매우불평 등한처우 를 받음	여성이 약간불평 등한처우 를 받음	남녀평등	남성이 약간불평 등한처우 를 받음	남성이 매우불평 등한처우 를 받음	계	【여성에게 불평등】	【남녀평 등】	【남성에게 불평등】
■ 전체 ■		(800)	2.2	18.8	74.2	4.3	.5	100.0	21.0	74.2	4.8
성별	남성	(354)	1.6	13.6	77.9	5.9	1.0	100.0	15.2	77.9	6.9
	여성	(446)	2.7	22.9	71.2	3.1	.0	100.0	25.6	71.2	3.1
연령	19~29세	(142)	2.3	14.6	79.2	4.0	.0	100.0	16.8	79.2	4.0
	30~39세	(150)	3.3	20.9	68.6	4.8	2.4	100.0	24.2	68.6	7.2
	40~49세	(194)	.9	26.0	68.3	4.8	.0	100.0	27.0	68.3	4.8
	50~59세	(200)	3.9	15.4	77.3	3.4	.0	100.0	19.3	77.3	3.4
	60~65세	(115)	.0	15.0	79.9	5.0	.0	100.0	15.0	79.9	5.0
지역	서울	(205)	1.6	19.4	77.4	1.1	.5	100.0	21.0	77.4	1.6
	경기/인천	(279)	3.6	19.7	71.4	4.6	.7	100.0	23.3	71.4	5.3
	대전/충청	(67)	2.6	19.5	77.1	.0	.8	100.0	22.0	77.1	.8
	광주/전라	(86)	.0	19.4	74.5	6.1	.0	100.0	19.4	74.5	6.1
	대구/경북	(50)	1.8	8.8	81.5	8.0	.0	100.0	10.5	81.5	8.0
	부산/울산/경남	(76)	2.3	16.3	69.3	12.1	.0	100.0	18.6	69.3	12.1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0	26.5	70.4	3.1	.0	100.0	26.5	70.4	3.1
	대도시	(441)	2.4	19.3	73.6	4.0	.7	100.0	21.7	73.6	4.7
	중소도시	(300)	2.3	18.1	76.9	2.6	.2	100.0	20.4	76.9	2.8
	읍/면	(59)	.6	18.5	65.5	15.4	.0	100.0	19.1	65.5	15.4
직업	자영업	(96)	3.7	18.9	75.1	2.3	.0	100.0	22.5	75.1	2.3
	블루칼러	(125)	.0	17.3	74.1	8.6	.0	100.0	17.3	74.1	8.6
	화이트칼러	(244)	1.4	21.6	71.9	4.2	.9	100.0	23.0	71.9	5.1
	전업주부	(198)	2.3	21.2	73.2	3.3	.0	100.0	23.5	73.2	3.3
	학생	(64)	2.1	10.2	81.9	3.6	2.2	100.0	12.3	81.9	5.8
	기타/무직	(43)	5.1	16.1	75.3	3.5	.0	100.0	21.2	75.3	3.5
결혼여부	결혼	(586)	1.7	20.4	73.2	4.6	.2	100.0	22.1	73.2	4.8
	미혼	(214)	3.6	14.5	77.0	3.7	1.2	100.0	18.1	77.0	4.9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5	17.6	74.5	3.8	.7	100.0	21.0	74.5	4.5
	비봉사	(368)	.7	20.2	73.9	5.0	.1	100.0	21.0	73.9	5.1
교회 직분	중직자	(109)	.5	20.1	77.1	2.3	.0	100.0	20.6	77.1	2.3
	서리집사	(292)	1.9	18.0	76.3	3.6	.2	100.0	19.9	76.3	3.8
	일반성도	(399)	2.9	19.0	71.9	5.4	.8	100.0	22.0	71.9	6.2
교인 수	49명 이하	(95)	.0	15.8	78.5	5.7	.0	100.0	15.8	78.5	5.7
	50-99명	(70)	2.6	17.7	73.7	3.2	2.7	100.0	20.4	73.7	5.9
	100-299명	(145)	.4	13.0	81.8	4.5	.4	100.0	13.3	81.8	4.9
	300-499명	(93)	1.8	17.6	75.3	5.2	.0	100.0	19.5	75.3	5.2
	500명 이상	(397)	3.4	22.1	70.2	3.9	.3	100.0	25.5	70.2	4.2
교단	장로교(합동)	(213)	1.1	18.7	73.4	6.6	.2	100.0	19.8	73.4	6.8
	장로교(통합)	(213)	2.4	20.9	74.9	1.6	.3	100.0	23.3	74.9	1.9
	기타 장로교	(85)	1.0	23.4	69.6	6.1	.0	100.0	24.4	69.6	6.1
	기타 교단	(210)	2.5	16.7	75.9	3.9	.9	100.0	19.2	75.9	4.9
	잘 모름	(80)	5.2	14.2	74.9	5.0	.7	100.0	19.4	74.9	5.7
신앙단계	1단계	(108)	.0	22.7	69.0	8.3	.0	100.0	22.7	69.0	8.3
	2단계	(304)	1.0	18.4	76.7	3.5	.4	100.0	19.4	76.7	3.9
	3단계	(174)	1.3	16.2	78.7	2.4	1.4	100.0	17.5	78.7	3.8
	4단계	(214)	5.8	19.5	69.6	5.1	.0	100.0	25.3	69.6	5.1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2.0	18.5	74.6	4.4	.5	100.0	20.5	74.6	4.9
	여성	(63)	5.1	22.4	69.3	3.1	.0	100.0	27.5	69.3	3.1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2	15.2	75.4	7.4	.8	100.0	16.4	75.4	8.3
	중도	(347)	1.7	18.3	77.7	1.9	.3	100.0	20.0	77.7	2.3
	진보	(214)	4.1	23.7	67.2	4.7	.3	100.0	27.8	67.2	5.0

[표] 시무교회의 양성평등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여성이 매우불 평등한 처우를 받음	여성이 약간불 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녀평 등	남성이 약간불 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매우불 평등한 처우를 받음	계	【여성에 게 불평등】	【남녀평 등】	【남성에 게 불평등】
■ 전체 ■		(212)	5.0	32.5	57.0	5.2	.2	100.0	37.5	57.0	5.5
구분	담임목사	(130)	2.7	24.6	68.0	4.6	.0	100.0	27.4	68.0	4.6
	부목사	(66)	10.6	41.0	42.8	4.8	.8	100.0	51.7	42.8	5.5
	설교/협력목사	(16)	.0	62.0	25.8	12.3	.0	100.0	62.0	25.8	12.3
성별	남성	(207)	4.8	31.5	58.1	5.4	.2	100.0	36.4	58.1	5.6
	여성	(5)	11.1	77.8	11.1	.0	.0	100.0	88.9	11.1	.0
연령	39세 이하	(46)	10.6	36.2	44.7	8.5	.0	100.0	46.8	44.7	8.5
	40~49세	(45)	2.3	39.8	53.4	3.4	1.1	100.0	42.0	53.4	4.5
	50~59세	(72)	1.6	33.3	57.1	7.9	.0	100.0	34.9	57.1	7.9
	60세 이상	(50)	7.1	21.4	71.4	.0	.0	100.0	28.6	71.4	.0
지역	서울	(57)	8.1	27.1	62.9	2.0	.0	100.0	35.1	62.9	2.0
	경기/인천	(59)	6.9	30.3	54.0	8.8	.0	100.0	37.2	54.0	8.8
	대전/충청	(25)	3.9	49.0	45.1	.0	2.0	100.0	52.8	45.1	2.0
	광주/전라	(23)	.0	46.9	48.9	4.2	.0	100.0	46.9	48.9	4.2
	대구/경북	(12)	8.3	18.5	45.3	27.8	.0	100.0	26.8	45.3	27.8
	부산/울산/경남	(15)	.0	51.7	44.9	3.4	.0	100.0	51.7	44.9	3.4
	강원/제주	(15)	.0	18.3	81.7	.0	.0	100.0	18.3	81.7	.0
	해외	(7)	.0	.0	100.0	.0	.0	100.0	.0	100.0	.0
지역크기	대도시	(104)	8.3	28.2	60.3	3.2	.0	100.0	36.6	60.3	3.2
	중소도시	(77)	2.5	34.6	53.5	8.7	.7	100.0	37.1	53.5	9.3
	읍/면	(32)	.0	41.4	55.0	3.6	.0	100.0	41.4	55.0	3.6
교인 수	49명 이하	(54)	.0	8.2	84.0	7.9	.0	100.0	8.2	84.0	7.9
	50-99명	(41)	2.4	37.2	57.7	2.8	.0	100.0	39.5	57.7	2.8
	100-199명	(26)	5.7	31.4	62.9	.0	.0	100.0	37.1	62.9	.0
	200-499명	(44)	4.4	50.8	42.6	2.2	.0	100.0	55.2	42.6	2.2
	500명 이상	(47)	13.2	40.1	35.6	10.1	1.1	100.0	53.2	35.6	11.1
교단	장로교(합동)	(54)	12.0	22.2	58.8	6.0	.9	100.0	34.2	58.8	7.0
	장로교(통합)	(53)	4.7	42.2	49.1	4.0	.0	100.0	46.9	49.1	4.0
	기타 장로교	(29)	5.7	42.7	46.6	5.1	.0	100.0	48.3	46.6	5.1
	기타 교단	(76)	.0	29.2	65.2	5.6	.0	100.0	29.2	65.2	5.6
정치적 성향	보수	(80)	5.1	20.7	66.3	7.3	.6	100.0	25.7	66.3	8.0
	중도	(66)	2.9	30.7	61.8	4.5	.0	100.0	33.7	61.8	4.5
	진보	(66)	6.9	48.7	41.0	3.4	.0	100.0	55.6	41.0	3.4

2. 출석/시무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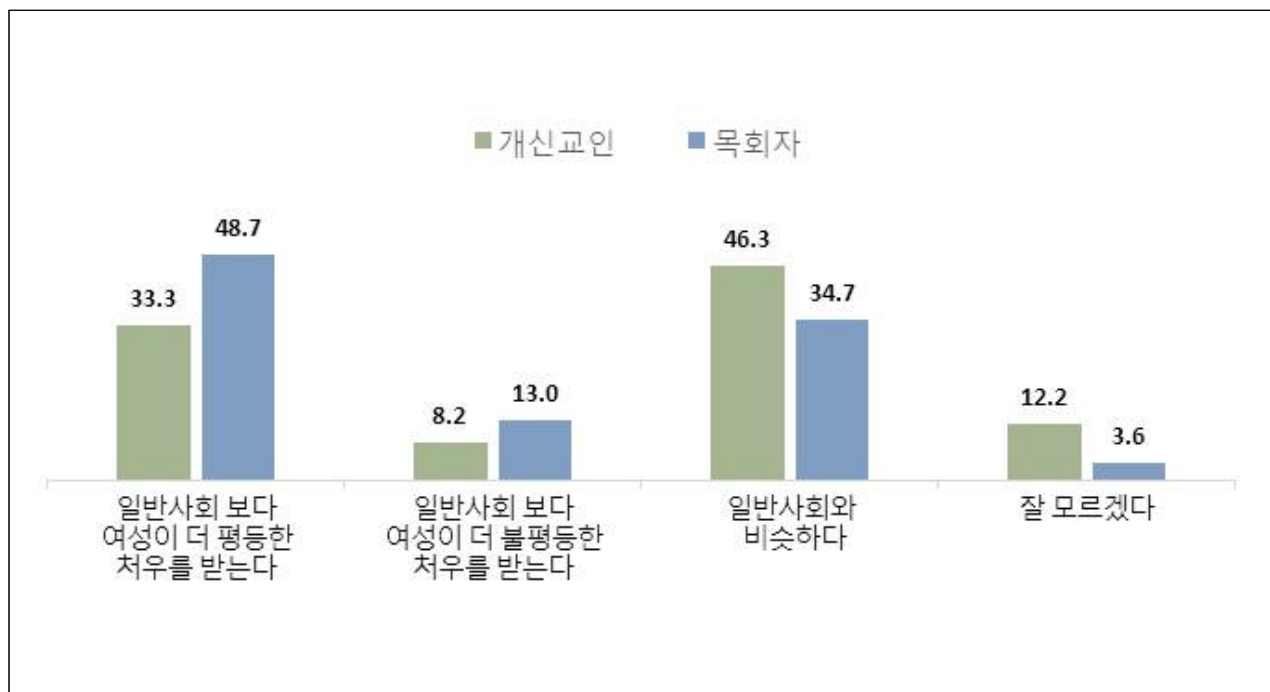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의 경우, 일반사회와 비교해 여성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목회자) 목사님 교회의 경우, 일반사회와 비교해 여성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 앞서 교회 내 남녀 평등에 대한 절대 평가에서는 목회자가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일반사회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 여성에 대한 처우가 일반사회에 비해 어딘지에 대해 개신교인은 '일반사회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은 반면, 목회자는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다.
- 개신교인 중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기타장로교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목회자 중 '일반사회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응답률은 담임목사와 60세 이상에서 높고, '일반사회와 비슷하다'는 응답률은 부목사와 39세 이하에서 높았다.

[그림] 출석/시무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출석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일반사회 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일반사회 보다 여성이 더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일반사회와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33.3	8.2	46.3	12.2	100.0
성별	남성	(354)	38.0	6.6	43.7	11.7	100.0
	여성	(446)	29.6	9.5	48.4	12.5	100.0
연령	19~29세	(142)	30.4	2.5	49.5	17.6	100.0
	30~39세	(150)	27.3	14.7	42.3	15.7	100.0
	40~49세	(194)	33.0	7.0	48.4	11.5	100.0
	50~59세	(200)	35.5	7.9	47.4	9.3	100.0
	60~65세	(115)	41.5	9.5	42.0	7.0	100.0
지역	서울	(205)	27.6	7.6	54.1	10.6	100.0
	경기/인천	(279)	33.7	9.1	48.4	8.8	100.0
	대전/충청	(67)	31.1	6.7	46.7	15.6	100.0
	광주/전라	(86)	39.6	9.5	38.3	12.6	100.0
	대구/경북	(50)	23.9	7.4	47.0	21.7	100.0
	부산/울산/경남	(76)	37.5	9.6	33.6	19.3	100.0
	강원/제주	(32)	56.9	3.1	27.3	12.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41)	31.0	9.8	46.9	12.3	100.0
	중소도시	(300)	36.5	5.2	47.1	11.2	100.0
	읍/면	(59)	34.0	11.5	38.0	16.4	100.0
직업	자영업	(96)	22.8	10.8	55.7	10.7	100.0
	블루칼러	(125)	33.6	9.6	48.4	8.4	100.0
	화이트칼러	(244)	37.0	5.9	49.2	8.0	100.0
	전업주부	(198)	30.4	11.8	42.5	15.3	100.0
	학생	(64)	32.5	3.9	40.3	23.3	100.0
	기타/무직	(43)	38.2	5.4	41.3	15.0	100.0
결혼여부	결혼	(586)	34.4	9.5	45.9	10.3	100.0
	미혼	(214)	30.5	4.7	47.4	17.4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40.5	8.0	44.6	6.9	100.0
	비봉사	(368)	24.9	8.5	48.2	18.3	100.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43.1	5.9	43.1	8.0	100.0
	서리집사	(292)	33.9	8.4	48.5	9.2	100.0
	일반성도	(399)	30.2	8.7	45.5	15.5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95)	34.2	7.5	43.8	14.4	100.0
	50-99명	(70)	27.9	11.9	45.3	14.9	100.0
	100-299명	(145)	36.4	7.6	46.1	10.0	100.0
	300-499명	(93)	43.8	6.8	40.7	8.7	100.0
	500명 이상	(397)	30.5	8.3	48.4	12.8	100.0
교단	장로교(합동)	(213)	31.1	7.9	52.5	8.4	100.0
	장로교(통합)	(213)	30.4	10.5	48.2	10.9	100.0
	기타 장로교	(85)	49.7	8.2	32.7	9.4	100.0
	기타 교단	(210)	33.8	7.8	47.1	11.3	100.0
	잘 모름	(80)	28.6	4.0	36.7	30.7	100.0
신앙단계	1단계	(108)	18.4	14.5	49.3	17.7	100.0
	2단계	(304)	29.4	7.7	48.3	14.6	100.0
	3단계	(174)	34.4	5.7	51.3	8.6	100.0
	4단계	(214)	45.5	7.8	38.0	8.8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4.0	7.2	46.3	12.5	100.0
	여성	(63)	25.2	20.5	45.6	8.8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34.7	9.4	49.4	6.6	100.0
	중도	(347)	31.2	5.9	44.3	18.7	100.0
	진보	(214)	35.3	10.7	46.1	7.9	100.0

[표] 시무교회의 여성에 대한 처우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일반 사회 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일반 사회 보다 여성이 더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일반 사회와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48.7	13.0	34.7	3.6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65.4	6.0	28.6	.0	100.0
	부목사	(66)	19.9	29.1	45.7	5.3	100.0
	설교/협력목사	(16)	31.9	3.2	39.1	25.8	100.0
성별	남성	(207)	49.6	12.0	34.8	3.7	100.0
	여성	(5)	11.1	56.8	32.1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21.3	25.5	51.1	2.1	100.0
	40~49세	(45)	33.0	14.8	45.5	6.8	100.0
	50~59세	(72)	60.3	7.9	31.7	.0	100.0
	60세 이상	(50)	71.4	7.1	14.3	7.1	100.0
지역	서울	(57)	29.4	17.9	50.9	1.7	100.0
	경기/인천	(59)	48.8	13.0	33.9	4.3	100.0
	대전/충청	(25)	48.7	7.8	41.5	2.0	100.0
	광주/전라	(23)	76.0	2.2	6.6	15.3	100.0
	대구/경북	(12)	41.0	26.8	32.2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43.0	17.5	39.5	.0	100.0
	강원/제주	(15)	74.7	3.5	21.8	.0	100.0
	해외	(7)	85.7	14.3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35.9	18.8	42.4	2.9	100.0
	중소도시	(77)	57.4	9.2	27.4	6.0	100.0
	읍/면	(32)	69.6	3.1	27.3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75.2	.9	23.9	.0	100.0
	50-99명	(41)	54.5	4.8	30.8	10.0	100.0
	100-199명	(26)	32.0	7.5	58.6	2.0	100.0
	200-499명	(44)	53.9	22.0	24.1	.0	100.0
	500명 이상	(47)	17.6	28.6	47.4	6.4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43.0	20.6	34.5	1.9	100.0
	장로교(통합)	(53)	52.5	15.9	23.9	7.7	100.0
	기타 장로교	(29)	47.7	7.2	41.5	3.5	100.0
	기타 교단	(76)	50.6	7.8	39.7	1.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51.6	9.1	38.7	.6	100.0
	중도	(66)	50.3	14.2	31.8	3.8	100.0
	진보	(66)	43.7	16.6	32.8	6.9	100.0

3. 출석/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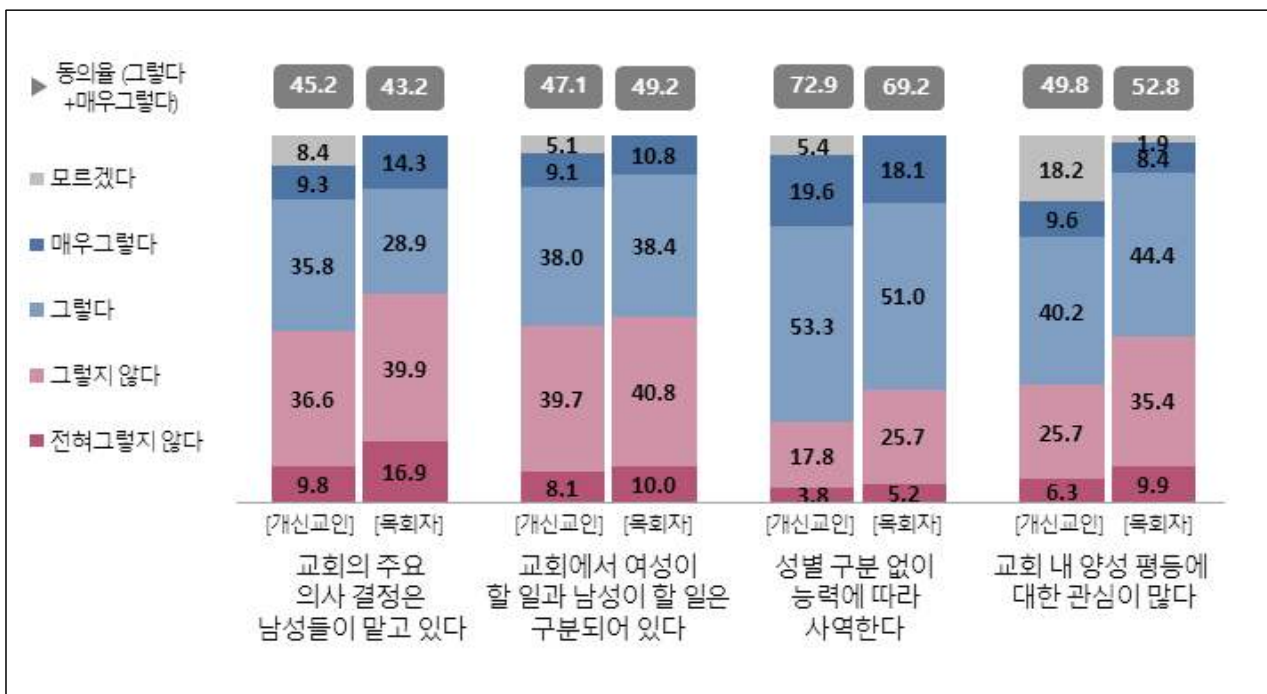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상태입니까?
(목회자) 목사님 교회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상태입니까?



- 교회 내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 개신교인과 목회자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는데,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에 대한 동의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이 가장 높았고(개신교인 72.9%, 목회자 69.2%), 그 다음으로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가 50% 안팎의 동의율을 보였다.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40% 후반대의 동의율을 나타냈으며,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는 40% 중반대의 동의율을 보였다.
- 개신교인의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음'과 '교회에서 남녀 할일 구분되어 있음'에 대한 비동의율과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함'에 대한 동의율은 교인 수 49명 이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담임목사는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음', '교회에서 남녀 할일 구분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비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함', '교회 내 양성평등에 관심 많음'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부목사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그림] 출석/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출석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800)	9.8	36.6	35.8	9.3	8.4	100.0	46.4	45.2
성별	남성	(354)	10.5	37.5	36.7	7.9	7.5	100.0	48.0	44.6
	여성	(446)	9.3	35.9	35.1	10.5	9.2	100.0	45.2	45.6
연령	19~29세	(142)	17.5	27.6	30.6	6.1	18.1	100.0	45.2	36.7
	30~39세	(150)	11.1	33.2	35.5	10.6	9.6	100.0	44.3	46.1
	40~49세	(194)	5.4	37.4	37.2	14.8	5.2	100.0	42.7	52.1
	50~59세	(200)	7.5	42.1	35.2	8.3	6.9	100.0	49.6	43.5
	60~65세	(115)	10.1	41.4	41.3	4.3	2.8	100.0	51.5	45.7
지역	서울	(205)	7.3	33.3	36.3	13.6	9.5	100.0	40.6	49.9
	경기/인천	(279)	6.8	42.2	31.5	8.3	11.1	100.0	49.0	39.8
	대전/충청	(67)	20.4	32.3	40.2	2.8	4.4	100.0	52.6	42.9
	광주/전라	(86)	17.3	28.8	39.1	8.4	6.4	100.0	46.1	47.5
	대구/경북	(50)	8.7	36.0	41.0	6.1	8.2	100.0	44.7	47.1
	부산/울산/경남	(76)	9.3	28.6	43.3	13.3	5.5	100.0	37.8	56.6
	강원/제주	(32)	12.7	55.1	28.8	3.4	.0	100.0	67.8	32.2
지역크기	대도시	(441)	9.9	34.8	36.0	11.8	7.5	100.0	44.7	47.8
	중소도시	(300)	9.3	40.6	34.4	6.3	9.3	100.0	50.0	40.8
	읍/면	(59)	11.9	29.6	41.0	6.7	10.8	100.0	41.5	47.7
직업	자영업	(96)	5.9	48.3	31.3	8.9	5.6	100.0	54.2	40.2
	블루칼러	(125)	12.8	31.8	38.2	11.9	5.3	100.0	44.6	50.1
	화이트칼러	(244)	10.6	36.5	38.1	9.6	5.3	100.0	47.0	47.6
	전업주부	(198)	7.7	37.2	32.8	11.9	10.4	100.0	44.9	44.6
	학생	(64)	14.4	36.4	27.4	2.1	19.8	100.0	50.8	29.5
	기타/무직	(43)	10.0	23.5	48.8	5.4	12.4	100.0	33.4	54.2
결혼여부	결혼	(586)	8.8	37.9	35.7	10.0	7.5	100.0	46.7	45.8
	미혼	(214)	12.5	33.2	36.1	7.4	10.8	100.0	45.7	43.5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0.6	38.2	37.8	8.9	4.4	100.0	48.9	46.7
	비봉사	(368)	8.9	34.7	33.5	9.8	13.1	100.0	43.6	43.3
교회 직분	종직자	(109)	6.6	38.0	44.7	8.1	2.6	100.0	44.6	52.9
	서리집사	(292)	7.7	38.2	38.1	10.3	5.7	100.0	45.9	48.4
	일반성도	(399)	12.3	35.0	31.7	9.0	12.0	100.0	47.3	40.7
교인 수	49명 이하	(95)	28.6	41.5	21.1	1.7	7.1	100.0	70.1	22.8
	50~99명	(70)	12.5	32.7	36.6	9.7	8.6	100.0	45.1	46.3
	100~299명	(145)	11.7	35.9	37.1	10.0	5.4	100.0	47.6	47.0
	300~499명	(93)	4.3	45.0	33.0	6.9	10.9	100.0	49.3	39.9
	500명 이상	(397)	5.5	34.4	39.4	11.5	9.2	100.0	39.9	50.8
교단	장로교(합동)	(213)	9.6	36.6	39.1	11.9	2.7	100.0	46.3	51.0
	장로교(통합)	(213)	10.0	34.2	38.8	10.3	6.7	100.0	44.2	49.1
	기타 장로교	(85)	11.0	42.3	28.3	11.7	6.7	100.0	53.3	40.0
	기타 교단	(210)	10.7	36.3	35.5	7.0	10.5	100.0	47.0	42.5
	잘 모름	(80)	6.3	37.8	27.7	3.9	24.4	100.0	44.0	31.5
신앙단계	1단계	(108)	6.7	33.1	33.1	13.9	13.2	100.0	39.8	47.0
	2단계	(304)	7.2	40.7	34.5	7.6	10.0	100.0	47.9	42.1
	3단계	(174)	7.6	31.9	41.7	9.8	9.0	100.0	39.5	51.5
	4단계	(214)	16.9	36.4	34.2	9.2	3.3	100.0	53.4	43.4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9.3	36.2	36.1	9.7	8.6	100.0	45.5	45.9
	여성	(63)	16.0	41.0	32.0	4.6	6.4	100.0	57.0	36.6
정치적 성향	보수	(238)	7.8	41.6	37.4	8.0	5.2	100.0	49.4	45.4
	중도	(347)	11.7	35.6	31.1	10.3	11.3	100.0	47.3	41.4
	진보	(214)	9.0	32.7	41.6	9.4	7.4	100.0	41.6	51.0

[표] 출석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800)	8.1	39.7	38.0	9.1	5.1	100.0	47.8	47.1
성별	남성	(354)	9.6	41.2	36.2	9.0	3.9	100.0	50.9	45.3
	여성	(446)	6.9	38.5	39.4	9.2	6.0	100.0	45.4	48.6
연령	19~29세	(142)	16.9	36.4	29.3	8.4	8.9	100.0	53.3	37.7
	30~39세	(150)	9.1	35.4	34.6	11.9	9.1	100.0	44.5	46.4
	40~49세	(194)	2.3	39.7	45.0	10.6	2.4	100.0	42.0	55.6
	50~59세	(200)	7.5	41.8	41.8	5.2	3.8	100.0	49.2	46.9
	60~65세	(115)	6.9	45.8	34.8	10.9	1.7	100.0	52.6	45.7
지역	서울	(205)	6.3	41.0	37.2	12.1	3.5	100.0	47.3	49.3
	경기/인천	(279)	7.4	41.8	37.3	7.1	6.5	100.0	49.1	44.4
	대전/충청	(67)	17.9	39.1	30.5	10.6	2.0	100.0	57.0	41.1
	광주/전라	(86)	7.1	34.3	40.9	10.5	7.1	100.0	41.4	51.5
	대구/경북	(50)	8.0	33.9	32.9	13.9	11.2	100.0	42.0	46.8
	부산/울산/경남	(76)	5.2	36.6	50.4	4.7	3.1	100.0	41.8	55.1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13.6	43.6	39.7	3.1	.0	100.0	57.2	42.8
	대도시	(441)	8.6	36.5	39.7	11.1	4.1	100.0	45.0	50.8
	중소도시	(300)	7.7	44.4	34.3	6.8	6.8	100.0	52.1	41.1
	읍/면	(59)	6.8	39.9	43.5	6.4	3.4	100.0	46.7	49.9
직업	자영업	(96)	9.6	49.0	34.2	4.9	2.3	100.0	58.5	39.1
	블루칼러	(125)	6.2	35.5	39.1	16.0	3.2	100.0	41.7	55.1
	화이트칼러	(244)	9.6	40.1	37.7	10.1	2.5	100.0	49.7	47.8
	전업주부	(198)	5.7	35.1	45.7	7.6	5.9	100.0	40.8	53.3
	학생	(64)	15.2	34.9	31.5	8.0	10.4	100.0	50.1	39.5
	기타/무직	(43)	6.0	45.5	28.5	8.2	11.7	100.0	51.5	36.7
결혼여부	결혼	(586)	6.3	39.7	40.8	9.3	3.9	100.0	46.0	50.1
	미혼	(214)	13.0	39.7	30.3	8.7	8.2	100.0	52.8	39.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9.2	40.9	38.9	8.6	2.4	100.0	50.2	47.4
	비봉사	(368)	6.8	38.2	36.9	9.8	8.2	100.0	45.1	46.7
교회 직분	중직자	(109)	1.0	49.4	38.9	8.9	1.8	100.0	50.4	47.8
	서리집사	(292)	5.9	37.2	44.6	9.2	3.2	100.0	43.1	53.8
	일반성도	(399)	11.7	38.9	32.9	9.2	7.3	100.0	50.6	42.1
교인 수	49명 이하	(95)	15.7	41.2	30.0	7.0	6.1	100.0	57.0	36.9
	50-99명	(70)	11.3	26.9	48.4	8.2	5.2	100.0	38.2	56.6
	100-299명	(145)	6.1	38.7	44.9	8.5	1.9	100.0	44.8	53.3
	300-499명	(93)	5.4	43.1	33.6	10.4	7.5	100.0	48.5	44.0
	500명 이상	(397)	7.1	41.1	36.6	9.8	5.4	100.0	48.3	46.3
교단	장로교(합동)	(213)	7.5	37.6	40.5	12.7	1.7	100.0	45.1	53.2
	장로교(통합)	(213)	9.4	39.1	39.3	8.2	3.9	100.0	48.6	47.5
	기타 장로교	(85)	7.3	35.8	46.2	6.7	4.0	100.0	43.1	52.9
	기타 교단	(210)	8.0	46.0	33.4	8.9	3.8	100.0	54.0	42.2
	잘 모름	(80)	7.7	34.2	31.1	5.5	21.5	100.0	41.9	36.6
신앙단계	1단계	(108)	5.7	26.1	48.4	11.1	8.7	100.0	31.8	59.5
	2단계	(304)	5.9	44.2	33.8	8.9	7.2	100.0	50.1	42.7
	3단계	(174)	6.6	36.3	41.6	11.8	3.6	100.0	42.9	53.5
	4단계	(214)	13.7	42.9	35.8	6.2	1.4	100.0	56.6	42.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7.7	40.1	37.6	9.2	5.4	100.0	47.8	46.8
	여성	(63)	13.3	34.9	42.0	8.7	1.1	100.0	48.2	50.7
정치적 성향	보수	(238)	6.1	40.4	38.5	11.8	3.2	100.0	46.5	50.3
	중도	(347)	10.0	36.8	38.8	7.8	6.7	100.0	46.7	46.6
	진보	(214)	7.4	43.7	36.0	8.3	4.5	100.0	51.1	44.4

[표] 출석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800)	3.8	17.8	53.3	19.6	5.4	100.0	21.7	72.9
성별	남성	(354)	4.5	13.5	53.3	23.9	4.8	100.0	18.0	77.2
	여성	(446)	3.3	21.3	53.3	16.2	5.9	100.0	24.6	69.4
연령	19~29세	(142)	6.4	6.1	52.3	27.0	8.2	100.0	12.4	79.3
	30~39세	(150)	3.9	12.8	52.6	23.6	7.1	100.0	16.6	76.2
	40~49세	(194)	4.5	24.3	52.0	15.3	4.0	100.0	28.8	67.3
	50~59세	(200)	1.7	20.4	57.7	15.5	4.7	100.0	22.1	73.2
	60~65세	(115)	3.1	23.6	49.9	19.7	3.7	100.0	26.7	69.6
지역	서울	(205)	6.2	16.6	55.9	15.5	5.8	100.0	22.8	71.4
	경기/인천	(279)	1.3	22.4	48.8	23.2	4.3	100.0	23.8	71.9
	대전/충청	(67)	4.6	11.7	48.3	26.9	8.6	100.0	16.3	75.2
	광주/전라	(86)	3.0	11.1	66.0	12.8	7.1	100.0	14.1	78.8
	대구/경북	(50)	.9	10.2	60.1	22.1	6.7	100.0	11.1	82.2
	부산/울산/경남	(76)	6.0	23.4	42.7	23.0	4.9	100.0	29.4	65.7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9.5	17.0	69.3	1.6	2.6	100.0	26.5	70.9
	대도시	(441)	4.2	18.1	54.0	19.1	4.5	100.0	22.3	73.2
	중소도시	(300)	3.6	16.2	53.7	19.6	6.9	100.0	19.8	73.3
	읍/면	(59)	1.7	24.4	45.7	22.9	5.3	100.0	26.1	68.6
직업	자영업	(96)	2.8	17.1	57.6	16.9	5.6	100.0	19.9	74.5
	블루컬러	(125)	7.8	16.1	50.3	21.3	4.6	100.0	23.8	71.6
	화이트컬러	(244)	2.7	18.7	52.9	22.1	3.6	100.0	21.4	75.0
	전업주부	(198)	1.9	24.5	52.2	15.3	6.2	100.0	26.4	67.5
	학생	(64)	3.9	7.8	54.4	24.0	9.9	100.0	11.7	78.4
	기타/무직	(43)	9.1	11.7	54.7	21.4	3.2	100.0	20.8	76.1
결혼여부	결혼	(586)	3.3	20.9	53.1	17.8	5.0	100.0	24.1	70.9
	미혼	(214)	5.3	9.6	53.9	24.4	6.8	100.0	14.9	78.3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7	18.5	51.3	23.0	3.5	100.0	22.1	74.4
	비봉사	(368)	4.0	17.1	55.6	15.6	7.7	100.0	21.1	71.2
교회 직분	종직자	(109)	5.3	18.0	61.2	12.2	3.3	100.0	23.3	73.4
	서리집사	(292)	1.8	21.2	55.2	19.4	2.4	100.0	23.1	74.6
	일반성도	(399)	4.8	15.3	49.8	21.8	8.3	100.0	20.2	71.5
교인 수	49명 이하	(95)	2.9	5.0	63.3	21.4	7.4	100.0	7.9	84.7
	50-99명	(70)	6.3	23.3	47.5	15.0	7.9	100.0	29.6	62.5
	100-299명	(145)	2.9	16.2	57.9	20.9	2.2	100.0	19.1	78.8
	300-499명	(93)	2.3	22.8	48.9	19.9	6.1	100.0	25.0	68.9
	500명 이상	(397)	4.3	19.4	51.3	19.4	5.6	100.0	23.7	70.7
교단	장로교(합동)	(213)	4.1	23.5	52.8	17.6	2.0	100.0	27.6	70.4
	장로교(통합)	(213)	3.0	15.6	62.0	14.7	4.6	100.0	18.6	76.8
	기타 장로교	(85)	1.5	23.5	47.4	20.4	7.2	100.0	25.0	67.8
	기타 교단	(210)	2.4	16.4	51.3	24.4	5.5	100.0	18.7	75.7
	잘 모름	(80)	11.5	6.5	42.9	24.1	14.9	100.0	18.0	67.0
신앙단계	1단계	(108)	4.0	21.6	56.0	8.9	9.6	100.0	25.6	64.9
	2단계	(304)	2.0	19.3	53.3	19.1	6.2	100.0	21.4	72.4
	3단계	(174)	1.7	21.3	51.3	20.4	5.3	100.0	23.0	71.8
	4단계	(214)	8.0	11.1	53.6	24.9	2.4	100.0	19.1	78.5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5	17.9	53.9	19.3	5.4	100.0	21.4	73.2
	여성	(63)	7.9	17.3	45.9	23.4	5.5	100.0	25.2	69.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7	17.3	54.5	23.3	2.2	100.0	20.0	77.8
	중도	(347)	4.5	17.7	50.9	17.9	8.9	100.0	22.3	68.8
	진보	(214)	3.9	18.6	55.9	18.2	3.4	100.0	22.5	74.1

[표] 출석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800)	6.3	25.7	40.2	9.6	18.2	100.0	32.0	49.8
성별	남성	(354)	7.1	23.6	39.7	11.4	18.2	100.0	30.7	51.1
	여성	(446)	5.7	27.3	40.6	8.1	18.2	100.0	33.0	48.8
연령	19~29세	(142)	7.0	17.8	38.2	10.5	26.5	100.0	24.8	48.7
	30~39세	(150)	7.5	24.2	33.4	9.6	25.3	100.0	31.7	43.0
	40~49세	(194)	7.3	30.3	40.3	7.7	14.4	100.0	37.6	48.0
	50~59세	(200)	4.7	27.0	41.8	9.9	16.6	100.0	31.7	51.7
	60~65세	(115)	5.2	27.0	48.5	11.3	7.9	100.0	32.3	59.8
지역	서울	(205)	7.8	20.3	40.1	9.5	22.1	100.0	28.2	49.7
	경기/인천	(279)	4.8	23.7	43.8	9.4	18.2	100.0	28.5	53.3
	대전/충청	(67)	7.2	20.4	44.4	7.3	20.6	100.0	27.7	51.8
	광주/전라	(86)	4.1	28.1	41.8	14.9	11.1	100.0	32.2	56.7
	대구/경북	(50)	1.3	51.7	25.0	4.1	17.8	100.0	53.0	29.1
	부산/울산/경남	(76)	9.4	36.4	26.9	12.8	14.5	100.0	45.7	39.7
	강원/제주	(32)	14.1	16.2	48.5	4.2	16.9	100.0	30.4	52.8
지역크기	대도시	(441)	7.6	24.2	38.3	10.0	19.9	100.0	31.8	48.3
	중소도시	(300)	5.1	26.7	43.0	9.2	15.9	100.0	31.9	52.2
	읍/면	(59)	2.9	30.9	40.9	8.2	17.1	100.0	33.8	49.1
직업	자영업	(96)	6.5	22.9	42.1	8.7	19.8	100.0	29.4	50.8
	블루칼러	(125)	9.7	35.2	30.7	15.6	8.8	100.0	44.8	46.3
	화이트칼러	(244)	4.3	26.1	44.8	8.8	16.1	100.0	30.4	53.6
	전업주부	(198)	5.4	27.7	38.1	8.1	20.7	100.0	33.1	46.2
	학생	(64)	6.0	7.8	42.9	7.8	35.6	100.0	13.7	50.7
	기타/무직	(43)	13.2	16.8	49.6	2.5	18.0	100.0	29.9	52.1
결혼여부	결혼	(586)	5.9	27.0	41.0	9.2	16.9	100.0	32.9	50.2
	미혼	(214)	7.5	22.1	38.2	10.6	21.6	100.0	29.6	48.8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5.6	29.0	38.3	13.4	13.7	100.0	34.5	51.8
	비봉사	(368)	7.2	21.8	42.4	5.1	23.5	100.0	29.0	47.5
교회 직분	종직자	(109)	7.6	29.5	39.9	15.2	7.8	100.0	37.1	55.1
	서리집사	(292)	5.3	26.7	43.7	8.2	16.1	100.0	32.0	51.9
	일반성도	(399)	6.7	23.9	37.8	9.1	22.6	100.0	30.6	46.9
교인 수	49명 이하	(95)	6.3	36.4	26.0	10.3	21.0	100.0	42.7	36.3
	50~99명	(70)	4.2	37.2	25.8	17.0	15.8	100.0	41.5	42.8
	100~299명	(145)	5.8	27.2	47.6	5.9	13.5	100.0	33.0	53.5
	300~499명	(93)	4.3	21.3	49.4	10.6	14.4	100.0	25.6	60.0
	500명 이상	(397)	7.3	21.5	41.3	9.3	20.5	100.0	28.9	50.6
교단	장로교(합동)	(213)	5.5	24.9	42.6	12.5	14.4	100.0	30.5	55.1
	장로교(통합)	(213)	5.2	28.3	42.8	7.3	16.5	100.0	33.4	50.1
	기타 장로교	(85)	9.8	29.0	31.6	11.8	17.8	100.0	38.8	43.4
	기타 교단	(210)	4.6	26.3	42.8	9.3	17.0	100.0	30.9	52.0
	잘 모름	(80)	12.1	15.6	29.3	6.6	36.4	100.0	27.7	35.9
신앙단계	1단계	(108)	7.2	18.1	44.4	6.3	24.0	100.0	25.3	50.7
	2단계	(304)	3.8	22.7	42.6	9.5	21.4	100.0	26.5	52.1
	3단계	(174)	2.3	34.5	36.4	6.8	20.0	100.0	36.8	43.2
	4단계	(214)	12.7	26.6	37.8	13.7	9.2	100.0	39.3	51.5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6.4	25.2	39.9	9.6	18.9	100.0	31.5	49.5
	여성	(63)	5.8	31.6	43.5	9.6	9.5	100.0	37.4	53.1
정치적 성향	보수	(238)	5.5	28.2	41.9	9.0	15.3	100.0	33.7	51.0
	중도	(347)	6.4	25.1	38.2	8.1	22.2	100.0	31.5	46.3
	진보	(214)	7.0	23.8	41.6	12.6	14.9	100.0	30.8	54.3

[표] 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212)	16.9	39.9	28.9	14.3	100.0	56.8	43.2
구분	담임목사	(130)	24.4	54.2	17.2	4.2	100.0	78.6	21.4
	부목사	(66)	6.0	18.2	44.1	31.7	100.0	24.3	75.7
	설교/협력목사	(16)	.0	12.6	61.6	25.8	100.0	12.6	87.4
성별	남성	(207)	17.0	40.6	28.8	13.6	100.0	57.6	42.4
	여성	(5)	11.1	11.1	32.1	45.7	100.0	22.2	77.8
연령	39세 이하	(46)	6.4	19.1	40.4	34.0	100.0	25.5	74.5
	40~49세	(45)	19.3	31.8	36.4	12.5	100.0	51.1	48.9
	50~59세	(72)	23.8	41.3	27.0	7.9	100.0	65.1	34.9
	60세 이상	(50)	14.3	64.3	14.3	7.1	100.0	78.6	21.4
지역	서울	(57)	14.2	30.3	30.1	25.4	100.0	44.5	55.5
	경기/인천	(59)	16.1	45.0	26.4	12.5	100.0	61.1	38.9
	대전/충청	(25)	6.1	40.1	38.2	15.5	100.0	46.2	53.8
	광주/전라	(23)	7.1	61.5	31.4	.0	100.0	68.6	31.4
	대구/경북	(12)	55.1	12.7	14.1	18.1	100.0	67.8	32.2
	부산/울산/경남	(15)	7.6	27.7	53.6	11.0	100.0	35.4	64.6
	강원/제주	(15)	43.4	42.6	14.0	.0	100.0	86.0	14.0
	해외	(7)	16.7	69.0	.0	14.3	100.0	85.7	14.3
지역크기	대도시	(104)	15.6	35.0	33.0	16.4	100.0	50.6	49.4
	중소도시	(77)	19.3	35.3	29.9	15.5	100.0	54.6	45.4
	읍/면	(32)	15.3	67.0	13.1	4.7	100.0	82.2	17.8
교인 수	49명 이하	(54)	40.8	53.3	5.9	.0	100.0	94.1	5.9
	50-99명	(41)	9.3	51.7	31.5	7.5	100.0	61.0	39.0
	100-199명	(26)	10.1	48.1	22.9	18.9	100.0	58.2	41.8
	200-499명	(44)	14.0	24.1	32.0	29.9	100.0	38.1	61.9
	500명 이상	(47)	2.2	24.5	53.7	19.6	100.0	26.7	73.3
교단	장로교(합동)	(54)	4.0	41.4	34.0	20.6	100.0	45.4	54.6
	장로교(통합)	(53)	25.5	30.6	30.2	13.6	100.0	56.1	43.9
	기타 장로교	(29)	17.4	30.5	39.8	12.3	100.0	47.9	52.1
	기타 교단	(76)	19.8	48.8	20.2	11.2	100.0	68.7	31.3
정치적 성향	보수	(80)	18.6	43.1	28.0	10.3	100.0	61.7	38.3
	중도	(66)	15.2	43.0	27.4	14.3	100.0	58.2	41.8
	진보	(66)	16.4	33.0	31.4	19.2	100.0	49.4	50.6

[표] 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212)	10.0	40.8	38.4	10.8	100.0	50.8	49.2
구분	담임목사	(130)	14.3	50.3	32.8	2.5	100.0	64.7	35.3
	부목사	(66)	4.0	24.0	47.7	24.3	100.0	28.0	72.0
	설교/협력목사	(16)	.0	31.9	45.6	22.5	100.0	31.9	68.1
성별	남성	(207)	10.0	41.5	38.5	10.0	100.0	51.5	48.5
	여성	(5)	11.1	11.1	32.1	45.7	100.0	22.2	77.8
연령	39세 이하	(46)	2.1	31.9	42.6	23.4	100.0	34.0	66.0
	40~49세	(45)	9.1	34.1	47.7	9.1	100.0	43.2	56.8
	50~59세	(72)	12.7	49.2	31.7	6.3	100.0	61.9	38.1
	60세 이상	(50)	14.3	42.9	35.7	7.1	100.0	57.1	42.9
지역	서울	(57)	11.6	30.6	38.0	19.9	100.0	42.1	57.9
	경기/인천	(59)	11.6	34.7	48.7	5.0	100.0	46.3	53.7
	대전/충청	(25)	2.0	51.2	33.1	13.7	100.0	53.2	46.8
	광주/전라	(23)	22.3	39.2	33.6	4.9	100.0	61.5	38.5
	대구/경북	(12)	18.5	36.6	22.5	22.5	100.0	55.1	44.9
	부산/울산/경남	(15)	.0	46.0	50.6	3.4	100.0	46.0	54.0
	강원/제주	(15)	.0	74.7	25.3	.0	100.0	74.7	25.3
	해외	(7)	.0	69.0	16.7	14.3	100.0	69.0	31.0
지역크기	대도시	(104)	9.5	35.4	41.8	13.3	100.0	44.9	55.1
	중소도시	(77)	8.3	46.1	37.2	8.5	100.0	54.3	45.7
	읍/면	(32)	16.1	45.6	30.0	8.3	100.0	61.7	38.3
교인 수	49명 이하	(54)	23.8	44.6	31.6	.0	100.0	68.4	31.6
	50-99명	(41)	1.3	48.1	43.1	7.5	100.0	49.4	50.6
	100-199명	(26)	2.0	32.2	52.6	13.2	100.0	34.2	65.8
	200-499명	(44)	10.3	45.9	20.9	22.9	100.0	56.1	43.9
	500명 이상	(47)	5.9	30.1	50.7	13.3	100.0	36.0	64.0
교단	장로교(합동)	(54)	.9	36.9	45.5	16.7	100.0	37.9	62.1
	장로교(통합)	(53)	22.0	38.7	25.4	14.0	100.0	60.7	39.3
	기타 장로교	(29)	3.9	49.9	39.0	7.2	100.0	53.8	46.2
	기타 교단	(76)	10.6	41.5	42.1	5.8	100.0	52.1	47.9
정치적 성향	보수	(80)	6.2	34.1	51.2	8.6	100.0	40.3	59.7
	중도	(66)	9.4	42.9	36.5	11.2	100.0	52.3	47.7
	진보	(66)	15.3	46.8	24.8	13.1	100.0	62.1	37.9

[표] 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212)	5.2	25.7	51.0	18.1	100.0	30.8	69.2
구분	담임목사	(130)	5.3	15.2	57.5	22.0	100.0	20.5	79.5
	부목사	(66)	6.2	36.9	43.5	13.4	100.0	43.1	56.9
	설교/협력목사	(16)	.0	64.9	29.0	6.1	100.0	64.9	35.1
성별	남성	(207)	4.5	25.1	51.9	18.5	100.0	29.5	70.5
	여성	(5)	35.8	53.2	11.1	.0	100.0	88.9	11.1
연령	39세 이하	(46)	4.3	38.3	40.4	17.0	100.0	42.6	57.4
	40~49세	(45)	4.5	22.7	55.7	17.0	100.0	27.3	72.7
	50~59세	(72)	4.8	17.5	55.6	22.2	100.0	22.2	77.8
	60세 이상	(50)	7.1	28.6	50.0	14.3	100.0	35.7	64.3
지역	서울	(57)	7.2	28.0	48.8	15.9	100.0	35.3	64.7
	경기/인천	(59)	6.9	22.2	48.6	22.4	100.0	29.1	70.9
	대전/충청	(25)	.0	37.8	56.3	5.9	100.0	37.8	62.2
	광주/전라	(23)	2.2	41.8	37.0	19.0	100.0	44.0	56.0
	대구/경북	(12)	9.8	8.3	60.5	21.5	100.0	18.1	81.9
	부산/울산/경남	(15)	.0	22.0	63.9	14.1	100.0	22.0	78.0
	강원/제주	(15)	.0	7.0	53.9	39.1	100.0	7.0	93.0
	해외	(7)	16.7	14.3	69.0	.0	100.0	31.0	69.0
지역크기	대도시	(104)	6.6	21.8	54.9	16.6	100.0	28.5	71.5
	중소도시	(77)	4.6	29.1	48.8	17.4	100.0	33.8	66.2
	읍/면	(32)	1.6	29.8	43.7	24.9	100.0	31.4	68.6
교인 수	49명 이하	(54)	12.6	6.0	56.2	25.2	100.0	18.6	81.4
	50-99명	(41)	.0	35.0	43.0	22.0	100.0	35.0	65.0
	100-199명	(26)	3.7	36.6	55.9	3.7	100.0	40.4	59.6
	200-499명	(44)	.0	31.1	56.0	12.9	100.0	31.1	68.9
	500명 이상	(47)	6.7	29.2	44.7	19.5	100.0	35.9	64.1
교단	장로교(합동)	(54)	3.9	31.2	46.0	18.9	100.0	35.2	64.8
	장로교(통합)	(53)	11.8	19.3	52.4	16.4	100.0	31.2	68.8
	기타 장로교	(29)	3.3	43.0	40.2	13.5	100.0	46.3	53.7
	기타 교단	(76)	2.2	19.5	57.8	20.6	100.0	21.7	78.3
정치적 성향	보수	(80)	4.8	20.2	60.6	14.5	100.0	25.0	75.0
	중도	(66)	9.1	32.5	40.9	17.5	100.0	41.6	58.4
	진보	(66)	1.7	25.4	49.6	23.3	100.0	27.2	72.8

[표] 시무교회의 남녀 역할 구분

-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 다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 전체 ■		(212)	9.9	35.4	44.4	8.4	1.9	100.0	45.4	52.8
구분	담임목사	(130)	5.9	32.2	52.0	9.4	.4	100.0	38.2	61.4
	부목사	(66)	20.2	46.9	22.3	5.3	5.3	100.0	67.2	27.5
	설교/협력목사	(16)	.0	13.7	74.1	12.3	.0	100.0	13.7	86.3
성별	남성	(207)	8.9	35.5	45.1	8.5	1.9	100.0	44.4	53.7
	여성	(5)	56.8	32.1	11.1	.0	.0	100.0	88.9	11.1
연령	39세 이하	(46)	23.4	48.9	14.9	8.5	4.3	100.0	72.3	23.4
	40~49세	(45)	8.0	40.9	36.4	10.2	4.5	100.0	48.9	46.6
	50~59세	(72)	9.5	38.1	44.4	7.9	.0	100.0	47.6	52.4
	60세 이상	(50)	.0	14.3	78.6	7.1	.0	100.0	14.3	85.7
지역	서울	(57)	8.9	41.7	38.1	11.3	.0	100.0	50.6	49.4
	경기/인천	(59)	9.7	37.7	37.3	11.1	4.2	100.0	47.4	48.4
	대전/충청	(25)	11.7	31.0	53.2	2.0	2.0	100.0	42.7	55.3
	광주/전라	(23)	12.0	9.3	69.7	9.0	.0	100.0	21.2	78.8
	대구/경북	(12)	22.5	40.5	18.5	18.5	.0	100.0	63.0	37.0
	부산/울산/경남	(15)	3.4	61.2	28.9	.0	6.5	100.0	64.6	28.9
	강원/제주	(15)	3.5	29.5	67.0	.0	.0	100.0	33.0	67.0
	해외	(7)	14.3	16.7	69.0	.0	.0	100.0	31.0	69.0
지역크기	대도시	(104)	9.0	38.1	42.8	8.6	1.5	100.0	47.1	51.5
	중소도시	(77)	9.3	34.1	42.5	11.5	2.5	100.0	43.5	54.0
	읍/면	(32)	14.6	29.8	54.0	.0	1.6	100.0	44.4	54.0
교인 수	49명 이하	(54)	7.2	33.2	41.9	17.8	.0	100.0	40.4	59.6
	50-99명	(41)	11.6	29.3	56.6	1.3	1.3	100.0	40.9	57.9
	100-199명	(26)	20.9	48.9	30.2	.0	.0	100.0	69.8	30.2
	200-499명	(44)	8.8	23.8	55.9	8.1	3.4	100.0	32.6	64.1
	500명 이상	(47)	6.7	46.9	33.7	8.5	4.2	100.0	53.6	42.2
교단	장로교(합동)	(54)	9.1	30.6	52.0	3.7	4.6	100.0	39.7	55.7
	장로교(통합)	(53)	14.0	29.8	46.8	7.5	1.9	100.0	43.8	54.3
	기타 장로교	(29)	.0	58.3	34.5	7.2	.0	100.0	58.3	41.7
	기타 교단	(76)	11.5	33.9	41.2	12.7	.7	100.0	45.5	53.8
정치적 성향	보수	(80)	9.4	30.6	51.6	7.1	1.3	100.0	40.0	58.7
	중도	(66)	8.9	44.8	35.7	6.9	3.7	100.0	53.7	42.6
	진보	(66)	11.6	32.0	44.3	11.4	.8	100.0	43.5	55.7

4.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질문

(개신교인)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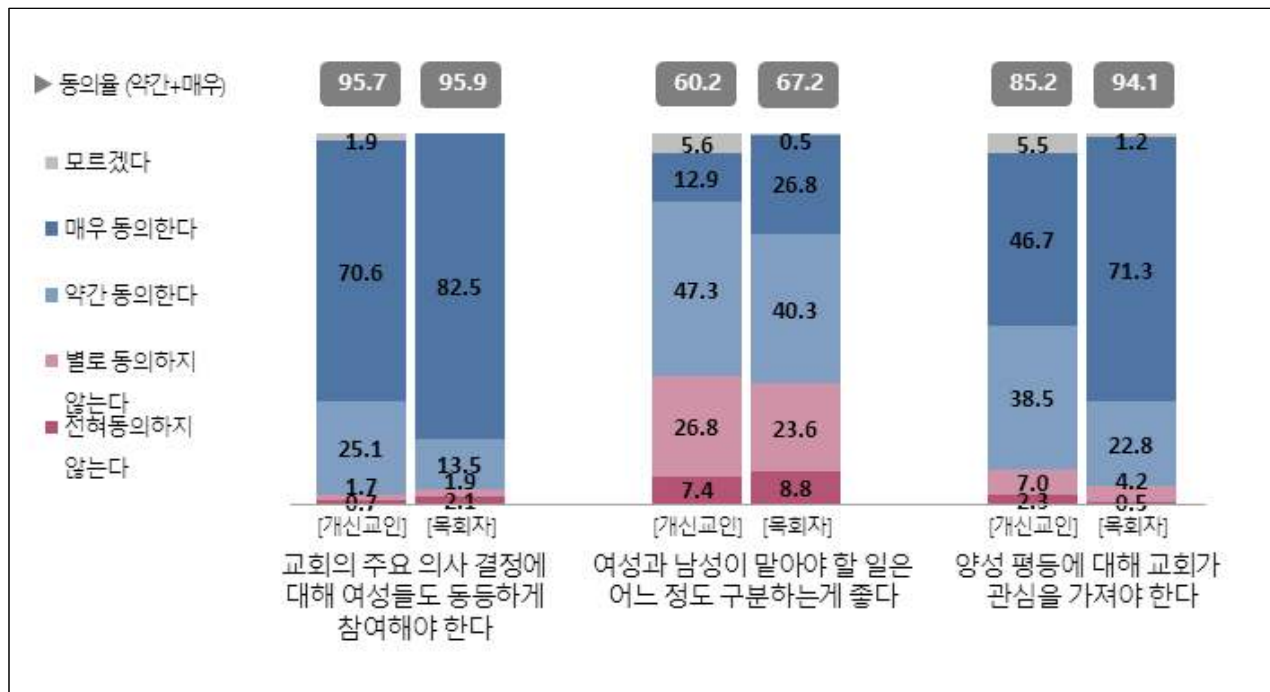
(목회자) 목사님께서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해,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개신교인과 목회자가 동의 의견을 보였다.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에 대한 동의율(약간+매우)은 개신교인 60.2%, 목회자 67.2%로 나타났고,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개신교인 85.2%, 목회자 94.1%로 높게 나타났다.
- 개신교인 중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의 동의율은 서리집사/증직자에게 높고, 비동의율은 일반성도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동의율이 높다.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고, 교인 수 100명 이상 교회에서 99명 이하 교회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목회자의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은 동의가 대부분이지만, 60세 이상과 합동교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동의율을 나타냈다.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비동의율도 합동교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7	1.7	25.1	70.6	1.9	100.0	2.4	95.7
성별	남성	(354)	.6	3.0	28.1	66.3	2.0	100.0	3.6	94.4
	여성	(446)	.8	.6	22.7	74.0	1.8	100.0	1.4	96.8
연령	19~29세	(142)	3.1	2.2	23.6	66.2	4.9	100.0	5.2	89.9
	30~39세	(150)	1.0	2.7	25.2	66.0	5.0	100.0	3.7	91.2
	40~49세	(194)	.0	2.7	28.4	68.7	.2	100.0	2.7	97.1
	50~59세	(200)	.0	.4	19.6	79.8	.2	100.0	.4	99.4
	60~65세	(115)	.0	.0	31.0	69.0	.0	100.0	.0	100.0
지역	서울	(205)	1.6	1.3	28.0	67.9	1.3	100.0	2.8	95.9
	경기/인천	(279)	.8	1.3	18.3	77.1	2.5	100.0	2.1	95.4
	대전/충청	(67)	.0	.6	19.6	77.8	2.0	100.0	.6	97.4
	광주/전라	(86)	.5	.0	36.5	63.0	.0	100.0	.5	99.5
	대구/경북	(50)	.0	.0	35.6	61.7	2.7	100.0	.0	97.3
	부산/울산/경남	(76)	.0	4.6	33.1	58.3	4.0	100.0	4.6	91.4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0	9.5	15.6	74.9	.0	100.0	9.5	90.5
	대도시	(441)	.8	2.3	29.4	65.9	1.6	100.0	3.1	95.2
	중소도시	(300)	.7	1.0	20.3	75.7	2.2	100.0	1.7	96.1
직업	읍/면	(59)	.0	.0	18.0	79.6	2.3	100.0	.0	97.7
	자영업	(96)	2.8	.0	22.6	71.6	3.0	100.0	2.8	94.2
	블루칼러	(125)	.0	3.4	27.0	69.6	.0	100.0	3.4	96.6
	화이트칼러	(244)	.8	2.6	25.2	70.1	1.3	100.0	3.4	95.3
	전업주부	(198)	.0	.0	26.6	72.0	1.4	100.0	.0	98.6
	학생	(64)	.0	1.8	25.3	66.7	6.2	100.0	1.8	92.0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0	.0	20.5	76.3	3.2	100.0	.0	96.8
	결혼	(586)	.3	1.6	24.6	72.3	1.2	100.0	1.9	96.9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2.0	1.8	26.5	66.0	3.7	100.0	3.8	92.5
	봉사	(432)	.3	1.9	24.1	72.1	1.6	100.0	2.2	96.2
교회 직분	비봉사	(368)	1.2	1.4	26.3	68.8	2.3	100.0	2.6	95.1
	중직자	(109)	.0	3.9	21.8	74.0	.3	100.0	3.9	95.8
	서리집사	(292)	.0	.8	26.5	70.7	1.9	100.0	.8	97.2
교인 수	일반성도	(399)	1.5	1.6	25.0	69.6	2.3	100.0	3.1	94.6
	49명 이하	(95)	.0	1.1	23.1	72.7	3.1	100.0	1.1	95.8
	50-99명	(70)	.7	1.7	19.8	77.8	.0	100.0	2.3	97.7
	100-299명	(145)	.3	2.4	25.4	68.8	3.2	100.0	2.7	94.1
	300-499명	(93)	.5	1.6	21.9	70.2	5.9	100.0	2.1	92.1
교단	500명 이상	(397)	1.1	1.6	27.2	69.6	.5	100.0	2.7	96.8
	장로교(합동)	(213)	1.5	2.0	24.4	70.4	1.7	100.0	3.5	94.8
	장로교(통합)	(213)	.0	.5	26.0	72.2	1.2	100.0	.5	98.2
	기타 장로교	(85)	.6	.0	31.4	66.7	1.2	100.0	.6	98.2
	기타 교단	(210)	1.0	1.4	25.6	69.4	2.6	100.0	2.4	95.0
신앙단계	잘 모름	(80)	.0	6.1	16.6	74.1	3.2	100.0	6.1	90.7
	1단계	(108)	.0	1.0	30.4	67.0	1.7	100.0	1.0	97.4
	2단계	(304)	.0	1.5	26.2	69.3	3.0	100.0	1.5	95.5
	3단계	(174)	.3	2.1	25.0	70.7	2.0	100.0	2.3	95.7
담임목사 성별	4단계	(214)	2.5	1.9	21.1	74.1	.4	100.0	4.4	95.3
	남성	(737)	.3	1.7	25.2	70.7	2.1	100.0	2.0	95.9
정치적 성향	여성	(63)	5.8	.7	24.3	69.1	.0	100.0	6.6	93.4
	보수	(238)	.2	2.1	28.1	67.5	2.1	100.0	2.3	95.6
	중도	(347)	1.4	1.6	24.7	69.4	2.8	100.0	3.0	94.2
정치적 성향	진보	(214)	.2	1.3	22.5	75.9	.2	100.0	1.5	98.4

[표]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게 좋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7.4	26.8	47.3	12.9	5.6	100.0	34.2	60.2
성별	남성	(354)	5.6	24.4	46.4	17.5	6.2	100.0	29.9	63.9
	여성	(446)	8.9	28.7	48.0	9.3	5.1	100.0	37.6	57.2
연령	19~29세	(142)	11.9	29.2	37.5	11.7	9.7	100.0	41.2	49.2
	30~39세	(150)	10.0	31.7	30.3	17.1	10.9	100.0	41.7	47.4
	40~49세	(194)	3.4	25.8	51.7	16.0	3.1	100.0	29.1	67.7
	50~59세	(200)	7.0	27.3	54.1	9.7	2.0	100.0	34.3	63.7
	60~65세	(115)	6.2	18.1	62.3	9.4	4.0	100.0	24.3	71.7
지역	서울	(205)	8.6	28.4	45.7	12.5	4.8	100.0	37.1	58.1
	경기/인천	(279)	8.2	29.9	45.6	10.1	6.2	100.0	38.1	55.7
	대전/충청	(67)	9.9	15.9	58.8	11.4	4.1	100.0	25.8	70.1
	광주/전라	(86)	4.1	20.6	45.7	25.0	4.5	100.0	24.7	70.7
	대구/경북	(50)	6.7	27.2	42.3	13.1	10.7	100.0	33.8	55.4
	부산/울산/경남	(76)	6.0	22.9	53.4	12.1	5.7	100.0	28.8	65.5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0	32.2	50.6	13.1	4.2	100.0	32.2	63.7
	대도시	(441)	8.5	26.5	46.4	12.5	6.0	100.0	35.1	58.9
	중소도시	(300)	6.5	27.1	46.4	14.3	5.7	100.0	33.6	60.7
직업	읍/면	(59)	3.8	27.0	58.0	9.1	2.0	100.0	30.9	67.1
	자영업	(96)	5.0	35.2	43.8	13.0	3.0	100.0	40.2	56.9
	블루컬러	(125)	6.0	13.1	56.2	19.3	5.5	100.0	19.1	75.4
	화이트컬러	(244)	8.6	30.5	47.3	11.9	1.7	100.0	39.1	59.1
	전업주부	(198)	9.4	25.5	46.5	10.8	7.8	100.0	34.9	57.3
	학생	(64)	8.3	35.9	38.0	7.9	9.8	100.0	44.3	45.9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2.5	15.4	52.7	14.3	15.0	100.0	17.9	67.1
	결혼	(586)	7.0	25.8	49.7	12.8	4.8	100.0	32.8	62.5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8.6	29.5	40.6	13.4	7.8	100.0	38.2	54.0
	봉사	(432)	7.4	25.1	52.0	12.1	3.5	100.0	32.5	64.0
교회 직분	비봉사	(368)	7.5	28.7	41.8	13.9	8.0	100.0	36.3	55.7
	종직자	(109)	5.7	25.4	53.2	11.6	4.2	100.0	31.1	64.7
	서리집사	(292)	4.7	22.2	54.0	15.7	3.5	100.0	26.8	69.6
교인 수	일반성도	(399)	10.0	30.5	40.8	11.3	7.5	100.0	40.5	52.0
	49명 이하	(95)	11.2	23.4	35.2	23.6	6.6	100.0	34.5	58.8
	50~99명	(70)	5.4	17.9	43.2	21.3	12.2	100.0	23.3	64.5
	100~299명	(145)	4.6	24.7	54.7	12.3	3.6	100.0	29.4	67.1
	300~499명	(93)	4.7	36.7	46.7	6.5	5.5	100.0	41.4	53.1
교단	500명 이상	(397)	8.6	27.6	48.3	10.6	4.9	100.0	36.2	58.9
	장로교(함동)	(213)	7.5	27.0	50.6	12.1	2.9	100.0	34.4	62.7
	장로교(통합)	(213)	7.7	28.7	48.5	11.4	3.6	100.0	36.4	60.0
	기타 장로교	(85)	4.2	22.9	57.1	9.8	6.0	100.0	27.1	67.0
	기타 교단	(210)	6.8	25.7	47.7	16.4	3.4	100.0	32.5	64.1
신앙단계	잘 모름	(80)	11.9	28.1	23.4	13.0	23.5	100.0	40.0	36.4
	1단계	(108)	7.0	24.4	49.8	11.5	7.4	100.0	31.3	61.3
	2단계	(304)	5.9	29.2	44.9	9.2	10.8	100.0	35.1	54.1
	3단계	(174)	5.0	29.2	49.0	15.0	1.9	100.0	34.1	64.0
	4단계	(214)	11.8	22.7	47.9	17.3	.2	100.0	34.5	65.2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6.0	27.3	47.9	12.7	6.0	100.0	33.3	60.6
	여성	(63)	24.5	20.2	39.4	15.4	.6	100.0	44.6	54.8
정치적 성향	보수	(238)	5.1	24.5	53.0	13.9	3.5	100.0	29.6	66.8
	중도	(347)	9.7	24.8	44.2	12.8	8.6	100.0	34.4	57.0
	진보	(214)	6.4	32.6	46.0	12.1	3.0	100.0	39.0	58.0

[표]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800)	2.3	7.0	38.5	46.7	5.5	100.0	9.3	85.2
성별	남성	(354)	3.3	7.6	40.6	42.8	5.7	100.0	10.9	83.3
	여성	(446)	1.4	6.6	36.8	49.8	5.4	100.0	8.0	86.6
연령	19~29세	(142)	4.3	7.2	42.2	39.7	6.6	100.0	11.5	82.0
	30~39세	(150)	2.2	12.4	35.7	38.4	11.3	100.0	14.6	74.1
	40~49세	(194)	2.8	4.7	40.9	48.0	3.5	100.0	7.6	88.9
	50~59세	(200)	1.6	6.4	35.4	55.2	1.4	100.0	8.0	90.6
	60~65세	(115)	.0	5.0	38.9	48.8	7.3	100.0	5.0	87.7
지역	서울	(205)	4.6	6.6	40.8	43.3	4.8	100.0	11.2	84.1
	경기/인천	(279)	1.3	9.6	34.3	48.2	6.6	100.0	10.9	82.5
	대전/충청	(67)	.8	2.2	33.8	55.7	7.5	100.0	3.0	89.5
	광주/전라	(86)	4.5	6.6	41.5	47.4	.0	100.0	11.1	88.9
	대구/경북	(50)	1.1	5.3	48.0	39.5	6.1	100.0	6.4	87.5
	부산/울산/경남	(76)	.4	3.5	49.1	40.5	6.5	100.0	3.9	89.6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0	9.3	24.5	57.0	9.3	100.0	9.3	81.4
	대도시	(441)	2.6	7.6	41.3	43.3	5.1	100.0	10.2	84.7
	중소도시	(300)	1.8	6.7	33.7	52.0	5.7	100.0	8.5	85.7
직업	읍/면	(59)	1.8	4.8	42.1	44.1	7.3	100.0	6.6	86.1
	자영업	(96)	2.8	15.8	33.4	45.0	3.0	100.0	18.6	78.4
	블루칼러	(125)	2.4	1.2	39.7	50.5	6.3	100.0	3.5	90.2
	화이트칼러	(244)	2.1	5.5	44.9	43.6	3.9	100.0	7.6	88.6
	전업주부	(198)	1.0	10.1	32.6	48.8	7.5	100.0	11.0	81.4
	학생	(64)	4.2	3.4	42.1	42.0	8.3	100.0	7.7	84.1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0	3.8	35.3	54.4	6.5	100.0	3.8	89.7
	결혼	(586)	1.5	7.4	37.2	48.5	5.5	100.0	8.9	85.7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4.4	6.1	42.1	41.7	5.7	100.0	10.5	83.8
	봉사	(432)	2.4	7.6	36.4	47.1	6.6	100.0	9.9	83.4
교회 직분	비봉사	(368)	2.2	6.4	41.0	46.2	4.2	100.0	8.6	87.2
	중직자	(109)	.4	11.2	37.3	40.8	10.3	100.0	11.6	78.1
	서리집사	(292)	1.9	6.6	35.7	49.6	6.2	100.0	8.5	85.3
교인 수	일반성도	(399)	3.1	6.3	40.9	46.1	3.7	100.0	9.3	87.0
	49명 이하	(95)	4.8	10.9	32.6	39.4	12.3	100.0	15.6	72.1
	50~99명	(70)	3.4	14.7	41.8	36.8	3.4	100.0	18.0	78.6
	100~299명	(145)	.3	4.5	45.2	45.2	4.8	100.0	4.8	90.3
	300~499명	(93)	1.0	.0	45.2	47.5	6.3	100.0	1.0	92.7
교단	500명 이상	(397)	2.5	7.4	35.3	50.5	4.4	100.0	9.8	85.8
	장로교(합동)	(213)	2.5	4.9	36.3	51.1	5.1	100.0	7.4	87.5
	장로교(통합)	(213)	2.0	7.2	46.2	43.0	1.7	100.0	9.2	89.1
	기타 장로교	(85)	4.7	2.0	37.6	48.6	7.0	100.0	6.8	86.2
	기타 교단	(210)	1.9	9.4	35.1	48.0	5.6	100.0	11.3	83.1
신앙단계	잘 모름	(80)	.7	11.4	33.8	39.0	15.1	100.0	12.1	72.8
	1단계	(108)	2.0	4.4	35.5	55.3	2.9	100.0	6.4	90.7
	2단계	(304)	.7	5.7	42.0	44.2	7.4	100.0	6.4	86.2
	3단계	(174)	2.7	10.6	38.7	44.4	3.7	100.0	13.3	83.0
담임목사 성별	4단계	(214)	4.3	7.5	35.0	47.6	5.7	100.0	11.8	82.6
	남성	(737)	2.0	6.7	38.2	47.2	5.9	100.0	8.7	85.4
정치적 성향	여성	(63)	5.8	10.9	42.3	40.1	.8	100.0	16.7	82.4
	보수	(238)	1.5	8.8	41.1	43.3	5.3	100.0	10.4	84.4
	중도	(347)	3.0	7.9	36.8	45.0	7.4	100.0	10.9	81.7
	진보	(214)	1.9	3.6	38.5	53.1	2.8	100.0	5.6	91.6

[표]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212)	2.1	1.9	13.5	82.5	100.0	4.1	95.9
구분	담임목사	(130)	2.7	.0	10.7	86.6	100.0	2.7	97.3
	부목사	(66)	1.5	.8	13.6	84.2	100.0	2.2	97.8
	설교/협력목사	(16)	.0	22.5	35.9	41.6	100.0	22.5	77.5
성별	남성	(207)	2.2	2.0	13.8	82.1	100.0	4.1	95.9
	여성	(5)	.0	.0	.0	100.0	100.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2.1	.0	19.1	78.7	100.0	2.1	97.9
	40~49세	(45)	.0	1.1	15.9	83.0	100.0	1.1	98.9
	50~59세	(72)	.0	.0	12.7	87.3	100.0	.0	100.0
	60세 이상	(50)	7.1	7.1	7.1	78.6	100.0	14.3	85.7
지역	서울	(57)	1.7	6.3	11.9	80.1	100.0	8.0	92.0
	경기/인천	(59)	6.0	.9	11.4	81.7	100.0	6.9	93.1
	대전/충청	(25)	.0	.0	7.8	92.2	100.0	.0	100.0
	광주/전라	(23)	.0	.0	15.3	84.7	100.0	.0	100.0
	대구/경북	(12)	.0	.0	36.6	63.4	100.0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0	.0	24.3	75.7	100.0	.0	100.0
	강원/제주	(15)	.0	.0	11.3	88.7	100.0	.0	100.0
	해외	(7)	.0	.0	.0	100.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4.4	3.9	14.5	77.2	100.0	8.3	91.7
	중소도시	(77)	.0	.0	12.1	87.9	100.0	.0	100.0
	읍/면	(32)	.0	.0	13.5	86.5	100.0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0	.0	10.8	89.2	100.0	.0	100.0
	50-99명	(41)	.0	.0	16.8	83.2	100.0	.0	100.0
	100-199명	(26)	.0	.0	12.1	87.9	100.0	.0	100.0
	200-499명	(44)	.0	8.1	4.5	87.4	100.0	8.1	91.9
	500명 이상	(47)	9.6	1.1	22.8	66.5	100.0	10.7	89.3
교단	장로교(합동)	(54)	8.4	7.6	19.9	64.2	100.0	16.0	84.0
	장로교(통합)	(53)	.0	.0	15.9	84.1	100.0	.0	100.0
	기타 장로교	(29)	.0	.0	14.6	85.4	100.0	.0	100.0
	기타 교단	(76)	.0	.0	6.8	93.2	100.0	.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4.4	4.4	18.2	72.9	100.0	8.9	91.1
	중도	(66)	.0	.8	12.8	86.5	100.0	.8	99.2
	진보	(66)	1.5	.0	8.4	90.1	100.0	1.5	98.5

[표]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212)	8.8	23.6	40.3	26.8	.5	100.0	32.4	67.2
구분	담임목사	(130)	10.7	19.9	43.8	25.6	.0	100.0	30.6	69.4
	부목사	(66)	7.0	30.3	39.9	21.2	1.5	100.0	37.3	61.2
	설교/협력목사	(16)	.0	25.8	13.7	60.6	.0	100.0	25.8	74.2
성별	남성	(207)	8.2	23.4	40.8	27.2	.5	100.0	31.6	68.0
	여성	(5)	35.8	32.1	21.0	11.1	.0	100.0	67.9	32.1
연령	39세 이하	(46)	4.3	27.7	46.8	19.1	2.1	100.0	31.9	66.0
	40~49세	(45)	11.4	21.6	43.2	23.9	.0	100.0	33.0	67.0
	50~59세	(72)	11.1	23.8	47.6	17.5	.0	100.0	34.9	65.1
	60세 이상	(50)	7.1	21.4	21.4	50.0	.0	100.0	28.6	71.4
지역	서울	(57)	11.6	19.3	40.5	28.6	.0	100.0	30.9	69.1
	경기/인천	(59)	5.6	19.4	38.8	34.6	1.6	100.0	25.0	73.4
	대전/충청	(25)	2.0	51.7	29.6	16.6	.0	100.0	53.7	46.3
	광주/전라	(23)	22.3	21.2	32.1	24.3	.0	100.0	43.6	56.4
	대구/경북	(12)	17.1	4.4	64.4	14.1	.0	100.0	21.5	78.5
	부산/울산/경남	(15)	.0	14.4	61.6	24.0	.0	100.0	14.4	85.6
	강원/제주	(15)	7.0	48.7	40.8	3.5	.0	100.0	55.7	44.3
	해외	(7)	.0	.0	31.0	69.0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7.3	20.4	45.3	27.1	.0	100.0	27.7	72.3
	중소도시	(77)	7.7	29.8	27.1	34.2	1.3	100.0	37.5	61.2
	읍/면	(32)	16.1	19.1	56.5	8.3	.0	100.0	35.2	64.8
교인 수	49명 이하	(54)	16.1	15.4	42.2	26.3	.0	100.0	31.5	68.5
	50-99명	(41)	1.3	22.0	48.5	28.3	.0	100.0	23.2	76.8
	100-199명	(26)	5.7	13.4	35.4	45.5	.0	100.0	19.1	80.9
	200-499명	(44)	11.4	32.9	33.5	20.0	2.2	100.0	44.4	53.4
	500명 이상	(47)	5.9	31.4	40.4	22.3	.0	100.0	37.3	62.7
교단	장로교(합동)	(54)	2.7	10.1	58.9	28.2	.0	100.0	12.9	87.1
	장로교(통합)	(53)	18.0	34.8	25.6	21.5	.0	100.0	52.8	47.2
	기타 장로교	(29)	7.8	23.5	38.9	26.5	3.3	100.0	31.3	65.3
	기타 교단	(76)	7.0	25.4	38.0	29.6	.0	100.0	32.4	67.6
정치적 성향	보수	(80)	6.2	12.5	43.8	37.6	.0	100.0	18.6	81.4
	중도	(66)	8.8	22.6	42.9	25.8	.0	100.0	31.4	68.6
	진보	(66)	11.9	38.1	33.7	14.8	1.5	100.0	50.0	48.5

[표] 교회 내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

-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모르겠다	계	【비동의】	【동의】
■ 전체 ■		(212)	.5	4.2	22.8	71.3	1.2	100.0	4.7	94.1
구분	담임목사	(130)	.9	5.3	23.4	69.6	.8	100.0	6.1	93.1
	부목사	(66)	.0	3.1	23.9	70.8	2.2	100.0	3.1	94.7
	설교/협력목사	(16)	.0	.0	13.3	86.7	.0	100.0	.0	100.0
성별	남성	(207)	.5	4.3	23.1	70.9	1.2	100.0	4.8	94.0
	여성	(5)	.0	.0	11.1	88.9	.0	100.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0	.0	34.0	63.8	2.1	100.0	.0	97.9
	40~49세	(45)	.0	6.8	19.3	70.5	3.4	100.0	6.8	89.8
	50~59세	(72)	1.6	3.2	23.8	71.4	.0	100.0	4.8	95.2
	60세 이상	(50)	.0	7.1	14.3	78.6	.0	100.0	7.1	92.9
지역	서울	(57)	.0	.9	25.3	73.8	.0	100.0	.9	99.1
	경기/인천	(59)	1.9	6.9	27.7	62.7	.9	100.0	8.8	90.3
	대전/충청	(25)	.0	2.0	14.4	81.5	2.0	100.0	2.0	95.9
	광주/전라	(23)	.0	4.9	2.2	92.9	.0	100.0	4.9	95.1
	대구/경북	(12)	.0	14.1	36.6	49.3	.0	100.0	14.1	85.9
	부산/울산/경남	(15)	.0	6.8	47.1	39.5	6.5	100.0	6.8	86.7
	강원/제주	(15)	.0	.0	15.6	80.9	3.5	100.0	.0	96.5
	해외	(7)	.0	.0	.0	100.0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0	6.5	28.4	64.6	.5	100.0	6.5	93.0
	중소도시	(77)	1.5	.0	18.5	78.7	1.3	100.0	1.5	97.3
	읍/면	(32)	.0	6.8	15.1	74.9	3.2	100.0	6.8	9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2.1	.9	15.7	81.2	.0	100.0	3.0	97.0
	50-99명	(41)	.0	2.8	22.0	72.7	2.5	100.0	2.8	94.7
	100-199명	(26)	.0	3.9	41.0	55.1	.0	100.0	3.9	96.1
	200-499명	(44)	.0	1.2	18.6	78.1	2.2	100.0	1.2	96.6
	500명 이상	(47)	.0	12.2	25.7	61.0	1.1	100.0	12.2	86.7
교단	장로교(합동)	(54)	.0	11.6	17.7	68.0	2.7	100.0	11.6	85.7
	장로교(통합)	(53)	.0	2.2	17.2	80.6	.0	100.0	2.2	97.8
	기타 장로교	(29)	.0	1.8	42.5	55.8	.0	100.0	1.8	98.2
	기타 교단	(76)	1.5	1.3	22.8	73.0	1.3	100.0	2.8	95.8
정치적 성향	보수	(80)	1.4	7.9	33.4	55.3	1.9	100.0	9.3	88.7
	중도	(66)	.0	3.9	21.4	73.2	1.5	100.0	3.9	94.7
	진보	(66)	.0	.0	11.4	88.6	.0	100.0	.0	100.0

4-1.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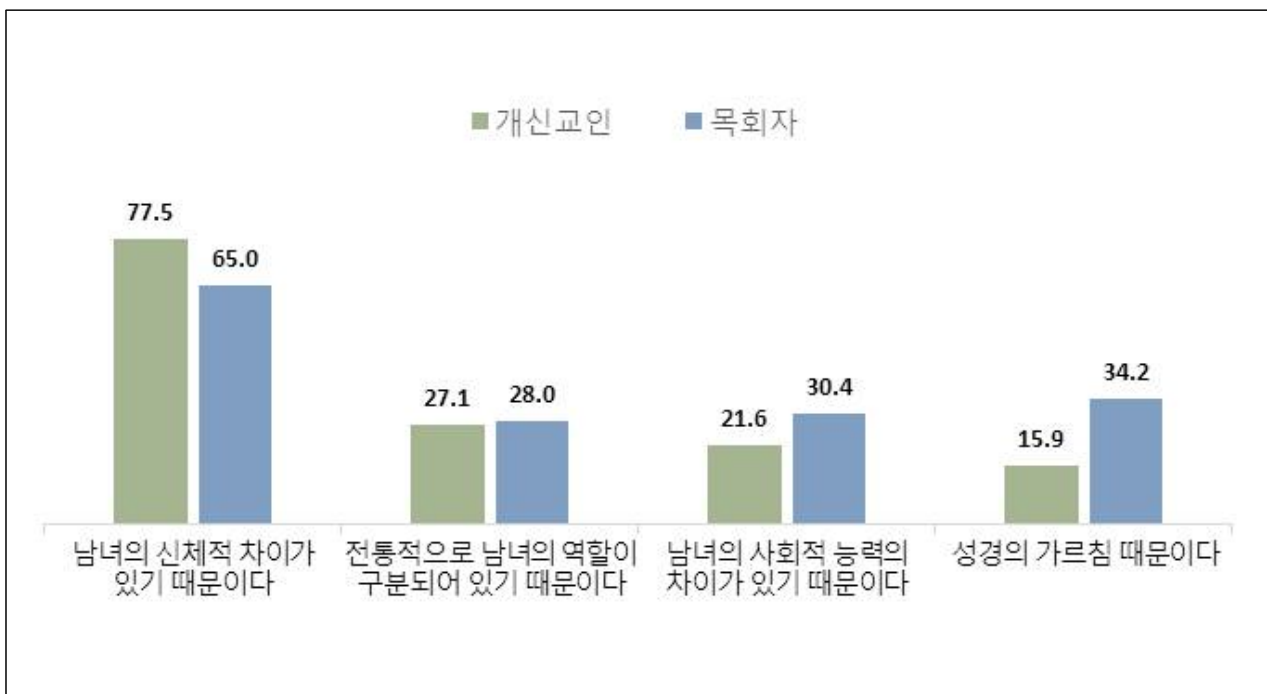
(개신교인&목회자) 교회에서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 주세요



- 앞서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좋다'에 동의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개신교인과 목회자 모두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목회자는 개신교인보다 '사회적 능력 차이'와 '성경의 가르침'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더 높았다.
- 개신교인 중 '전통적으로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률은 남성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답률도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목회자는 담임/부목사와 연령별로 응답 경향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와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답률은 부목사와 39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와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는 담임목사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Base='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함' 응답자, n=개신교인481, 목회자142, %)



[표]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Base='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함' 응답 개신교인, n=481, %)

		사례수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기타	모르겠다
■ 전체 ■		(481)	77.5	27.1	21.6	15.9	2.2	2.2
성별	남성	(226)	74.8	32.7	28.7	16.8	1.8	1.9
	여성	(255)	79.9	22.1	15.4	15.2	2.7	2.4
연령	19~29세	(70)	78.8	21.2	26.0	25.1	.9	3.3
	30~39세	(71)	79.9	21.7	21.1	15.4	5.1	2.7
	40~49세	(131)	74.0	19.9	23.8	12.2	2.7	2.8
	50~59세	(127)	77.2	37.0	21.4	13.0	2.4	2.0
	60~65세	(82)	80.4	32.7	15.4	19.2	.0	.0
지역	서울	(119)	82.9	29.4	15.2	14.9	2.7	.4
	경기/인천	(155)	79.8	22.0	20.9	14.3	1.2	4.2
	대전/충청	(47)	80.6	22.2	36.4	9.7	.0	2.1
	광주/전라	(61)	81.2	33.2	14.7	20.3	4.5	3.1
	대구/경북	(27)	63.8	32.5	34.1	19.7	10.4	.0
	부산/울산/경남	(50)	61.0	37.4	22.6	16.9	.0	1.1
지역크기	강원/제주	(21)	68.3	13.4	33.1	29.1	.0	.0
	대도시	(260)	79.1	27.9	20.1	13.1	2.1	2.7
	중소도시	(182)	77.8	24.9	20.2	14.6	3.0	1.3
	읍/면	(40)	65.6	31.6	38.4	40.7	.0	2.5
직업	자영업	(55)	75.6	38.4	31.7	.0	.0	4.1
	블루컬러	(94)	73.0	35.1	19.8	16.7	2.5	2.7
	화이트컬러	(144)	79.1	20.4	23.4	17.0	2.4	1.4
	전업주부	(113)	81.6	27.7	13.7	14.1	4.4	.0
	학생	(29)	77.5	17.8	19.8	21.9	.0	4.5
	기타/무직	(29)	77.6	18.3	27.3	18.2	.0	8.2
결혼여부	결혼	(366)	75.7	27.3	21.2	15.1	2.8	1.9
	미혼	(116)	83.3	26.2	23.0	18.6	.5	2.9
교회봉사 여부	봉사	(276)	79.1	26.7	17.3	18.2	2.3	1.1
	비봉사	(205)	75.4	27.5	27.5	12.8	2.2	3.6
교회 직분	종직자	(70)	74.1	20.7	11.3	25.3	.5	.0
	서리집사	(203)	82.4	29.8	18.6	10.0	2.8	.0
	일반성도	(208)	73.9	26.5	28.1	18.6	2.3	5.0
교인 수	49명 이하	(56)	68.5	28.2	16.2	36.1	.0	6.4
	50-99명	(45)	75.8	33.3	25.2	11.4	7.1	2.2
	100-299명	(97)	76.0	20.1	28.5	15.3	2.4	.0
	300-499명	(49)	79.1	28.7	10.9	13.4	1.0	3.7
	500명 이상	(234)	80.3	28.2	21.6	12.8	2.0	1.7
교단	장로교(합동)	(134)	81.8	25.0	24.7	15.7	2.4	.4
	장로교(통합)	(127)	77.3	29.7	13.9	13.6	2.7	3.3
	기타 장로교	(57)	89.9	27.9	9.8	21.1	.0	.0
	기타 교단	(135)	69.5	29.1	32.3	14.0	3.0	2.6
	잘 모름	(29)	71.6	14.2	14.7	26.1	.0	7.8
신앙단계	1단계	(66)	74.0	30.9	31.1	5.4	1.7	6.1
	2단계	(164)	79.6	25.6	17.3	11.4	.6	2.8
	3단계	(111)	75.9	24.9	22.9	15.7	5.4	.0
	4단계	(140)	78.0	28.8	21.3	26.4	1.9	1.3
담임목사 성별	남성	(447)	77.3	27.0	21.4	16.0	2.3	2.1
	여성	(34)	80.5	27.2	25.2	15.8	1.3	2.9
정치적 성향	보수	(159)	73.5	32.5	24.4	14.4	.6	1.2
	중도	(198)	78.1	20.3	18.7	19.8	4.5	3.6
	진보	(124)	81.7	30.8	22.8	11.8	.8	1.2

[표] 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Base='남녀 역할 구분되어야 함' 응답 목회자, n=142, %)

		사례수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모르겠다
■ 전체 ■		(142)	65.0	34.2	30.4	28.0	8.9	.7
구분	담임목사	(90)	63.3	33.2	29.1	31.2	12.4	.6
	부목사	(40)	76.4	24.8	42.1	11.3	3.7	1.3
	설교/협력목사	(12)	39.3	74.7	.0	60.7	.0	.0
성별	남성	(141)	64.7	34.6	30.7	28.3	9.0	.7
	여성	(1)	100.0	.0	.0	.0	.0	.0
연령	39세 이하	(30)	83.9	19.4	41.9	9.7	3.2	.0
	40~49세	(30)	71.2	33.9	32.2	18.6	3.4	3.4
	50~59세	(47)	75.6	24.4	22.0	36.6	.0	.0
	60세 이상	(36)	30.0	60.0	30.0	40.0	30.0	.0
지역	서울	(39)	67.7	40.3	53.3	21.3	3.8	.0
	경기/인천	(43)	56.0	31.2	16.5	28.6	16.4	.0
	대전/충청	(12)	91.2	17.2	17.2	12.8	.0	8.8
	광주/전라	(13)	55.6	62.8	27.1	61.7	.0	.0
	대구/경북	(9)	75.2	5.6	28.6	24.8	5.6	.0
	부산/울산/경남	(13)	70.7	33.3	29.3	34.6	.0	.0
	강원/제주	(6)	74.6	50.9	33.3	7.9	.0	.0
	해외	(7)	47.7	16.7	16.7	33.4	52.3	.0
지역크기	대도시	(75)	66.9	37.8	36.8	27.5	7.4	.7
	중소도시	(47)	53.4	33.8	14.5	29.4	15.1	.0
	읍/면	(21)	84.7	22.3	43.1	26.3	.0	2.5
교인 수	49명 이하	(37)	57.5	33.3	31.1	30.5	9.6	1.4
	50-99명	(31)	68.9	26.0	27.0	31.2	11.4	.0
	100-199명	(21)	45.7	39.2	43.1	15.2	17.0	.0
	200-499명	(24)	75.7	37.4	15.2	35.4	2.2	.0
	500명 이상	(29)	75.7	38.2	36.0	24.5	5.0	1.7
교단	장로교(합동)	(47)	64.1	41.8	26.2	36.5	10.7	1.1
	장로교(통합)	(25)	55.9	21.0	26.8	30.2	16.4	.0
	기타 장로교	(19)	62.2	56.0	43.8	16.4	.0	.0
	기타 교단	(52)	71.3	25.7	30.9	23.4	6.9	1.0
정치적 성향	보수	(65)	62.4	41.8	32.2	33.8	7.7	.8
	중도	(45)	67.1	31.6	36.7	23.9	7.9	.0
	진보	(32)	67.5	22.5	17.8	21.8	12.7	1.6

III. 설교와 양성평등

1. 남녀 평등적 설교 정도(목회자 대상)

질문

(목회자) 목사님께서서는 평소 설교하실 때 남녀 평등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소 설교 시 남녀 평등적인 설교를 하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의 목회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49.6%)고 응답했다.
-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은 부목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담임목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남녀 평등적 설교 정도(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표] 남녀 평등적 설교 정도(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49.6	46.7	3.6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46.5	51.4	2.0	100.0
	부목사	(66)	56.0	36.3	7.7	100.0
	설교/협력목사	(16)	48.3	51.7	.0	100.0
성별	남성	(207)	48.5	47.8	3.7	100.0
	여성	(5)	100.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51.1	42.6	6.4	100.0
	40~49세	(45)	53.4	40.9	5.7	100.0
	50~59세	(72)	46.0	50.8	3.2	100.0
	60세 이상	(50)	50.0	50.0	.0	100.0
지역	서울	(57)	44.6	51.9	3.5	100.0
	경기/인천	(59)	47.2	48.4	4.4	100.0
	대전/충청	(25)	60.5	35.6	3.9	100.0
	광주/전라	(23)	51.8	48.2	.0	100.0
	대구/경북	(12)	58.0	32.2	9.8	100.0
	부산/울산/경남	(15)	51.3	45.2	3.4	100.0
	강원/제주	(15)	71.3	25.3	3.5	100.0
	해외	(7)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42.9	53.6	3.5	100.0
	중소도시	(77)	55.5	39.8	4.7	100.0
	읍/면	(32)	57.3	41.1	1.6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41.0	56.0	3.0	100.0
	50-99명	(41)	43.1	52.0	4.9	100.0
	100-199명	(26)	38.9	57.4	3.7	100.0
	200-499명	(44)	71.1	26.7	2.2	100.0
	500명 이상	(47)	51.0	44.4	4.6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28.7	65.5	5.8	100.0
	장로교(통합)	(53)	64.5	31.7	3.8	100.0
	기타 장로교	(29)	45.6	51.1	3.3	100.0
	기타 교단	(76)	55.6	42.2	2.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33.5	62.4	4.1	100.0
	중도	(66)	52.7	44.2	3.0	100.0
	진보	(66)	66.1	30.2	3.7	100.0

2.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 정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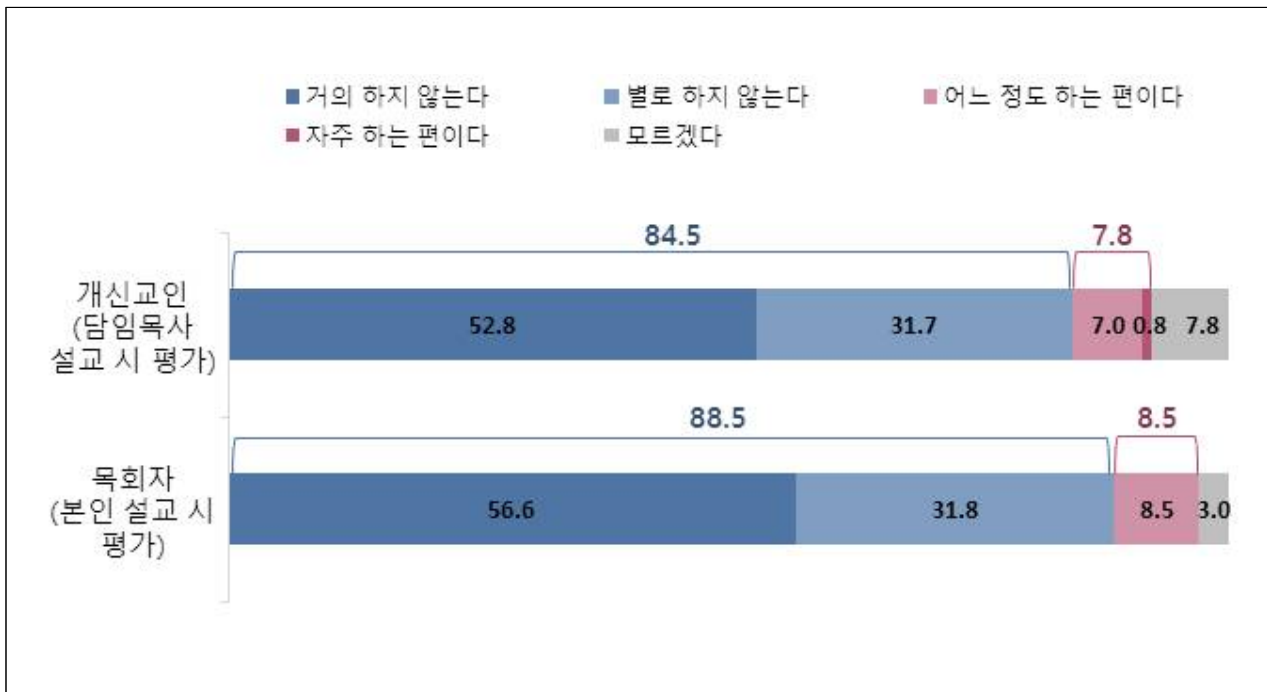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설교하실 때 목사님도 모르게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신교인에게 출석교회의 담임목사가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은 결과, 84.5%가 '하지 않는다'(거의+별로), 7.8%가 '하는 편이다'(어느 정도+자주)라고 응답했다.
- 목회자에게 본인이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는 88.5%가 '하지 않는다', 8.5%가 '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해, 개신교인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개신교인 중에서는 직분이 낮을수록 남녀 차별적 표현을 '하는 편'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목회자는 부목사보다 담임목사에서 스스로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 정도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 정도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거의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 편】	【하는 편】
■ 전체 ■		(800)	52.8	31.7	7.0	.8	7.8	100.0	84.5	7.8
성별	남성	(354)	53.5	32.8	5.2	.6	7.9	100.0	86.3	5.8
	여성	(446)	52.3	30.8	8.4	.9	7.6	100.0	83.0	9.3
연령	19~29세	(142)	47.1	35.0	7.4	2.2	8.3	100.0	82.1	9.6
	30~39세	(150)	43.2	30.3	13.1	1.0	12.3	100.0	73.5	14.2
	40~49세	(194)	54.3	31.7	7.1	.3	6.7	100.0	86.0	7.4
	50~59세	(200)	56.5	36.0	3.2	.4	3.9	100.0	92.5	3.7
	60~65세	(115)	63.5	21.7	5.1	.0	9.7	100.0	85.2	5.1
지역	서울	(205)	52.2	34.6	7.0	.9	5.4	100.0	86.8	7.9
	경기/인천	(279)	58.0	27.7	6.8	1.1	6.3	100.0	85.8	7.9
	대전/충청	(67)	53.3	26.7	5.7	.0	14.3	100.0	80.0	5.7
	광주/전라	(86)	48.8	34.8	7.5	.0	8.9	100.0	83.6	7.5
	대구/경북	(50)	48.8	42.4	1.6	1.1	6.2	100.0	91.2	2.6
	부산/울산/경남	(76)	41.7	29.0	14.8	.7	13.8	100.0	70.7	15.5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8.1	42.2	1.4	.0	8.2	100.0	90.3	1.4
	대도시	(441)	51.1	32.1	9.0	1.1	6.8	100.0	83.2	10.1
	중소도시	(300)	55.7	29.9	4.3	.0	10.1	100.0	85.6	4.3
직업	읍/면	(59)	51.0	37.5	6.2	2.3	3.1	100.0	88.4	8.4
	자영업	(96)	60.9	31.7	.0	.0	7.4	100.0	92.6	.0
	블루컬러	(125)	41.0	37.3	13.3	.0	8.4	100.0	78.3	13.3
	화이트컬러	(244)	54.2	31.9	6.8	1.0	6.0	100.0	86.1	7.9
	전업주부	(198)	60.6	24.4	8.3	.0	6.8	100.0	84.9	8.3
	학생	(64)	42.4	41.7	2.1	4.2	9.7	100.0	84.1	6.2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40.9	32.0	7.1	1.9	18.1	100.0	72.9	9.1
	결혼	(586)	54.5	31.5	6.4	.5	7.2	100.0	86.0	6.8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48.2	32.1	8.8	1.5	9.3	100.0	80.4	10.3
	봉사	(432)	61.2	29.4	4.4	.7	4.4	100.0	90.5	5.1
교회 직분	비봉사	(368)	43.0	34.4	10.1	.9	11.7	100.0	77.4	10.9
	중직자	(109)	56.5	29.2	1.7	1.0	11.6	100.0	85.7	2.7
	서리집사	(292)	59.0	30.3	5.6	.2	5.0	100.0	89.3	5.8
교인 수	일반성도	(399)	47.3	33.3	9.5	1.1	8.8	100.0	80.6	10.6
	49명 이하	(95)	51.4	31.8	10.7	1.4	4.8	100.0	83.2	12.1
	50~99명	(70)	48.4	40.4	6.6	2.6	2.0	100.0	88.8	9.2
	100~299명	(145)	49.7	36.0	4.1	.0	10.2	100.0	85.7	4.1
	300~499명	(93)	48.2	39.0	7.1	.5	5.1	100.0	87.2	7.7
교단	500명 이상	(397)	56.1	26.8	7.2	.6	9.2	100.0	82.9	7.8
	장로교(합동)	(213)	54.9	25.7	13.2	.5	5.7	100.0	80.6	13.7
	장로교(통합)	(213)	51.9	34.7	6.1	.2	7.1	100.0	86.6	6.3
	기타 장로교	(85)	58.8	35.1	2.3	1.5	2.3	100.0	93.9	3.8
	기타 교단	(210)	48.4	39.5	3.0	.9	8.2	100.0	87.9	3.9
신앙단계	잘 모름	(80)	55.2	14.9	8.7	1.7	19.5	100.0	70.1	10.4
	1단계	(108)	32.6	45.9	11.2	.5	9.8	100.0	78.5	11.7
	2단계	(304)	48.7	30.7	8.4	1.0	11.2	100.0	79.3	9.4
	3단계	(174)	56.4	34.9	3.7	1.1	3.8	100.0	91.4	4.8
담임목사 성별	4단계	(214)	66.0	23.2	5.6	.2	5.0	100.0	89.2	5.8
	남성	(737)	53.4	31.9	6.1	.7	7.9	100.0	85.3	6.8
정치적 성향	여성	(63)	45.9	29.0	17.5	1.3	6.3	100.0	74.9	18.8
	보수	(238)	57.0	26.4	8.7	.4	7.5	100.0	83.4	9.1
	중도	(347)	50.9	32.8	7.8	1.3	7.2	100.0	83.7	9.1
	진보	(214)	51.2	35.8	3.8	.3	8.9	100.0	87.0	4.1

[표] 설교 시 남녀 차별적 표현 정도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 편】	【하는 편】
■ 전체 ■		(212)	56.6	31.8	8.5	3.0	100.0	88.5	8.5
구분	담임목사	(130)	59.9	32.8	4.7	2.6	100.0	92.6	4.7
	부목사	(66)	49.2	35.1	11.2	4.6	100.0	84.3	11.2
	설교/협력목사	(16)	60.9	10.4	28.7	.0	100.0	71.3	28.7
성별	남성	(207)	56.8	31.4	8.7	3.1	100.0	88.2	8.7
	여성	(5)	46.8	53.2	.0	.0	100.0	100.0	.0
연령	39세 이하	(46)	44.7	36.2	17.0	2.1	100.0	80.9	17.0
	40~49세	(45)	56.8	34.1	4.5	4.5	100.0	90.9	4.5
	50~59세	(72)	58.7	34.9	1.6	4.8	100.0	93.7	1.6
	60세 이상	(50)	64.3	21.4	14.3	.0	100.0	85.7	14.3
지역	서울	(57)	51.1	45.4	2.6	.9	100.0	96.5	2.6
	경기/인천	(59)	54.8	30.8	11.0	3.4	100.0	85.6	11.0
	대전/충청	(25)	62.1	26.2	11.7	.0	100.0	88.3	11.7
	광주/전라	(23)	66.9	13.7	19.4	.0	100.0	80.6	19.4
	대구/경북	(12)	58.0	9.8	22.5	9.8	100.0	67.8	22.5
	부산/울산/경남	(15)	57.0	39.5	.0	3.4	100.0	96.6	.0
	강원/제주	(15)	45.3	46.9	.0	7.8	100.0	92.2	.0
	해외	(7)	83.3	.0	.0	16.7	100.0	83.3	.0
지역크기	대도시	(104)	53.2	39.6	3.5	3.7	100.0	92.8	3.5
	중소도시	(77)	66.0	15.6	15.0	3.4	100.0	81.6	15.0
	읍/면	(32)	45.1	45.7	9.2	.0	100.0	90.8	9.2
교인 수	49명 이하	(54)	53.4	32.0	8.3	6.3	100.0	85.4	8.3
	50-99명	(41)	50.4	40.9	8.7	.0	100.0	91.3	8.7
	100-199명	(26)	59.3	33.2	7.5	.0	100.0	92.5	7.5
	200-499명	(44)	65.5	22.3	10.0	2.2	100.0	87.8	10.0
	500명 이상	(47)	55.9	32.0	7.7	4.3	100.0	87.9	7.7
교단	장로교(합동)	(54)	62.1	30.3	6.7	.9	100.0	92.4	6.7
	장로교(통합)	(53)	64.1	20.6	14.2	1.0	100.0	84.8	14.2
	기타 장로교	(29)	60.4	25.0	3.3	11.3	100.0	85.4	3.3
	기타 교단	(76)	46.1	43.2	7.9	2.8	100.0	89.4	7.9
정치적 성향	보수	(80)	58.8	29.3	7.1	4.8	100.0	88.1	7.1
	중도	(66)	49.4	41.7	8.1	.8	100.0	91.1	8.1
	진보	(66)	61.2	25.0	10.6	3.2	100.0	86.2	10.6

3.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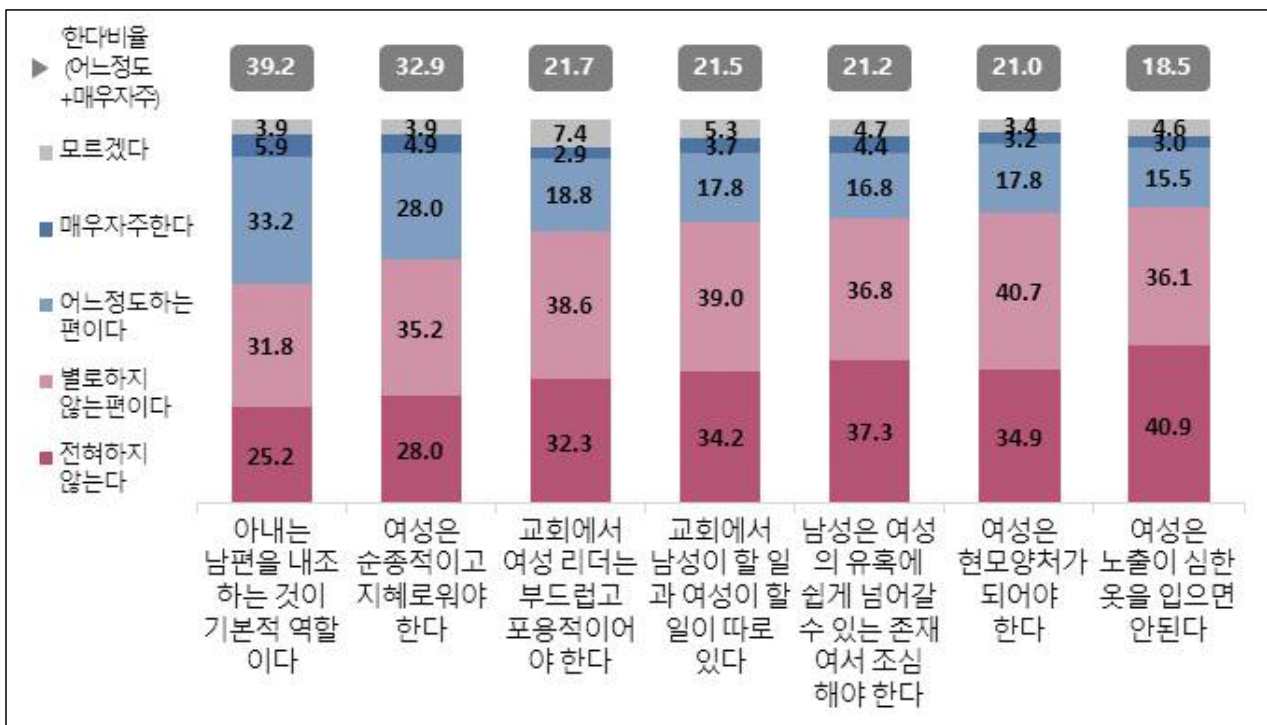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의 출석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또는 강의나 교회생활 메시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그렇다면 출석교회의 담임목사가 설교 시 남녀 구분적인 발언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다' (어느 정도+매우 자주) 비율이 높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열 명 중 네 명 가까이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39.2%)
- 그 다음으로 '여성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가 32.9%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남성은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여서 조심해야 한다',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한다고 응답했다.
-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된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비율은 18.5%로 나타났다.

[그림]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다	어느정도 하는편이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25.2	31.8	33.2	5.9	3.9	100.0	56.9	39.2
성별	남성	(354)	26.2	32.5	29.2	6.5	5.5	100.0	58.8	35.7
	여성	(446)	24.3	31.2	36.5	5.5	2.6	100.0	55.4	41.9
연령	19~29세	(142)	34.0	24.5	29.9	5.9	5.7	100.0	58.5	35.8
	30~39세	(150)	24.0	22.2	33.1	13.1	7.6	100.0	46.1	46.2
	40~49세	(194)	25.7	35.8	32.8	3.6	2.1	100.0	61.5	36.4
	50~59세	(200)	22.5	37.2	35.7	2.9	1.7	100.0	59.7	38.6
	60~65세	(115)	19.3	37.1	33.8	6.0	3.8	100.0	56.4	39.8
지역	서울	(205)	27.2	36.8	27.2	6.4	2.4	100.0	64.0	33.6
	경기/인천	(279)	26.3	28.9	31.5	7.3	6.0	100.0	55.2	38.8
	대전/충청	(67)	23.0	41.1	30.3	3.6	2.0	100.0	64.1	33.9
	광주/전라	(86)	22.4	25.4	40.6	9.7	1.9	100.0	47.8	50.3
	대구/경북	(50)	31.7	31.7	34.3	1.1	1.3	100.0	63.4	35.3
	부산/울산/경남	(76)	13.6	26.5	52.1	2.8	4.9	100.0	40.1	55.0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32.6	30.7	28.5	.0	8.1	100.0	63.3	28.5
	대도시	(441)	25.9	32.3	32.8	5.4	3.7	100.0	58.1	38.2
	중소도시	(300)	24.9	30.5	34.2	6.5	3.9	100.0	55.4	40.7
	읍/면	(59)	21.2	34.2	31.7	7.1	5.7	100.0	55.4	38.9
직업	자영업	(96)	31.7	33.8	28.0	3.5	3.0	100.0	65.6	31.5
	블루칼러	(125)	11.9	32.2	44.0	9.8	2.1	100.0	44.2	53.8
	화이트칼러	(244)	27.0	33.8	29.2	6.1	3.9	100.0	60.8	35.3
	전업주부	(198)	20.5	33.3	36.9	4.8	4.5	100.0	53.8	41.7
	학생	(64)	36.5	27.3	24.0	6.2	5.9	100.0	63.9	30.2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36.1	26.4	28.8	5.9	2.8	100.0	62.5	34.7
	결혼	(586)	22.1	33.3	34.7	6.3	3.5	100.0	55.4	41.0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33.5	27.5	29.2	4.9	5.0	100.0	60.9	34.1
	봉사	(432)	25.3	34.1	31.0	5.4	4.2	100.0	59.3	36.4
교회 직분	비봉사	(368)	25.0	29.1	35.8	6.5	3.6	100.0	54.1	42.4
	종직자	(109)	23.9	30.1	42.3	2.6	1.1	100.0	54.0	44.9
	서리집사	(292)	20.9	35.3	32.7	6.3	4.8	100.0	56.2	39.0
	일반성도	(399)	28.6	29.6	31.2	6.6	4.1	100.0	58.2	37.7
교인 수	49명 이하	(95)	18.0	26.3	40.9	10.5	4.2	100.0	44.4	51.5
	50-99명	(70)	25.4	28.5	33.5	9.7	2.9	100.0	53.9	43.2
	100-299명	(145)	17.2	43.1	32.4	4.0	3.3	100.0	60.3	36.4
	300-499명	(93)	16.6	30.5	37.4	8.2	7.2	100.0	47.1	45.7
	500명 이상	(397)	31.7	29.8	30.7	4.3	3.5	100.0	61.5	35.0
교단	장로교(합동)	(213)	19.6	31.8	39.4	6.0	3.2	100.0	51.4	45.4
	장로교(통합)	(213)	29.4	32.8	25.8	7.6	4.4	100.0	62.2	33.4
	기타 장로교	(85)	27.3	31.2	29.3	5.1	7.0	100.0	58.5	34.5
	기타 교단	(210)	21.8	34.8	36.8	2.9	3.7	100.0	56.7	39.7
	잘 모름	(80)	35.1	21.5	31.0	10.3	2.1	100.0	56.6	41.3
신앙단계	1단계	(108)	19.9	36.9	33.5	9.4	.4	100.0	56.8	42.8
	2단계	(304)	24.9	30.9	32.0	6.2	5.9	100.0	55.9	38.2
	3단계	(174)	22.2	30.1	42.1	2.1	3.5	100.0	52.3	44.2
	4단계	(214)	30.5	31.7	27.6	7.0	3.2	100.0	62.2	34.6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24.5	33.1	32.6	5.6	4.3	100.0	57.5	38.2
	여성	(63)	33.0	16.5	40.7	9.9	.0	100.0	49.4	50.6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9.2	34.8	35.7	5.4	4.9	100.0	53.9	41.1
	중도	(347)	27.8	28.5	33.4	5.3	5.1	100.0	56.2	38.7
	진보	(214)	27.6	33.7	30.2	7.5	.9	100.0	61.4	37.7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 여성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다	어느정도 하는편이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28.0	35.2	28.0	4.9	3.9	100.0	63.2	32.9
성별	남성	(354)	27.1	35.6	26.2	5.6	5.6	100.0	62.6	31.8
	여성	(446)	28.8	34.9	29.5	4.3	2.5	100.0	63.7	33.8
연령	19~29세	(142)	36.2	24.7	26.3	5.4	7.3	100.0	60.9	31.7
	30~39세	(150)	21.9	29.2	30.3	10.6	8.0	100.0	51.1	40.9
	40~49세	(194)	29.0	34.3	28.2	5.2	3.3	100.0	63.2	33.5
	50~59세	(200)	28.9	42.5	27.1	1.5	.0	100.0	71.4	28.6
	60~65세	(115)	22.6	45.0	28.4	1.9	2.0	100.0	67.7	30.3
지역	서울	(205)	29.2	37.4	23.6	6.1	3.7	100.0	66.6	29.7
	경기/인천	(279)	27.9	35.4	28.4	3.7	4.6	100.0	63.3	32.1
	대전/충청	(67)	23.7	34.6	33.0	5.1	3.6	100.0	58.4	38.0
	광주/전라	(86)	24.7	35.9	26.2	10.6	2.5	100.0	60.7	36.8
	대구/경북	(50)	34.9	35.8	25.3	2.7	1.3	100.0	70.7	28.0
	부산/울산/경남	(76)	23.3	31.8	35.5	2.8	6.6	100.0	55.1	38.3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1.2	22.7	34.8	.0	1.2	100.0	64.0	34.8
	대도시	(441)	28.3	35.0	27.0	5.4	4.4	100.0	63.2	32.4
	중소도시	(300)	28.7	35.8	28.4	4.2	3.0	100.0	64.5	32.5
	읍/면	(59)	22.4	34.1	34.3	4.3	4.9	100.0	56.5	38.6
직업	자영업	(96)	31.6	24.0	35.9	5.5	3.0	100.0	55.6	41.5
	블루칼러	(125)	13.0	38.2	35.5	11.2	2.1	100.0	51.2	46.8
	화이트칼러	(244)	30.6	35.1	25.9	5.0	3.4	100.0	65.8	30.9
	전업주부	(198)	29.0	41.3	23.6	1.1	5.0	100.0	70.4	24.7
	학생	(64)	38.5	29.4	24.1	2.1	5.9	100.0	67.9	26.2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30.1	42.5	18.7	5.9	2.8	100.0	72.5	24.7
	결혼	(586)	25.8	37.7	28.8	4.1	3.5	100.0	63.6	32.9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33.9	28.4	26.0	6.9	4.8	100.0	62.3	32.9
	봉사	(432)	26.5	37.4	29.2	3.6	3.3	100.0	63.9	32.8
교회 직분	비봉사	(368)	29.8	32.7	26.7	6.3	4.6	100.0	62.4	33.0
	종직자	(109)	26.8	43.6	27.9	.5	1.1	100.0	70.5	28.4
	서리집사	(292)	24.3	39.8	27.4	3.3	5.2	100.0	64.1	30.7
	일반성도	(399)	31.0	29.6	28.5	7.2	3.7	100.0	60.6	35.7
교인 수	49명 이하	(95)	26.3	30.3	34.8	4.5	4.2	100.0	56.6	39.2
	50-99명	(70)	25.9	37.1	26.5	3.5	7.0	100.0	63.0	30.0
	100-299명	(145)	26.8	33.2	34.8	2.4	2.8	100.0	60.0	37.2
	300-499명	(93)	19.6	42.0	26.8	6.6	5.0	100.0	61.6	33.4
	500명 이상	(397)	31.2	35.2	24.5	5.7	3.4	100.0	66.4	30.2
교단	장로교(합동)	(213)	24.3	38.3	30.9	3.1	3.4	100.0	62.6	34.1
	장로교(통합)	(213)	31.3	38.7	21.4	6.4	2.1	100.0	70.1	27.8
	기타 장로교	(85)	21.2	29.7	40.9	1.6	6.6	100.0	50.9	42.5
	기타 교단	(210)	28.4	34.9	28.9	4.2	3.7	100.0	63.3	33.0
	잘 모름	(80)	35.4	24.2	22.1	10.7	7.6	100.0	59.6	32.8
신앙단계	1단계	(108)	25.2	35.9	33.4	5.1	.4	100.0	61.1	38.5
	2단계	(304)	29.2	34.6	22.7	7.0	6.4	100.0	63.8	29.7
	3단계	(174)	25.9	38.9	29.0	3.4	2.7	100.0	64.9	32.4
	4단계	(214)	29.3	32.7	32.1	2.9	2.9	100.0	62.0	35.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27.5	37.0	26.8	4.5	4.1	100.0	64.5	31.3
	여성	(63)	33.6	14.2	42.7	8.6	.8	100.0	47.8	51.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0.8	40.8	30.4	3.9	4.1	100.0	61.6	34.3
	중도	(347)	33.5	29.3	26.6	4.8	5.7	100.0	62.8	31.5
	진보	(214)	27.0	38.6	27.7	6.0	.8	100.0	65.6	33.6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다	어느정도 하는편이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32.3	38.6	18.8	2.9	7.4	100.0	70.9	21.7
성별	남성	(354)	30.5	37.1	19.6	4.8	8.0	100.0	67.6	24.4
	여성	(446)	33.7	39.8	18.1	1.4	7.0	100.0	73.5	19.5
연령	19~29세	(142)	42.4	28.7	16.7	1.6	10.5	100.0	71.2	18.3
	30~39세	(150)	28.6	34.2	18.1	5.0	14.1	100.0	62.9	23.1
	40~49세	(194)	31.3	38.4	23.1	3.0	4.3	100.0	69.6	26.1
	50~59세	(200)	30.7	47.6	16.5	1.9	3.3	100.0	78.3	18.4
	60~65세	(115)	28.8	41.4	19.0	3.4	7.4	100.0	70.2	22.4
지역	서울	(205)	29.1	40.5	19.3	2.4	8.7	100.0	69.7	21.7
	경기/인천	(279)	34.5	40.0	14.9	2.6	8.1	100.0	74.4	17.5
	대전/충청	(67)	32.1	36.1	23.3	.9	7.5	100.0	68.3	24.2
	광주/전라	(86)	26.1	33.1	29.3	7.8	3.7	100.0	59.3	37.0
	대구/경북	(50)	35.2	33.5	22.8	3.8	4.8	100.0	68.7	26.5
	부산/울산/경남	(76)	32.6	38.4	16.2	2.8	10.1	100.0	71.0	19.0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7.5	40.7	10.5	.0	1.2	100.0	88.3	10.5
	대도시	(441)	30.8	38.1	20.5	2.7	7.8	100.0	69.0	23.3
	중소도시	(300)	33.6	39.5	17.5	2.4	7.0	100.0	73.1	19.9
직업	읍/면	(59)	36.0	37.9	12.0	6.9	7.2	100.0	73.9	18.9
	자영업	(96)	35.0	37.3	21.3	1.7	4.7	100.0	72.3	23.0
	블루컬러	(125)	18.3	39.1	28.0	8.6	5.9	100.0	57.4	36.6
	화이트컬러	(244)	37.9	37.3	17.3	2.5	5.1	100.0	75.2	19.8
	전업주부	(198)	28.7	45.0	15.5	1.1	9.8	100.0	73.7	16.5
	학생	(64)	49.8	28.6	13.3	.0	8.2	100.0	78.4	13.3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26.8	38.4	13.6	6.3	14.9	100.0	65.2	19.9
	결혼	(586)	29.8	41.8	17.8	3.1	7.4	100.0	71.7	20.9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38.9	29.9	21.5	2.4	7.4	100.0	68.8	23.9
	봉사	(432)	33.3	39.8	18.8	2.7	5.4	100.0	73.1	21.5
교회 직분	비봉사	(368)	31.1	37.2	18.8	3.2	9.7	100.0	68.3	22.0
	종직자	(109)	36.3	39.3	15.5	.6	8.3	100.0	75.6	16.1
	서리집사	(292)	28.0	41.5	20.6	3.8	6.1	100.0	69.6	24.4
교인 수	일반성도	(399)	34.3	36.3	18.4	2.9	8.2	100.0	70.6	21.3
	49명 이하	(95)	24.5	44.2	16.4	5.6	9.3	100.0	68.7	22.0
	50~99명	(70)	33.6	41.7	11.3	1.4	12.0	100.0	75.3	12.7
	100~299명	(145)	24.0	42.5	25.8	2.0	5.7	100.0	66.5	27.8
	300~499명	(93)	25.9	41.7	17.5	4.4	10.5	100.0	67.6	21.9
교단	500명 이상	(397)	38.4	34.6	18.4	2.5	6.1	100.0	73.0	20.9
	장로교(함동)	(213)	26.9	43.3	21.4	3.9	4.5	100.0	70.2	25.4
	장로교(통합)	(213)	37.9	32.0	19.2	4.4	6.6	100.0	69.9	23.5
	기타 장로교	(85)	30.3	37.3	21.6	1.8	9.1	100.0	67.6	23.3
	기타 교단	(210)	29.6	45.0	18.9	.8	5.7	100.0	74.7	19.6
신앙단계	잘 모름	(80)	40.6	28.4	7.4	3.2	20.4	100.0	69.1	10.6
	1단계	(108)	20.3	49.2	20.9	4.1	5.6	100.0	69.5	24.9
	2단계	(304)	31.6	36.8	16.8	1.7	13.1	100.0	68.4	18.5
	3단계	(174)	34.5	33.1	25.7	3.3	3.5	100.0	67.6	28.9
	4단계	(214)	37.4	40.4	15.0	3.7	3.5	100.0	77.8	18.7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2.4	39.0	18.1	2.8	7.6	100.0	71.4	21.0
	여성	(63)	30.5	34.1	26.2	4.1	5.0	100.0	64.7	30.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5.1	43.0	19.5	4.2	8.2	100.0	68.1	23.7
	중도	(347)	38.5	32.9	17.2	2.1	9.3	100.0	71.3	19.3
	진보	(214)	30.1	43.1	20.5	2.8	3.5	100.0	73.3	23.3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 교회에서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 다	어느정도 하는편이 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34.2	39.0	17.8	3.7	5.3	100.0	73.2	21.5
성별	남성	(354)	32.9	36.2	18.9	6.9	5.1	100.0	69.1	25.8
	여성	(446)	35.3	41.2	16.9	1.1	5.5	100.0	76.5	18.0
연령	19~29세	(142)	49.5	28.4	14.1	5.1	2.9	100.0	77.9	19.2
	30~39세	(150)	31.0	31.5	19.2	7.0	11.3	100.0	62.5	26.2
	40~49세	(194)	29.4	44.5	16.4	3.8	5.9	100.0	73.9	20.2
	50~59세	(200)	32.2	43.1	21.7	.0	3.0	100.0	75.3	21.7
	60~65세	(115)	31.4	45.4	16.1	3.7	3.4	100.0	76.8	19.8
지역	서울	(205)	36.8	40.4	16.2	5.8	.9	100.0	77.2	22.0
	경기/인천	(279)	34.0	43.1	16.0	2.1	4.9	100.0	77.1	18.0
	대전/충청	(67)	31.3	26.6	21.6	4.3	16.3	100.0	57.8	25.8
	광주/전라	(86)	26.7	38.2	23.4	7.9	3.7	100.0	64.9	31.3
	대구/경북	(50)	39.9	34.3	16.9	4.1	4.8	100.0	74.2	21.0
	부산/울산/경남	(76)	29.7	33.9	26.1	.0	10.3	100.0	63.6	26.1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5.8	41.0	5.1	.0	8.1	100.0	86.8	5.1
	대도시	(441)	34.9	39.0	18.5	4.1	3.5	100.0	73.9	22.6
	중소도시	(300)	34.1	39.2	15.9	2.3	8.5	100.0	73.3	18.2
직업	읍/면	(59)	29.9	38.1	21.9	7.4	2.7	100.0	68.0	29.3
	자영업	(96)	30.7	40.7	21.2	.0	7.4	100.0	71.4	21.2
	블루컬러	(125)	25.6	32.4	20.6	15.6	5.8	100.0	58.0	36.2
	화이트컬러	(244)	38.5	37.9	18.9	1.9	2.9	100.0	76.4	20.7
	전업주부	(198)	31.3	46.7	14.4	.0	7.5	100.0	78.0	14.4
	학생	(64)	52.0	27.7	15.9	2.4	2.1	100.0	79.7	18.2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33.1	33.7	15.9	8.7	8.5	100.0	66.8	24.7
	결혼	(586)	30.9	42.3	18.3	2.5	6.0	100.0	73.2	20.9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43.3	30.1	16.4	6.7	3.5	100.0	73.4	23.1
	봉사	(432)	36.5	40.3	18.1	2.2	2.9	100.0	76.8	20.3
교회 직분	비봉사	(368)	31.6	37.5	17.4	5.4	8.1	100.0	69.1	22.8
	중직자	(109)	39.6	38.7	18.0	1.3	2.4	100.0	78.3	19.3
	서리집사	(292)	30.0	41.8	20.7	2.2	5.3	100.0	71.8	22.8
교인 수	일반성도	(399)	35.8	37.0	15.6	5.4	6.1	100.0	72.9	21.0
	49명 이하	(95)	31.2	38.7	18.8	7.8	3.6	100.0	69.9	26.6
	50~99명	(70)	30.7	28.9	29.6	5.6	5.2	100.0	59.7	35.1
	100~299명	(145)	26.2	53.2	17.3	.4	2.8	100.0	79.4	17.8
	300~499명	(93)	27.9	39.7	20.0	6.9	5.4	100.0	67.6	27.0
	500명 이상	(397)	40.0	35.5	15.1	2.8	6.6	100.0	75.5	17.9
교단	장로교(합동)	(213)	24.0	44.9	23.7	3.6	3.8	100.0	68.9	27.2
	장로교(통합)	(213)	39.8	35.5	14.5	4.3	6.0	100.0	75.2	18.8
	기타 장로교	(85)	41.2	36.5	17.7	1.8	2.9	100.0	77.6	19.5
	기타 교단	(210)	32.9	41.2	17.8	2.8	5.3	100.0	74.1	20.6
	잘 모름	(80)	43.0	29.6	11.0	6.5	9.9	100.0	72.6	17.5
신앙단계	1단계	(108)	21.8	42.9	21.7	6.9	6.7	100.0	64.7	28.6
	2단계	(304)	32.3	38.5	18.0	3.4	7.8	100.0	70.8	21.4
	3단계	(174)	37.2	38.5	21.6	.5	2.2	100.0	75.8	22.1
	4단계	(214)	40.9	38.1	12.5	4.9	3.6	100.0	79.0	17.4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3.9	39.5	17.4	3.9	5.3	100.0	73.4	21.3
	여성	(63)	37.8	33.4	22.8	1.0	5.0	100.0	71.2	23.8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9.0	38.6	19.7	5.5	7.3	100.0	67.6	25.1
	중도	(347)	39.0	34.5	16.9	3.1	6.5	100.0	73.5	20.0
	진보	(214)	32.4	46.7	17.1	2.6	1.2	100.0	79.1	19.7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 남성은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여서 조심해야 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다	어느정도 하는편이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37.3	36.8	16.8	4.4	4.7	100.0	74.1	21.2
성별	남성	(354)	35.2	33.6	18.7	7.5	5.0	100.0	68.9	26.2
	여성	(446)	38.9	39.3	15.3	2.0	4.5	100.0	78.2	17.3
연령	19~29세	(142)	45.9	27.4	16.2	6.6	3.9	100.0	73.3	22.8
	30~39세	(150)	33.2	30.8	19.4	9.0	7.6	100.0	63.9	28.4
	40~49세	(194)	29.6	43.5	19.4	.9	6.5	100.0	73.2	20.4
	50~59세	(200)	43.7	39.6	13.1	2.8	.7	100.0	83.3	15.9
	60~65세	(115)	33.6	39.9	16.2	4.2	6.0	100.0	73.6	20.4
지역	서울	(205)	36.3	40.1	19.2	2.4	2.0	100.0	76.4	21.6
	경기/인천	(279)	35.0	36.0	18.6	4.6	5.7	100.0	71.1	23.2
	대전/충청	(67)	35.9	32.9	18.8	3.4	9.0	100.0	68.8	22.2
	광주/전라	(86)	39.7	28.8	13.7	12.2	5.5	100.0	68.6	25.9
	대구/경북	(50)	52.2	26.6	13.8	4.8	2.6	100.0	78.8	18.6
	부산/울산/경남	(76)	33.4	44.4	12.4	2.3	7.5	100.0	77.8	14.7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5.6	48.4	4.6	1.4	.0	100.0	94.0	6.0
	대도시	(441)	35.7	37.0	18.4	4.1	4.8	100.0	72.7	22.5
	중소도시	(300)	40.0	36.1	15.6	4.4	4.0	100.0	76.1	19.9
	읍/면	(59)	35.6	38.6	11.1	6.9	7.8	100.0	74.2	17.9
직업	자영업	(96)	38.2	34.2	13.5	6.6	7.4	100.0	72.4	20.2
	블루칼러	(125)	21.6	46.0	17.2	9.5	5.8	100.0	67.5	26.7
	화이트칼러	(244)	40.1	35.1	17.6	3.6	3.6	100.0	75.2	21.2
	전업주부	(198)	40.9	38.6	16.0	.9	3.6	100.0	79.5	16.9
	학생	(64)	43.6	33.2	17.2	1.8	4.1	100.0	76.8	19.0
	기타/무직	(43)	36.4	33.9	14.7	9.4	5.6	100.0	70.3	24.1
결혼여부	결혼	(586)	35.9	38.6	17.8	2.9	4.7	100.0	74.6	20.7
	미혼	(214)	40.9	31.8	14.1	8.5	4.7	100.0	72.7	22.6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5.8	39.5	17.1	4.1	3.4	100.0	75.3	21.3
	비봉사	(368)	39.0	33.6	16.4	4.7	6.3	100.0	72.6	21.1
교회 직분	종직자	(109)	37.0	42.4	17.3	1.0	2.3	100.0	79.3	18.4
	서리집사	(292)	33.6	40.4	15.2	3.9	7.0	100.0	74.0	19.1
	일반성도	(399)	40.1	32.7	17.9	5.7	3.7	100.0	72.7	23.5
교인 수	49명 이하	(95)	34.4	38.5	20.6	1.2	5.3	100.0	73.0	21.7
	50-99명	(70)	39.2	33.3	12.9	10.7	4.0	100.0	72.5	23.5
	100-299명	(145)	33.7	42.7	18.5	1.7	3.3	100.0	76.4	20.2
	300-499명	(93)	27.8	41.2	19.9	6.8	4.4	100.0	68.9	26.7
	500명 이상	(397)	41.1	33.8	15.3	4.5	5.3	100.0	74.9	19.8
교단	장로교(합동)	(213)	34.3	35.1	20.8	5.2	4.7	100.0	69.4	25.9
	장로교(통합)	(213)	37.8	38.2	14.4	4.8	4.8	100.0	76.0	19.2
	기타 장로교	(85)	31.2	37.2	20.1	5.7	5.8	100.0	68.4	25.8
	기타 교단	(210)	38.0	40.3	16.2	1.8	3.6	100.0	78.3	18.1
	잘 모름	(80)	48.5	27.7	10.8	6.6	6.4	100.0	76.2	17.4
신앙단계	1단계	(108)	24.6	50.2	14.9	6.7	3.7	100.0	74.8	21.5
	2단계	(304)	38.1	33.7	17.7	4.1	6.4	100.0	71.8	21.8
	3단계	(174)	38.9	36.4	18.0	3.7	3.1	100.0	75.3	21.7
	4단계	(214)	41.2	34.8	15.6	4.3	4.2	100.0	76.0	19.9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7.2	36.9	16.5	4.3	5.1	100.0	74.1	20.8
	여성	(63)	37.7	36.1	20.0	5.6	.6	100.0	73.8	25.6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9.3	39.3	21.6	4.4	5.4	100.0	68.6	26.0
	중도	(347)	43.8	31.9	13.7	4.9	5.6	100.0	75.7	18.7
	진보	(214)	35.5	41.9	16.5	3.6	2.6	100.0	77.4	20.0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다	어느정도 하는편이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34.9	40.7	17.8	3.2	3.4	100.0	75.6	21.0
성별	남성	(354)	32.4	37.7	20.0	4.2	5.8	100.0	70.0	24.1
	여성	(446)	37.0	43.1	16.0	2.5	1.5	100.0	80.0	18.5
연령	19~29세	(142)	43.0	36.3	13.5	3.0	4.2	100.0	79.3	16.5
	30~39세	(150)	30.9	29.7	22.2	7.2	10.0	100.0	60.6	29.4
	40~49세	(194)	37.8	40.6	18.1	2.0	1.5	100.0	78.5	20.1
	50~59세	(200)	32.6	50.4	15.4	1.2	.4	100.0	83.0	16.6
	60~65세	(115)	29.2	43.6	20.9	4.0	2.3	100.0	72.8	24.9
지역	서울	(205)	38.2	41.8	15.0	3.0	1.9	100.0	80.0	18.1
	경기/인천	(279)	36.0	41.2	15.8	2.3	4.7	100.0	77.2	18.1
	대전/충청	(67)	45.0	30.1	20.1	.0	4.8	100.0	75.1	20.1
	광주/전라	(86)	23.7	39.0	24.7	10.3	2.4	100.0	62.6	35.0
	대구/경북	(50)	39.1	35.7	21.6	1.1	2.6	100.0	74.7	22.6
	부산/울산/경남	(76)	25.4	46.3	19.4	4.2	4.7	100.0	71.7	23.6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29.6	51.1	19.2	.0	.0	100.0	80.8	19.2
	대도시	(441)	36.1	39.0	17.0	4.4	3.5	100.0	75.0	21.5
	중소도시	(300)	35.1	40.8	19.6	1.2	3.4	100.0	75.8	20.8
	읍/면	(59)	25.5	53.1	14.3	4.3	2.8	100.0	78.6	18.6
직업	자영업	(96)	39.1	43.1	14.8	.0	3.0	100.0	82.2	14.8
	블루칼러	(125)	15.0	49.5	25.1	6.3	4.2	100.0	64.5	31.3
	화이트칼러	(244)	40.3	33.8	17.7	4.5	3.6	100.0	74.1	22.3
	전업주부	(198)	36.8	42.9	16.7	2.2	1.4	100.0	79.7	18.9
	학생	(64)	39.2	41.1	15.9	.0	3.9	100.0	80.3	15.9
	기타/무직	(43)	39.0	32.8	13.4	5.9	8.9	100.0	71.7	19.4
결혼여부	결혼	(586)	33.6	41.8	18.6	3.2	2.9	100.0	75.4	21.7
	미혼	(214)	38.6	37.6	15.6	3.4	4.7	100.0	76.3	19.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35.6	42.3	16.1	2.4	3.7	100.0	77.9	18.4
	비봉사	(368)	34.1	38.8	19.8	4.2	3.1	100.0	72.9	24.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28.6	47.0	19.7	1.0	3.6	100.0	75.7	20.7
	서리집사	(292)	32.6	44.2	16.0	3.3	3.9	100.0	76.8	19.3
	일반성도	(399)	38.3	36.4	18.5	3.8	3.0	100.0	74.7	22.3
교인 수	49명 이하	(95)	24.5	41.7	24.8	5.2	3.8	100.0	66.2	30.0
	50-99명	(70)	33.5	50.3	8.8	3.5	3.8	100.0	83.8	12.4
	100-299명	(145)	28.3	46.4	20.8	.7	3.8	100.0	74.7	21.5
	300-499명	(93)	20.0	47.4	22.8	4.8	5.0	100.0	67.4	27.6
	500명 이상	(397)	43.6	35.1	15.4	3.2	2.7	100.0	78.7	18.6
교단	장로교(합동)	(213)	34.9	43.2	16.0	4.0	1.9	100.0	78.1	20.0
	장로교(통합)	(213)	36.4	41.3	15.2	4.9	2.1	100.0	77.7	20.2
	기타 장로교	(85)	30.6	43.9	19.6	.6	5.4	100.0	74.4	20.2
	기타 교단	(210)	34.7	37.5	22.2	1.5	4.1	100.0	72.2	23.7
	잘 모름	(80)	36.2	37.2	15.7	3.9	6.9	100.0	73.5	19.6
신앙단계	1단계	(108)	22.7	43.9	26.6	4.5	2.2	100.0	66.6	31.2
	2단계	(304)	34.9	36.2	20.1	2.9	5.9	100.0	71.1	23.0
	3단계	(174)	34.1	45.3	15.1	2.5	3.0	100.0	79.4	17.6
	4단계	(214)	41.8	41.7	12.2	3.6	.8	100.0	83.5	15.8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35.0	40.9	17.2	3.2	3.7	100.0	75.9	20.5
	여성	(63)	34.5	38.0	24.0	3.4	.0	100.0	72.5	27.5
정치적 성향	보수	(238)	28.3	46.3	18.1	3.6	3.8	100.0	74.6	21.7
	중도	(347)	40.8	36.7	16.1	2.8	3.6	100.0	77.5	18.8
	진보	(214)	32.7	40.9	20.3	3.5	2.6	100.0	73.6	23.8

【표】 담임목사 설교/강의/메시지 중 남녀 구분 발언 정도(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된다

		사례 수	전혀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편이다	어느정도 하는편이다	매우자주 한다	모르겠다	계	【하지 않는다】	【한다】
■ 전체 ■		(800)	40.9	36.1	15.5	3.0	4.6	100.0	77.0	18.5
성별	남성	(354)	38.3	33.6	17.6	3.8	6.8	100.0	71.9	21.4
	여성	(446)	43.0	38.0	13.8	2.4	2.8	100.0	81.0	16.2
연령	19~29세	(142)	49.9	29.9	10.2	5.0	5.0	100.0	79.8	15.2
	30~39세	(150)	31.2	35.8	19.6	4.7	8.7	100.0	67.0	24.3
	40~49세	(194)	45.8	35.3	14.5	2.8	1.7	100.0	81.1	17.3
	50~59세	(200)	44.7	38.8	10.5	2.0	4.0	100.0	83.4	12.6
	60~65세	(115)	27.6	40.7	26.8	.5	4.5	100.0	68.3	27.2
지역	서울	(205)	41.4	37.2	14.2	2.5	4.7	100.0	78.6	16.7
	경기/인천	(279)	46.7	33.9	10.6	2.9	5.9	100.0	80.6	13.4
	대전/충청	(67)	35.0	42.8	11.8	4.3	6.1	100.0	77.8	16.0
	광주/전라	(86)	29.8	31.3	31.6	6.4	1.0	100.0	61.1	38.0
	대구/경북	(50)	43.6	33.7	18.4	.8	3.5	100.0	77.4	19.1
	부산/울산/경남	(76)	31.6	39.9	21.3	2.3	4.9	100.0	71.5	23.6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7.0	39.0	12.5	1.4	.0	100.0	86.1	13.9
	대도시	(441)	43.6	34.0	15.6	2.3	4.5	100.0	77.5	17.9
	중소도시	(300)	38.8	38.7	14.5	3.5	4.5	100.0	77.5	18.0
	읍/면	(59)	31.6	38.5	19.3	5.7	4.9	100.0	70.1	25.1
직업	자영업	(96)	45.1	38.7	6.8	3.2	6.2	100.0	83.9	10.0
	블루칼러	(125)	22.6	38.2	29.2	5.8	4.2	100.0	60.8	35.0
	화이트칼러	(244)	44.0	34.0	16.1	2.3	3.6	100.0	78.0	18.4
	전업주부	(198)	42.6	40.5	10.5	2.0	4.5	100.0	83.1	12.5
	학생	(64)	46.9	34.7	10.3	2.1	5.9	100.0	81.7	12.4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42.1	33.5	13.0	5.3	6.1	100.0	75.6	18.2
	결혼	(586)	40.0	38.0	15.3	2.2	4.7	100.0	77.9	17.4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43.4	30.9	16.0	5.4	4.3	100.0	74.3	21.4
	봉사	(432)	37.4	38.5	17.4	2.6	4.2	100.0	75.8	20.0
교회 직분	비봉사	(368)	45.0	33.3	13.2	3.5	5.0	100.0	78.3	16.7
	종직자	(109)	29.3	46.0	18.3	.5	6.0	100.0	75.2	18.7
	서리집사	(292)	39.5	37.4	15.9	2.4	4.7	100.0	76.9	18.4
	일반성도	(399)	45.1	32.4	14.3	4.1	4.0	100.0	77.5	18.5
교인 수	49명 이하	(95)	33.7	39.7	18.0	1.0	7.6	100.0	73.4	19.0
	50-99명	(70)	37.7	39.7	17.9	2.6	2.2	100.0	77.4	20.4
	100-299명	(145)	33.5	38.7	20.9	1.5	5.4	100.0	72.3	22.3
	300-499명	(93)	31.1	43.9	12.5	7.5	5.0	100.0	75.0	20.0
	500명 이상	(397)	48.1	31.8	13.1	3.1	3.8	100.0	79.9	16.2
교단	장로교(합동)	(213)	39.1	40.9	14.3	3.6	2.2	100.0	80.0	17.9
	장로교(통합)	(213)	45.6	29.3	18.0	3.7	3.4	100.0	74.9	21.7
	기타 장로교	(85)	40.6	35.6	13.8	1.0	8.9	100.0	76.3	14.8
	기타 교단	(210)	38.8	39.5	15.8	2.1	3.7	100.0	78.4	17.9
	잘 모름	(80)	38.7	32.7	12.4	4.5	11.7	100.0	71.4	16.9
신앙단계	1단계	(108)	37.2	38.7	12.9	3.5	7.6	100.0	75.9	16.4
	2단계	(304)	43.3	32.3	14.0	3.6	6.8	100.0	75.6	17.6
	3단계	(174)	37.4	42.1	16.1	2.1	2.3	100.0	79.5	18.2
	4단계	(214)	42.0	35.2	18.2	2.8	1.7	100.0	77.3	21.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40.6	36.2	15.2	3.0	5.0	100.0	76.8	18.2
	여성	(63)	43.7	34.9	18.3	3.1	.0	100.0	78.7	21.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31.4	40.5	20.1	3.0	5.0	100.0	71.9	23.1
	중도	(347)	49.0	30.7	12.2	3.9	4.1	100.0	79.7	16.2
	진보	(214)	38.3	39.8	15.5	1.6	4.8	100.0	78.1	17.1

IV.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1.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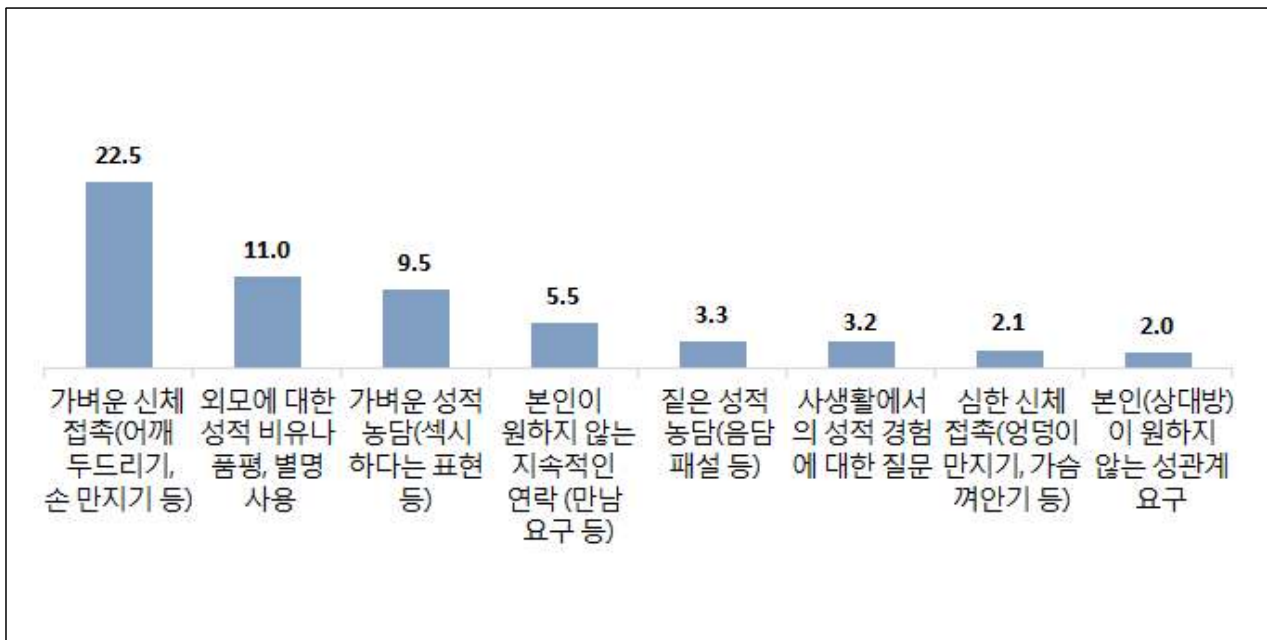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 또는 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교인이 피해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출석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직간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가벼운 신체 접촉'을 겪은 비율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11.0%, '가벼운 성적 농담' 9.5%,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5.5%, '질은 성적 농담' 3.3%,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3.2%, '심한 신체 접촉' 2.1%,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2.0%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은 50대 이하 연령층 60~65세 연령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질은 성적 농담'은 30대에서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심한 신체 접촉'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 이러한 성적 피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서 여성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표]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있음' 비율)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가벼운 성적 농담(색시 하다는 표현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만남 요구 등)	질은 성적 농담(음담 패설 등)	사생활에 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심한 신체 접촉(엉덩이 만지기, 가슴 껴안기 등)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 전체 ■		(800)	22.5	11.0	9.5	5.5	3.3	3.2	2.1	2.0
성별	남성	(354)	23.4	10.5	11.9	6.5	4.9	4.4	3.6	3.6
	여성	(446)	21.7	11.4	7.6	4.7	2.1	2.2	1.0	.7
연령	19~29세	(142)	26.9	10.3	6.2	6.4	2.7	2.3	3.3	1.2
	30~39세	(150)	20.5	16.7	11.3	9.0	6.1	5.4	3.6	5.1
	40~49세	(194)	19.3	11.0	9.7	6.5	3.3	3.1	1.4	1.1
	50~59세	(200)	25.7	10.6	13.2	4.0	3.7	4.2	1.9	1.9
	60~65세	(115)	19.2	5.1	4.1	.5	.0	.0	.5	.5
지역	서울	(205)	20.8	12.1	9.5	10.7	4.6	2.8	2.8	2.7
	경기/인천	(279)	22.9	10.9	12.4	4.9	3.2	4.6	2.6	2.3
	대전/충청	(67)	27.8	10.9	9.9	5.1	3.5	4.5	.0	.0
	광주/전라	(86)	21.3	12.9	8.0	.6	2.6	.0	.6	.6
	대구/경북	(50)	28.9	6.3	6.1	2.6	2.6	.0	1.1	1.1
	부산/울산/경남	(76)	19.7	10.8	3.6	1.9	2.1	4.1	2.8	3.5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15.2	8.3	6.8	3.1	1.7	3.1	.0	.0
	대도시	(441)	25.6	14.2	11.8	8.1	4.7	4.3	3.6	3.5
	중소도시	(300)	17.8	6.6	7.5	2.7	1.9	1.9	.3	.0
직업	읍/면	(59)	22.8	9.7	2.2	.0	.6	1.7	.6	.6
	자영업	(96)	27.4	14.9	11.2	8.8	3.7	5.4	3.7	3.7
	블루칼러	(125)	23.3	13.0	18.9	11.5	10.5	5.6	4.3	4.4
	화이트칼러	(244)	25.4	11.9	9.8	6.1	2.8	3.8	2.0	1.5
	전업주부	(198)	16.3	9.2	6.9	2.4	.0	1.1	1.1	1.1
	학생	(64)	27.9	12.0	3.6	2.1	3.6	1.8	1.8	1.8
결혼여부	기타/무직	(43)	19.0	.0	1.9	.0	.0	.0	.0	.0
	결혼	(586)	20.8	9.6	9.2	4.2	2.3	2.9	1.6	1.6
교회봉사 여부	미혼	(214)	27.0	15.0	10.3	8.8	6.1	4.1	3.6	3.1
	봉사	(432)	23.3	12.4	9.3	5.7	4.0	3.7	2.0	1.6
교회직분	비봉사	(368)	21.5	9.4	9.7	5.1	2.5	2.6	2.3	2.4
	중직자	(109)	15.1	6.2	5.5	1.6	2.0	2.4	1.3	1.8
	서리집사	(292)	24.7	12.5	8.9	3.5	3.1	2.0	1.4	1.1
교인 수	일반성도	(399)	22.8	11.2	11.0	7.9	3.8	4.3	2.9	2.7
	49명 이하	(95)	15.4	4.0	7.0	3.8	3.2	1.1	.5	2.7
	50~99명	(70)	29.4	22.1	14.7	3.5	3.8	2.4	6.6	.7
	100~299명	(145)	25.2	9.3	12.1	4.3	3.3	3.4	.3	.8
	300~499명	(93)	27.7	13.0	6.2	4.5	2.9	2.5	.9	.9
교단	500명 이상	(397)	20.7	11.0	9.0	6.9	3.4	3.9	2.7	2.7
	장로교(합동)	(213)	21.3	9.2	9.0	3.6	3.0	4.6	1.9	1.5
	장로교(통합)	(213)	23.9	14.1	12.0	9.2	4.8	4.6	5.0	3.8
	기타 장로교	(85)	22.6	10.0	6.4	.0	1.0	.0	.0	.0
	기타 교단	(210)	22.5	10.3	9.3	4.6	3.6	1.9	.6	2.2
신앙단계	잘 모름	(80)	21.5	10.6	7.4	8.6	2.1	2.8	1.5	.0
	1단계	(108)	30.4	11.8	16.4	6.3	5.3	3.6	5.4	3.8
	2단계	(304)	21.5	11.1	8.9	6.2	3.3	2.5	.5	1.2
	3단계	(174)	20.4	9.9	6.0	3.2	1.8	4.1	1.9	1.5
	4단계	(214)	21.4	11.4	9.7	5.8	3.6	3.3	3.0	2.5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22.8	11.2	9.7	5.5	3.6	3.0	2.3	2.2
	여성	(63)	18.9	8.6	6.8	4.8	.0	6.1	.7	.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9.7	10.0	8.9	3.5	3.6	4.1	1.6	2.7
	중도	(347)	19.4	9.6	8.5	6.0	2.3	1.9	2.4	1.5
	진보	(214)	30.5	14.4	11.7	6.8	4.7	4.3	2.2	2.1

1-1.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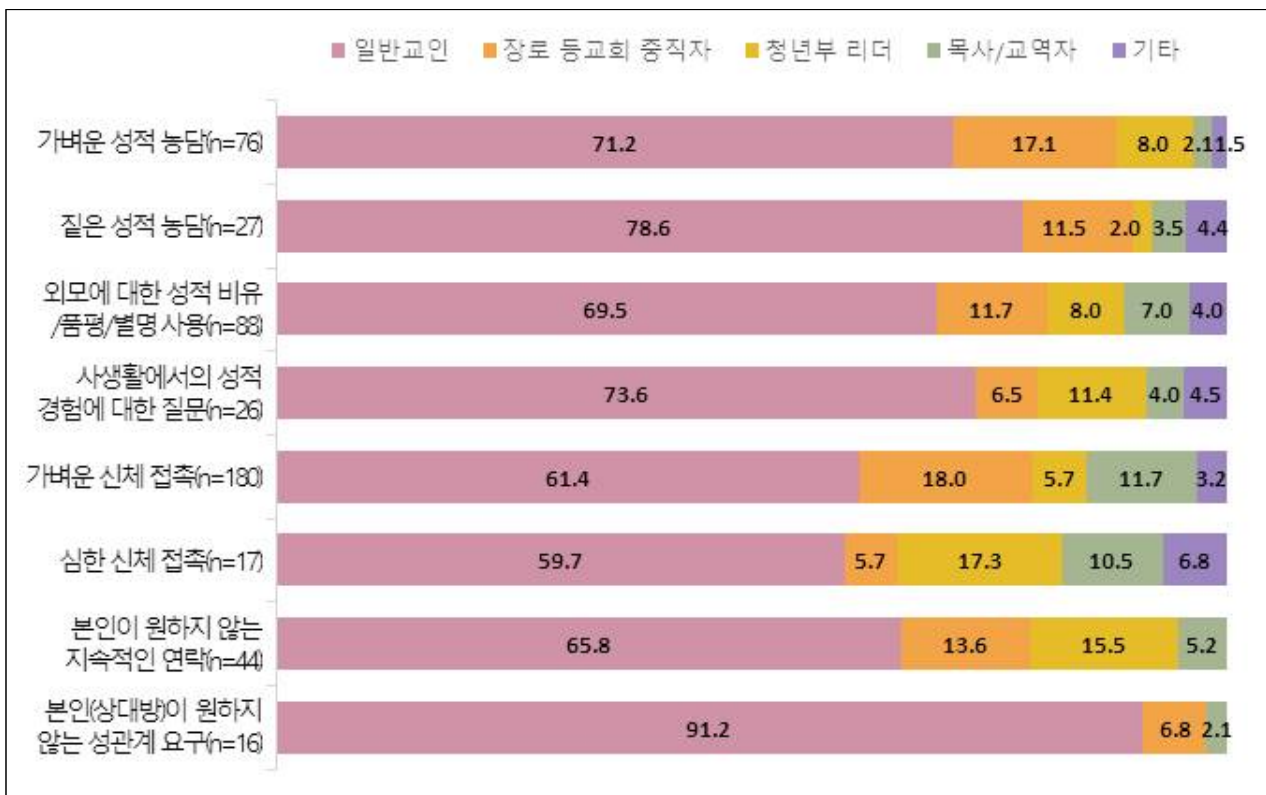
(개신교인) (피해 경험이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 각각의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자에게 가해자를 물었더니, 대부분은 '일반교인'을 가해자로 답했다.
- 다른 피해 항목 대비 '가벼운 성적 농담'과 '가벼운 신체 접촉'에서 '장로 등 교회 중직자'가 가해자로 응답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은 '청년부 리더'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사례수 30 미만일 경우 해석 시 주의)
- 목사/교역자가 가해자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가벼운 신체접촉'에서 1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 개신교인, %)



* Note) '짙은 성적농담', '심한 신체접촉',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등은 표본수 30명 이하로 해석시 유의해야 함

[표] 가벼운 성적 농담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가벼운 성적 농담 피해 직간접 경험자, n=76, %)

		사례수	일반교인	장로 등교회 종직자	청년부 리더	목사/교역자	기타	계
■ 전체 ■		(76)	71.2	17.1	8.0	2.1	1.5	100.0
성별	남성	(42)	71.0	11.7	13.3	1.3	2.8	100.0
	여성	(34)	71.5	23.9	1.5	3.1	.0	100.0
연령	19~29세	(9)	54.2	5.3	21.5	6.0	13.1	100.0
	30~39세	(17)	56.8	12.2	24.8	6.3	.0	100.0
	40~49세	(19)	70.3	29.7	.0	.0	.0	100.0
	50~59세	(26)	81.7	18.3	.0	.0	.0	100.0
	60~65세	(5)	100.0	.0	.0	.0	.0	100.0
지역	서울	(19)	46.1	40.7	13.2	.0	.0	100.0
	경기/인천	(35)	84.9	.0	10.3	1.5	3.4	100.0
	대전/충청	(7)	83.8	7.9	.0	8.2	.0	100.0
	광주/전라	(7)	67.5	32.5	.0	.0	.0	100.0
	대구/경북	(3)	82.8	.0	.0	17.2	.0	100.0
	부산/울산/경남	(3)	36.8	63.2	.0	.0	.0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2)	75.0	25.0	.0	.0	.0	100.0
	대도시	(52)	70.0	16.3	10.5	1.0	2.2	100.0
	중소도시	(23)	72.4	20.1	2.8	4.8	.0	100.0
	읍/면	(1)	100.0	.0	.0	.0	.0	100.0
직업	자영업	(11)	100.0	.0	.0	.0	.0	100.0
	블루칼러	(24)	71.6	9.5	18.9	.0	.0	100.0
	화이트칼러	(24)	70.1	16.4	6.9	6.7	.0	100.0
	전업주부	(14)	49.9	50.1	.0	.0	.0	100.0
	학생	(2)	50.0	.0	.0	.0	50.0	100.0
	기타/무직	(1)	100.0	.0	.0	.0	.0	100.0
결혼여부	결혼	(54)	75.9	19.1	3.0	2.0	.0	100.0
	미혼	(22)	59.6	12.3	20.3	2.5	5.3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0)	71.0	25.1	1.3	2.6	.0	100.0
	비봉사	(36)	71.5	8.2	15.6	1.5	3.2	100.0
교회 직분	종직자	(6)	73.6	8.9	8.8	8.8	.0	100.0
	서리집사	(26)	60.9	37.0	.0	2.0	.0	100.0
	일반성도	(44)	77.0	6.4	12.7	1.3	2.6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7)	45.9	15.8	38.3	.0	.0	100.0
	50-99명	(10)	55.5	4.5	18.5	10.2	11.3	100.0
	100-299명	(18)	91.9	5.0	.0	3.1	.0	100.0
	300-499명	(6)	100.0	.0	.0	.0	.0	100.0
	500명 이상	(36)	65.7	29.7	4.6	.0	.0	100.0
교단	장로교(합동)	(19)	59.7	27.9	12.4	.0	.0	100.0
	장로교(통합)	(26)	82.9	10.6	4.5	2.0	.0	100.0
	기타 장로교	(5)	100.0	.0	.0	.0	.0	100.0
	기타 교단	(20)	62.1	22.1	13.0	2.7	.0	100.0
	잘 모름	(6)	61.8	9.3	.0	9.3	19.6	100.0
신앙단계	1단계	(18)	80.2	9.1	10.7	.0	.0	100.0
	2단계	(27)	74.1	12.6	11.3	2.0	.0	100.0
	3단계	(10)	75.6	7.1	6.0	.0	11.2	100.0
	4단계	(21)	57.6	34.8	2.5	5.1	.0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2)	70.3	17.4	8.5	2.2	1.6	100.0
	여성	(4)	87.0	13.0	.0	.0	.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1)	60.4	8.2	20.9	5.0	5.4	100.0
	중도	(29)	83.1	13.5	1.7	1.8	.0	100.0
	진보	(25)	66.5	28.9	4.6	.0	.0	100.0

[표] 짚은 성적 농담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짚은 성적 농담 피해 직간접 경험자, n=27, %)

		사례 수	일반교인	장로 등교회 중직자	기타	목사/교역자	청년부 리더	계
■ 전체 ■		(27)	78.6	11.5	4.4	3.5	2.0	100.0
성별	남성	(17)	78.2	12.0	6.7	.0	3.1	100.0
	여성	(9)	79.3	10.6	.0	10.1	.0	100.0
연령	19~29세	(4)	30.0	12.1	30.0	13.7	14.1	100.0
	30~39세	(9)	77.6	17.9	.0	4.5	.0	100.0
	40~49세	(6)	91.9	8.1	.0	.0	.0	100.0
	50~59세	(7)	93.6	6.4	.0	.0	.0	100.0
지역	서울	(9)	79.5	16.2	.0	4.3	.0	100.0
	경기/인천	(9)	69.4	5.3	13.1	6.0	6.1	100.0
	대전/충청	(2)	76.6	23.4	.0	.0	.0	100.0
	광주/전라	(2)	100.0	.0	.0	.0	.0	100.0
	대구/경북	(1)	59.5	40.5	.0	.0	.0	100.0
	부산/울산/경남	(2)	100.0	.0	.0	.0	.0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1)	100.0	.0	.0	.0	.0	100.0
	대도시	(21)	77.6	12.2	5.6	2.0	2.6	100.0
	중소도시	(6)	80.9	9.7	.0	9.4	.0	100.0
	읍/면	(0)	100.0	.0	.0	.0	.0	100.0
직업	자영업	(4)	100.0	.0	.0	.0	.0	100.0
	블루컬러	(13)	100.0	.0	.0	.0	.0	100.0
	화이트컬러	(7)	33.3	45.0	.0	13.8	8.0	100.0
	학생	(2)	50.0	.0	50.0	.0	.0	100.0
결혼여부	결혼	(14)	77.9	15.1	.0	6.9	.0	100.0
	미혼	(13)	79.2	7.8	8.9	.0	4.2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17)	82.8	8.7	.0	5.4	3.1	100.0
	비봉사	(9)	70.8	16.8	12.4	.0	.0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2)	52.1	23.4	.0	.0	24.4	100.0
	서리집사	(9)	94.2	.0	.0	5.8	.0	100.0
	일반성도	(15)	73.1	16.7	7.6	2.7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3)	83.4	16.6	.0	.0	.0	100.0
	50-99명	(3)	.0	36.9	43.3	19.8	.0	100.0
	100-299명	(5)	78.6	21.4	.0	.0	.0	100.0
	300-499명	(3)	79.7	.0	.0	.0	20.3	100.0
	500명 이상	(13)	92.9	4.1	.0	3.1	.0	100.0
교단	장로교(합동)	(6)	71.2	22.4	.0	6.3	.0	100.0
	장로교(통합)	(10)	89.5	5.1	.0	.0	5.4	100.0
	기타 장로교	(1)	100.0	.0	.0	.0	.0	100.0
	기타 교단	(7)	85.6	7.4	.0	7.1	.0	100.0
	잘 모름	(2)	.0	32.2	67.8	.0	.0	100.0
신앙단계	1단계	(6)	81.3	18.7	.0	.0	.0	100.0
	2단계	(10)	85.3	14.7	.0	.0	.0	100.0
	3단계	(3)	50.4	.0	36.6	13.0	.0	100.0
	4단계	(8)	79.3	6.8	.0	6.9	7.1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27)	78.6	11.5	4.4	3.5	2.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9)	68.7	17.9	13.4	.0	.0	100.0
	중도	(8)	80.8	5.8	.0	6.6	6.8	100.0
	진보	(10)	85.3	10.6	.0	4.1	.0	100.0

[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피해 직간접 경험자, n=88, %)

		사례 수	일반교인	장로 등교회 중직자	청년부 리더	목사/교역자	기타	계
■ 전체 ■		(88)	69.5	11.7	8.0	7.0	4.0	100.0
성별	남성	(37)	75.2	14.3	2.8	3.0	4.8	100.0
	여성	(51)	65.3	9.8	11.7	9.9	3.3	100.0
연령	19~29세	(15)	65.2	.0	7.0	10.9	17.0	100.0
	30~39세	(25)	72.7	14.6	4.1	6.0	2.5	100.0
	40~49세	(21)	49.0	25.8	12.5	12.7	.0	100.0
	50~59세	(21)	80.6	5.3	10.8	1.6	1.8	100.0
	60~65세	(6)	100.0	.0	.0	.0	.0	100.0
지역	서울	(25)	62.3	13.8	1.7	16.8	5.3	100.0
	경기/인천	(30)	75.5	7.0	10.9	2.8	3.8	100.0
	대전/충청	(7)	63.8	15.4	8.1	7.5	5.1	100.0
	광주/전라	(11)	67.4	27.0	.0	.0	5.6	100.0
	대구/경북	(3)	87.3	.0	12.7	.0	.0	100.0
	부산/울산/경남	(8)	62.8	6.7	23.8	6.7	.0	100.0
	강원/제주	(3)	100.0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63)	68.3	10.6	8.4	8.1	4.6	100.0
	중소도시	(20)	78.8	5.3	7.3	5.5	3.2	100.0
	읍/면	(6)	49.4	44.8	5.8	.0	.0	100.0
직업	자영업	(14)	84.2	.0	15.8	.0	.0	100.0
	블루컬러	(16)	84.2	15.8	.0	.0	.0	100.0
	화이트컬러	(29)	64.2	11.0	9.6	11.8	3.4	100.0
	전업주부	(18)	49.4	24.9	10.8	14.9	.0	100.0
	학생	(8)	67.6	.0	.0	.0	32.4	100.0
결혼여부	결혼	(56)	65.6	13.8	11.8	8.1	.7	100.0
	미혼	(32)	76.1	8.0	1.3	5.0	9.7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54)	72.6	4.9	7.7	10.4	4.3	100.0
	비봉사	(35)	64.6	22.1	8.4	1.6	3.4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7)	49.4	24.9	20.1	.0	5.5	100.0
	서리집사	(37)	74.5	7.8	6.5	11.3	.0	100.0
	일반성도	(45)	68.4	12.8	7.3	4.5	6.9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4)	69.9	13.5	.0	.0	16.6	100.0
	50-99명	(15)	77.4	.0	.0	6.5	16.1	100.0
	100-299명	(13)	91.5	.0	.0	8.5	.0	100.0
	300-499명	(12)	51.8	39.1	6.3	2.8	.0	100.0
	500명 이상	(44)	64.7	11.7	14.4	8.4	.9	100.0
교단	장로교(합동)	(20)	77.7	13.5	4.3	4.5	.0	100.0
	장로교(통합)	(30)	78.1	3.5	4.1	11.0	3.3	100.0
	기타 장로교	(8)	70.4	.0	23.1	6.5	.0	100.0
	기타 교단	(22)	67.8	18.6	3.4	4.0	6.2	100.0
	잘 모름	(8)	22.9	30.2	26.7	6.5	13.7	100.0
신앙단계	1단계	(13)	88.1	11.9	.0	.0	.0	100.0
	2단계	(34)	63.3	20.9	6.7	4.0	5.0	100.0
	3단계	(17)	72.7	3.2	8.4	9.0	6.7	100.0
	4단계	(24)	66.0	4.6	13.5	13.3	2.6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83)	70.1	12.4	7.8	6.3	3.5	100.0
	여성	(5)	60.3	.0	11.0	17.2	11.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4)	71.2	2.5	14.1	4.8	7.5	100.0
	중도	(33)	71.5	13.6	6.8	3.0	5.1	100.0
	진보	(31)	66.0	16.6	4.5	12.9	.0	100.0

[표]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피해
직간접 경험자, n=26, %)

		사례 수	일반교인	청년부 리더	장로 등교회 중직자	기타	목사/교역자	계
■ 전체 ■		(26)	73.6	11.4	6.5	4.5	4.0	100.0
성별	남성	(16)	71.7	7.2	10.6	7.4	3.1	100.0
	여성	(10)	76.6	18.1	.0	.0	5.3	100.0
연령	19~29세	(3)	47.9	.0	.0	35.8	16.3	100.0
	30~39세	(8)	79.4	7.7	6.8	.0	6.1	100.0
	40~49세	(6)	52.7	38.7	8.5	.0	.0	100.0
	50~59세	(8)	92.8	.0	7.2	.0	.0	100.0
지역	서울	(6)	74.0	8.8	8.8	.0	8.5	100.0
	경기/인천	(13)	81.9	4.9	.0	9.1	4.2	100.0
	대전/충청	(3)	19.9	60.1	20.1	.0	.0	100.0
	부산/울산/경남	(3)	82.2	.0	17.8	.0	.0	100.0
	강원/제주	(1)	100.0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9)	83.1	2.7	5.6	6.1	2.6	100.0
	중소도시	(6)	36.2	43.5	10.8	.0	9.5	100.0
	읍/면	(1)	100.0	.0	.0	.0	.0	100.0
직업	자영업	(5)	100.0	.0	.0	.0	.0	100.0
	블루칼러	(7)	74.0	26.0	.0	.0	.0	100.0
	화이트칼러	(9)	58.7	12.3	18.0	.0	11.1	100.0
	전업주부	(2)	100.0	.0	.0	.0	.0	100.0
	학생	(1)	.0	.0	.0	100.0	.0	100.0
결혼여부	결혼	(17)	69.6	17.4	9.8	.0	3.1	100.0
	미혼	(9)	81.2	.0	.0	13.2	5.6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16)	68.8	14.5	10.4	.0	6.4	100.0
	비봉사	(10)	81.6	6.4	.0	12.0	.0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3)	56.4	.0	43.6	.0	.0	100.0
	서리집사	(6)	60.9	30.2	.0	.0	8.9	100.0
	일반성도	(17)	80.7	6.6	3.0	6.8	2.9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1)	51.9	.0	48.1	.0	.0	100.0
	50-99명	(2)	.0	.0	.0	68.6	31.4	100.0
	100-299명	(5)	100.0	.0	.0	.0	.0	100.0
	300-499명	(2)	22.7	77.3	.0	.0	.0	100.0
	500명 이상	(16)	82.3	7.2	7.3	.0	3.1	100.0
교단	장로교(합동)	(10)	84.5	5.2	5.2	.0	5.0	100.0
	장로교(통합)	(10)	87.5	6.4	6.1	.0	.0	100.0
	기타 교단	(4)	26.0	46.3	14.1	.0	13.6	100.0
	잘 모름	(2)	48.2	.0	.0	51.8	.0	100.0
신앙단계	1단계	(4)	74.0	13.0	13.0	.0	.0	100.0
	2단계	(7)	76.0	24.0	.0	.0	.0	100.0
	3단계	(7)	67.2	8.8	7.7	16.3	.0	100.0
	4단계	(7)	77.3	.0	8.4	.0	14.3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22)	69.0	13.4	7.6	5.3	4.7	100.0
	여성	(4)	100.0	.0	.0	.0	.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0)	63.5	18.5	6.2	11.9	.0	100.0
	중도	(7)	84.3	7.7	.0	.0	8.0	100.0
	진보	(9)	76.6	6.7	11.4	.0	5.3	100.0

[표] 가벼운 신체 접촉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가벼운 신체 접촉 피해 직간접 경험자, n=180, %)

		사례 수	일반교인	장로 등교회 중직자	목사/교역자	청년부 리더	기타	계
■ 전체 ■		(180)	61.4	18.0	11.7	5.7	3.2	100.0
성별	남성	(83)	60.9	23.3	6.5	7.9	1.4	100.0
	여성	(97)	61.9	13.5	16.2	3.7	4.7	100.0
연령	19~29세	(38)	59.0	6.6	18.0	8.6	7.7	100.0
	30~39세	(31)	63.1	13.1	16.4	7.4	.0	100.0
	40~49세	(37)	46.5	23.1	19.9	5.7	4.8	100.0
	50~59세	(51)	67.9	22.3	3.2	4.9	1.8	100.0
	60~65세	(22)	73.6	26.4	.0	.0	.0	100.0
지역	서울	(43)	59.9	20.6	13.5	2.9	3.1	100.0
	경기/인천	(64)	62.1	19.1	9.2	7.3	2.3	100.0
	대전/충청	(19)	66.6	8.8	17.2	5.7	1.8	100.0
	광주/전라	(18)	70.7	24.2	2.6	.0	2.5	100.0
	대구/경북	(14)	71.3	6.9	21.9	.0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46.7	21.4	12.6	17.3	2.0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5)	40.7	22.8	.0	.0	36.6	100.0
	대도시	(113)	58.4	21.3	9.9	7.2	3.1	100.0
	중소도시	(53)	60.3	15.7	16.1	3.9	4.0	100.0
	읍/면	(13)	91.1	.0	8.9	.0	.0	100.0
직업	자영업	(26)	87.4	12.6	.0	.0	.0	100.0
	블루컬러	(29)	44.9	28.5	11.7	8.6	6.2	100.0
	화이트컬러	(62)	57.8	21.8	12.8	5.4	2.2	100.0
	전업주부	(32)	65.1	19.9	8.4	6.6	.0	100.0
	학생	(18)	57.2	.0	22.4	6.5	13.9	100.0
	기타/무직	(8)	50.3	.0	36.7	13.1	.0	100.0
결혼여부	결혼	(122)	64.5	19.4	7.8	6.7	1.7	100.0
	미혼	(58)	55.0	15.3	20.0	3.6	6.2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100)	60.0	19.6	12.7	3.2	4.5	100.0
	비봉사	(79)	63.2	16.0	10.4	8.8	1.5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16)	47.3	32.2	14.7	3.8	2.0	100.0
	서리집사	(72)	60.9	20.0	12.8	3.0	3.3	100.0
	일반성도	(91)	64.4	13.9	10.3	8.2	3.2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15)	65.6	11.1	6.3	17.0	.0	100.0
	50-99명	(21)	56.8	21.7	7.1	.0	14.4	100.0
	100-299명	(37)	74.2	10.0	10.1	3.2	2.5	100.0
	300-499명	(26)	38.6	38.4	23.0	.0	.0	100.0
	500명 이상	(82)	63.3	15.6	11.0	7.9	2.2	100.0
교단	장로교(합동)	(45)	54.9	26.3	7.5	9.0	2.3	100.0
	장로교(통합)	(51)	75.2	7.4	12.5	4.9	.0	100.0
	기타 장로교	(19)	71.4	24.1	4.5	.0	.0	100.0
	기타 교단	(47)	47.1	22.1	15.7	7.7	7.3	100.0
	잘 모름	(17)	66.5	9.5	17.2	.0	6.8	100.0
신앙단계	1단계	(33)	63.6	12.9	10.5	13.0	.0	100.0
	2단계	(66)	57.3	27.3	10.8	1.9	2.7	100.0
	3단계	(36)	62.5	18.0	4.3	6.0	9.2	100.0
	4단계	(46)	65.0	8.5	19.5	5.6	1.4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168)	60.3	19.0	12.3	6.1	2.3	100.0
	여성	(12)	77.4	4.6	2.8	.0	15.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7)	63.2	7.7	14.2	11.2	3.8	100.0
	중도	(67)	58.6	21.6	11.5	5.5	2.7	100.0
	진보	(65)	63.0	21.8	10.1	1.9	3.2	100.0

[표] 심한 신체 접촉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심한 신체 접촉 피해 직간접 경험자, n=17, %)

		사례 수	일반교인	청년부 리더	목사/교역자	기타	장로 등교회 중직자	계
■ 전체 ■		(17)	59.7	17.3	10.5	6.8	5.7	100.0
성별	남성	(13)	63.6	23.3	.0	9.1	4.0	100.0
	여성	(4)	48.6	.0	40.9	.0	10.5	100.0
연령	19~29세	(5)	.0	63.6	11.4	25.0	.0	100.0
	30~39세	(5)	74.3	.0	17.2	.0	8.5	100.0
	40~49세	(3)	80.7	.0	.0	.0	19.3	100.0
	50~59세	(4)	91.5	.0	8.5	.0	.0	100.0
	60~65세	(1)	100.0	.0	.0	.0	.0	100.0
지역	서울	(6)	49.8	41.4	.0	.0	8.7	100.0
	경기/인천	(7)	63.8	7.5	12.9	15.9	.0	100.0
	광주/전라	(1)	100.0	.0	.0	.0	.0	100.0
	대구/경북	(1)	.0	.0	100.0	.0	.0	100.0
	부산/울산/경남	(2)	100.0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6)	64.7	18.8	5.9	7.4	3.2	100.0
	중소도시	(1)	.0	.0	53.5	.0	46.5	100.0
	읍/면	(0)	.0	.0	100.0	.0	.0	100.0
직업	자영업	(4)	100.0	.0	.0	.0	.0	100.0
	블루컬러	(5)	54.6	45.4	.0	.0	.0	100.0
	화이트컬러	(5)	33.1	11.0	36.3	.0	19.6	100.0
	전업주부	(2)	100.0	.0	.0	.0	.0	100.0
	학생	(1)	.0	.0	.0	100.0	.0	100.0
결혼여부	결혼	(9)	70.7	.0	19.0	.0	10.3	100.0
	미혼	(8)	46.2	38.6	.0	15.2	.0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8)	61.0	6.4	21.1	.0	11.4	100.0
	비봉사	(9)	58.5	28.0	.0	13.5	.0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1)	.0	39.0	61.0	.0	.0	100.0
	서리집사	(4)	77.0	.0	23.0	.0	.0	100.0
	일반성도	(12)	60.9	20.8	.0	10.0	8.3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1)	.0	.0	.0	.0	100.0	100.0
	50-99명	(5)	.0	52.2	22.7	25.1	.0	100.0
	100-299명	(0)	.0	.0	.0	.0	100.0	100.0
	300-499명	(1)	.0	62.2	37.8	.0	.0	100.0
	500명 이상	(11)	96.1	.0	3.9	.0	.0	100.0
교단	장로교(합동)	(4)	77.4	.0	10.1	.0	12.5	100.0
	장로교(통합)	(11)	67.0	28.1	4.9	.0	.0	100.0
	기타 교단	(1)	.0	.0	65.2	.0	34.8	100.0
	잘 모름	(1)	.0	.0	.0	100.0	.0	100.0
신앙단계	1단계	(6)	49.8	41.4	.0	.0	8.7	100.0
	2단계	(2)	71.3	.0	.0	.0	28.7	100.0
	3단계	(3)	64.8	.0	.0	35.2	.0	100.0
	4단계	(6)	63.3	8.6	28.2	.0	.0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17)	61.4	17.8	10.8	7.0	3.1	100.0
	여성	(0)	.0	.0	.0	.0	10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	55.9	.0	13.7	30.4	.0	100.0
	중도	(8)	53.5	34.9	6.2	.0	5.4	100.0
	진보	(5)	73.9	.0	15.5	.0	10.6	100.0

[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직간접
경험자, n=44, %)

		사례수	일반교인	청년부 리더	장로 등교회 중직자	목사/교역자	계
■ 전체 ■		(44)	65.8	15.5	13.6	5.2	100.0
성별	남성	(23)	63.5	27.6	4.3	4.6	100.0
	여성	(21)	68.3	2.2	23.8	5.7	100.0
연령	19~29세	(9)	95.3	.0	4.7	.0	100.0
	30~39세	(13)	58.3	27.1	4.1	10.6	100.0
	40~49세	(13)	36.3	20.5	39.2	4.0	100.0
	50~59세	(8)	89.3	6.6	.0	4.1	100.0
	60~65세	(1)	100.0	.0	.0	.0	100.0
지역	서울	(22)	59.9	23.5	14.3	2.3	100.0
	경기/인천	(14)	69.6	8.4	16.6	5.4	100.0
	대전/충청	(3)	100.0	.0	.0	.0	100.0
	광주/전라	(1)	100.0	.0	.0	.0	100.0
	대구/경북	(1)	100.0	.0	.0	.0	100.0
	부산/울산/경남	(1)	31.7	.0	.0	68.3	100.0
	강원/제주	(1)	45.5	.0	54.5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36)	63.8	16.0	15.2	5.1	100.0
	중소도시	(8)	74.5	13.2	6.7	5.6	100.0
직업	자영업	(9)	73.5	.0	26.5	.0	100.0
	블루컬러	(14)	64.0	36.0	.0	.0	100.0
	화이트컬러	(15)	67.5	10.8	6.6	15.1	100.0
	전업주부	(5)	42.0	.0	58.0	.0	100.0
	학생	(1)	100.0	.0	.0	.0	100.0
결혼여부	결혼	(25)	53.5	17.0	22.2	7.3	100.0
	미혼	(19)	81.8	13.5	2.3	2.4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25)	73.8	4.0	13.1	9.1	100.0
	비봉사	(19)	55.3	30.5	14.2	.0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2)	68.5	.0	.0	31.5	100.0
	서리집사	(10)	55.8	5.2	31.8	7.2	100.0
	일반성도	(32)	68.8	19.7	8.5	3.1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4)	15.2	70.7	.0	14.1	100.0
	50-99명	(2)	100.0	.0	.0	.0	100.0
	100-299명	(6)	76.6	7.3	8.7	7.3	100.0
	300-499명	(4)	92.1	.0	.0	7.9	100.0
	500명 이상	(27)	62.9	13.8	19.8	3.5	100.0
교단	장로교(합동)	(8)	82.5	.0	5.6	12.0	100.0
	장로교(통합)	(20)	83.0	3.2	13.8	.0	100.0
	기타 교단	(10)	48.1	37.0	5.7	9.2	100.0
	잘 모름	(7)	22.4	37.9	32.9	6.7	100.0
신앙단계	1단계	(7)	77.8	.0	8.0	14.2	100.0
	2단계	(19)	54.3	29.7	14.2	1.7	100.0
	3단계	(6)	69.4	20.7	.0	9.9	100.0
	4단계	(12)	74.9	.0	21.8	3.3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41)	65.2	15.5	14.6	4.7	100.0
	여성	(3)	73.6	15.4	.0	11.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	64.2	30.7	5.1	.0	100.0
	중도	(21)	82.0	2.2	13.5	2.2	100.0
	진보	(15)	43.6	25.6	18.5	12.3	100.0

[표]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Base=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피해 직간접 경험자, n=16, %)

		사례수	일반교인	장로 등교회 중직자	목사/교역자	계
■ 전체 ■		(16)	91.2	6.8	2.1	100.0
성별	남성	(13)	95.7	4.3	.0	100.0
	여성	(3)	71.5	17.5	11.1	100.0
연령	19~29세	(2)	100.0	.0	.0	100.0
	30~39세	(8)	86.0	14.0	.0	100.0
	40~49세	(2)	100.0	.0	.0	100.0
	50~59세	(4)	91.5	.0	8.5	100.0
	60~65세	(1)	100.0	.0	.0	100.0
지역	서울	(5)	100.0	.0	.0	100.0
	경기/인천	(6)	100.0	.0	.0	100.0
	광주/전라	(1)	100.0	.0	.0	100.0
	대구/경북	(1)	.0	100.0	.0	100.0
	부산/울산/경남	(3)	79.5	20.5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6)	93.1	6.9	.0	100.0
	읍/면	(0)	.0	.0	100.0	100.0
직업	자영업	(4)	100.0	.0	.0	100.0
	블루컬러	(5)	100.0	.0	.0	100.0
	화이트컬러	(4)	60.8	29.9	9.2	100.0
	전업주부	(2)	100.0	.0	.0	100.0
	학생	(1)	100.0	.0	.0	100.0
결혼여부	결혼	(9)	84.8	11.6	3.6	100.0
	미혼	(7)	100.0	.0	.0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7)	80.3	15.1	4.6	100.0
	비봉사	(9)	100.0	.0	.0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2)	28.0	55.1	17.0	100.0
	서리집사	(3)	100.0	.0	.0	100.0
	일반성도	(11)	100.0	.0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3)	100.0	.0	.0	100.0
	50-99명	(1)	.0	100.0	.0	100.0
	100-299명	(1)	100.0	.0	.0	100.0
	300-499명	(1)	62.2	.0	37.8	100.0
	500명 이상	(11)	94.9	5.1	.0	100.0
교단	장로교(합동)	(3)	100.0	.0	.0	100.0
	장로교(통합)	(8)	93.6	6.4	.0	100.0
	기타 교단	(5)	80.9	12.0	7.2	100.0
신앙단계	1단계	(4)	100.0	.0	.0	100.0
	2단계	(4)	100.0	.0	.0	100.0
	3단계	(3)	79.5	20.5	.0	100.0
	4단계	(5)	84.3	9.6	6.1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16)	91.2	6.8	2.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6)	91.8	8.2	.0	100.0
	중도	(5)	100.0	.0	.0	100.0
	진보	(4)	80.1	12.5	7.5	100.0

2.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 경험(개신교인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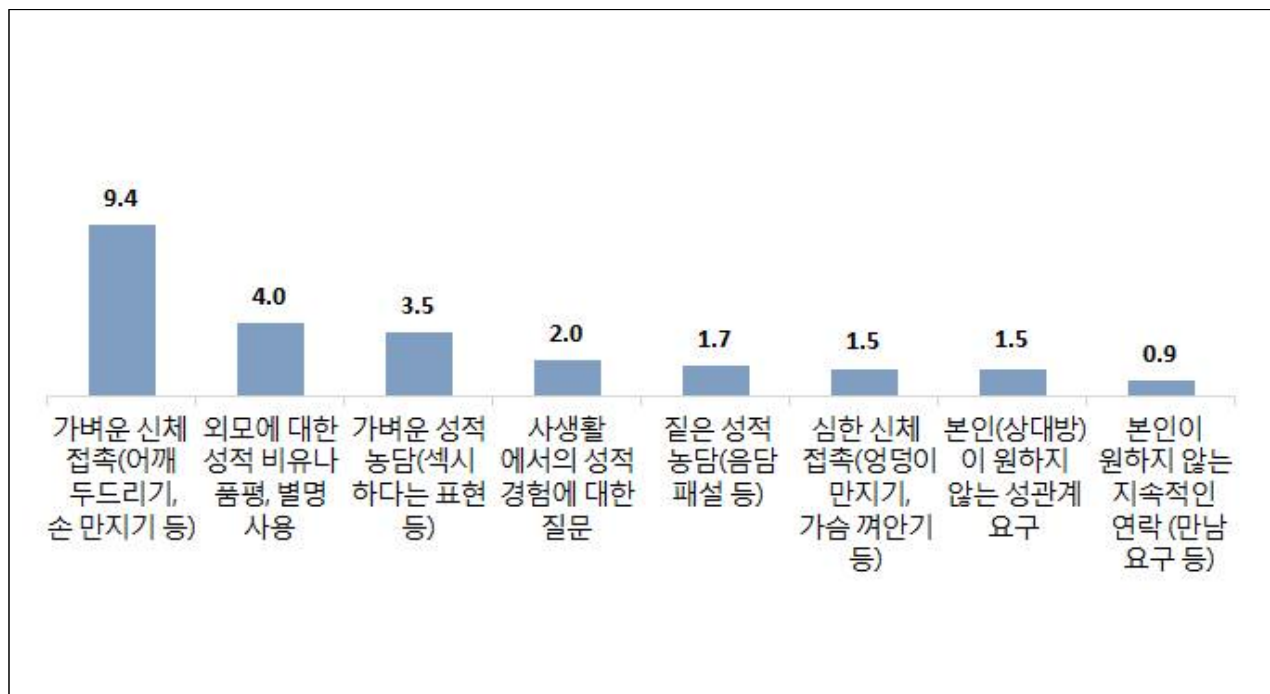
(개신교인) 그럼, 귀하는 최근 3년 동안 지난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본인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가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본인도 모르게 성희롱/성폭력 가해를 한 경험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피해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9.4%)
- 그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4.0%, '가벼운 성적 농담' 3.5%,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2.0%, '짙은 성적 농담' 1.7%, '심한 신체 접촉'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각 1.5%,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0.9%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 '가벼운 신체 접촉' 가해 경험률은 남성과 19~29세, 50~5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 경험(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표] 출석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 경험(개신교인 대상, '있음' 비율)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가벼운 성적 농담(색시 하다는 표현 등)	사생활에 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짙은 성적 농담(음담 패설 등)	심한 신체 접촉(영덩이 만지기, 가슴 껴안기 등)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만남 요구 등)
■ 전체 ■		(800)	9.4	4.0	3.5	2.0	1.7	1.5	1.5	.9
성별	남성	(354)	12.9	6.1	5.8	3.4	2.9	2.6	3.2	1.8
	여성	(446)	6.6	2.4	1.6	.8	.7	.6	.1	.2
연령	19~29세	(142)	11.7	6.3	4.5	2.3	1.4	1.5	1.1	.4
	30~39세	(150)	8.8	3.6	4.0	2.8	3.2	2.4	4.6	1.1
	40~49세	(194)	5.6	3.5	2.4	.3	1.4	1.4	.0	.3
	50~59세	(200)	13.9	5.3	4.4	4.0	2.0	1.8	1.8	2.3
	60~65세	(115)	5.9	.6	1.8	.0	.0	.0	.0	.0
지역	서울	(205)	10.0	2.2	2.0	1.7	2.1	1.5	2.8	.2
	경기/인천	(279)	12.1	6.7	4.8	2.8	2.0	1.9	1.7	1.7
	대전/충청	(67)	10.3	2.5	4.8	1.8	.0	.0	.0	1.8
	광주/전라	(86)	6.7	3.2	2.6	2.6	.5	.5	.5	.0
	대구/경북	(50)	3.9	1.5	2.7	1.1	1.1	1.1	1.1	.0
	부산/울산/경남	(76)	6.9	2.4	3.3	.0	3.5	3.5	.7	.7
	강원/제주	(32)	1.9	6.3	3.5	1.7	.0	.0	.0	.0
지역크기	대도시	(441)	10.6	5.1	4.4	2.5	3.1	2.7	2.7	1.3
	중소도시	(300)	9.2	2.8	2.6	1.7	.0	.0	.0	.6
	읍/면	(59)	1.3	2.3	.6	.0	.0	.0	.0	.0
직업	자영업	(96)	18.9	5.4	8.9	5.4	7.0	3.7	7.0	3.7
	블루컬러	(125)	10.6	7.0	3.8	3.8	.0	2.1	2.1	.0
	화이트컬러	(244)	8.6	4.7	3.2	1.9	1.4	1.0	.6	1.6
	전업주부	(198)	5.0	1.1	1.1	.0	1.1	1.1	.0	.0
	학생	(64)	12.3	5.8	5.8	1.8	1.8	1.8	1.8	.0
	기타/무직	(43)	5.7	.0	.0	.0	.0	.0	.0	.0
결혼여부	결혼	(586)	8.1	2.3	2.2	.8	1.4	.7	1.0	.7
	미혼	(214)	13.0	8.8	6.9	5.1	2.4	3.6	2.8	1.6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0.5	4.7	3.2	2.7	2.3	1.4	1.9	1.4
	비봉사	(368)	8.1	3.3	3.8	1.1	1.0	1.6	1.0	.3
교회 직분	종직자	(109)	3.9	2.1	2.3	2.6	1.0	1.5	1.0	1.6
	서리집사	(292)	8.7	2.3	3.4	1.0	1.8	.7	1.1	.0
	일반성도	(399)	11.4	5.9	3.9	2.6	1.8	2.1	1.9	1.4
교인 수	49명 이하	(95)	10.3	2.9	4.4	3.2	1.6	3.7	3.1	.5
	50-99명	(70)	13.3	9.8	4.4	2.4	7.0	2.4	5.3	.0
	100-299명	(145)	11.2	4.9	1.5	1.5	.3	.0	.8	.6
	300-499명	(93)	2.7	5.1	.0	.6	.0	.6	.0	.0
	500명 이상	(397)	9.4	2.7	4.6	2.1	1.7	1.6	1.0	1.5
교단	장로교(합동)	(213)	7.2	5.7	3.1	2.5	1.9	1.4	.2	.5
	장로교(통합)	(213)	11.4	4.7	5.4	3.0	1.9	2.2	1.9	2.5
	기타 장로교	(85)	5.0	1.1	1.5	.0	.0	.0	.0	.0
	기타 교단	(210)	13.7	3.1	3.0	1.5	1.8	1.5	3.6	.5
	잘 모름	(80)	3.5	3.4	2.7	1.5	2.1	1.5	.0	.0
신앙단계	1단계	(108)	8.0	6.4	4.5	1.0	.5	.5	1.1	.5
	2단계	(304)	7.8	2.4	1.6	1.5	1.5	1.0	2.0	.3
	3단계	(174)	11.5	4.3	5.6	.9	2.5	2.2	.3	.7
	4단계	(214)	10.7	5.1	3.9	4.0	1.9	2.1	1.9	2.2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9.7	3.6	3.6	1.8	1.7	1.6	1.6	.9
	여성	(63)	6.0	8.7	1.8	4.3	1.6	.0	.0	1.7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2.0	4.7	5.9	3.1	3.1	2.7	3.1	.7
	중도	(347)	6.5	3.1	1.8	.5	.4	.3	.1	.1
	진보	(214)	11.1	4.8	3.5	3.2	2.1	2.1	1.9	2.4

V.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질문

(목회자) 목사님이 속한 교단(총회)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목회자에게, 소속 교단(총회)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7.6%만이 '그렇다'(있다)고 응답했으며, 38.9%는 '아니다'(없다), 33.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 목회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비율은 통합교단에서 가장 높게 응답됐다.

[그림]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표]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27.6	38.9	33.4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30.3	36.1	33.6	100.0
	부목사	(66)	21.3	40.6	38.0	100.0
	설교/협력목사	(16)	31.9	55.5	12.6	100.0
성별	남성	(207)	27.8	39.6	32.7	100.0
	여성	(5)	21.0	11.1	67.9	100.0
연령	39세 이하	(46)	21.3	40.4	38.3	100.0
	40~49세	(45)	26.1	34.1	39.8	100.0
	50~59세	(72)	27.0	33.3	39.7	100.0
	60세 이상	(50)	35.7	50.0	14.3	100.0
지역	서울	(57)	30.2	36.9	32.8	100.0
	경기/인천	(59)	21.2	46.3	32.5	100.0
	대전/충청	(25)	19.1	42.6	38.3	100.0
	광주/전라	(23)	35.8	35.4	28.8	100.0
	대구/경북	(12)	23.9	31.2	44.9	100.0
	부산/울산/경남	(15)	28.5	37.2	34.2	100.0
	강원/제주	(15)	35.6	27.8	36.5	100.0
	해외	(7)	52.3	31.0	16.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27.0	39.3	33.7	100.0
	중소도시	(77)	23.1	40.4	36.5	100.0
	읍/면	(32)	40.8	34.1	25.1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26.6	29.8	43.6	100.0
	50-99명	(41)	22.0	52.3	25.8	100.0
	100-199명	(26)	21.4	22.9	55.7	100.0
	200-499명	(44)	47.6	34.0	18.5	100.0
	500명 이상	(47)	18.5	51.4	30.1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18.6	51.1	30.2	100.0
	장로교(통합)	(53)	57.8	13.6	28.6	100.0
	기타 장로교	(29)	17.6	49.3	33.1	100.0
	기타 교단	(76)	17.0	43.8	39.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18.6	44.1	37.3	100.0
	중도	(66)	29.5	41.7	28.7	100.0
	진보	(66)	36.7	29.8	33.5	100.0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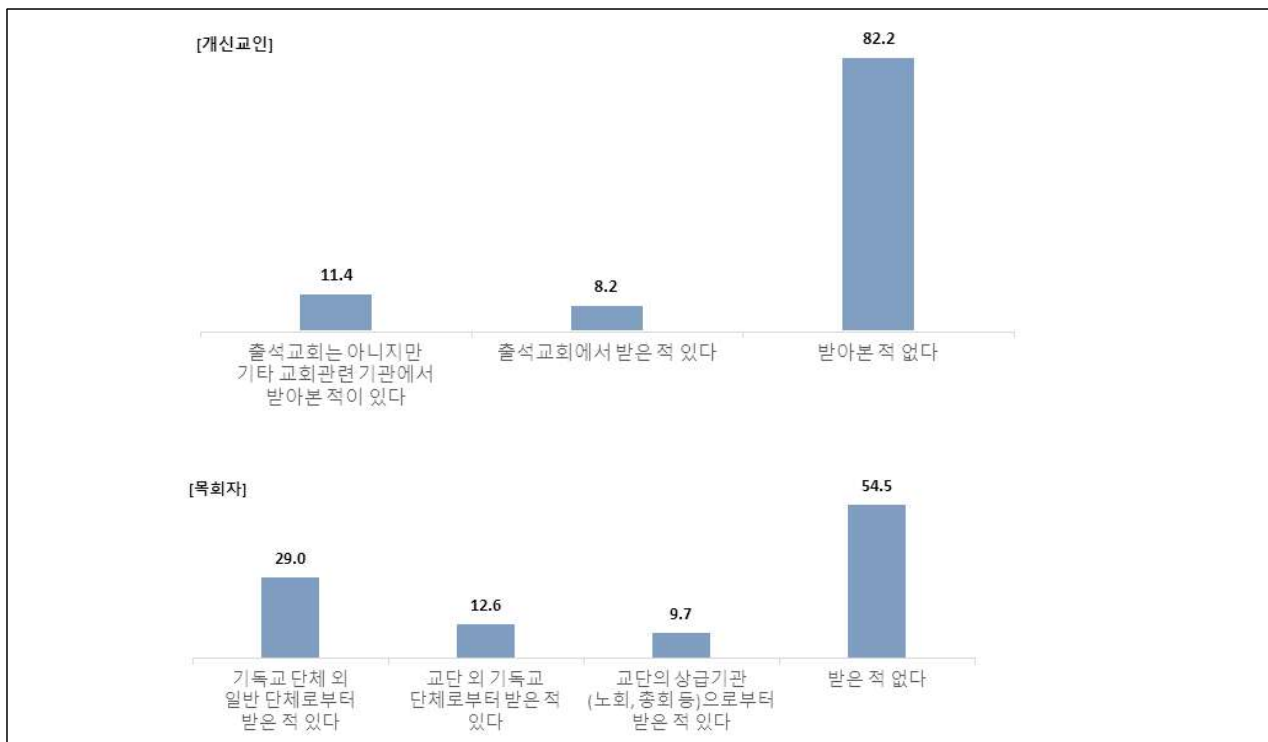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는 출석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 목사님은 그동안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개신교인에게 출석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82.2%가 '없다'고 응답했다. '출석교회'에서 받은 비율은 8.2%, '출석교회 외 관련 기관'에서 받은 비율은 11.4%였다.
- 목회자에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54.5%가 '없다'고 응답하여 개신교인보다는 높은 교육 경험률을 보였다. 목회자 중 '교단의 상급기관'에서 받은 비율은 9.7%, '교단 외 기독교 단체'에서 받은 비율은 12.6%인데 반해 '기독교 단체 외 일반 단체'에서 받은 비율은 그 두 배 이상인 29.0%로 응답됐다.
- 개신교인 중 남성은 '교회 관련 기관에서 받은 경험'과 '출석교회에서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받은 적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인 수 300명 이상 교회와 합동교단 및 통합교단에 속한 개신교인에서 '출석교회에서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목회자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목회자는 '일반 단체'에서 받은 경험률이 높았고, 40대 이상부터는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교단의 상급기관'에서 받은 경험률은 합동교단과 통합교단 목회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중복응답)

(Base=전체, n=개신교인800,목회자212, %)



[표] 교회 및 기독교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중복응답, 개신교인 대상)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수	출석교회는 아니지만 기타 교회관련 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다	출석교회에서 받은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 전체 ■		(800)	11.4	8.2	82.2
성별	남성	(354)	14.1	11.5	77.8
	여성	(446)	9.3	5.6	85.7
연령	19~29세	(142)	11.8	12.5	77.3
	30~39세	(150)	12.8	5.9	83.1
	40~49세	(194)	9.0	6.2	86.8
	50~59세	(200)	13.2	13.0	76.7
	60~65세	(115)	10.0	1.1	89.0
지역	서울	(205)	10.2	4.7	85.4
	경기/인천	(279)	8.7	9.5	83.2
	대전/충청	(67)	12.6	14.4	73.0
	광주/전라	(86)	18.2	9.2	78.7
	대구/경북	(50)	9.3	4.5	90.7
	부산/울산/경남	(76)	15.5	8.0	79.6
	강원/제주	(32)	13.4	9.7	76.9
지역크기	대도시	(441)	11.3	8.7	81.8
	중소도시	(300)	9.8	8.1	83.6
	읍/면	(59)	20.4	5.6	78.0
직업	자영업	(96)	17.0	9.3	77.4
	블루컬러	(125)	19.9	11.2	74.4
	화이트컬러	(244)	11.3	8.8	81.2
	전업주부	(198)	3.8	2.0	94.2
	학생	(64)	13.3	17.7	71.1
	기타/무직	(43)	6.7	5.6	87.6
결혼여부	결혼	(586)	10.7	6.4	83.7
	미혼	(214)	13.5	13.3	78.1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14.2	10.7	77.1
	비봉사	(368)	8.2	5.3	88.2
교회 직분	중직자	(109)	12.1	14.9	74.0
	서리집사	(292)	10.6	4.6	85.8
	일반성도	(399)	11.8	9.1	81.8
교인 수	49명 이하	(95)	19.4	5.2	75.9
	50-99명	(70)	18.3	6.0	76.5
	100-299명	(145)	6.4	5.4	88.2
	300-499명	(93)	10.8	12.0	80.7
	500명 이상	(397)	10.3	9.5	82.9
교단	장로교(합동)	(213)	13.9	9.2	81.1
	장로교(통합)	(213)	10.3	9.5	82.3
	기타 장로교	(85)	12.0	5.2	84.4
	기타 교단	(210)	12.6	7.2	80.2
	잘 모름	(80)	4.2	8.3	87.5
신앙단계	1단계	(108)	5.6	3.3	92.8
	2단계	(304)	9.6	7.5	84.6
	3단계	(174)	16.7	7.3	76.4
	4단계	(214)	12.7	12.5	78.1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11.2	7.9	82.6
	여성	(63)	13.5	11.8	77.3
정치적 성향	보수	(238)	14.8	6.6	79.6
	중도	(347)	8.7	8.8	83.5
	진보	(214)	12.0	9.3	82.9

[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중복응답, 목사대상)

(Base=목사, n=212, %)

		사례수	기독교 단체 외 일반 단체로부터 받은 적 있다	교단 외 기독교 단체로부터 받은 적 있다	교단의 상급기관(노회, 총회 등)으로부터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 전체 ■		(212)	29.0	12.6	9.7	54.5
구분	담임목사	(130)	26.7	10.9	8.4	59.2
	부목사	(66)	31.4	15.7	9.1	51.4
	설교/협력목사	(16)	38.4	13.7	22.5	28.7
성별	남성	(207)	29.2	12.9	9.4	54.4
	여성	(5)	22.2	.0	21.0	56.8
연령	39세 이하	(46)	38.3	19.1	10.6	38.3
	40~49세	(45)	28.4	17.0	11.4	51.1
	50~59세	(72)	23.8	9.5	4.8	65.1
	60세 이상	(50)	28.6	7.1	14.3	57.1
지역	서울	(57)	26.6	17.4	13.3	48.8
	경기/인천	(59)	16.7	11.2	7.7	66.2
	대전/충청	(25)	29.0	8.7	12.5	56.4
	광주/전라	(23)	59.3	17.5	7.1	31.5
	대구/경북	(12)	35.1	8.3	4.4	52.2
	부산/울산/경남	(15)	38.4	17.5	13.3	40.7
	강원/제주	(15)	39.1	3.5	7.8	57.4
	해외	(7)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25.2	16.9	13.3	50.9
	중소도시	(77)	22.8	6.7	4.7	67.1
	읍/면	(32)	56.6	12.9	9.9	35.5
교인 수	49명 이하	(54)	17.5	6.9	7.6	67.9
	50-99명	(41)	42.3	15.1	8.0	52.5
	100-199명	(26)	19.1	11.4	5.7	71.4
	200-499명	(44)	34.4	12.0	12.5	43.3
	500명 이상	(47)	31.1	18.3	13.0	41.9
교단	장로교(합동)	(54)	32.4	18.5	13.2	48.0
	장로교(통합)	(53)	37.2	9.7	13.0	43.2
	기타 장로교	(29)	23.6	16.4	8.6	60.0
	기타 교단	(76)	23.0	9.1	5.3	64.8
정치적 성향	보수	(80)	19.3	13.0	12.9	59.5
	중도	(66)	38.1	12.2	9.9	48.2
	진보	(66)	31.7	12.6	5.5	54.7

3.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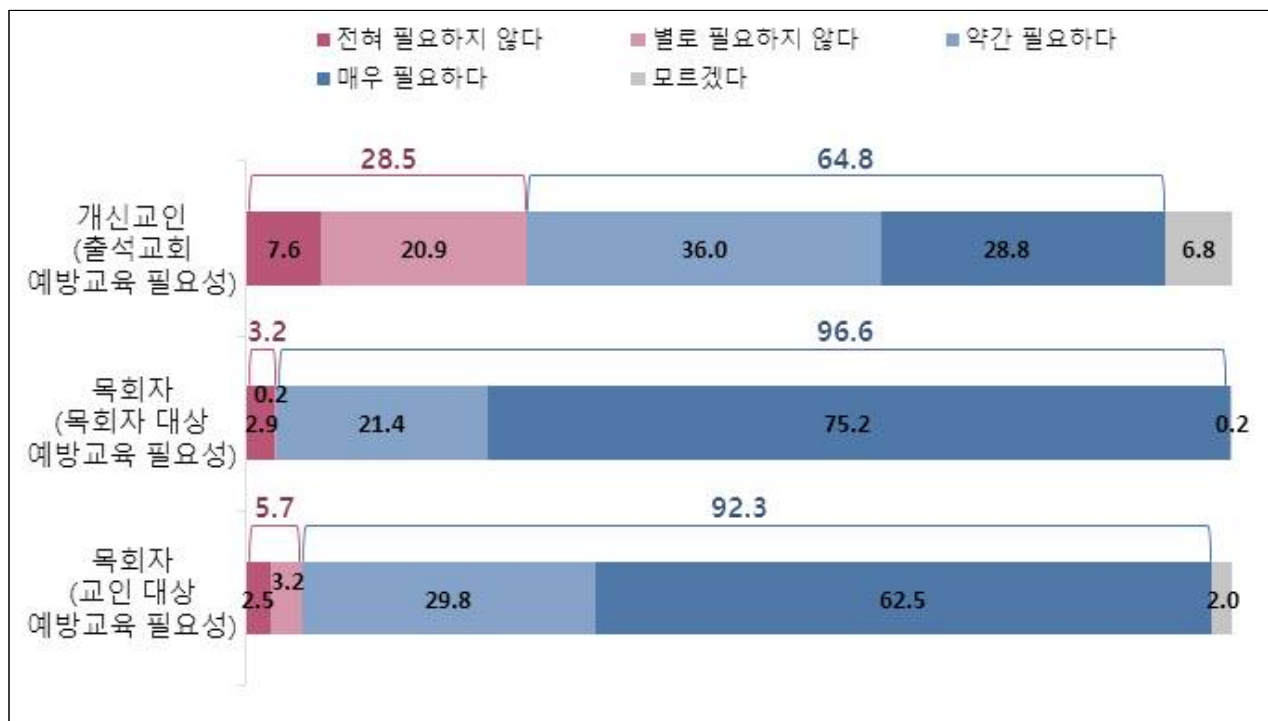
(개신교인) 귀하의 출석 교회에서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목사님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신교인에게 출석교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64.8%가 '필요하다'(약간+매우), 28.5%가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고 응답했다.
-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과 교인 대상 예방교육 필요성을 물었는데 둘 다 매우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 개신교인 중 출석교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교인수 50인 이상 교회에서 49인 이하 교회보다 높은 필요성을 비쳤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출석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	계	【불필요】	【필요】
■ 전체 ■		(800)	7.6	20.9	36.0	28.8	6.8	100.0	28.5	64.8
성별	남성	(354)	8.5	21.4	35.8	27.7	6.6	100.0	29.9	63.5
	여성	(446)	6.8	20.6	36.1	29.6	6.9	100.0	27.4	65.7
연령	19~29세	(142)	11.9	16.2	32.8	26.3	12.7	100.0	28.2	59.1
	30~39세	(150)	10.6	21.8	25.8	32.0	9.9	100.0	32.4	57.8
	40~49세	(194)	3.7	13.6	51.6	25.6	5.5	100.0	17.3	77.2
	50~59세	(200)	6.6	26.5	33.0	31.5	2.4	100.0	33.1	64.5
	60~65세	(115)	6.4	28.2	32.1	28.3	4.9	100.0	34.7	60.4
지역	서울	(205)	8.2	19.2	39.0	28.6	5.0	100.0	27.4	67.6
	경기/인천	(279)	5.4	20.7	36.6	27.6	9.7	100.0	26.1	64.2
	대전/충청	(67)	10.0	21.1	23.3	36.4	9.2	100.0	31.1	59.7
	광주/전라	(86)	11.6	13.9	37.9	32.0	4.5	100.0	25.6	70.0
	대구/경북	(50)	13.5	32.3	33.4	14.6	6.2	100.0	45.8	48.0
	부산/울산/경남	(76)	6.1	27.8	30.0	32.1	3.9	100.0	33.9	62.1
	강원/제주	(32)	1.6	20.1	54.5	23.8	.0	100.0	21.8	78.2
지역크기	대도시	(441)	9.7	19.0	35.1	29.6	6.7	100.0	28.7	64.6
	중소도시	(300)	5.1	20.5	39.7	28.3	6.4	100.0	25.6	68.0
	읍/면	(59)	3.7	37.8	24.1	24.9	9.5	100.0	41.5	49.0
직업	자영업	(96)	5.9	24.1	40.3	24.3	5.3	100.0	30.1	64.6
	블루컬러	(125)	3.0	21.9	41.7	31.4	2.1	100.0	24.9	73.1
	화이트컬러	(244)	5.3	17.7	37.5	32.3	7.1	100.0	23.1	69.9
	전업주부	(198)	8.8	23.5	36.9	26.8	3.9	100.0	32.4	63.7
	학생	(64)	13.8	19.8	28.1	22.2	16.1	100.0	33.6	50.3
	기타/무직	(43)	5.9	24.8	14.8	37.2	17.2	100.0	30.8	52.0
결혼여부	결혼	(586)	6.9	23.0	37.2	27.9	5.0	100.0	29.9	65.1
	미혼	(214)	9.3	15.3	32.8	31.1	11.5	100.0	24.6	63.9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7.1	25.1	34.0	28.1	5.6	100.0	32.2	62.2
	비봉사	(368)	8.1	16.0	38.3	29.5	8.1	100.0	24.1	67.8
교회 직분	종직자	(109)	12.0	27.8	34.1	21.4	4.7	100.0	39.8	55.5
	서리집사	(292)	5.0	20.6	43.3	26.8	4.4	100.0	25.6	70.0
	일반성도	(399)	8.2	19.3	31.2	32.3	9.1	100.0	27.5	63.4
교인 수	49명 이하	(95)	16.2	29.9	23.9	22.9	7.1	100.0	46.1	46.8
	50-99명	(70)	16.6	13.6	44.1	23.2	2.4	100.0	30.3	67.3
	100-299명	(145)	8.4	24.5	42.1	19.9	5.1	100.0	32.9	62.0
	300-499명	(93)	5.3	23.2	30.6	35.9	5.1	100.0	28.5	66.5
	500명 이상	(397)	4.1	18.2	36.5	32.7	8.5	100.0	22.3	69.2
교단	장로교(합동)	(213)	11.5	16.7	35.5	30.5	5.8	100.0	28.1	66.1
	장로교(통합)	(213)	4.5	20.9	41.4	28.1	5.1	100.0	25.4	69.5
	기타 장로교	(85)	8.9	19.9	31.6	35.0	4.6	100.0	28.8	66.6
	기타 교단	(210)	6.2	22.8	38.2	25.8	7.0	100.0	29.0	64.0
	잘 모름	(80)	7.5	28.6	21.4	27.1	15.4	100.0	36.1	48.5
신앙단계	1단계	(108)	4.4	19.3	34.7	36.4	5.1	100.0	23.7	71.2
	2단계	(304)	6.0	18.1	33.7	31.0	11.2	100.0	24.1	64.7
	3단계	(174)	9.5	24.4	40.6	19.6	5.9	100.0	33.9	60.2
	4단계	(214)	9.8	22.9	36.1	29.2	2.0	100.0	32.7	65.3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7.0	21.2	36.8	28.3	6.7	100.0	28.2	65.1
	여성	(63)	14.7	17.6	26.3	34.0	7.3	100.0	32.3	60.4
정치적 성향	보수	(238)	6.2	24.1	33.0	32.9	3.9	100.0	30.3	65.8
	중도	(347)	10.6	19.6	35.5	24.2	10.0	100.0	30.2	59.7
	진보	(214)	4.2	19.5	40.1	31.6	4.7	100.0	23.7	71.7

■ [표] 목회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	계	【불필요】	【필요】
■ 전체 ■		(212)	2.9	.2	21.4	75.2	.2	100.0	3.2	96.6
구분	담임목사	(130)	4.0	.4	25.7	69.9	.0	100.0	4.4	95.6
	부목사	(66)	1.5	.0	17.9	79.8	.8	100.0	1.5	97.8
	설교/협력목사	(16)	.0	.0	.0	100.0	.0	100.0	.0	100.0
성별	남성	(207)	3.0	.2	21.1	75.4	.2	100.0	3.2	96.5
	여성	(5)	.0	.0	32.1	67.9	.0	100.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2.1	.0	23.4	74.5	.0	100.0	2.1	97.9
	40~49세	(45)	1.1	1.1	18.2	78.4	1.1	100.0	2.3	96.6
	50~59세	(72)	1.6	.0	27.0	71.4	.0	100.0	1.6	98.4
	60세 이상	(50)	7.1	.0	14.3	78.6	.0	100.0	7.1	92.9
지역	서울	(57)	.0	.9	19.0	80.1	.0	100.0	.9	99.1
	경기/인천	(59)	10.4	.0	23.3	66.3	.0	100.0	10.4	89.6
	대전/충청	(25)	.0	.0	21.0	77.0	2.0	100.0	.0	98.0
	광주/전라	(23)	.0	.0	24.5	75.5	.0	100.0	.0	100.0
	대구/경북	(12)	.0	.0	38.0	62.0	.0	100.0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0	.0	21.7	78.3	.0	100.0	.0	100.0
	강원/제주	(15)	.0	.0	14.8	85.2	.0	100.0	.0	100.0
	해외	(7)	.0	.0	.0	100.0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4.4	.5	19.3	75.9	.0	100.0	4.9	95.1
	중소도시	(77)	2.1	.0	20.2	77.7	.0	100.0	2.1	97.9
	읍/면	(32)	.0	.0	31.2	67.2	1.6	100.0	.0	98.4
교인 수	49명 이하	(54)	2.1	.9	22.9	74.0	.0	100.0	3.0	97.0
	50-99명	(41)	.0	.0	22.4	77.6	.0	100.0	.0	100.0
	100-199명	(26)	2.0	.0	35.9	62.1	.0	100.0	2.0	98.0
	200-499명	(44)	.0	.0	14.5	84.4	1.2	100.0	.0	98.8
	500명 이상	(47)	9.6	.0	17.1	73.3	.0	100.0	9.6	90.4
교단	장로교(합동)	(54)	6.6	.0	30.8	62.6	.0	100.0	6.6	93.4
	장로교(통합)	(53)	.0	.0	14.4	85.6	.0	100.0	.0	100.0
	기타 장로교	(29)	.0	1.8	25.7	72.6	.0	100.0	1.8	98.2
	기타 교단	(76)	3.4	.0	17.9	78.0	.7	100.0	3.4	95.9
정치적 성향	보수	(80)	7.7	.6	23.7	67.3	.6	100.0	8.4	91.0
	중도	(66)	.0	.0	24.3	75.7	.0	100.0	.0	100.0
	진보	(66)	.0	.0	15.6	84.4	.0	100.0	.0	100.0

[표] 교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	계	【불필요】	【필요】
■ 전체 ■		(212)	2.5	3.2	29.8	62.5	2.0	100.0	5.7	92.3
구분	담임목사	(130)	4.0	3.8	31.8	57.8	2.5	100.0	7.8	89.7
	부목사	(66)	.0	2.9	25.8	69.7	1.6	100.0	2.9	95.5
	설교/협력목사	(16)	.0	.0	29.7	70.3	.0	100.0	.0	100.0
성별	남성	(207)	2.5	3.3	29.7	62.4	2.1	100.0	5.8	92.1
	여성	(5)	.0	.0	32.1	67.9	.0	100.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0	4.3	25.5	70.2	.0	100.0	4.3	95.7
	40~49세	(45)	1.1	3.4	27.3	63.6	4.5	100.0	4.5	90.9
	50~59세	(72)	1.6	4.8	34.9	55.6	3.2	100.0	6.3	90.5
	60세 이상	(50)	7.1	.0	28.6	64.3	.0	100.0	7.1	92.9
지역	서울	(57)	.0	4.6	28.6	64.7	2.0	100.0	4.6	93.4
	경기/인천	(59)	7.9	4.4	33.0	51.0	3.6	100.0	12.4	84.0
	대전/충청	(25)	.0	.0	38.0	62.0	.0	100.0	.0	100.0
	광주/전라	(23)	2.2	.0	24.5	73.3	.0	100.0	2.2	97.8
	대구/경북	(12)	.0	14.1	23.9	62.0	.0	100.0	14.1	85.9
	부산/울산/경남	(15)	.0	.0	25.5	74.5	.0	100.0	.0	100.0
	강원/제주	(15)	.0	.0	7.8	85.2	7.0	100.0	.0	93.0
	해외	(7)	.0	.0	66.6	33.4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3.4	4.0	28.6	62.9	1.1	100.0	7.4	91.5
	중소도시	(77)	1.5	2.1	30.8	64.3	1.3	100.0	3.6	95.0
	읍/면	(32)	1.6	3.6	31.2	56.8	6.8	100.0	5.2	88.0
교인 수	49명 이하	(54)	3.0	4.0	22.9	70.0	.0	100.0	7.0	93.0
	50-99명	(41)	.0	5.6	26.0	61.6	6.8	100.0	5.6	87.6
	100-199명	(26)	.0	2.0	65.5	30.6	2.0	100.0	2.0	96.1
	200-499명	(44)	.0	.0	24.1	75.9	.0	100.0	.0	100.0
	500명 이상	(47)	7.6	4.1	26.6	59.5	2.2	100.0	11.7	86.1
교단	장로교(합동)	(54)	6.6	.9	41.1	49.4	1.9	100.0	7.6	90.5
	장로교(통합)	(53)	1.0	2.2	17.6	79.3	.0	100.0	3.1	96.9
	기타 장로교	(29)	.0	9.6	41.4	49.0	.0	100.0	9.6	90.4
	기타 교단	(76)	1.5	3.2	25.7	65.2	4.3	100.0	4.7	91.0
정치적 성향	보수	(80)	5.9	6.7	23.8	62.4	1.3	100.0	12.6	86.1
	중도	(66)	.8	2.2	31.6	63.7	1.7	100.0	3.0	95.3
	진보	(66)	.0	.0	35.3	61.4	3.3	100.0	.0	96.7

4.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경험(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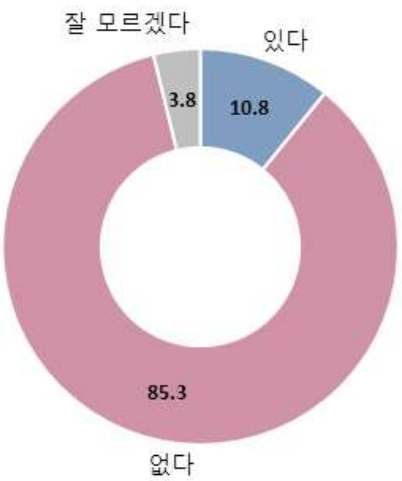
(목회자)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경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5.3%) 10개 중 1개 교회 정도(10.8%)만이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경험(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표]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경험(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10.8	85.3	3.8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12.4	84.3	3.4	100.0
	부목사	(66)	9.7	84.7	5.6	100.0
	설교/협력목사	(16)	3.2	96.8	.0	100.0
성별	남성	(207)	10.8	85.3	3.9	100.0
	여성	(5)	11.1	88.9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10.6	87.2	2.1	100.0
	40~49세	(45)	6.8	87.5	5.7	100.0
	50~59세	(72)	11.1	82.5	6.3	100.0
	60세 이상	(50)	14.3	85.7	.0	100.0
지역	서울	(57)	10.4	87.8	1.8	100.0
	경기/인천	(59)	7.0	85.8	7.2	100.0
	대전/충청	(25)	8.4	87.0	4.6	100.0
	광주/전라	(23)	15.3	84.7	.0	100.0
	대구/경북	(12)	9.8	90.2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9.9	90.1	.0	100.0
	강원/제주	(15)	32.1	64.4	3.5	100.0
	해외	(7)	.0	83.3	16.7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9.0	86.8	4.2	100.0
	중소도시	(77)	7.0	89.3	3.6	100.0
	읍/면	(32)	26.1	70.9	3.1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5.1	91.0	3.9	100.0
	50-99명	(41)	15.6	81.7	2.8	100.0
	100-199명	(26)	2.0	93.6	4.4	100.0
	200-499명	(44)	15.4	83.4	1.2	100.0
	500명 이상	(47)	13.9	79.3	6.8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10.3	87.6	2.1	100.0
	장로교(통합)	(53)	17.4	79.7	2.9	100.0
	기타 장로교	(29)	.0	94.3	5.7	100.0
	기타 교단	(76)	10.9	84.2	4.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8.7	85.7	5.5	100.0
	중도	(66)	9.2	86.1	4.7	100.0
	진보	(66)	15.0	84.2	.8	100.0

5.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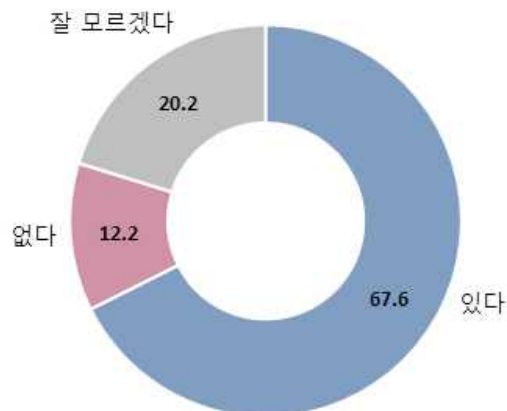
(목회자) 그럼 앞으로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에 대해서는 세 명 중 두 명의 목회자(67.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12.2%였다.
-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이 '없는' 비율은 60세 이상과 합동교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표]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67.6	12.2	20.2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64.6	15.2	20.2	100.0
	부목사	(66)	67.5	9.2	23.3	100.0
	설교/협력목사	(16)	92.8	.0	7.2	100.0
성별	남성	(207)	67.8	12.5	19.7	100.0
	여성	(5)	57.9	.0	42.1	100.0
연령	39세 이하	(46)	68.1	8.5	23.4	100.0
	40~49세	(45)	69.3	12.5	18.2	100.0
	50~59세	(72)	63.5	7.9	28.6	100.0
	60세 이상	(50)	71.4	21.4	7.1	100.0
지역	서울	(57)	70.6	4.6	24.8	100.0
	경기/인천	(59)	59.1	17.6	23.3	100.0
	대전/충청	(25)	77.6	8.0	14.4	100.0
	광주/전라	(23)	72.8	17.5	9.8	100.0
	대구/경북	(12)	57.6	14.1	28.3	100.0
	부산/울산/경남	(15)	57.0	3.4	39.5	100.0
	강원/제주	(15)	93.0	7.0	.0	100.0
	해외	(7)	47.7	52.3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64.6	9.5	26.0	100.0
	중소도시	(77)	73.9	11.5	14.7	100.0
	읍/면	(32)	62.2	22.9	14.9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79.1	8.9	12.0	100.0
	50-99명	(41)	66.5	16.8	16.7	100.0
	100-199명	(26)	29.0	21.4	49.6	100.0
	200-499명	(44)	82.1	1.2	16.8	100.0
	500명 이상	(47)	63.0	17.3	19.7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54.5	21.7	23.8	100.0
	장로교(통합)	(53)	78.2	8.1	13.7	100.0
	기타 장로교	(29)	69.1	13.1	17.9	100.0
	기타 교단	(76)	69.0	8.0	2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65.7	14.5	19.8	100.0
	중도	(66)	67.2	11.4	21.4	100.0
	진보	(66)	70.3	10.1	19.6	100.0

5-1.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는 이유(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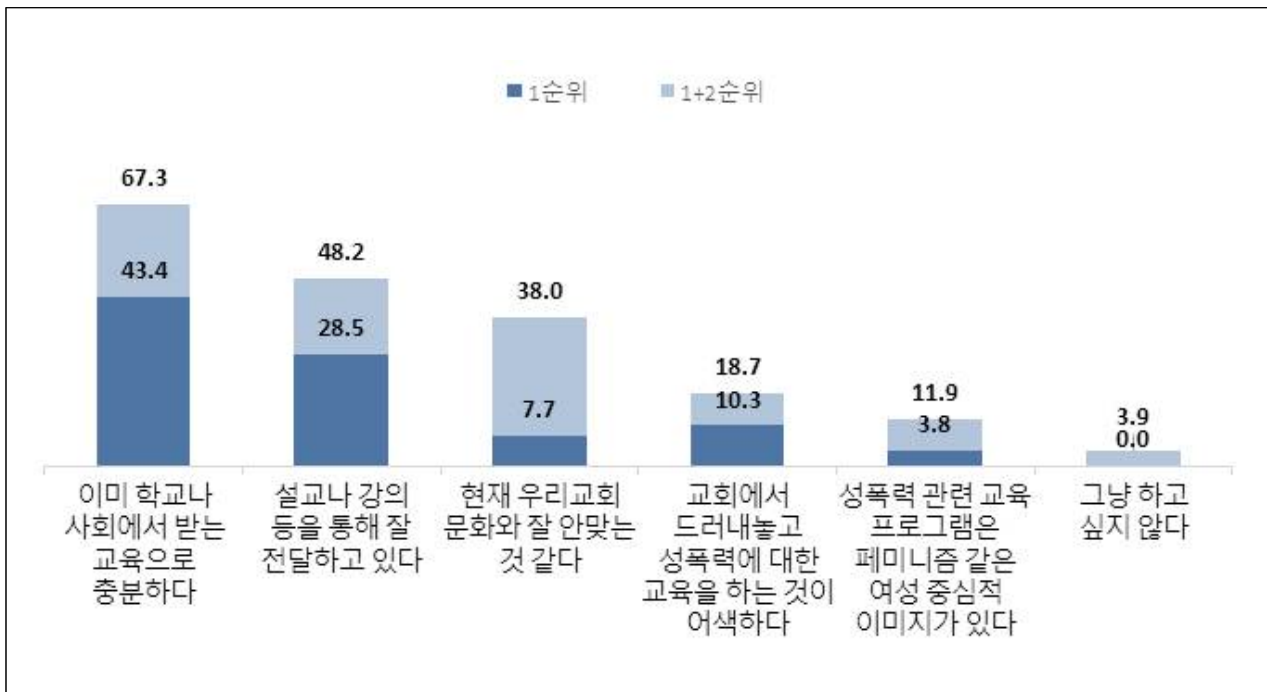
(목회자) 교육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두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 교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이미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교육으로 충분하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가 응답돼, 굳이 별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다른 경로로 충분히 교육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는 이유(목회자 대상)

(Base=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음' 목회자, n=26, %)



[표]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는 이유(목회자 대상) - 1순위

(Base=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음' 목회자, n=26, %)

		사례수	이미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교육으로 충분하다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	현재 우리교회 문화와 잘 안맞는 것 같다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페미니즘 같은 여성 중심적 이미지가 있다	기타	계
■ 전체 ■		(26)	43.4	28.5	10.3	7.7	3.8	6.4	100.0
구분	담임목사	(20)	46.8	34.6	5.2	5.2	.0	8.3	100.0
	부목사	(6)	32.1	8.5	27.3	16.1	16.1	.0	100.0
성별	남성	(26)	43.4	28.5	10.3	7.7	3.8	6.4	100.0
연령	39세 이하	(4)	50.0	.0	.0	25.0	25.0	.0	100.0
	40~49세	(6)	18.2	27.3	27.3	18.2	.0	9.1	100.0
	50~59세	(6)	20.0	40.0	20.0	.0	.0	20.0	100.0
	60세 이상	(11)	66.7	33.3	.0	.0	.0	.0	100.0
지역	서울	(3)	80.5	.0	19.5	.0	.0	.0	100.0
	경기/인천	(10)	43.4	20.7	15.8	.0	9.3	10.9	100.0
	대전/충청	(2)	.0	.0	.0	74.4	.0	25.6	100.0
	광주/전라	(4)	.0	87.4	.0	12.6	.0	.0	100.0
	대구/경북	(2)	31.0	69.0	.0	.0	.0	.0	100.0
	부산/울산/경남	(1)	.0	100.0	.0	.0	.0	.0	100.0
	강원/제주	(1)	50.0	.0	50.0	.0	.0	.0	100.0
	해외	(4)	100.0	.0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	62.9	5.2	22.0	.0	9.9	.0	100.0
	중소도시	(9)	51.5	18.7	.0	16.8	.0	12.9	100.0
	읍/면	(7)	7.0	71.8	7.0	7.0	.0	7.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	10.6	23.6	10.6	21.2	.0	34.1	100.0
	50-99명	(7)	24.0	76.0	.0	.0	.0	.0	100.0
	100-199명	(6)	81.6	9.2	9.2	.0	.0	.0	100.0
	200-499명	(1)	.0	100.0	.0	.0	.0	.0	100.0
	500명 이상	(8)	55.8	.0	20.3	11.9	11.9	.0	100.0
교단	장로교(합동)	(12)	65.2	30.4	4.4	.0	.0	.0	100.0
	장로교(통합)	(4)	.0	38.6	26.7	34.7	.0	.0	100.0
	기타 장로교	(4)	29.9	43.3	13.4	.0	.0	13.4	100.0
	기타 교단	(6)	40.2	8.4	8.4	8.4	15.9	18.7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2)	44.8	28.3	8.8	.0	8.3	9.8	100.0
	중도	(8)	32.5	54.0	.0	13.5	.0	.0	100.0
	진보	(7)	53.2	.0	24.6	14.5	.0	7.6	100.0

[표]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는 이유(목회자 대상) - 1+2순위

(Base=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의향 없음' 목회자, n=26, %)

		사례수	이미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교육으로 충분하다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교회 문화와 잘 안맞는 것 같다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페미니즘 같은 여성 중심적 이미지가 있다	그냥 하고 싶지 않다	기타
■ 전체 ■		(26)	67.3	48.2	38.0	18.7	11.9	3.9	12.1
구분	담임목사	(20)	70.5	60.3	34.0	16.0	5.7	2.6	10.9
	부목사	(6)	56.6	8.5	51.0	27.3	32.1	8.5	16.1
성별	남성	(26)	67.3	48.2	38.0	18.7	11.9	3.9	12.1
연령	39세 이하	(4)	75.0	.0	50.0	.0	50.0	.0	25.0
	40~49세	(6)	27.3	54.5	36.4	45.5	.0	18.2	18.2
	50~59세	(6)	40.0	40.0	40.0	40.0	20.0	.0	20.0
	60세 이상	(11)	100.0	66.7	33.3	.0	.0	.0	.0
지역	서울	(3)	80.5	.0	43.4	19.5	.0	19.5	37.0
	경기/인천	(10)	68.4	20.7	54.3	26.7	9.3	4.9	15.8
	대전/충청	(2)	.0	51.3	74.4	.0	48.7	.0	25.6
	광주/전라	(4)	87.4	100.0	12.6	.0	.0	.0	.0
	대구/경북	(2)	31.0	69.0	31.0	.0	69.0	.0	.0
	부산/울산/경남	(1)	.0	100.0	.0	100.0	.0	.0	.0
	강원/제주	(1)	50.0	.0	50.0	100.0	.0	.0	.0
	해외	(4)	100.0	100.0	.0	.0	.0	.0	.0
지역크기	대도시	(10)	78.0	5.2	64.6	22.0	9.9	10.4	9.9
	중소도시	(9)	64.4	65.0	27.9	12.9	11.0	.0	18.7
	읍/면	(7)	56.1	85.9	14.1	21.1	15.7	.0	7.0
교인 수	49명 이하	(5)	10.6	55.3	31.7	34.1	23.6	10.6	34.1
	50-99명	(7)	92.5	76.0	16.6	14.9	.0	.0	.0
	100-199명	(6)	81.6	73.3	26.7	9.2	.0	.0	9.2
	200-499명	(1)	100.0	100.0	.0	.0	.0	.0	.0
	500명 이상	(8)	67.7	.0	69.8	20.3	23.9	6.3	11.9
교단	장로교(합동)	(12)	95.6	60.8	34.8	4.4	.0	4.4	.0
	장로교(통합)	(4)	12.0	50.6	61.4	26.7	49.4	.0	.0
	기타 장로교	(4)	59.8	56.7	29.9	26.8	.0	13.4	13.4
	기타 교단	(6)	56.2	16.8	32.7	35.5	15.9	.0	43.0
정치적 성향	보수	(12)	62.9	28.3	40.4	27.3	18.1	8.8	14.2
	중도	(8)	86.5	67.5	33.2	.0	.0	.0	12.9
	진보	(7)	53.2	60.9	39.1	24.6	14.5	.0	7.6

6.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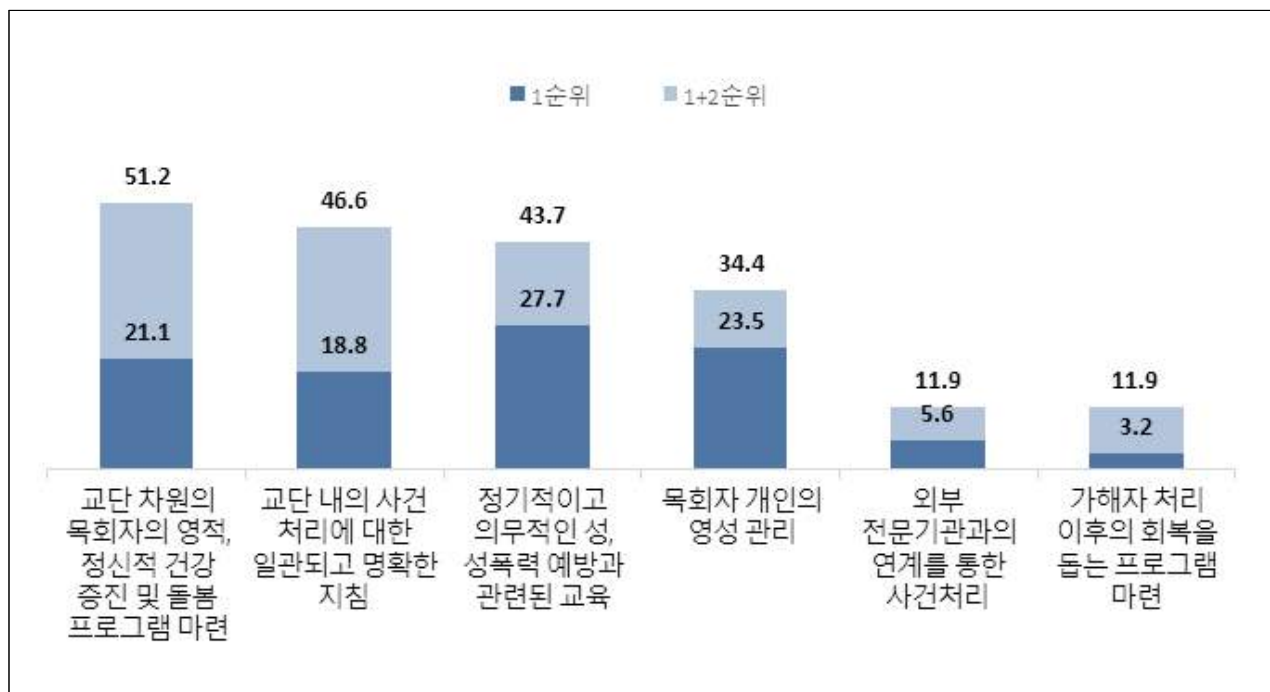
(목회자) 교회 내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 처리하기 위해 목회자 개인, 개교회, 교단에서 노력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2개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 교회 내 성범죄를 예방, 처리하기 위해 목회자 개인, 개교회, 교단에서 노력해야 할 것 1순위로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27.7%) 1+2순위로는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51.2%)이 가장 많이 응답됐다.
- 담임목사는 '목회자 개인의 영성 관리'와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았고, 부목사는 '교단 내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지침'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Base=목회자, n=212, %)



[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 1순위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	목회자 개인의 영성 관리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	교단 내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지침	외부 전문기관과 의 연계를 통한 사건처리	가해자 처리 이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	계
■ 전체 ■		(212)	27.7	23.5	21.1	18.8	5.6	3.2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27.5	26.7	23.6	14.0	4.8	3.4	100.0
	부목사	(66)	30.9	17.5	13.6	31.2	3.1	3.7	100.0
	설교/협력목사	(16)	16.6	22.5	31.9	6.5	22.5	.0	100.0
성별	남성	(207)	27.6	23.8	21.6	18.2	5.5	3.3	100.0
	여성	(5)	32.1	11.1	.0	45.7	11.1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38.3	17.0	14.9	25.5	.0	4.3	100.0
	40~49세	(45)	22.7	21.6	17.0	27.3	8.0	3.4	100.0
	50~59세	(72)	28.6	25.4	17.5	22.2	1.6	4.8	100.0
	60세 이상	(50)	21.4	28.6	35.7	.0	14.3	.0	100.0
지역	서울	(57)	29.1	16.2	27.9	22.4	2.7	1.7	100.0
	경기/인천	(59)	31.3	22.7	20.7	20.3	1.7	3.4	100.0
	대전/충청	(25)	18.3	18.7	18.4	36.0	2.0	6.6	100.0
	광주/전라	(23)	18.3	29.9	14.1	2.2	30.5	4.9	100.0
	대구/경북	(12)	53.7	19.5	4.4	12.7	.0	9.8	100.0
	부산/울산/경남	(15)	36.9	20.9	17.8	24.3	.0	.0	100.0
	강원/제주	(15)	14.8	46.1	32.1	3.5	3.5	.0	100.0
	해외	(7)	16.7	52.3	14.3	.0	16.7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34.3	18.3	20.6	21.4	3.6	1.9	100.0
	중소도시	(77)	23.3	23.5	25.8	16.5	5.3	5.7	100.0
	읍/면	(32)	17.1	41.0	11.5	16.0	12.9	1.6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30.7	17.0	29.3	16.0	4.9	2.1	100.0
	50-99명	(41)	15.6	28.3	25.6	16.4	8.7	5.3	100.0
	100-199명	(26)	35.1	40.1	9.5	11.4	2.0	2.0	100.0
	200-499명	(44)	21.1	22.9	18.7	25.4	9.2	2.6	100.0
	500명 이상	(47)	37.1	18.4	16.3	21.8	2.2	4.1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24.9	42.9	11.7	13.7	4.0	2.7	100.0
	장로교(통합)	(53)	40.0	9.6	10.4	20.2	15.5	4.3	100.0
	기타 장로교	(29)	32.5	15.2	32.5	16.4	.0	3.3	100.0
	기타 교단	(76)	19.5	22.6	30.8	22.3	2.0	2.8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24.8	30.9	30.3	9.9	1.9	2.1	100.0
	중도	(66)	33.5	23.0	14.5	23.0	1.5	4.5	100.0
	진보	(66)	25.6	15.0	16.5	25.3	14.1	3.4	100.0

[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 1+2순위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	교단 내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지침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	목회자 개인의 영성 관리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사건처리	가해자 처리 이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	기타
■ 전체 ■		(212)	51.2	46.6	43.7	34.4	11.9	11.9	.2
구분	담임목사	(130)	55.8	40.0	46.8	40.7	8.0	8.8	.0
	부목사	(66)	34.3	62.3	41.7	23.5	16.5	20.9	.8
	설교/협력목사	(16)	84.2	35.1	26.3	28.7	25.8	.0	.0
성별	남성	(207)	50.4	46.6	43.7	35.0	12.0	12.2	.2
	여성	(5)	88.9	45.7	43.2	11.1	11.1	.0	.0
연령	39세 이하	(46)	29.8	59.6	46.8	25.5	17.0	21.3	.0
	40~49세	(45)	45.5	46.6	43.2	26.1	18.2	19.3	1.1
	50~59세	(72)	44.4	50.8	47.6	44.4	3.2	9.5	.0
	60세 이상	(50)	85.7	28.6	35.7	35.7	14.3	.0	.0
지역	서울	(57)	51.9	49.1	40.3	30.6	10.9	16.3	.9
	경기/인천	(59)	50.6	45.5	46.3	35.9	10.9	10.9	.0
	대전/충청	(25)	42.1	77.2	38.8	23.2	2.0	16.6	.0
	광주/전라	(23)	49.6	33.8	40.0	39.0	32.7	4.9	.0
	대구/경북	(12)	45.3	44.9	67.8	19.5	8.3	14.1	.0
	부산/울산/경남	(15)	43.3	55.9	47.1	47.1	.0	6.5	.0
	강원/제주	(15)	74.7	14.8	50.4	46.1	10.5	3.5	.0
	해외	(7)	66.6	16.7	16.7	52.3	31.0	16.7	.0
지역크기	대도시	(104)	44.9	48.4	46.5	35.4	10.4	13.9	.5
	중소도시	(77)	58.4	42.9	48.2	29.2	9.8	11.5	.0
	읍/면	(32)	54.4	49.5	23.5	44.0	22.2	6.3	.0
교인 수	49명 이하	(54)	55.0	41.6	56.8	25.0	12.5	9.1	.0
	50-99명	(41)	66.4	34.0	23.0	53.8	14.7	8.1	.0
	100-199명	(26)	46.7	46.1	51.8	40.1	5.7	9.7	.0
	200-499명	(44)	41.8	64.1	34.1	30.3	14.9	14.9	.0
	500명 이상	(47)	45.0	47.0	51.2	29.3	9.6	16.8	1.1
교단	장로교(합동)	(54)	53.8	33.0	38.3	47.7	10.4	16.8	.0
	장로교(통합)	(53)	43.0	54.3	52.7	20.2	21.3	8.4	.0
	기타 장로교	(29)	47.2	63.5	53.2	22.5	.0	13.7	.0
	기타 교단	(76)	56.5	44.4	37.7	39.4	11.2	10.1	.7
정치적 성향	보수	(80)	57.5	39.1	47.7	42.3	6.8	6.5	.0
	중도	(66)	56.4	42.0	39.8	35.9	12.0	13.8	.0
	진보	(66)	38.3	60.2	42.7	23.4	18.1	16.6	.8

VI.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

1.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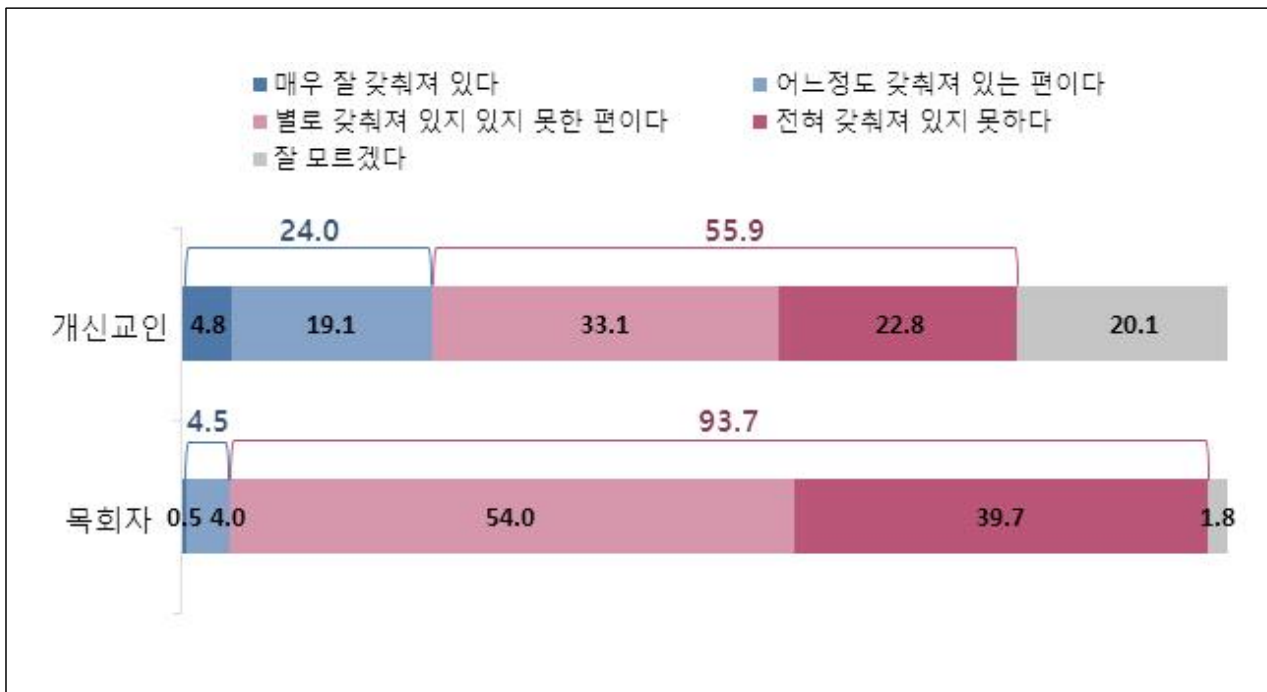
(개신교인&목회자)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한국교회가 성범죄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개신교인의 24.0%가 '잘 갖춰져 있다(매우+어느 정도)'고 평가했고, 55.9%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별로+전혀)'고 평가해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한편, 목회자는 거의 모두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93.7%)고 응답해 개신교인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 개신교인 중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고, 중직자일수록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매우 잘 갖춰져 있다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다	별로 갖춰져 있지 않은 편이다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갖춰져 있음】	【갖춰져 있지 않음】
■ 전체 ■		(800)	4.8	19.1	33.1	22.8	20.1	100.0	24.0	55.9
성별	남성	(354)	5.3	22.8	34.1	18.1	19.7	100.0	28.1	52.2
	여성	(446)	4.4	16.2	32.4	26.6	20.4	100.0	20.6	58.9
연령	19~29세	(142)	8.6	15.9	30.8	13.9	30.9	100.0	24.4	44.7
	30~39세	(150)	3.9	16.0	29.3	33.5	17.3	100.0	19.9	62.8
	40~49세	(194)	3.8	15.6	37.0	25.1	18.5	100.0	19.4	62.1
	50~59세	(200)	3.1	24.3	36.8	22.7	13.1	100.0	27.3	59.6
	60~65세	(115)	6.3	24.2	28.0	16.1	25.4	100.0	30.5	44.1
지역	서울	(205)	4.5	17.3	31.7	22.4	24.1	100.0	21.9	54.0
	경기/인천	(279)	6.1	18.1	32.0	23.4	20.4	100.0	24.1	55.4
	대전/충청	(67)	4.0	16.7	29.1	22.4	27.8	100.0	20.7	51.5
	광주/전라	(86)	1.2	21.0	34.5	29.8	13.4	100.0	22.3	64.3
	대구/경북	(50)	4.0	26.8	41.3	12.7	15.3	100.0	30.7	54.0
	부산/울산/경남	(76)	7.0	25.5	33.7	17.5	16.2	100.0	32.5	51.2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4.0	10.7	42.2	30.0	13.2	100.0	14.7	72.2
	대도시	(441)	6.7	19.6	32.2	21.6	19.9	100.0	26.3	53.8
	중소도시	(300)	2.5	16.8	34.7	26.5	19.6	100.0	19.3	61.1
	읍/면	(59)	2.3	27.6	32.7	12.9	24.5	100.0	29.9	45.6
	자영업	(96)	4.7	29.8	34.9	17.1	13.6	100.0	34.5	52.0
직업	블루컬러	(125)	8.7	16.3	34.6	20.2	20.2	100.0	25.0	54.8
	화이트컬러	(244)	3.5	16.2	42.8	22.8	14.7	100.0	19.7	65.6
	전업주부	(198)	3.7	16.2	27.9	29.4	22.7	100.0	20.0	57.3
	학생	(64)	9.1	23.5	25.9	9.9	31.7	100.0	32.6	35.8
	기타/무직	(43)	.0	27.0	18.4	23.2	31.4	100.0	27.0	41.6
결혼여부	결혼	(586)	4.3	19.4	34.0	23.9	18.3	100.0	23.7	58.0
	미혼	(214)	6.2	18.4	30.7	19.7	25.0	100.0	24.6	50.4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4.6	21.5	35.6	21.7	16.6	100.0	26.1	57.3
	비봉사	(368)	5.1	16.4	30.2	24.1	24.2	100.0	21.5	54.3
교회 직분	종직자	(109)	3.8	24.2	49.1	12.5	10.4	100.0	28.0	61.6
	서리집사	(292)	4.8	20.3	30.5	26.1	18.4	100.0	25.1	56.5
	일반성도	(399)	5.1	16.9	30.7	23.2	24.0	100.0	22.0	53.9
교인 수	49명 이하	(95)	6.9	17.5	37.0	14.2	24.3	100.0	24.5	51.3
	50-99명	(70)	5.7	16.6	22.9	41.0	13.9	100.0	22.2	63.8
	100-299명	(145)	1.6	25.2	26.8	26.3	20.1	100.0	26.8	53.1
	300-499명	(93)	2.5	18.6	30.1	27.1	21.7	100.0	21.1	57.2
	500명 이상	(397)	5.9	17.9	37.0	19.4	19.8	100.0	23.8	56.4
교단	장로교(합동)	(213)	7.6	23.5	35.0	18.4	15.5	100.0	31.2	53.4
	장로교(통합)	(213)	3.3	18.9	36.5	22.1	19.2	100.0	22.2	58.6
	기타 장로교	(85)	1.1	17.1	34.6	25.3	22.0	100.0	18.2	59.9
	기타 교단	(210)	4.0	19.1	30.1	24.5	22.4	100.0	23.1	54.6
	잘 모름	(80)	7.5	10.4	25.8	29.2	27.1	100.0	17.8	55.1
신앙단계	1단계	(108)	3.3	16.1	27.7	36.0	16.8	100.0	19.4	63.7
	2단계	(304)	3.5	16.8	32.1	24.2	23.4	100.0	20.3	56.3
	3단계	(174)	5.0	18.7	32.7	22.6	21.0	100.0	23.7	55.3
	4단계	(214)	7.3	24.3	37.7	14.3	16.4	100.0	31.6	52.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4.4	19.3	32.9	22.9	20.5	100.0	23.6	55.9
	여성	(63)	10.1	17.5	35.4	21.1	15.8	100.0	27.7	56.5
정치적 성향	보수	(238)	6.6	29.6	31.6	13.4	18.8	100.0	36.1	45.1
	중도	(347)	5.8	14.0	30.3	25.2	24.7	100.0	19.8	55.5
	진보	(214)	1.3	15.9	39.4	29.3	14.1	100.0	17.2	68.7

[표]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매우 잘 갖춰져 있다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다	별로 갖춰져 있지 않은 편이다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계	【갖춰져 있음】	【갖춰져 있지 않음】
■ 전체 ■		(212)	.5	4.0	54.0	39.7	1.8	100.0	4.5	93.7
구분	담임목사	(130)	.8	3.4	61.7	32.0	2.1	100.0	4.2	93.7
	부목사	(66)	.0	3.0	42.6	52.8	1.6	100.0	3.0	95.4
	설교/협력목사	(16)	.0	13.3	38.4	48.3	.0	100.0	13.3	86.7
성별	남성	(207)	.5	4.1	55.2	38.3	1.8	100.0	4.6	93.6
	여성	(5)	.0	.0	.0	100.0	.0	100.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0	4.3	40.4	55.3	.0	100.0	4.3	95.7
	40~49세	(45)	2.3	4.5	48.9	40.9	3.4	100.0	6.8	89.8
	50~59세	(72)	.0	6.3	58.7	31.7	3.2	100.0	6.3	90.5
	60세 이상	(50)	.0	.0	64.3	35.7	.0	100.0	.0	100.0
지역	서울	(57)	.9	3.7	49.3	46.1	.0	100.0	4.6	95.4
	경기/인천	(59)	.9	4.7	52.5	40.2	1.7	100.0	5.6	92.7
	대전/충청	(25)	.0	2.0	51.8	46.2	.0	100.0	2.0	98.0
	광주/전라	(23)	.0	9.0	51.8	34.3	4.9	100.0	9.0	86.1
	대구/경북	(12)	.0	.0	42.0	43.9	14.1	100.0	.0	85.9
	부산/울산/경남	(15)	.0	3.4	63.9	32.7	.0	100.0	3.4	96.6
	강원/제주	(15)	.0	3.5	78.2	18.3	.0	100.0	3.5	96.5
	해외	(7)	.0	.0	69.0	31.0	.0	100.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5	3.0	52.9	41.5	2.1	100.0	3.5	94.4
	중소도시	(77)	.7	7.0	54.1	36.0	2.1	100.0	7.7	90.1
	읍/면	(32)	.0	.0	57.5	42.5	.0	100.0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9	.9	50.2	42.8	5.1	100.0	1.9	93.0
	50-99명	(41)	.0	2.8	69.2	28.0	.0	100.0	2.8	97.2
	100-199명	(26)	2.0	.0	54.3	43.8	.0	100.0	2.0	98.0
	200-499명	(44)	.0	8.5	41.9	49.6	.0	100.0	8.5	91.5
	500명 이상	(47)	.0	6.7	56.4	34.8	2.2	100.0	6.7	91.2
교단	장로교(합동)	(54)	.0	.0	54.8	42.1	3.1	100.0	.0	96.9
	장로교(통합)	(53)	1.0	2.2	55.1	41.8	.0	100.0	3.1	96.9
	기타 장로교	(29)	.0	12.9	43.8	41.5	1.8	100.0	12.9	85.4
	기타 교단	(76)	.7	4.8	56.6	35.9	2.2	100.0	5.4	92.4
정치적 성향	보수	(80)	1.3	5.5	62.6	26.5	4.1	100.0	6.7	89.1
	중도	(66)	.0	4.6	51.3	43.4	.8	100.0	4.6	94.7
	진보	(66)	.0	1.7	46.3	52.0	.0	100.0	1.7	98.3

1-1.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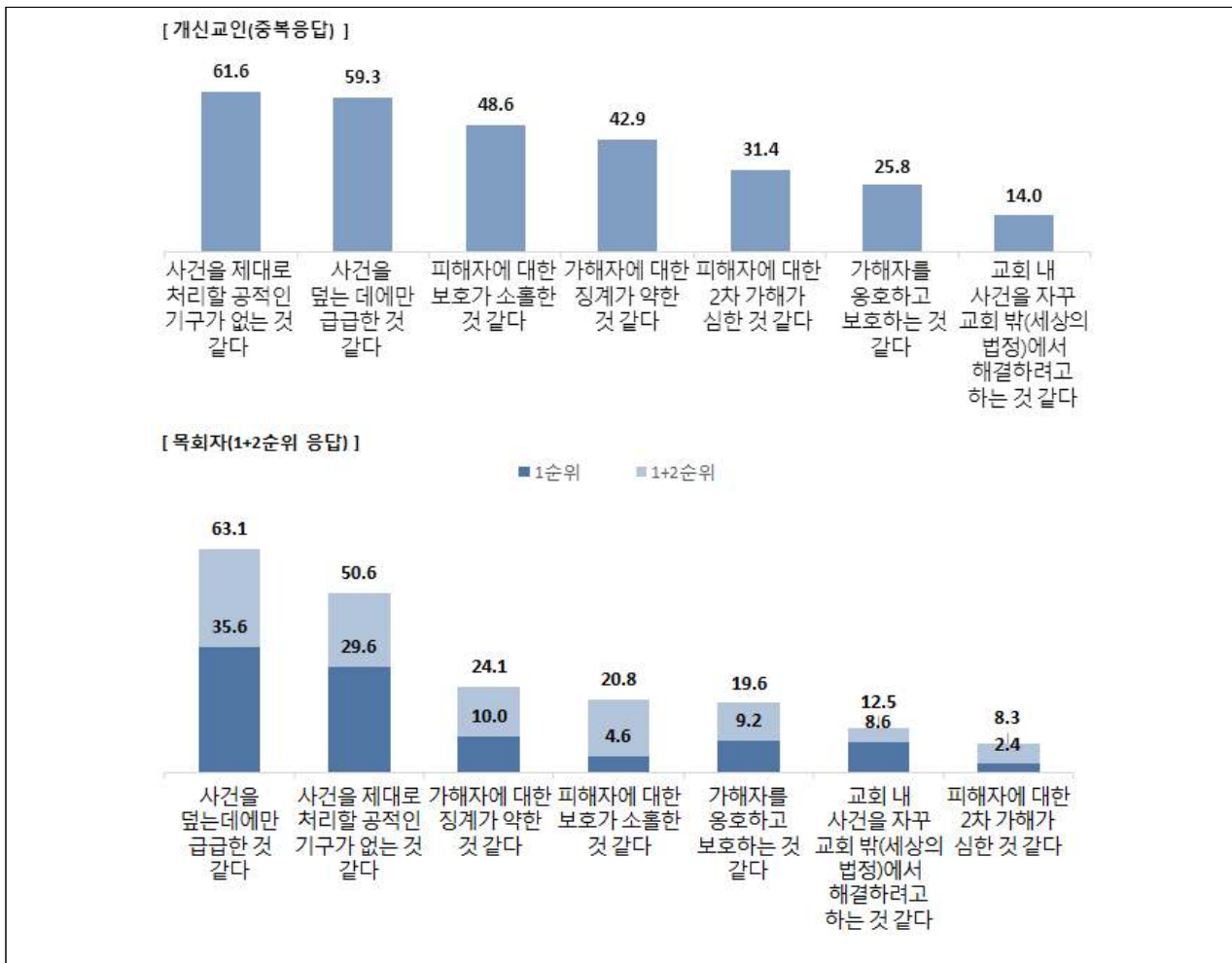
(개신교인&목회자)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로, 개신교인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음'(61.6%)과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함'(5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 목회자 역시(1+2순위 응답률 기준)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함'(63.1%)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음'(50.6%)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 부목사는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고, 담임목사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한 특징을 보였다.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

(Base=성범죄 대처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음' 응답자,
n=개신교인447, 목회자199, %)



[표]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
(중복응답)

(Base=성범죄 대처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음' 응답 개신교인 n=447, %)

		사례 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	사건을 덮는데만 급급한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 같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한 것 같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다	교회 내 사건을 자구 교회 밖(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기타
■ 전체 ■		(447)	61.6	59.3	48.6	42.9	31.4	25.8	14.0	2.9
성별	남성	(185)	64.9	60.1	48.7	40.6	28.4	28.7	16.9	3.5
	여성	(263)	59.3	58.8	48.5	44.6	33.5	23.8	11.9	2.5
연령	19~29세	(63)	53.2	55.5	51.5	49.7	34.4	31.9	23.1	2.2
	30~39세	(94)	59.5	62.5	52.6	41.3	38.6	26.5	12.7	3.3
	40~49세	(120)	71.9	56.4	47.6	45.7	25.8	23.5	9.5	1.1
	50~59세	(119)	59.3	65.2	48.8	44.3	33.2	22.6	17.4	4.7
	60~65세	(51)	56.8	51.4	39.7	27.4	23.1	29.9	7.5	3.1
지역	서울	(111)	67.2	65.4	56.8	53.5	47.8	30.7	5.4	1.4
	경기/인천	(154)	57.0	52.6	46.4	38.2	21.1	26.5	14.5	4.5
	대전/충청	(35)	49.3	58.9	46.0	42.4	34.8	17.6	17.2	2.9
	광주/전라	(56)	58.8	58.9	39.5	32.9	29.5	23.1	27.5	1.4
	대구/경북	(27)	66.8	37.9	51.2	38.1	15.7	14.7	9.3	8.5
	부산/울산/경남	(39)	80.3	77.0	46.0	44.2	45.2	35.8	15.4	1.2
지역크기	강원/제주	(23)	53.2	76.1	55.5	53.8	15.4	13.9	17.5	.0
	대도시	(237)	64.9	59.8	52.8	43.5	40.5	28.8	8.3	3.7
	중소도시	(183)	56.3	58.8	44.3	41.3	20.2	22.4	19.5	2.3
	읍/면	(27)	68.6	58.7	40.6	49.2	26.3	22.4	26.6	.0
	자영업	(50)	46.2	26.1	37.9	21.9	16.5	16.4	16.0	10.2
	블루컬러	(68)	71.6	68.6	53.8	56.2	43.0	30.5	14.0	.0
직업	화이트컬러	(160)	61.9	60.7	46.9	42.8	33.0	30.2	15.2	2.2
	전업주부	(113)	63.1	65.1	52.5	43.6	31.7	20.6	9.9	1.5
	학생	(23)	43.9	65.4	55.3	44.1	26.8	26.2	16.4	6.1
	기타/무직	(18)	76.7	76.7	45.4	40.2	27.7	35.5	22.1	.0
	결혼여부	결혼	(339)	62.8	59.6	49.0	41.7	29.3	24.8	11.1
미혼		(108)	57.9	58.7	47.5	46.8	37.9	29.0	23.1	3.2
교회봉사 여부	봉사	(247)	59.6	54.5	46.7	38.8	29.5	24.3	15.6	4.6
	비봉사	(200)	64.1	65.3	51.0	48.1	33.7	27.6	12.0	.8
교회 직분	종직자	(67)	57.3	56.9	58.6	32.0	32.1	25.1	10.9	10.3
	서리집사	(165)	65.6	58.1	45.2	40.4	26.1	25.9	11.4	1.3
	일반성도	(215)	59.9	61.1	48.1	48.2	35.2	25.9	17.0	1.8
교인 수	49명 이하	(49)	46.4	56.4	49.5	33.2	47.3	16.3	11.3	4.5
	50-99명	(45)	63.0	57.2	47.0	36.2	28.7	28.3	12.8	3.1
	100-299명	(77)	62.3	53.4	54.1	45.7	17.1	21.3	19.9	.0
	300-499명	(53)	72.6	67.9	29.9	44.5	32.7	34.1	8.7	4.7
	500명 이상	(224)	61.8	60.4	51.3	45.1	33.0	26.9	14.0	3.1
교단	장로교(합동)	(114)	70.5	53.4	45.5	33.0	25.7	20.5	17.2	5.2
	장로교(통합)	(125)	50.3	59.2	53.5	40.9	22.6	20.1	14.9	3.2
	기타 장로교	(51)	69.3	63.0	50.1	44.2	45.5	47.2	12.6	.0
	기타 교단	(115)	55.6	53.7	40.9	47.3	34.5	26.1	11.7	2.7
	잘 모름	(44)	77.6	85.6	60.9	61.1	46.6	30.6	10.3	.0
신앙단계	1단계	(69)	63.6	66.5	49.9	53.2	32.2	28.0	14.8	.0
	2단계	(171)	66.5	59.9	47.0	40.2	33.5	28.8	11.2	2.2
	3단계	(96)	54.7	52.5	45.6	37.5	30.7	24.0	17.7	4.6
	4단계	(111)	58.8	60.0	52.8	45.4	28.2	21.5	14.5	4.3
담임목사 성별	남성	(412)	63.5	60.5	48.0	42.0	30.2	25.7	14.3	2.9
	여성	(35)	39.1	46.4	56.2	53.3	44.9	27.1	9.9	3.4
정치적 성향	보수	(108)	54.9	47.5	40.0	31.7	26.2	22.4	15.7	5.4
	중도	(193)	65.9	60.0	55.2	43.0	36.1	25.6	15.0	1.8

	진보	(147)	60.9	67.1	46.3	51.0	29.0	28.5	11.4	2.6
--	----	-------	------	------	------	------	------	------	------	-----

[표]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1순위 (Base=성범죄 대처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음' 응답 목회자, n=199, %)

		사례 수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다	교회 내 사건을 자꾸 교회 밖(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한 것 같다	계
■ 전체 ■		(199)	35.6	29.6	10.0	9.2	8.6	4.6	2.4	100.0
구분	담임목사	(122)	32.5	33.6	9.1	6.1	10.3	6.6	1.9	100.0
	부목사	(63)	47.6	22.0	13.2	9.9	1.6	1.6	4.0	100.0
	설교/협력목사	(14)	7.5	29.7	3.7	33.1	26.0	.0	.0	100.0
성별	남성	(194)	35.3	29.8	9.8	9.4	8.6	4.7	2.5	100.0
	여성	(5)	45.7	21.0	22.2	.0	11.1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4)	40.0	24.4	17.8	8.9	2.2	4.4	2.2	100.0
	40~49세	(40)	51.9	19.0	10.1	3.8	5.1	6.3	3.8	100.0
	50~59세	(65)	33.3	35.1	7.0	8.8	5.3	7.0	3.5	100.0
	60세 이상	(50)	21.4	35.7	7.1	14.3	21.4	.0	.0	100.0
지역	서울	(54)	38.4	29.9	5.7	6.0	14.1	4.9	.9	100.0
	경기/인천	(55)	36.6	31.8	11.4	10.4	3.6	2.1	4.1	100.0
	대전/충청	(24)	25.6	38.1	14.2	4.7	6.7	6.7	4.0	100.0
	광주/전라	(20)	31.1	25.2	.0	35.5	.0	8.2	.0	100.0
	대구/경북	(10)	10.2	27.8	19.4	5.1	22.7	14.8	.0	100.0
	부산/울산/경남	(14)	54.7	33.9	7.9	.0	.0	.0	3.5	100.0
	강원/제주	(14)	44.2	16.1	3.6	3.6	25.2	3.6	3.6	100.0
	해외	(7)	33.4	14.3	52.3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98)	41.2	31.2	8.0	5.4	9.0	3.2	2.0	100.0
	중소도시	(69)	24.0	30.8	12.2	13.6	9.9	7.8	1.6	100.0
	읍/면	(32)	43.5	22.3	11.5	11.2	4.7	1.6	5.2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0)	25.1	35.1	9.4	5.5	11.0	8.5	5.5	100.0
	50-99명	(40)	52.6	26.4	6.7	9.0	.0	5.3	.0	100.0
	100-199명	(25)	37.7	32.2	19.8	3.8	6.5	.0	.0	100.0
	200-499명	(40)	21.6	23.1	11.3	15.3	24.6	4.1	.0	100.0
	500명 이상	(43)	44.1	30.9	6.9	11.0	.0	2.4	4.7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2)	36.2	23.8	21.1	5.0	7.8	2.0	4.0	100.0
	장로교(통합)	(51)	31.1	29.8	10.3	18.2	4.5	5.1	1.0	100.0
	기타 장로교	(25)	19.2	50.6	2.1	17.6	2.1	3.9	4.6	100.0
	기타 교단	(71)	44.1	26.5	4.5	2.7	14.5	6.3	1.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71)	27.0	37.6	4.9	5.9	18.7	5.3	.7	100.0
	중도	(62)	49.8	26.5	9.1	1.6	4.2	3.5	5.3	100.0
	진보	(65)	31.4	23.9	16.6	20.0	1.8	4.8	1.5	100.0

[표]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정 평가 이유-1+2순위 (Base=성범죄 대처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음' 응답 목회자, n=199, %)

		사례 수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 같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다	교회 내 사건을 자꾸 교회 밖(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한 것 같다	기타
■ 전체 ■		(199)	63.1	50.6	24.1	20.8	19.6	12.5	8.3	1.1
구분	담임목사	(122)	62.8	56.0	22.6	25.9	12.2	12.4	7.0	.9
	부목사	(63)	69.2	37.3	29.9	15.2	30.2	4.0	12.7	1.5
	설교/협력목사	(14)	37.2	63.2	10.8	.0	36.8	52.0	.0	.0
성별	남성	(194)	62.7	51.0	23.3	21.3	19.6	12.5	8.5	1.1
	여성	(5)	77.8	32.1	57.9	.0	21.0	11.1	.0	.0
연령	39세 이하	(44)	62.2	35.6	35.6	17.8	33.3	4.4	8.9	2.2
	40~49세	(40)	68.4	44.3	22.8	20.3	20.3	10.1	13.9	.0
	50~59세	(65)	64.9	59.6	19.3	28.1	14.0	7.0	5.3	1.8
	60세 이상	(50)	57.1	57.1	21.4	14.3	14.3	28.6	7.1	.0
지역	서울	(54)	62.8	55.9	18.8	16.5	21.4	14.1	6.5	3.9
	경기/인천	(55)	60.7	52.3	31.1	16.3	19.6	7.6	12.4	.0
	대전/충청	(24)	57.6	64.4	20.3	22.1	10.7	14.9	10.0	.0
	광주/전라	(20)	77.2	45.5	.0	16.4	38.0	17.7	5.1	.0
	대구/경북	(10)	36.3	54.0	24.5	35.8	26.7	22.7	.0	.0
	부산/울산/경남	(14)	74.0	53.2	24.8	30.3	10.6	.0	7.1	.0
	강원/제주	(14)	84.7	19.7	28.9	22.5	15.3	25.2	3.6	.0
	해외	(7)	33.4	14.3	83.3	52.3	.0	.0	16.7	.0
지역크기	대도시	(98)	66.3	56.2	25.6	16.1	18.0	9.5	6.3	2.2
	중소도시	(69)	54.8	45.1	20.5	29.4	21.9	17.9	10.3	.0
	읍/면	(32)	71.3	45.5	27.4	16.3	19.5	9.9	10.0	.0
교인 수	49명 이하	(50)	59.2	52.6	20.4	25.9	9.8	14.3	17.9	.0
	50-99명	(40)	69.1	55.1	26.5	15.6	15.7	12.7	2.4	2.9
	100-199명	(25)	67.6	47.2	27.7	25.7	17.3	8.5	6.0	.0
	200-499명	(40)	61.2	44.9	18.7	20.2	29.2	24.6	1.3	.0
	500명 이상	(43)	61.1	51.5	29.3	17.1	27.1	1.2	10.4	2.3
교단	장로교(합동)	(52)	57.9	45.2	37.4	25.9	11.7	10.0	10.0	1.9
	장로교(통합)	(51)	63.8	52.0	17.7	17.8	29.6	14.4	4.9	.0
	기타 장로교	(25)	71.4	56.5	10.7	19.7	24.3	2.1	10.7	4.6
	기타 교단	(71)	63.4	51.5	23.6	19.5	16.6	16.7	8.6	.0
정치적 성향	보수	(71)	49.0	62.6	23.1	20.7	13.1	20.1	8.5	3.0
	중도	(62)	77.5	51.1	26.2	16.9	13.8	7.7	6.9	.0
	진보	(65)	64.7	37.0	23.2	24.6	32.4	8.7	9.4	.0

VII. 목사의 성 스캔들에 대한 의견

1.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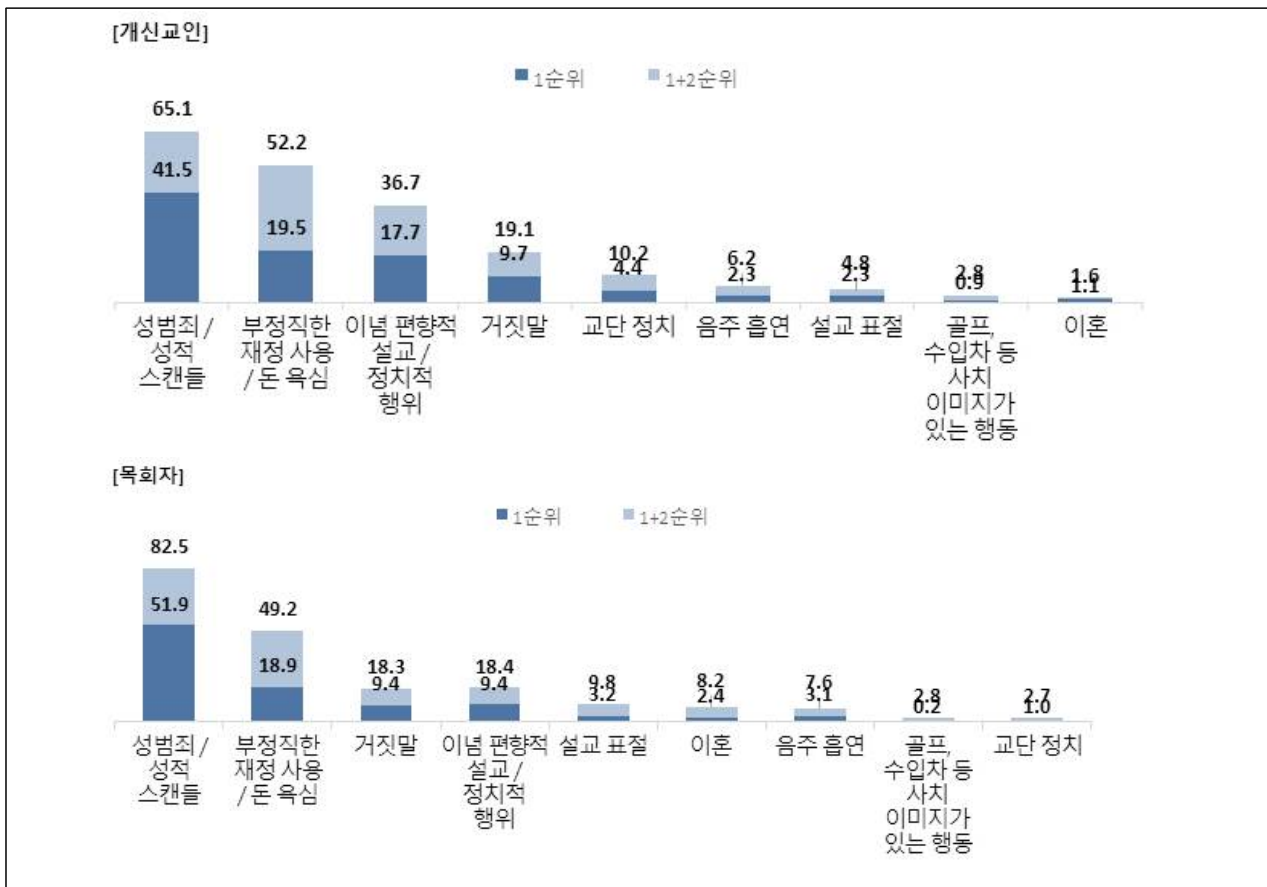
(개신교인&목회자) 귀하가/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목사가 하지 않아야 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은(1+2순위 기준) '성범죄/성적 스캔들'(65.1%),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52.2%), '이념 편향적 설교/정치적 행위'(36.7%) 순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 역시 '성범죄/성적 스캔들'(8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부정직한 재정 사용/돈 욕심'(49.2%)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 개신교인 중 남성은 '이념 편향적 설교/정치적 행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과 19~29세 연령층은 '성범죄/성적 스캔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또한, 부목사는 담임목사보다 '이념 편향적 설교/정치적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Base=전체, n=개신교인 800, 목회자 212, %)



[표]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 1순위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성범죄 / 성적 스캔들	부정직한 재정 사용 / 돈 욕심	이념 편향적 설교 / 정치 적 행위	거짓말	교단 정치	설교 표절	음주 흡연	이혼	골프, 수입차 등 사치 이미지 가있는 행동	기타	계
■ 전체 ■		(800)	41.5	19.5	17.7	9.7	4.4	2.3	2.3	1.1	.9	.7	100.0
성별	남성	(354)	30.5	20.6	22.4	13.1	5.9	1.6	2.4	.5	2.0	1.0	100.0
	여성	(446)	50.2	18.5	14.0	6.9	3.2	2.8	2.1	1.6	.1	.5	100.0
연령	19~29세	(142)	51.9	12.7	16.8	5.5	6.0	.8	5.4	.0	.6	.4	100.0
	30~39세	(150)	40.5	22.7	18.5	10.6	3.8	1.0	2.1	.4	.4	.0	100.0
	40~49세	(194)	44.4	14.6	20.8	12.4	3.8	1.0	2.1	.0	.5	.3	100.0
	50~59세	(200)	35.9	22.2	17.8	11.2	2.9	3.0	.7	1.7	2.3	2.4	100.0
	60~65세	(115)	34.9	27.0	12.2	6.3	7.0	6.5	1.5	4.3	.3	.0	100.0
지역	서울	(205)	35.8	19.6	19.1	11.4	7.4	.5	2.4	1.6	1.0	1.1	100.0
	경기/인천	(279)	39.9	23.7	19.2	7.1	4.5	2.0	1.7	1.0	.6	.2	100.0
	대전/충청	(67)	41.6	19.5	16.8	9.3	.6	3.8	8.3	.0	.0	.0	100.0
	광주/전라	(86)	40.3	19.3	16.0	16.4	1.6	4.6	.5	.7	.5	.0	100.0
	대구/경북	(50)	51.7	18.5	17.2	3.6	.8	.7	3.4	3.3	.8	.0	100.0
	부산/울산/경남	(76)	51.9	8.6	11.4	10.2	4.3	5.7	.0	.0	3.7	4.1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51.2	10.5	16.9	13.2	4.9	.0	1.6	1.6	.0	.0	100.0
	대도시	(441)	40.1	19.1	17.9	10.0	5.5	1.7	2.4	1.3	.7	1.2	100.0
	중소도시	(300)	43.9	19.3	17.7	9.8	3.0	3.4	2.3	.5	.1	.0	100.0
	읍/면	(59)	40.1	22.9	16.4	6.1	3.1	.6	.9	2.7	6.2	.9	100.0
직업	자영업	(96)	34.9	24.7	14.6	3.0	9.6	2.1	6.2	.0	.0	4.9	100.0
	블루컬러	(125)	35.3	19.9	19.7	17.8	2.4	1.3	.0	1.3	2.3	.0	100.0
	화이트컬러	(244)	40.2	18.2	20.7	8.3	6.4	1.7	1.1	1.0	1.9	.5	100.0
	전업주부	(198)	43.1	23.6	13.4	10.9	1.0	3.7	2.3	2.1	.0	.0	100.0
	학생	(64)	56.7	12.8	11.9	10.8	2.1	1.8	3.9	.0	.0	.0	100.0
	기타/무직	(43)	49.3	11.5	18.7	4.8	7.1	4.0	2.8	1.9	.0	.0	100.0
결혼여부	결혼	(586)	38.1	21.5	17.9	10.6	3.8	3.0	1.8	1.4	1.0	.9	100.0
	미혼	(214)	50.7	13.8	17.2	7.3	5.9	.2	3.5	.4	.7	.2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42.7	21.6	14.8	9.3	5.1	2.2	1.5	1.1	1.3	.5	100.0
	비봉사	(368)	40.0	17.0	21.1	10.1	3.6	2.3	3.2	1.1	.5	1.0	100.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44.4	18.3	17.1	8.2	4.7	5.6	.5	.8	.4	.0	100.0
	서리집사	(292)	34.8	22.5	17.9	10.6	4.8	2.4	2.6	1.0	1.5	1.8	100.0
	일반성도	(399)	45.6	17.6	17.7	9.4	4.1	1.2	2.5	1.2	.6	.1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95)	45.2	18.6	12.3	15.1	2.4	.0	2.3	3.2	.9	.0	100.0
	50-99명	(70)	41.4	24.3	21.7	3.1	1.0	2.5	1.2	.8	4.1	.0	100.0
	100-299명	(145)	35.0	22.8	20.2	13.4	4.3	2.5	1.1	.6	.0	.0	100.0
	300-499명	(93)	44.3	15.9	19.4	8.7	5.3	2.4	1.4	2.1	.5	.0	100.0
	500명 이상	(397)	42.3	18.4	17.0	8.4	5.3	2.6	3.0	.6	.8	1.5	100.0
교단	장로교(합동)	(213)	37.1	20.7	18.4	12.6	2.9	3.6	3.1	.0	.9	.8	100.0
	장로교(통합)	(213)	39.6	17.9	21.0	8.6	5.0	3.1	.9	1.8	2.1	.0	100.0
	기타 장로교	(85)	43.1	20.8	22.2	2.8	2.7	1.3	1.9	1.6	.0	3.7	100.0
	기타 교단	(210)	43.6	21.0	13.3	9.7	5.0	1.2	3.8	1.5	.5	.5	100.0
	잘 모름	(80)	51.0	15.0	14.0	11.9	7.0	.4	.0	.7	.0	.0	100.0
신앙단계	1단계	(108)	28.9	21.0	28.4	8.7	2.6	4.8	4.2	.0	1.3	.0	100.0
	2단계	(304)	39.5	21.1	18.0	10.6	5.5	1.7	1.2	1.5	.2	.7	100.0
	3단계	(174)	39.9	22.4	15.6	10.7	2.8	1.3	2.3	.3	2.6	2.1	100.0
	4단계	(214)	52.0	14.0	13.6	8.0	5.0	2.6	2.8	1.7	.4	.0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41.3	18.9	17.9	10.2	4.3	2.4	2.0	1.1	1.0	.8	100.0
	여성	(63)	43.7	25.8	14.9	3.7	5.5	.5	5.0	.9	.0	.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41.2	18.5	13.2	8.7	6.8	3.7	3.0	1.3	1.7	2.0	100.0
	중도	(347)	42.1	18.9	17.6	11.6	4.4	.7	3.0	.9	.7	.2	100.0
	진보	(214)	40.8	21.5	22.8	7.7	1.8	3.1	.2	1.3	.5	.2	100.0

[표]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 1+2순위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성범죄 / 성적 스캔들	부정직 한 재정 사용 / 돈 욕심	이념 편향적 설교 / 정치적 행위	거짓말	교단 정치	음주 흡연	설교 표절	골프, 수입차 등 사치 이미지가 있는 행동	이혼	기타
■ 전체 ■		(800)	65.1	52.2	36.7	19.1	10.2	6.2	4.8	2.8	1.6	1.1
성별	남성	(354)	53.0	51.4	43.5	23.9	13.6	5.2	3.5	3.8	1.1	1.0
	여성	(446)	74.8	52.7	31.4	15.3	7.6	7.0	5.9	2.0	2.1	1.1
연령	19~29세	(142)	68.3	42.6	39.8	14.3	15.4	10.3	5.6	2.7	.4	.7
	30~39세	(150)	61.7	56.2	38.5	18.4	13.0	3.9	4.0	3.6	.7	.0
	40~49세	(194)	67.7	60.8	35.7	18.9	6.4	5.5	2.9	.7	.8	.5
	50~59세	(200)	65.6	51.5	38.9	20.5	6.7	2.6	4.9	4.4	2.5	2.4
	60~65세	(115)	60.5	45.3	28.4	24.0	12.8	11.7	8.0	2.6	4.3	1.7
지역	서울	(205)	57.9	52.5	42.7	20.1	12.0	5.7	3.4	2.8	1.8	1.1
	경기/인천	(279)	62.6	60.5	33.6	14.7	10.5	5.8	5.2	4.5	1.2	1.2
	대전/충청	(67)	72.7	47.1	33.6	19.3	9.7	10.9	6.7	.0	.0	.0
	광주/전라	(86)	73.5	39.7	30.8	32.1	9.3	3.7	8.1	1.1	1.9	.0
	대구/경북	(50)	67.0	44.0	36.4	22.9	9.6	15.3	.7	.8	3.3	.0
	부산/울산/경남	(76)	71.8	45.0	43.7	15.6	5.2	2.3	5.7	3.7	2.8	4.1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74.6	54.5	34.1	14.9	13.2	5.7	1.4	.0	1.6	.0
	대도시	(441)	63.2	51.0	39.9	18.6	10.9	7.3	3.5	2.3	1.9	1.3
	중소도시	(300)	67.9	52.6	33.9	19.8	9.6	5.1	7.6	1.5	1.0	.8
	읍/면	(59)	65.0	58.6	27.4	19.3	8.6	3.7	.6	13.1	2.7	.9
직업	자영업	(96)	70.4	44.1	38.4	5.2	16.3	11.1	7.6	1.9	.0	4.9
	블루칼러	(125)	62.7	49.4	30.9	36.9	8.2	.0	1.3	7.9	2.6	.0
	화이트칼러	(244)	62.2	52.4	41.1	19.3	11.4	4.6	3.5	2.6	2.0	.8
	전업주부	(198)	69.6	59.1	29.3	17.3	4.6	7.7	7.8	1.5	2.1	1.0
	학생	(64)	65.8	53.8	34.2	18.6	10.2	11.4	5.9	.0	.0	.0
	기타/무직	(43)	63.6	41.7	45.8	13.9	23.2	2.8	4.0	3.2	1.9	.0
결혼여부	결혼	(586)	64.1	54.8	35.4	20.0	8.5	5.7	5.2	2.8	2.0	1.4
	미혼	(214)	68.0	45.0	40.4	16.8	15.0	7.5	3.8	2.7	.6	.2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66.4	54.2	30.6	19.5	10.9	7.1	4.6	3.6	1.8	1.2
	비봉사	(368)	63.7	49.7	43.9	18.6	9.4	5.1	5.0	1.8	1.4	1.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64.0	54.0	28.0	21.1	9.2	11.4	7.4	4.1	.8	.0
	서리집사	(292)	66.2	53.3	35.1	20.1	10.0	5.5	3.7	1.9	2.0	2.1
	일반성도	(399)	64.6	50.8	40.3	17.9	10.6	5.3	4.9	3.1	1.6	.6
교인 수	49명 이하	(95)	65.5	48.2	27.7	26.4	8.1	5.2	3.2	9.9	3.8	2.0
	50~99명	(70)	62.9	55.7	42.9	16.6	8.4	4.7	2.5	4.1	1.5	.8
	100~299명	(145)	65.2	55.3	34.0	20.8	10.6	7.2	5.9	.0	.9	.0
	300~499명	(93)	71.0	54.9	39.4	14.8	8.3	2.9	3.0	3.2	2.6	.0
	500명 이상	(397)	64.0	50.7	38.2	18.2	11.4	7.1	5.6	1.8	1.2	1.6
교단	장로교(합동)	(213)	61.6	57.6	37.9	19.4	5.9	6.6	5.8	3.1	1.0	.8
	장로교(통합)	(213)	67.6	49.3	38.3	19.8	9.5	4.5	6.5	2.3	2.3	.0
	기타 장로교	(85)	66.3	45.1	43.1	15.3	15.3	4.5	1.8	2.2	2.3	4.2
	기타 교단	(210)	66.3	53.9	29.2	18.1	11.6	9.5	3.7	4.1	1.7	1.7
	잘 모름	(80)	63.4	48.1	42.6	23.2	14.5	2.9	3.9	.6	.7	.0
신앙단계	1단계	(108)	54.7	51.4	45.3	23.1	7.2	6.4	7.6	3.1	.5	.0
	2단계	(304)	60.9	54.4	39.8	21.0	14.0	2.6	3.0	1.1	2.4	.7
	3단계	(174)	66.7	55.1	31.6	17.0	9.2	8.7	5.0	3.8	.6	2.1
	4단계	(214)	75.1	46.9	32.2	16.0	7.3	9.2	5.9	4.2	1.9	1.3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65.2	51.9	37.3	18.9	10.5	5.9	4.8	2.5	1.7	1.2
	여성	(63)	64.1	55.3	29.7	21.2	7.1	9.9	5.3	6.4	.9	.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66.2	49.6	29.4	18.7	10.6	8.6	6.3	6.0	1.9	2.8
	중도	(347)	66.2	51.4	38.8	19.5	10.5	7.4	3.1	1.4	1.0	.4
	진보	(214)	62.2	56.3	41.7	18.9	9.4	1.5	6.0	1.5	2.3	.2

[표]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 1순위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성범죄 / 성적 스캔들	부정직 한 재정 사용 / 돈 욕심	이념 편향적 설교 / 정치적 행위	거짓말	설교 표절	음주 흡연	이혼	교단 정치	골프, 수입차 등 사치 이미지가 있는 행동	기타	계
■ 전체 ■		(212)	51.9	18.9	9.4	9.4	3.2	3.1	2.4	1.0	.2	.5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53.5	22.3	5.4	7.5	4.5	3.1	2.7	.9	.0	.0	100.0
	부목사	(66)	54.9	10.7	13.4	9.8	1.6	3.7	2.2	1.5	.8	1.5	100.0
	설교/협력목사	(16)	25.9	25.8	25.8	22.5	.0	.0	.0	.0	.0	.0	100.0
성별	남성	(207)	51.1	19.1	9.6	9.6	3.3	3.1	2.4	1.0	.2	.5	100.0
	여성	(5)	88.9	11.1	.0	.0	.0	.0	.0	.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53.2	10.6	14.9	10.6	.0	4.3	2.1	2.1	.0	2.1	100.0
	40~49세	(45)	50.0	21.6	11.4	10.2	2.3	2.3	1.1	.0	1.1	.0	100.0
	50~59세	(72)	63.5	15.9	6.3	9.5	3.2	.0	.0	1.6	.0	.0	100.0
	60세 이상	(50)	35.7	28.6	7.1	7.1	7.1	7.1	7.1	.0	.0	.0	100.0
지역	서울	(57)	53.3	13.2	16.7	5.3	.0	.9	8.0	.0	.9	1.7	100.0
	경기/인천	(59)	56.0	20.0	7.5	6.3	1.7	8.5	.0	.0	.0	.0	100.0
	대전/충청	(25)	48.8	14.6	14.4	16.3	.0	3.9	2.0	.0	.0	.0	100.0
	광주/전라	(23)	52.6	25.0	2.2	4.9	15.3	.0	.0	.0	.0	.0	100.0
	대구/경북	(12)	31.2	4.4	4.4	32.2	9.8	.0	.0	18.1	.0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54.8	11.0	6.8	27.4	.0	.0	.0	.0	.0	.0	100.0
	강원/제주	(15)	33.0	55.7	3.5	.0	7.8	.0	.0	.0	.0	.0	100.0
	해외	(7)	83.3	16.7	.0	.0	.0	.0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56.2	14.8	11.2	6.1	.5	5.4	4.4	.0	.5	.9	100.0
	중소도시	(77)	51.1	22.3	7.6	12.3	2.1	1.3	.7	2.7	.0	.0	100.0
	읍/면	(32)	39.6	24.3	8.3	12.9	14.8	.0	.0	.0	.0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53.1	18.6	8.0	9.6	4.2	.0	6.6	.0	.0	.0	100.0
	50-99명	(41)	46.4	29.2	6.4	8.1	8.7	1.3	.0	.0	.0	.0	100.0
	100-199명	(26)	78.3	7.7	10.1	2.0	2.0	.0	.0	.0	.0	.0	100.0
	200-499명	(44)	37.1	26.0	14.7	17.4	.0	.0	.0	4.8	.0	.0	100.0
	500명 이상	(47)	54.6	10.0	8.5	6.7	1.1	12.8	3.2	.0	1.1	2.1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40.5	9.6	18.1	11.2	7.6	10.2	.9	.0	.0	1.8	100.0
	장로교(통합)	(53)	54.1	28.0	4.8	4.1	2.2	1.0	1.8	4.0	.0	.0	100.0
	기타 장로교	(29)	56.6	16.8	1.8	17.5	5.7	1.8	.0	.0	.0	.0	100.0
	기타 교단	(76)	56.6	20.1	9.5	8.6	.0	.0	4.7	.0	.7	.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51.3	14.2	9.0	10.3	1.4	7.5	4.4	.0	.6	1.2	100.0
	중도	(66)	56.5	16.1	9.7	8.4	6.9	.8	1.5	.0	.0	.0	100.0
	진보	(66)	48.0	27.5	9.7	9.2	1.7	.0	.8	3.2	.0	.0	100.0

[표]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 - 1+2순위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성범죄 / 성적 스캔들	부정직 한 재정 사용 / 돈 욕심	거짓말	이념 편향적 설교 / 정치적 행위	설교 표절	이혼	음주 흡연	골프, 수입차 등 사치 이미지가 있는 행동	교단 정치	기타
■ 전체 ■		(212)	82.5	49.2	18.3	18.4	9.8	8.2	7.6	2.8	2.7	.5
구분	담임목사	(130)	82.6	48.3	17.9	14.6	9.3	12.2	10.0	2.5	2.5	.0
	부목사	(66)	83.5	53.1	12.8	23.4	11.3	2.2	4.5	4.1	3.7	1.5
	설교/협력목사	(16)	77.5	41.3	45.1	29.0	7.2	.0	.0	.0	.0	.0
성별	남성	(207)	82.1	48.1	18.7	18.8	10.0	8.4	7.7	2.9	2.8	.5
	여성	(5)	100.0	100.0	.0	.0	.0	.0	.0	.0	.0	.0
연령	39세 이하	(46)	83.0	57.4	14.9	23.4	8.5	2.1	4.3	.0	4.3	2.1
	40~49세	(45)	84.1	55.7	12.5	19.3	9.1	2.3	8.0	5.7	3.4	.0
	50~59세	(72)	88.9	44.4	27.0	17.5	7.9	1.6	4.8	4.8	3.2	.0
	60세 이상	(50)	71.4	42.9	14.3	14.3	14.3	28.6	14.3	.0	.0	.0
지역	서울	(57)	84.8	46.2	16.0	19.6	19.0	8.0	2.9	1.8	.0	1.7
	경기/인천	(59)	81.6	43.8	12.7	17.7	3.5	18.0	17.1	2.8	2.8	.0
	대전/충청	(25)	85.6	46.3	20.9	24.2	.0	6.6	12.5	.0	3.9	.0
	광주/전라	(23)	77.7	58.6	29.9	6.6	20.2	.0	.0	7.1	.0	.0
	대구/경북	(12)	85.9	21.5	42.0	4.4	9.8	4.4	.0	9.8	22.5	.0
	부산/울산/경남	(15)	75.7	58.2	27.4	24.3	3.4	.0	7.6	.0	3.4	.0
	강원/제주	(15)	75.7	62.7	7.8	39.1	11.3	.0	.0	3.5	.0	.0
	해외	(7)	100.0	100.0	.0	.0	.0	.0	.0	.0	.0	.0
지역크기	대도시	(104)	85.2	45.7	13.3	18.9	11.8	8.3	11.5	2.6	1.6	.9
	중소도시	(77)	78.4	51.4	25.8	15.9	2.1	11.4	5.4	4.3	5.3	.0
	읍/면	(32)	83.6	55.5	16.5	22.7	21.7	.0	.0	.0	.0	.0
교인 수	49명 이하	(54)	87.6	42.7	14.0	18.0	5.1	20.6	4.0	4.0	4.0	.0
	50-99명	(41)	65.7	52.6	17.9	35.9	12.8	2.8	10.0	.0	2.4	.0
	100-199명	(26)	88.6	56.6	17.6	5.7	23.2	.0	2.0	4.4	2.0	.0
	200-499명	(44)	89.3	49.2	26.9	21.1	.0	.0	7.5	1.2	4.8	.0
	500명 이상	(47)	81.5	49.9	16.2	7.7	14.4	10.7	12.8	4.6	.0	2.1
교단	장로교(합동)	(54)	80.3	37.0	19.4	24.6	12.1	8.5	10.2	2.1	4.0	1.8
	장로교(통합)	(53)	75.2	55.1	18.3	16.0	9.3	8.6	6.3	5.3	5.9	.0
	기타 장로교	(29)	85.8	43.4	28.6	13.5	25.3	.0	1.8	1.8	.0	.0
	기타 교단	(76)	87.8	56.1	13.7	17.5	2.6	10.8	8.8	2.0	.7	.0
정치적 성향	보수	(80)	85.8	34.1	20.9	12.9	12.5	13.3	13.9	4.1	1.3	1.2
	중도	(66)	80.5	48.0	12.6	28.1	10.7	9.4	6.7	1.5	2.5	.0
	진보	(66)	80.5	68.8	21.0	15.4	5.7	.8	.8	2.5	4.7	.0

2.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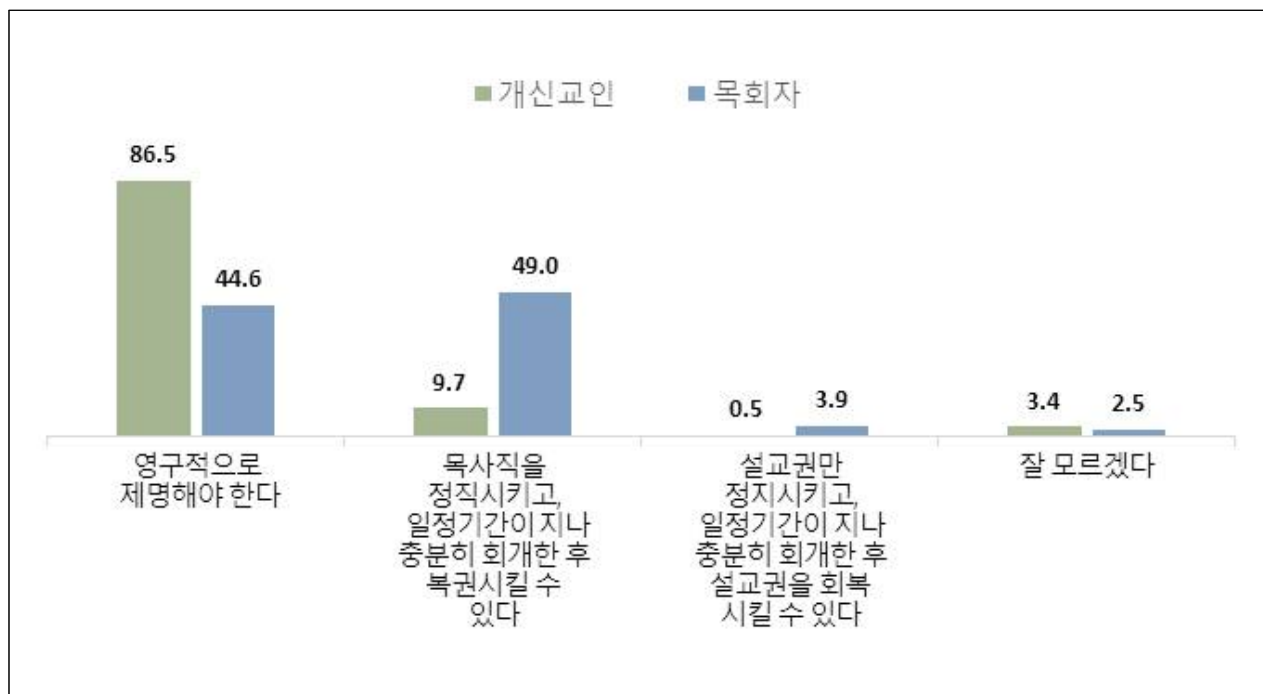
(개신교인&목회자) 귀하는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 처리에 대해, 개신교인의 대부분(86.5%)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44.6%만이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보다 많은 49.0%가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 개신교인 중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신앙단계 4 단계와 정치적 보수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목회자 중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담임목사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부목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계
■ 전체 ■		(800)	86.5	9.7	3.4	.5	100.0
성별	남성	(354)	85.4	10.9	3.3	.4	100.0
	여성	(446)	87.3	8.8	3.5	.5	100.0
연령	19~29세	(142)	87.6	7.3	4.8	.3	100.0
	30~39세	(150)	83.9	11.6	3.8	.7	100.0
	40~49세	(194)	83.5	13.5	2.7	.2	100.0
	50~59세	(200)	88.6	8.6	2.6	.2	100.0
	60~65세	(115)	89.6	5.7	3.6	1.1	100.0
지역	서울	(205)	88.6	6.2	5.0	.3	100.0
	경기/인천	(279)	86.8	9.9	2.5	.8	100.0
	대전/충청	(67)	91.7	4.3	4.0	.0	100.0
	광주/전라	(86)	82.3	13.9	3.4	.5	100.0
	대구/경북	(50)	82.8	12.4	4.8	.0	100.0
	부산/울산/경남	(76)	83.2	14.9	1.3	.6	100.0
	강원/제주	(32)	81.9	15.6	2.6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41)	87.7	7.0	4.8	.6	100.0
	중소도시	(300)	84.3	13.9	1.5	.4	100.0
	읍/면	(59)	88.3	8.9	2.8	.0	100.0
직업	자영업	(96)	85.5	9.9	4.6	.0	100.0
	블루칼러	(125)	92.1	7.9	.0	.0	100.0
	화이트칼러	(244)	85.7	10.4	2.7	1.2	100.0
	전업주부	(198)	84.8	11.1	4.2	.0	100.0
	학생	(64)	82.5	8.1	9.4	.0	100.0
	기타/무직	(43)	94.1	4.0	1.9	.0	100.0
결혼여부	결혼	(586)	86.4	10.2	2.9	.5	100.0
	미혼	(214)	86.8	8.4	4.6	.2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84.6	10.0	4.7	.7	100.0
	비봉사	(368)	88.6	9.4	1.8	.2	100.0
교회 직분	중직자	(109)	82.6	12.4	3.7	1.4	100.0
	서리집사	(292)	86.5	9.0	4.3	.2	100.0
	일반성도	(399)	87.5	9.5	2.6	.4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95)	82.3	14.0	3.2	.5	100.0
	50-99명	(70)	82.8	6.0	11.2	.0	100.0
	100-299명	(145)	84.4	10.4	4.8	.4	100.0
	300-499명	(93)	88.4	7.5	4.1	.0	100.0
	500명 이상	(397)	88.4	9.6	1.4	.7	100.0
교단	장로교(합동)	(213)	82.6	12.9	3.9	.5	100.0
	장로교(통합)	(213)	91.0	6.4	1.9	.6	100.0
	기타 장로교	(85)	83.2	12.0	4.2	.6	100.0
	기타 교단	(210)	87.1	7.8	4.7	.3	100.0
	잘 모름	(80)	86.4	12.3	1.3	.0	100.0
신앙단계	1단계	(108)	89.1	9.7	.5	.7	100.0
	2단계	(304)	89.7	7.0	2.8	.5	100.0
	3단계	(174)	84.9	8.1	7.0	.0	100.0
	4단계	(214)	81.8	14.9	2.6	.7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86.1	9.8	3.6	.4	100.0
	여성	(63)	90.5	8.1	.8	.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82.0	14.7	2.8	.6	100.0
	중도	(347)	85.1	9.1	5.4	.5	100.0
	진보	(214)	93.7	5.2	.9	.2	100.0

[표]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49.0	44.6	3.9	2.5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53.2	39.4	5.2	2.1	100.0
	부목사	(66)	38.5	55.5	2.2	3.7	100.0
	설교/협력목사	(16)	57.7	42.3	.0	.0	100.0
성별	남성	(207)	49.6	43.9	4.0	2.5	100.0
	여성	(5)	21.0	79.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40.4	51.1	4.3	4.3	100.0
	40~49세	(45)	47.7	48.9	1.1	2.3	100.0
	50~59세	(72)	39.7	54.0	3.2	3.2	100.0
	60세 이상	(50)	71.4	21.4	7.1	.0	100.0
지역	서울	(57)	54.2	43.2	2.6	.0	100.0
	경기/인천	(59)	36.2	50.6	9.6	3.6	100.0
	대전/충청	(25)	47.1	44.4	4.6	3.9	100.0
	광주/전라	(23)	55.9	39.2	.0	4.9	100.0
	대구/경북	(12)	50.7	40.5	.0	8.8	100.0
	부산/울산/경남	(15)	60.5	39.5	.0	.0	100.0
	강원/제주	(15)	42.6	57.4	.0	.0	100.0
	해외	(7)	85.7	14.3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51.4	42.8	4.9	1.0	100.0
	중소도시	(77)	47.8	43.7	3.0	5.5	100.0
	읍/면	(32)	44.0	52.9	3.1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61.3	33.8	1.8	3.0	100.0
	50-99명	(41)	28.2	63.8	2.8	5.2	100.0
	100-199명	(26)	45.5	54.5	.0	.0	100.0
	200-499명	(44)	62.4	35.0	2.6	.0	100.0
	500명 이상	(47)	42.2	44.0	10.7	3.2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56.4	30.3	8.4	4.9	100.0
	장로교(통합)	(53)	42.4	54.8	1.0	1.8	100.0
	기타 장로교	(29)	60.6	35.5	.0	3.9	100.0
	기타 교단	(76)	43.9	51.1	4.2	.7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50.5	39.6	7.1	2.8	100.0
	중도	(66)	41.3	51.7	4.0	3.0	100.0
	진보	(66)	54.9	43.6	.0	1.5	100.0

3.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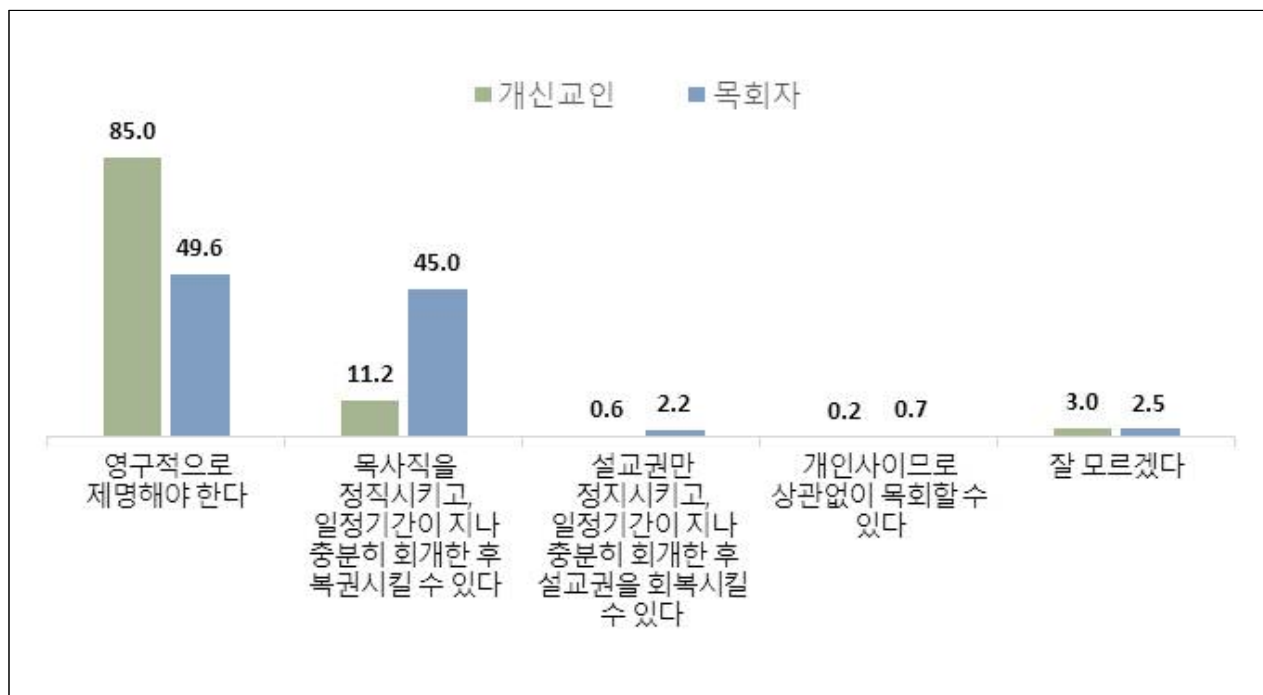
(개신교인&목회자) 그럼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 교인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물은 결과, 개신교인은 마찬가지로 대부분(85.0%)이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목회자는 절반(49.6%) 정도는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45.0%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 목회자 중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응답률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설교권만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개인사이므로 상관없이 목회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85.0	11.2	.6	.2	3.0	100.0
성별	남성	(354)	84.0	12.5	.4	.3	2.8	100.0
	여성	(446)	85.7	10.3	.8	.1	3.1	100.0
연령	19~29세	(142)	84.9	9.3	.6	.4	4.8	100.0
	30~39세	(150)	87.0	9.7	.3	.4	2.6	100.0
	40~49세	(194)	83.2	15.5	.4	.3	.5	100.0
	50~59세	(200)	87.0	9.2	1.0	.0	2.7	100.0
	60~65세	(115)	81.6	12.0	.6	.0	5.8	100.0
지역	서울	(205)	87.5	9.3	.5	.0	2.7	100.0
	경기/인천	(279)	84.2	11.2	.9	.4	3.3	100.0
	대전/충청	(67)	82.9	12.9	.0	.8	3.5	100.0
	광주/전라	(86)	89.7	6.2	.3	.0	3.7	100.0
	대구/경북	(50)	79.8	16.2	.7	.0	3.3	100.0
	부산/울산/경남	(76)	82.8	13.7	1.2	.0	2.3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32)	78.9	21.1	.0	.0	.0	100.0
	대도시	(441)	85.5	11.3	.7	.1	2.4	100.0
	중소도시	(300)	84.4	11.3	.6	.3	3.3	100.0
	읍/면	(59)	83.8	10.3	.5	.0	5.4	100.0
직업	자영업	(96)	85.5	9.9	.0	.0	4.6	100.0
	블루컬러	(125)	90.4	8.3	.0	.0	1.3	100.0
	화이트컬러	(244)	85.6	10.6	1.8	.6	1.4	100.0
	전업주부	(198)	83.4	13.0	.0	.0	3.6	100.0
	학생	(64)	71.0	19.2	.0	.0	9.8	100.0
	기타/무직	(43)	89.9	7.7	.0	.0	2.4	100.0
결혼여부	결혼	(586)	85.4	11.1	.6	.3	2.6	100.0
	미혼	(214)	83.7	11.7	.7	.0	3.9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84.5	11.2	.8	.2	3.4	100.0
	비봉사	(368)	85.5	11.4	.4	.1	2.5	100.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80.7	14.3	1.3	.0	3.7	100.0
	서리집사	(292)	85.9	11.0	.4	.2	2.5	100.0
	일반성도	(399)	85.4	10.6	.6	.3	3.1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95)	82.1	14.4	.0	.0	3.5	100.0
	50-99명	(70)	79.4	15.6	.0	.0	5.0	100.0
	100-299명	(145)	85.5	10.8	.3	.4	3.0	100.0
	300-499명	(93)	83.0	12.4	.6	.0	4.1	100.0
	500명 이상	(397)	86.9	9.6	1.0	.3	2.2	100.0
교단	장로교(합동)	(213)	81.3	12.7	1.3	.2	4.5	100.0
	장로교(통합)	(213)	88.6	8.2	.8	.0	2.4	100.0
	기타 장로교	(85)	88.4	10.3	.0	.6	.6	100.0
	기타 교단	(210)	84.1	12.9	.3	.2	2.6	100.0
	잘 모름	(80)	83.8	12.4	.0	.0	3.8	100.0
신앙단계	1단계	(108)	87.4	10.1	.7	.0	1.8	100.0
	2단계	(304)	84.4	11.5	.7	.0	3.4	100.0
	3단계	(174)	83.5	11.4	.2	.3	4.6	100.0
	4단계	(214)	85.7	11.3	.8	.5	1.7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84.7	11.5	.6	.1	3.1	100.0
	여성	(63)	87.5	8.9	1.2	.8	1.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80.3	14.9	1.1	.0	3.7	100.0
	중도	(347)	83.1	12.7	.5	.2	3.5	100.0

	진보	(214)	93.2	4.8	.2	.5	1.3	100.0
--	----	-------	------	-----	----	----	-----	-------

[표]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개인사이므로 상관없이 목회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12)	49.6	45.0	2.2	.7	2.5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48.5	45.8	3.6	.4	1.7	100.0
	부목사	(66)	56.8	37.2	.0	1.5	4.5	100.0
	설교/협력목사	(16)	29.0	71.0	.0	.0	.0	100.0
성별	남성	(207)	49.0	45.5	2.3	.7	2.5	100.0
	여성	(5)	79.0	21.0	.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53.2	40.4	.0	2.1	4.3	100.0
	40~49세	(45)	52.3	44.3	.0	1.1	2.3	100.0
	50~59세	(72)	60.3	34.9	1.6	.0	3.2	100.0
	60세 이상	(50)	28.6	64.3	7.1	.0	.0	100.0
지역	서울	(57)	45.0	53.2	.0	.9	.9	100.0
	경기/인천	(59)	50.7	37.8	6.0	.0	5.5	100.0
	대전/충청	(25)	46.3	39.3	4.6	3.9	5.9	100.0
	광주/전라	(23)	46.8	53.2	.0	.0	.0	100.0
	대구/경북	(12)	50.3	49.7	.0	.0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57.0	43.0	.0	.0	.0	100.0
	강원/제주	(15)	57.4	42.6	.0	.0	.0	100.0
	해외	(7)	66.6	33.4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42.8	52.2	3.4	.5	1.0	100.0
	중소도시	(77)	56.8	34.9	1.5	1.3	5.5	100.0
	읍/면	(32)	54.4	45.6	.0	.0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48.8	50.3	.0	.9	.0	100.0
	50-99명	(41)	57.6	33.2	2.8	2.4	4.0	100.0
	100-199명	(26)	66.3	33.7	.0	.0	.0	100.0
	200-499명	(44)	40.8	55.4	.0	.0	3.7	100.0
	500명 이상	(47)	42.7	45.6	7.6	.0	4.1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47.8	42.0	6.6	.0	3.6	100.0
	장로교(통합)	(53)	59.2	38.0	.0	1.8	1.0	100.0
	기타 장로교	(29)	29.9	62.7	.0	1.8	5.7	100.0
	기타 교단	(76)	51.8	45.2	1.5	.0	1.5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43.7	46.5	4.4	.6	4.7	100.0
	중도	(66)	53.3	42.7	1.7	.0	2.2	100.0
	진보	(66)	53.1	45.4	.0	1.5	.0	100.0

4.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질문

(개신교인&목회자) 귀하는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목사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개신교인의 과반(53.4%)은 '둘 다'라고 응답했고, 42.7%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반면, 목회자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율이 3/4 가까이(74.0%) 돼서 개신교인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 개신교인 중 '둘 다'라는 의견은 여성에서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남성에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 목회자 중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담임목사에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부목사는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림]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Base=전체, n=개신교인800, 목회자212, %)



[표]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Base=개신교인, n=800, %)

		사례 수	둘 다	목사의 책임이 크다	이성 성도의 책임이 크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53.4	42.7	1.8	2.1	100.0
성별	남성	(354)	45.6	47.7	3.6	3.2	100.0
	여성	(446)	59.6	38.7	.4	1.3	100.0
연령	19~29세	(142)	62.5	30.4	1.3	5.8	100.0
	30~39세	(150)	61.8	31.3	4.4	2.5	100.0
	40~49세	(194)	56.2	42.7	.4	.8	100.0
	50~59세	(200)	44.5	51.8	2.7	1.0	100.0
	60~65세	(115)	41.8	56.7	.0	1.5	100.0
지역	서울	(205)	54.2	40.2	2.8	2.8	100.0
	경기/인천	(279)	53.1	42.1	2.1	2.7	100.0
	대전/충청	(67)	48.0	49.5	.0	2.6	100.0
	광주/전라	(86)	40.1	56.2	1.3	2.4	100.0
	대구/경북	(50)	68.2	31.1	.7	.0	100.0
	부산/울산/경남	(76)	54.2	43.6	2.1	.0	100.0
	강원/제주	(32)	75.2	24.8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441)	51.2	43.3	2.9	2.7	100.0
	중소도시	(300)	56.9	41.0	.5	1.6	100.0
	읍/면	(59)	52.0	46.6	.5	.9	100.0
직업	자영업	(96)	36.0	54.1	7.0	3.0	100.0
	블루칼러	(125)	56.8	43.2	.0	.0	100.0
	화이트칼러	(244)	52.6	42.8	2.6	1.9	100.0
	전업주부	(198)	61.6	37.5	.0	.9	100.0
	학생	(64)	66.9	23.0	2.2	8.0	100.0
	기타/무직	(43)	42.7	54.1	.0	3.2	100.0
결혼여부	결혼	(586)	52.6	44.9	1.3	1.2	100.0
	미혼	(214)	55.5	36.5	3.3	4.7	100.0
교회봉사 여부	봉사	(432)	46.6	48.3	2.9	2.1	100.0
	비봉사	(368)	61.2	36.1	.5	2.2	100.0
교회 직분	종직자	(109)	51.0	45.1	1.0	2.9	100.0
	서리집사	(292)	48.7	48.3	1.7	1.3	100.0
	일반성도	(399)	57.4	37.9	2.2	2.5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95)	59.7	38.6	1.7	.0	100.0
	50-99명	(70)	44.2	44.3	7.9	3.6	100.0
	100-299명	(145)	52.1	44.7	.6	2.6	100.0
	300-499명	(93)	48.2	47.1	1.0	3.6	100.0
	500명 이상	(397)	55.1	41.6	1.4	1.9	100.0
교단	장로교(합동)	(213)	50.5	45.6	1.6	2.3	100.0
	장로교(통합)	(213)	52.7	43.2	1.9	2.2	100.0
	기타 장로교	(85)	40.8	55.7	1.1	2.4	100.0
	기타 교단	(210)	54.3	40.9	2.7	2.1	100.0
	잘 모름	(80)	73.8	24.2	.7	1.3	100.0
신앙단계	1단계	(108)	52.7	46.4	.9	.0	100.0
	2단계	(304)	58.8	35.1	2.0	4.1	100.0
	3단계	(174)	54.5	41.6	1.6	2.3	100.0
	4단계	(214)	45.2	52.4	2.2	.3	100.0
담임목사 성별	남성	(737)	53.3	42.8	1.8	2.1	100.0
	여성	(63)	54.5	41.2	2.1	2.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8)	51.4	44.4	3.1	1.1	100.0
	중도	(347)	59.2	36.4	.7	3.6	100.0
	진보	(214)	46.2	50.8	2.2	.9	100.0

[표]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책임 소재

(Base=목회자, n=212, %)

		사례수	목사의 책임이 크다	둘 다	이성 성도의 책임이 크다	계
■ 전체 ■		(212)	74.0	24.3	1.7	100.0
구분	담임목사	(130)	76.0	21.3	2.7	100.0
	부목사	(66)	67.7	32.3	.0	100.0
	설교/협력목사	(16)	84.5	15.5	.0	100.0
성별	남성	(207)	73.5	24.8	1.7	100.0
	여성	(5)	100.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46)	61.7	38.3	.0	100.0
	40~49세	(45)	64.8	35.2	.0	100.0
	50~59세	(72)	74.6	25.4	.0	100.0
	60세 이상	(50)	92.9	.0	7.1	100.0
지역	서울	(57)	81.9	18.1	.0	100.0
	경기/인천	(59)	68.6	25.4	6.0	100.0
	대전/충청	(25)	59.2	40.8	.0	100.0
	광주/전라	(23)	86.6	13.4	.0	100.0
	대구/경북	(12)	77.5	22.5	.0	100.0
	부산/울산/경남	(15)	59.7	40.3	.0	100.0
	강원/제주	(15)	85.2	14.8	.0	100.0
	해외	(7)	69.0	31.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4)	71.4	25.2	3.4	100.0
	중소도시	(77)	73.5	26.5	.0	100.0
	읍/면	(32)	83.8	16.2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4)	76.1	23.9	.0	100.0
	50-99명	(41)	75.2	24.8	.0	100.0
	100-199명	(26)	94.1	5.9	.0	100.0
	200-499명	(44)	72.9	27.1	.0	100.0
	500명 이상	(47)	60.7	31.7	7.6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4)	78.5	14.9	6.6	100.0
	장로교(통합)	(53)	78.6	21.4	.0	100.0
	기타 장로교	(29)	67.2	32.8	.0	100.0
	기타 교단	(76)	70.4	29.6	.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80)	77.8	17.8	4.4	100.0
	중도	(66)	67.3	32.7	.0	100.0
	진보	(66)	76.2	23.8	.0	100.0

5.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목회자 대상)

질문

(목회자)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이성 성도가 목사님께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 배우자가 있는 목회자 중 1/3 정도가 '목회하면서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있다'는 비율은 담임목사에서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목회자 대상)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표]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목회자 대상)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사례수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1)	32.9	53.4	13.7	100.0
구분	담임목사	(127)	36.5	46.0	17.5	100.0
	부목사	(59)	26.1	67.2	6.7	100.0
	설교/협력목사	(16)	28.7	62.0	9.4	100.0
성별	남성	(199)	32.2	54.0	13.8	100.0
	여성	(2)	100.0	.0	.0	100.0
연령	39세 이하	(38)	20.5	69.2	10.3	100.0
	40~49세	(44)	29.9	60.9	9.2	100.0
	50~59세	(69)	34.4	47.5	18.0	100.0
	60세 이상	(50)	42.9	42.9	14.3	100.0
지역	서울	(54)	23.9	59.7	16.4	100.0
	경기/인천	(55)	33.0	55.0	12.0	100.0
	대전/충청	(24)	37.6	44.1	18.3	100.0
	광주/전라	(22)	38.1	59.6	2.3	100.0
	대구/경북	(11)	34.0	56.4	9.6	100.0
	부산/울산/경남	(15)	26.2	62.8	11.0	100.0
	강원/제주	(15)	63.5	28.7	7.8	100.0
	해외	(7)	16.7	31.0	52.3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1)	29.9	58.1	12.0	100.0
	중소도시	(70)	36.7	45.9	17.4	100.0
	읍/면	(31)	33.9	55.3	10.7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2)	29.8	54.2	16.0	100.0
	50-99명	(40)	33.0	55.9	11.1	100.0
	100-199명	(23)	4.4	56.3	39.3	100.0
	200-499명	(40)	56.3	39.6	4.1	100.0
	500명 이상	(46)	30.5	60.9	8.5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1)	13.1	69.9	17.0	100.0
	장로교(통합)	(51)	43.2	47.0	9.8	100.0
	기타 장로교	(29)	50.3	31.8	17.9	100.0
	기타 교단	(71)	32.5	55.0	12.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79)	26.4	62.5	11.1	100.0
	중도	(60)	32.7	53.8	13.6	100.0
	진보	(62)	41.4	41.5	17.1	100.0

5-1.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목회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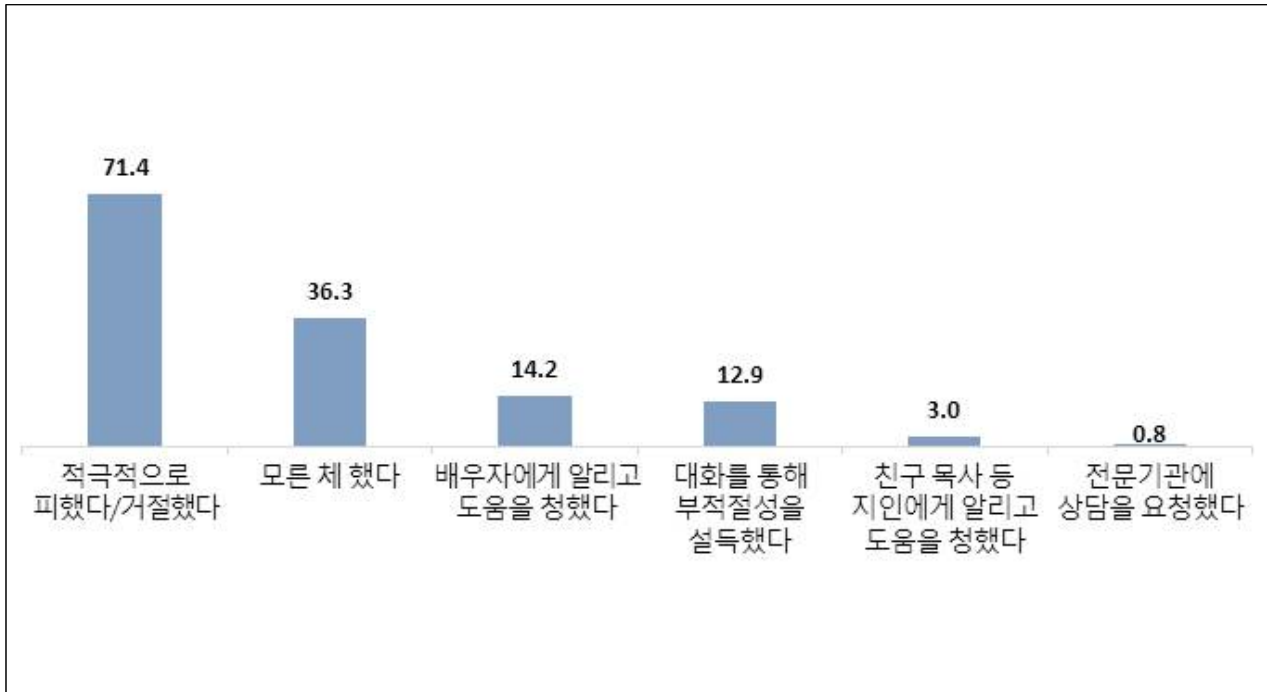
질문

(목회자)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을 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71.4%가 '적극적으로 피했다/거절했다'고 했으며, '모른 채 했다' 36.3%, '배우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14.2%, '대화를 통해 부적절성을 설득했다' 12.9% 등으로 응답됐다.

[그림]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목회자 대상, 중복응답) (Base=성도에게 이성 감정 경험 '있음' 목회자, n=66, %)



[표] 성도가 여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목회자 대상, 중복응답) (Base=성도에게 여성 감정 경험 '있음' 목회자, n=66, %)

		사례수	적극적으로 피했다/거 절했다	모른 채 했다	배우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대화를 통해 부적절성을 설득했다	친구 목사 등 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	기타
■ 전체 ■		(66)	71.4	36.3	14.2	12.9	3.0	.8	3.4
구분	담임목사	(46)	67.7	42.1	13.7	14.1	.0	1.1	4.9
	부목사	(15)	74.0	29.4	20.0	13.0	13.0	.0	.0
	설교/협력목사	(5)	100.0	.0	.0	.0	.0	.0	.0
성별	남성	(64)	70.4	37.5	13.1	12.5	2.3	.0	3.5
	여성	(2)	100.0	.0	47.3	23.7	23.7	23.7	.0
연령	39세 이하	(8)	50.0	50.0	.0	25.0	12.5	.0	.0
	40~49세	(13)	73.1	38.5	26.9	15.4	7.7	3.8	.0
	50~59세	(24)	66.7	33.3	9.5	19.0	.0	.0	9.5
	60세 이상	(21)	83.3	33.3	16.7	.0	.0	.0	.0
지역	서울	(13)	79.5	33.3	25.8	8.0	4.0	.0	.0
	경기/인천	(18)	80.1	45.3	11.3	23.7	8.2	2.8	.0
	대전/충청	(9)	57.8	36.6	5.7	.0	.0	.0	12.6
	광주/전라	(8)	80.5	19.5	.0	13.5	.0	.0	.0
	대구/경북	(4)	73.4	40.7	.0	26.6	.0	.0	.0
	부산/울산/경남	(4)	87.0	13.0	.0	29.0	.0	.0	.0
	강원/제주	(9)	49.4	38.4	38.4	.0	.0	.0	12.3
	해외	(1)	.0	100.0	.0	.0	.0	.0	.0
지역크기	대도시	(30)	77.1	31.7	17.7	13.8	6.6	1.7	.0
	중소도시	(26)	79.7	48.0	2.0	12.6	.0	.0	8.8
	읍/면	(10)	34.2	20.7	34.2	10.9	.0	.0	.0
교인 수	49명 이하	(16)	57.9	71.5	7.3	24.1	.0	.0	7.3
	50~99명	(13)	35.7	28.6	27.1	8.7	.0	.0	8.7
	100~199명	(1)	100.0	.0	50.0	50.0	.0	50.0	.0
	200~499명	(23)	88.9	29.2	.0	7.3	.0	.0	.0
	500명 이상	(14)	89.5	18.6	29.9	10.5	14.2	.0	.0
교단	장로교(합동)	(7)	68.3	39.4	7.7	.0	.0	.0	.0
	장로교(통합)	(22)	83.4	40.9	9.3	16.6	4.7	.0	.0
	기타 장로교	(15)	64.3	23.7	7.8	7.8	.0	.0	7.8
	기타 교단	(23)	65.4	39.1	24.8	16.3	4.2	2.2	4.9
정치적 성향	보수	(21)	69.9	47.1	12.8	19.7	7.1	.0	5.5
	중도	(20)	71.0	28.4	31.6	2.6	2.6	.0	5.8
	진보	(26)	72.8	33.6	2.0	15.3	.0	2.0	.0

6.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목회자 대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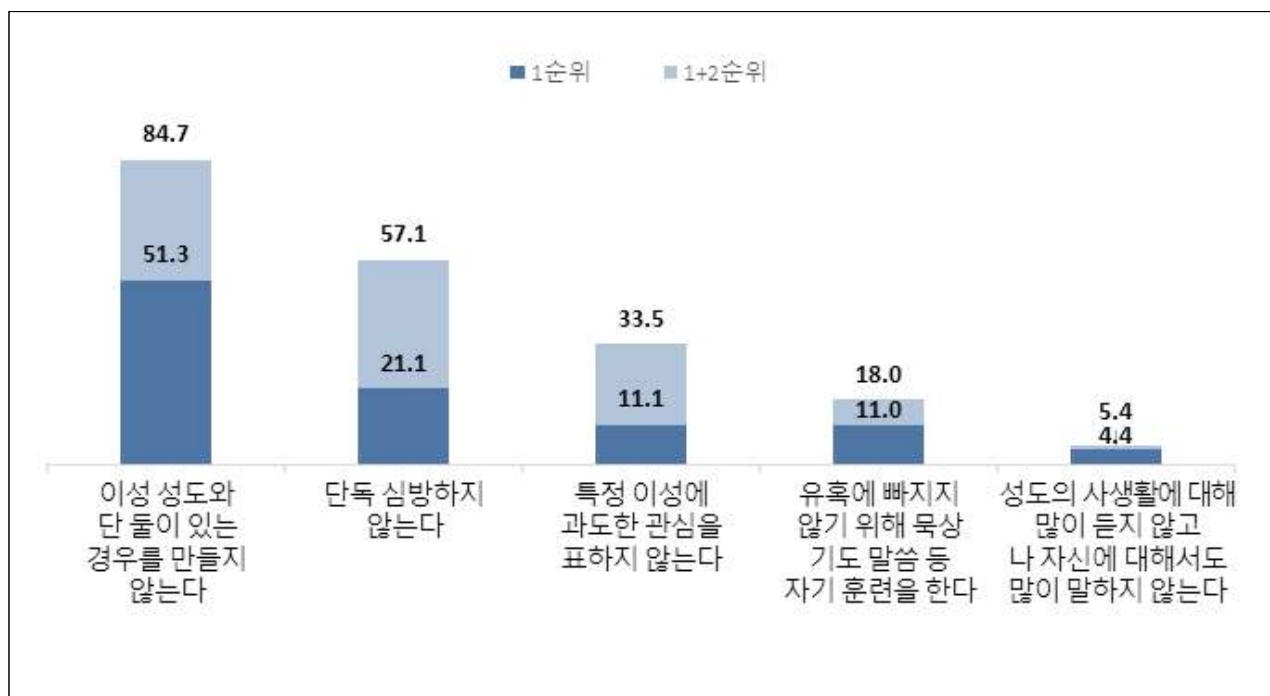
(목회자)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이성 성도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 이성 성도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으로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가 가장 많이 응답됐다(1+2순위 84.7%). 그 다음으로 '단독 심방하지 않는다'(57.1%), '특정 이성에 과도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담임목사는 '단독 심방하지 않는 것'을 유의점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 목회자에서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다.

[그림]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목회자 대상)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표]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목회자 대상) - 1순위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사례수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	단독 심방하지 않는다	특정 이성에 과도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묵상 기도 말씀 등 자기 훈련을 한다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듣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 않는다	기타	계
■ 전체 ■		(201)	51.3	21.1	11.1	11.0	4.4	1.1	100.0
구분	담임목사	(127)	49.3	23.2	11.2	11.4	3.1	1.7	100.0
	부목사	(59)	52.0	14.4	12.2	12.9	8.5	.0	100.0
	설교/협력목사	(16)	64.9	29.0	6.1	.0	.0	.0	100.0
성별	남성	(199)	51.3	21.3	11.0	11.1	4.5	.8	100.0
	여성	(2)	52.7	.0	23.7	.0	.0	23.7	100.0
연령	39세 이하	(38)	53.8	15.4	10.3	12.8	7.7	.0	100.0
	40~49세	(44)	48.3	23.0	10.3	10.3	5.7	2.3	100.0
	50~59세	(69)	42.6	27.9	9.8	13.1	4.9	1.6	100.0
	60세 이상	(50)	64.3	14.3	14.3	7.1	.0	.0	100.0
지역	서울	(54)	58.2	20.1	8.9	10.6	2.1	.0	100.0
	경기/인천	(55)	36.1	21.3	18.9	16.5	6.3	.9	100.0
	대전/충청	(24)	47.1	30.8	4.0	6.9	11.1	.0	100.0
	광주/전라	(22)	61.1	16.1	5.1	10.3	2.3	5.1	100.0
	대구/경북	(11)	44.7	45.8	4.8	.0	.0	4.8	100.0
	부산/울산/경남	(15)	54.0	17.8	7.6	13.0	7.6	.0	100.0
	강원/제주	(15)	54.7	10.5	24.3	10.5	.0	.0	100.0
	해외	(7)	100.0	.0	.0	.0	.0	.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01)	49.7	18.2	12.9	13.4	4.7	1.0	100.0
	중소도시	(70)	50.3	25.9	8.4	10.1	3.7	1.6	100.0
	읍/면	(31)	59.1	19.4	11.6	5.0	4.8	.0	100.0
교인 수	49명 이하	(52)	52.1	27.9	4.0	9.7	3.2	3.2	100.0
	50-99명	(40)	33.2	23.9	23.6	13.6	5.7	.0	100.0
	100-199명	(23)	55.8	18.2	9.0	10.7	4.1	2.2	100.0
	200-499명	(40)	76.1	13.6	4.1	2.4	3.7	.0	100.0
	500명 이상	(46)	42.3	18.9	15.6	17.8	5.4	.0	100.0
교단	장로교(합동)	(51)	55.1	15.8	6.8	18.3	3.9	.0	100.0
	장로교(통합)	(51)	46.9	37.1	9.5	2.2	2.0	2.2	100.0
	기타 장로교	(29)	63.3	13.1	5.7	12.9	5.1	.0	100.0
	기타 교단	(71)	46.9	16.8	17.6	11.1	6.2	1.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79)	51.4	18.4	8.3	18.7	3.3	.0	100.0
	중도	(60)	48.4	29.9	11.2	5.4	4.3	.8	100.0
	진보	(62)	54.2	16.0	14.7	6.6	5.9	2.7	100.0

[표]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목회자 대상) - 1+2순위

(Base=배우자 있는 목회자, n=201, %)

		사례수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	단독 심방하지 않는다	특정 이성에 과도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묵상 기도 말씀 등 자기 훈련을 한다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듣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 않는다	기타
■ 전체 ■		(201)	84.7	57.1	33.5	18.0	5.4	1.3
구분	담임목사	(127)	86.5	60.3	27.3	19.1	4.7	2.1
	부목사	(59)	82.8	41.7	48.2	18.9	8.5	.0
	설교/협력목사	(16)	77.5	87.7	28.7	6.1	.0	.0
성별	남성	(199)	85.1	57.2	33.0	18.2	5.5	1.1
	여성	(2)	52.7	47.3	76.3	.0	.0	23.7
연령	39세 이하	(38)	82.1	46.2	41.0	20.5	10.3	.0
	40~49세	(44)	87.4	55.2	31.0	14.9	8.0	3.4
	50~59세	(69)	78.7	59.0	34.4	21.3	4.9	1.6
	60세 이상	(50)	92.9	64.3	28.6	14.3	.0	.0
지역	서울	(54)	81.1	64.1	37.3	15.3	2.1	.0
	경기/인천	(55)	87.4	42.2	38.0	22.4	9.0	.9
	대전/충청	(24)	89.6	73.2	17.1	9.0	11.1	.0
	광주/전라	(22)	63.4	54.4	36.6	35.8	4.6	5.1
	대구/경북	(11)	95.2	76.6	23.4	.0	.0	4.8
	부산/울산/경남	(15)	85.9	55.1	38.4	13.0	7.6	.0
	강원/제주	(15)	96.5	46.1	35.6	18.3	.0	3.5
	해외	(7)	100.0	69.0	14.3	16.7	.0	.0
지역크기	대도시	(101)	83.2	55.5	35.3	20.3	4.7	1.0
	중소도시	(70)	81.0	64.6	33.7	14.7	4.5	1.6
	읍/면	(31)	98.3	45.1	27.0	18.3	9.6	1.7
교인 수	49명 이하	(52)	89.6	55.5	26.6	17.2	7.0	4.1
	50-99명	(40)	74.3	51.1	46.4	22.5	5.7	.0
	100-199명	(23)	93.7	61.4	23.8	14.8	4.1	2.2
	200-499명	(40)	87.8	69.3	28.7	10.5	3.7	.0
	500명 이상	(46)	81.0	51.2	39.2	23.2	5.4	.0
교단	장로교(합동)	(51)	84.9	47.8	28.8	31.7	6.8	.0
	장로교(통합)	(51)	76.7	70.9	38.3	7.7	3.0	3.3
	기타 장로교	(29)	85.5	67.2	20.3	21.9	5.1	.0
	기타 교단	(71)	90.1	49.6	38.7	14.0	6.2	1.4
정치적 성향	보수	(79)	88.4	54.7	30.3	22.7	4.0	.0
	중도	(60)	86.6	58.5	29.2	17.2	6.8	1.7
	진보	(62)	78.2	58.6	41.7	12.9	5.9	2.7

첨부2: 설문지



사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만)

- 1) 남자 2) 여자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1) 18세 이하 --> 조사중단
2) 19-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SQ3. 귀하가 사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4. 귀하가 사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만)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SQ5. 실례지만 귀하가 믿는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만)

- 1) 개신교 2) 불교 3) 가톨릭 4) 기타종교 5) 종교 없음

SQ6. 귀하는 평소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 1) 출석교회가 있다
2) 기독교는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SQ7.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만)

- 1) 남성 2) 여성

1. 귀하가 생각하실 때 목사가 하지 않아야 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R 1위 : _____ 2위 : _____

- 1) 음주 흡연

- 2) 성범죄 / 성적 스캔들
- 3) 교단 정치
- 4) 이혼
- 5) 골프, 수입차 등 사치 이미지가 있는 행동
- 6) 거짓말
- 7) 부정직한 재정 사용 / 돈 욕심
- 8) 설교 표절
- 9) 이념 편향적 설교 /정치적 행위
- 10) 기타(_____)

2. 다음은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각각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단수응답) R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 다
1) 성희롱은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	1	2	3	4	5
2) 성희롱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3)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다	1	2	3	4	5
4)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	1	2	3	4	5
5)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	1	2	3	4	5
6) 단톡방, 문자메시지, SNS 등에 상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1	2	3	4	5
7) 교회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그 피해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다음은 성폭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응답) R

항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모르 겠다
1)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1	2	3	4	5
2)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	2	3	4	5
3)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폭력(강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2	3	4	5

4)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	1	2	3	4	5
5) 여자가 '싫다' 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1	2	3	4	5
6)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1	2	3	4	5

4. 귀하께서는 출석하시는 교회의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여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여성이 약간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녀 평등	남성이 약간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1	2	3	4	5

5.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의 경우, 일반사회와 비교해 여성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단수응답)

- 1) 일반사회 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 2) 일반사회 보다 여성이 더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 3) 일반사회와 비슷하다
- 4) 잘 모르겠다

6.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상태입니까? (단수응답)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모르 겠다
1)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1	2	3	4	5
2)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	1	2	3	4	5
3)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	1	2	3	4	5
4)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1	2	3	4	5

7.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거의 하지 않는다
- 2) 별로 하지 않는다
- 3)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 4) 자주 하는 편이다
- 5) 모르겠다

8. 귀하의 출석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또는 강의나 교회생활 메시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단수응답) R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어느정 도 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 한다	모르 겠다
1)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1	2	3	4	5

2) 여성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1	2	3	4	5
3) 교회에서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1	2	3	4	5
4)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1	2	3	4	5
5)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1	2	3	4	5
6)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된다	1	2	3	4	5
7) 남성은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여서 조심해야 한다	1	2	3	4	5

9.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단수응답)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 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 다	매우 동의한 다	모르 겠다
1)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1	2	3	4	5
2)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하는게 좋다	1	2	3	4	5
3)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10. (문9-2에서 1,2번 3,4번 응답자) 교회에서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 1)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3)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4)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 5) 기타(_____)
- 9) 모르겠다

11. 귀하의 출석 교회에서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 약간 필요하다
- 4) 매우 필요하다
- 5) 모르겠다

12. 귀하는 출석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 1) 출석교회에서 받은 적 있다

- 2) 출석교회는 아니지만 기타 교회관련 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다
3) 받아본 적 없다

13. 귀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 또는 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교인이 피해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R
1) 있다 2) 없다

13-1. (문13의 1 응답자,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단수응답)

- 1) 목사/교역자 2) 장로 등 교회 중직자 3) 일반교인
4) 청년부 리더 5) 기타()

항목	13. 피해경험(직/간접)		
	있음	없음	가해자 (13-1)
1) 가벼운 성적 농담(섹시하다는 표현 등)	1	2	_____
2) 짙은 성적 농담(음담패설 등)	1	2	_____
3)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1	2	_____
4)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1	2	_____
5)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	1	2	_____
6) 심한 신체 접촉(엉덩이 만지기, 가슴 껴안기 등)	1	2	_____
7)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만남 요구 등)	1	2	_____
8)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1	2	_____

13-2. 그럼, 귀하는 최근 3년 동안 지난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본인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가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R

항목	13-2. 가해 경험	
	있음	없음
1) 가벼운 성적 농담(섹시하다는 표현 등)	1	2
2) 짙은 성적 농담(음담패설 등)	1	2
3)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 사용	1	2
4)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공개적 질문	1	2
5) 가벼운 신체 접촉(어깨 두드리기, 손 만지기 등)	1	2
6) 심한 신체 접촉(엉덩이 만지기, 가슴 껴안기 등)	1	2
7)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 (데이트 요구 등)	1	2
8) 본인(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1	2

14.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잘 갖춰져 있다
- 2)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다
- 3) 별로 갖춰져 있지 있지 못한 편이다
- 4)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하다
- 9) 잘 모르겠다

14-1. (문14의 3,4번 응답)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중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중복응답) R

- 1)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 같다
- 3)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한 것 같다
- 4)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다
- 5) 교회 내 사건을 자꾸 교회 밖(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 6)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
- 7) 사건을 덮는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
- 8) 기타(_____)

15. 귀하는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 2)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 3)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 4) 잘 모르겠다

16. 그럼 목사가 배우자 이외에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 2)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 3)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 4) 개인사이므로 상관없이 묵회할 수 있다
- 5) 잘 모르겠다

17. 귀하는 목사가 배우자 이외에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목사의 책임이 크다
- 2) 이성 성도의 책임이 크다
- 3) 둘 다
- 4)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D1.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단수응답)

- 1) 예 2) 아니오

D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 소규모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자 등)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4) 기능/숙련공 (운전자, 선반, 목공 등 숙련공)
5) 일반 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항해사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위치, 교장)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9) 가정주부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10) 학 생
11) 무 직
12) 기타

D3. 귀하께서는 교회에 맡으신 역할이나 봉사활동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있다 2) 없다

D4. 귀하께서는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응답)

- 1) 장로 2) 권사(여자) 3) 안수집사/권사(남자) 4) 집사 5) 일반성도

D5.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출석 성도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청년 포함 장년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단수응답)

- 1) 30명 미만 2) 30-49명 3) 50-99명 4) 100-299명
5) 300-499명 6) 500-999명 7) 1,000-2,999명 8) 3,000명 이상

D6.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가 속한 교단은 어디입니까?(단수응답)

- 1) 장로교(합동) 2) 장로교(통합) 3) 장로교(고신)
4) 장로교(기장) 5) 장로교(백석) 6) 장로교(합동개혁)
7) 기타 장로교 8) 성결교 9) 순복음
10) 감리교 11) 기타() 99) 잘 모르겠다

D7. 귀하 신앙의 정도는 다음 4가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단수응답)

1단계 :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 고백이나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다.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교회에도 규칙적으로 출석하려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3단계 : 나는 예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 나는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편이다.

4단계 : 신앙은 나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교회에서의 봉사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

D8.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보수 2) 다소 보수 3)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 4) 다소 진보 5) 매우 진보

- 사회인식에 대한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내 양성평등 의식 조사(목회자 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교회내 성 인식에 대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목사님의 의견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SQ1. 목사님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단수응답)

- 1) 담임목사 2) 부목사
- 3) 설교목사/협력목사 4) 기타

SQ2. 목사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단수응답)

- 1) 남자 2) 여자

SQ3. 목사님의 연세(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1) 39세 이하 2) 40대 3) 50대 4) 60세 이상

SQ4. 목사님의 시무 교회 위치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단수응답)

- 1) 서울 2) 경기/인천
- 3) 대전/충청/세종 4) 광주/전라
- 5) 대구/경북 6) 부산/울산/경남
- 7) 강원/제주 8) 해외

SQ5. 목사님의 시무 교회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단수응답)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SQ6. 목사님의 현재 가정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부부 동거
- 2) 부부 별거(주말부부 포함)
- 3) 이혼 4) 사별
- 5) 미혼 6) 기타

1.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목사가 하지 않아야 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R 1위 : _____ 2위 : _____

- 1) 음주 흡연
- 2) 성범죄 / 성적 스캔들

- 3) 교단 정치
- 4) 이혼
- 5) 골프, 수입차 등 사치 이미지가 있는 행동
- 6) 거짓말
- 7) 부정직한 재정 사용 / 돈 욕심
- 8) 설교 표절
- 9) 이념 편향적 설교 / 정치적 행위
- 10) 기타(_____)

2. 목사님께서서는 시무하시는 교회의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여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여성이 약간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녀 평등	남성이 약간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남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1	2	3	4	5

3. 목사님 교회의 경우, 일반사회와 비교해 여성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단수응답)

- 1) 일반 사회 보다 여성이 더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 2) 일반 사회 보다 여성이 더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
- 3) 일반 사회와 비슷하다
- 4) 잘 모르겠다

4. 목사님 교회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상태입니까? (단수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다
1)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남성들이 맡고 있다	1	2	3	4	5
2)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	1	2	3	4	5
3)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사역한다	1	2	3	4	5
4) 교회 내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1	2	3	4	5

5. 목사님께서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단수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 다	매우 동의한 다	모르 겠다
1)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1	2	3	4	9
2)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구분 하는 게 좋다	1	2	3	4	9
3) 양성 평등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2	3	4	9

6. (문5-2에서 1,2번 3,4번 응답자) 교회에서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R

- 1)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3) 남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4)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 5) 기타(_____)
- 9) 모르겠다

7. 목사님께서서는 평소 설교하실 때 남녀 평등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2)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3) 잘 모르겠다

8. 그럼, 설교하실 때 목사님도 모르게 남녀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거의 하지 않는다 2) 별로 하지 않는다
- 3) 어느정도 하는 편이다 4) 자주 하는 편이다 5) 모르겠다

9. 창세기 2장의 돕는 베필과 관련, 목사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단수응답)

- 1)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므로 여성은 남성을 도와야 한다
- 2) 돕는 베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남녀가 서로 돕는 관계임을 드러낸다
- 3) 기타 (_____)

10. 사무엘하서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과 관련, 목사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다음 중 무엇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1)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윗이 밋세바를 취한 것은 이해될 수도 있다.
- 2) 다윗의 잘못은 이후 우리야를 죽인 것에 있다
- 3)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위계(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으므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도 충분히 회개하면 이후에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
- 5) 기타 (_____)

11. 목사님이 속한 교단(총회)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2. 목사님은 그동안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1) 교단의 상급기관(노회, 총회 등)으로부터 받은 적 있다
- 2) 교단 외 기독교 단체로부터 받은 적 있다
- 3) 기독교 단체 외 일반 단체로부터 받은 적 있다
- 4) 받은 적 없다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 약간 필요하다
- 4) 매우 필요하다
- 5) 잘 모르겠다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 약간 필요하다
- 4) 매우 필요하다
- 5) 잘 모르겠다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 1) 이미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교육으로 충분하다
- 2)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
- 3)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
- 4)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페미니즘 같은 여성 중심적 이미지가 있다
- 5) 현재 우리교회 문화와 잘 안맞는 것 같다
- 6) 그냥 하고 싶지 않다
- 7) 기타 ()

- 1)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
- 2) 목회자 개인의 영성관리
- 3) 교단 내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지침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
-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건처리

- 6) 가해자 치리 이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
- 7) 기타 ()

18.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매우 잘 갖춰져 있다
- 2)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다
- 3) 별로 갖춰져 있지 있지 못한 편이다
- 4)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하다
- 9) 잘 모르겠다

19. (문18의 3,4번 응답)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2순위 필수) R 1위 : _____ 2위 : _____

- 1)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 같다
- 3)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한 것 같다
- 4)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 같다
- 5) 교회 내 사건을 자꾸 교회 밖(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 6)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
- 7) 사건을 덮는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
- 8) 기타 ()

20. 귀하는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 2)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 3)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 4) 잘 모르겠다

21. 그럼 목사가 배우자 이외에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 2)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
- 3)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 4) 개인사이므로 상관없이 묵회할 수 있다
- 5) 잘 모르겠다

22. 귀하는 목사가 배우자 이외에 이성 교인과 불륜, 즉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목사의 책임이 크다
- 2) 이성 성도의 책임이 크다
- 3) 둘 다
- 4) 잘 모르겠다

23. (SQ6의 1, 2 응답자, 현재 배우자가 있는 목사에게만)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이성 성도가 목사님께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단수응답)

-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23-1. (문23의 1번 응답, 있다면)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R

- 1) 모른 채 했다
2) 적극적으로 피했다/거절했다
3) 대화를 통해 부적절성을 설득했다
4) 배우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5) 친구 목사 등 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6)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했다
7) 기타(_____)

24. (SQ6의 1, 2 응답자, 현재 배우자가 있는 목사에게만)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이성 성도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R 1위 : _____ 2위 : _____

- 1)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
2) 단독 심방하지 않는다
3)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묵상 기도 말씀 등 자기 훈련을 한다
4)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 많이 듣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 않는다
5) 특정 이성에 과도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6) 기타(_____)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D1. 목사님의 시무 교회는 시무 교회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대학생 이상 장년 출석교인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단수응답)

- 1) 29명 이하 2) 30-49명
3) 50-99명 4) 100-199명
5) 200-499명 6) 500-999명
7) 1000명 이상

D2. 목사님 교회가 속한 교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단수응답)

- 1) 장로교(합동) 2) 장로교(통합)
3) 장로교(고신) 4) 장로교(기장)
5) 장로교(백석) 6) 장로교(합동개혁)
7) 기타 장로교 8) 성결교
9) 순복음 10) 감리교
11) 침례교 12) 성공회

- 13) 루터회 14) 구세군
15) 독립교단 16) 기타()

D3. 정치적으로 목사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

- 1) 매우 보수적이다
- 2) 다소 보수적인 편이다
- 3)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적이다
- 4) 다소 진보적인 편이다
- 5) 매우 진보적이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소개

2018년은 반성폭력 운동에 뜻 깊은 해입니다. 성폭력은 수치스러운 일,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지던 굳건한 사회 통념을 깨고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들불같이 일어난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제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우리를 예전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안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 당사자 상담 및 사건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개소했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안에 묻힌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피해 당사자와 함께 성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 활동 소개

1. 교회 성폭력 생존자 지원

: 심리 상담지원 / 법률, 의료 등 사건지원 / 교회 성폭력 말하기 대회 및 생존자 자조모임

2. 교회 법과 제도 개선

: 성폭력 실태조사 / 교단 판례 분석 등 사례연구 / 성폭력 특별법 제정 및 헌법 개정운동

3. 성평등한 문화 정착

: 성폭력 예방 교육 기획 및 실행 / 대처 매뉴얼 제작 / 대중 강연 기획

■ 우리의 다짐

1.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중시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습니다.
2. 교회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회의 가부장성에 도전하며, 우리의 통념을 점검합니다.

■ 후원안내

- 후원 계좌: (세금공제) 국민은행 343601-04-122703 (한빛누리(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일반계좌) 국민은행 750601-01-276306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후원 문의: 02-364-1994 / yourvoice@yourvoice.or.kr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9길 10-7 2층
- 전 화: 02-364-1994(업무용), 02-365-1994(상담용)
- 팩 스: 02-313-1994
- 이 메 일: yourvoice@yourvoice.or.kr
- 홈페이지: www.yourvoice.or.kr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결과발표 포럼

발	행	일		2021년 11월 18일
발	행	인		강호숙, 박유미, 방인성
연	구	원		권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박유미(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 홍보연(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원장)
편	집	인		박신원, 김하은
발	행	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여론조사	수행기관			지앤컴리서치



기독교반성폭력센터